

국토녹화 50주년
대한민국
100 대
명품숲



신림청

The 50th anniversary of
national land forestation by
the Korea Forest Service

Korea's
100 most
beautiful
forests



올해는 6·25전쟁 등으로 황폐화되었던 산림을 푸른 숲으로 되살리기 위해 1973년 국토녹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어 ‘한강의 기적’에 이어 ‘녹색의 기적’으로 불리는 현재의 숲으로 일구어온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반세기 동안 국민과 함께 가꾼 숲을 누구나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선정하여 알려드리오니, 국토녹화의 노력이 담긴 아름다운 숲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3년 11월 1일

산림청

국토녹화 50주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발행인 산림청장

발행일 초판인쇄 2023년 11월 1일 2판인쇄 2024년 1월 1일

발행처 산림청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전화 042)481-4105(산림자원과)

제작·인쇄 사람과 산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307호 | 전화 02)2082-8833

국토녹화 50주년 대한민국 100 대 명품숲

인천광역시·경기도

- 2 가평 자하기 푸른숲
- 3 양평 무악리 낙연숲
- 4 양평 상산리 자연나무
- 35 이천 문인도 홍릉고사·구사보
- 38 수원 팔교산 솔향기숲
- 77 광릉숲
- 78 광주 남하산사 신나무숲
- 79 군포 덕교계 당숲

서울특별시

- 30 서울 북안사 역리숲
- 31 서울 우이도 솔밭공원 신나무
- 32 서울 이왕지리산
- 75 홍릉숲

산림경영형

산림휴양형

산림보존형

충청북도

- 12 음성 위도사 자재나무숲
- 13 충주 오척사 신나무숲
- 14 충주 이도사 이재의 숲
- 48 단양 조령 예리숲
- 49 단양 황척사 바위골
- 50 보은 춘봉암프스휴양리숲
- 51 보은 송리사 말티재숲
- 88 단양 산백사 천도계곡
- 90 충주 적보사 씨앗숲

대전광역시·충청남도

- 15 청양 시암리 사리경연
- 26 대전 고봉산 도시숲
- 52 부여 마수사지여향암리 누수
- 53 서천 가리사 해송
- 76 대전 계사도 리기대신나무
- 91 태안 송리리 신나무

전라북도

- 16 고창 무수사 편백
- 54 지암 오장사 갈매나무
- 62 무주 덕유산 특암가문비
- 63 무주 영천마을 신나무
- 94 익산 발소리 하얀
- 95 지암 하춘마을

제주특별자치도

- 27 서귀포 서영아리로를 삼나무·편백
- 28 서귀포 한남 시리나무
- 29 제주 조은노 기암을 삼나무·편백
- 72 서귀포 이슬아리를 삼나무
- 73 서귀포 치유의 숲
- 74 제주 정물자연휴양림 자생의 숲

전라남도

- 17 강진 명초 휴터
- 18 강진 서기사 편백
- 19 수천 백미사 편백
- 55 나주 전남 도미의 숲
- 56 나주 유제림 순정
- 67 장성 초령사 편백
- 58 하수 무등사 편백
- 59 하수 편백과 참나무
- 96 진흥 천과사 도배나무
- 97 함평 상곡리 모평마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 1 울주 소호리 참나무
- 95 거창 북산 자나무
- 98 이령 응봉사 황근비자
- 99 부산 서기리 삼림유지 편백
- 94 부산 화령사 편백
- 97 울주 시불사 연백
- 65 거제 계룡사 편백
- 66 남해 봉화리 편백
- 67 사천 가사지여향암 편백
- 68 사천 다솔사 명상
- 69 진주 지암향반 물백
- 70 창원 대장동 편백
- 71 한천 가야산 소리길
- 100 함양 상봉산 금강신나무

경상북도

- 20 김천 단지봉
- 21 봉화 우곡리 낙연
- 22 봉화 천오사 생리경연
- 23 영덕 천수정나무
- 24 영안 김마사 금강신나무
- 60 안동 하회마을 마송정
- 61 영덕 박영리 메타세쿼이아
- 62 영안 죽파리 자재나무
- 63 영주 두서리 마식치
- 64 청송 황정리 자재나무
- 98 울릉 성이봉 원시
- 99 울진 소광리 금강신나무

강원특별자치도

- 5 강릉 대관령 금강신나무
- 6 영월 화백사 하늘
- 7 평창 대관령 특수조림
- 8 평창 봉평 자나무
- 9 평창 하아미 금강신나무
- 10 홍천 가리사 자나무
- 11 횡성 삼아리 낙연
- 39 강릉 해마 신나무
- 40 고성 어척리 금강신나무
- 41 동해 천교도 도시
- 42 양구 DM7 편백
- 43 양구 양지목 솔나무
- 44 영월 태하사 경관
- 45 인제 배태사 아차기리
- 46 인제 원대리 자재나무
- 47 정선 지장사 타계의 숲
- 80 고성 함무봉
- 81 동해 두타사 무류계곡
- 82 삼척 영경리 주경리 신나무
- 83 영월 남흥사 신나무
- 84 인제 고배령 생태
- 85 춘천 반곡리 굴채나무
- 86 평창 박왕사 생태
- 87 평창 원정사 자나무
- 88 홍천 계방사 우두령

산림경영형 조림 및 숲가꾸기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경영한 숲

- 001 울주 소호리 참나무숲 Ulju Sohori Oak Forest
- 002 가평 잣향기 푸른숲 Gapyeong Korean Pine Scented Green Forest
- 003 양평 무왕리 낙엽송숲 Japanese Larch Forest in Muwangri
- 004 양평 삼산리 잣나무숲 Yangpyeong Korean Pine Forest
- 005 강릉 대관령 금강소나무숲 Daegwallyeong Geomgang Korean Red Pine Forest
- 006 영월 함백산 하늘숲 Hambaeksan Sky Forest
- 007 평창 대관령 특수조림지 Daegwallyeong Special Forest Site
- 008 평창 봉평 잣나무숲 Bongpyeong Korean Pine Forest
- 009 평창 하안미 금강소나무숲 Geomgang Korean Red Pine Forest in Haanmiri
- 010 홍천 가리산 잣나무숲 Garisan Korean Pine Forest
- 011 횡성 상안리 낙엽송숲 Japanese Larch Forest in Sanganri
- 012 음성 원통산 자작나무숲 Wontongsan East Asian White Birch Forest
- 013 충주 오청산 소나무숲 Ocheongsan Korean Red Pine Forest
- 014 충주 인등산 인재의 숲 Forest of Talented People
- 015 청양 신원리 산림경영숲 Management Forest in Sinwonri
- 016 고창 문수산 편백숲 Munsusan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 017 강진 명주 초당숲 Chodang Forest
- 018 강진 서기산 편백숲 Seogisan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 019 순천 백이산 편백숲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on Baekisan
- 020 김천 단지봉숲 Danjibong Forest
- 021 봉화 우구치 낙엽송숲 Uguchi Japanese Larch Forest
- 022 봉화 청옥산 생태경영숲 Cheongoksan Ecological Management Forest
- 023 영덕 청수전시숲 Changsu Exhibition Forest
- 024 영양 검마산 금강소나무숲 Geommasan Geomgang Korean Red Pine Forest
- 025 거창 북상 잣나무숲 Buksang Korean Pine Forest
- 026 의령 응봉산 황금부자숲 Golden Rich Forest of Eungbongsan
- 027 서귀포 서영아리오름 삼나무·편백 숲 Seoyeongarioreum Forest

028 서귀포 한남 사려니오름숲 Saryeoni Forest

029 제주 족은노꼬매오름 삼나무·편백 숲 Jokeunnokomeoreum Forest

산림휴양형 다양한 산림휴양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한 숲

030 서울 북악산 열린숲 Bukaksan Open Forest

031 서울 우이동 솔밭공원 소나무숲 Korean Red Pine forest in Solbat Park

032 서울 인왕자락숲 Inwangsan Jarakgil Forest

033 부산 성지곡 삼림욕장 편백숲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in Seongjigok

034 부산 황령산 편백숲 Hwangnyeongsan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035 인천 무의도 호룡곡산·국사봉숲 Horyonggoksan·Guksabong Forest

036 대전 고봉산 도시숲 Gobongsan Urban Forest

037 울주 신불산 억새숲 Sinbulsan Purple Maiden Silvergrass Forest

038 수원 광교산 솔향기숲 Korean Red Pine Fragrance Forest of Gwanggyosan

039 강릉 해안 소나무숲 Forest on Gangneung Coast

040 고성 어천리 금강소나무숲 Goseong Geomgang Korean Red Pine Forest

041 동해 천곡동 도시숲 Cheongokdong Urban Forest

042 양구 DMZ 펀치볼숲 DMZ Punchbowl Forest

043 양구 양지말 솔내음숲 Yangjimal Solnaeum Forest

044 영월 태화산 경관숲 Taehwasan Scenic Forest

045 인제 방태산 아침가리숲 Bangtaesan Achimgari Forest

046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Inje East Asian White Birch Forest

047 정선 지장산 단체의 숲 Jijangsan Group Forest

048 단양 죽령 옛길숲 Jukryeong Old Road Forest

049 단양 황정산 바위꽃숲 Hwangjeongsan Rock Flower Forest

050 보은 충북알프스휴양림숲 Alps Natural Recreation Forest

051 보은 속리산 말티재숲 Maltijae Forest

- 
- 052 부여 만수산자연휴양림 노송숲 Old Korean Red Pine Forest in Mansusan
- 053 서천 희리산 해송숲 Heerisan Black Pine Forest
- 054 진안 운장산 갈거계곡숲 Galgeo Valley Forest
- 055 나주 전남 도민의 숲 Jeonnam Provincial Forest
- 056 보성 윤제림 숲정원 Yunjerim Garden Forest
- 057 장성 축령산 편백숲 Chungnyungsan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 058 화순 무등산 편백숲 Mudeungsan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 059 화순 편백과 참나무숲 Japanese False Cypress and Oak Forest of Hwasun
- 060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숲 Mansongjeong Forest in Hahoe Village
- 061 영덕 벌영리 메타세쿼이아숲 Dawn-Redwood Forest in Beolyeongri
- 062 영양 죽파리 자작나무숲 East Asian White Birch Forest of Jukpari
- 063 영주 두산리 마실치유숲 Masil Healing Forest
- 064 청송 화정리 자작나무숲 East Asian White Birch Forest in Cheongsong
- 065 거제 계룡산 편백숲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in Gyeryongsan
- 066 남해 봉화리 편백숲 Namhae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 067 사천 각산자연휴양림 편백숲 Gaksan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 068 사천 다솔사 명상숲 Dasolsa Meditation Forest
- 069 진주 진양호반 물빛숲 Mulbit Forest in Jinyang Lake
- 070 창원 대장동 편백숲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in Daejangdong
- 071 함천 가야산 소리길숲 Gayasan Sorigil Forest
- 072 서귀포 이승이오름 삼나무숲 Iseongioreum Japanese Cedar Forest
- 073 서귀포 치유의 숲 Seogwipo Healing Forest
- 074 제주 절물자연휴양림 장생의 숲 Jangsaeng Forest of Jeolmul Natural Recreation

산림보전형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건강하게 보전한 숲

- 075 홍릉숲 Hongneung Forest
- 076 대전 계산동 리기테다소나무숲 Yuseong Rigitaeda Pine Forest
- 077 광릉숲 Gwangneung Forest
- 078 광주 남한산성 소나무숲 Korean Red Pine Forest of Namhansanseong
- 079 군포 덕고개 당숲 Deokgogae Dang Forest
- 080 고성 향로봉숲 Hyangnobong Forest
- 081 동해 두타산 무릉계곡숲 Mureung Valley Forest
- 082 삼척 영경묘·준경묘 소나무숲 Korean Red Pine Forest of Yeonggyeongmyo·Junggyeongmyo
- 083 영월 법흥사 소나무숲 Korean Red Pine Forest of Beopheungsa
- 084 인제 곰배령 생태숲 Gombaeryeong Forest
- 085 춘천 방하리 굴참나무숲 Oriental Cork Oak Forest in Banghari
- 086 평창 발왕산 생태숲 Balwangsan Ecological Forest
- 087 평창 월정사 전나무숲 Woljeongsang Needle Fir Forest
- 088 홍천 계방산 운두령숲 Unduryeong Forest
- 089 단양 소백산 천동계곡숲 Cheondong Valley Forest
- 090 충주 적보산 씨앗숲 Jeokbosan Seed Forest
- 091 태안 승연리 소나무숲 Anmyeondo Korean Red Pine Forest
- 092 무주 덕유산 독일가문비숲 Deogyusan Norway Spruce Forest
- 093 무주 명천마을 소나무숲 Korean Red Pine Forest in Myeongcheon Village
- 094 임실 방수리 하안숲 Bangsuri Riverside Forest
- 095 진안 하초마을숲 Hacho Village Forest
- 096 장흥 천관산 동백나무숲 Common Camellia Forest of Cheongwansan
- 097 함평 상곡리 모평마을숲 Mopyeong Village Forest
- 098 울릉 성인봉 원시숲 Seonginbong Primeval Forest
- 099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 Uljin Geomgang Korean Red Pine Forest
- 100 함양 삼봉산 금강소나무숲 Sambongsan Geomgang Korean Red Pine Forest

일러두기

♣ ‘100대 명품숲’은 산림경관을 잘한 숲(산림경영형), 휴양을 즐기기에 좋은 숲(산림휴양형), 보전 가치가 높은 숲(산림보전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배치하였다.

♣ 숲의 개방여부를 기본 정보란에 표기하였으나, 산불조심기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임도를 경유하는 경우 차량통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숲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기 바란다.

♣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는 책이기에 숲가꾸기 관련 전문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순화하였다.

♣ 숲의 나무 가슴높이 지름과 높이는 평균치이며, 면적도 정밀한 측정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숲이 위치한 구역을 초록색으로 나타내고, 주요 도로와 지명, 건물 등을 간략하게 표기했다. 더 정확한 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지도나 전문등산지도 등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지도 범례

-  도로
-  철도
-  산
-  주요 지명 및 시설
-  마을
-  휴양림
-  명품숲
-  숲탐방안내소
-  내비게이션 주소

사유림 협업경영의 모범사례

001

울주 소호리 참나무숲



주요수종 상수리나무·전나무·잣나무 면적 5.9ha 조림연도 1974년

소유 사유림(개인)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울산광역시산림조합 052)277-7396,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052)911-100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산192

울산 소호리 참나무숲은 해발 610~970m 지대의 남향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상수리 나무 천연림으로 대한민국 산림경영의 산 역사를 증언하는 숲이다. 전국에서 산주, 공무원, 산림전문가, 임학도들이 줄지어 견학할 정도로 사유림 산림경영 1번지라고 평가받는다.

소호리 참나무숲은 1974년 시작한 한독국제산림협력사업의 천연림 보육 모델 숲이다. 이를 기념하여 입구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또, 독일 헤센주 영림서장 게트너 박사가 가지치기한 나무 아래에 작은 비석을 세워 놓았다. 1970년대 소호리 산림경영협업체와



울주 소호리 참나무숲



한독산림경영사업기구가 협력하여 현재의 우람한 산림을 조성하였다.

소호리 상수리나무는 나이 50년 이상이고 가슴 높이 지름 20cm, 높이 16m, 임목축적은 전국의 나무 평균을 훨씬 넘는 258m³/ha이다.

이 숲을 조성할 때 상수리나무 아래에 잣나무와 전나무를 심어서 상수리나무가 곧게 뻗어나도록 유도했다.

소호리 참나무숲에서는 산림 교



NAVI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로 95 ★ 95 Soho-ro, Sangbuk-myeon, Ulju-gun, Ulsan



육, 숲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근에는 광대한 영남알프스 등산로가 인접하여 숲길 걷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Ulju Soho-ri Oak Forest

95, Soho-ro, Sangbuk-myeon, Ulju-gun, Ulsan

The Soho-ri Oak Forest in Ulju is an important forest with a historical history of the national land greening project 50 years ago. Currently, the cooperative conducts field trips and education to the 100-year forest, forest experience, meditation, carpentry, fair travel, and living in Soho Village programs at the Soho-ri Oak Forest. The Yeongnam Alps hiking trail is adjacent to this forest, making it fantastic to walk through the forest path.



걷고 사색하고 치유하는

002

가평 잣향기 푸른숲



주요수종 잣나무 면적 153ha 조림연도 193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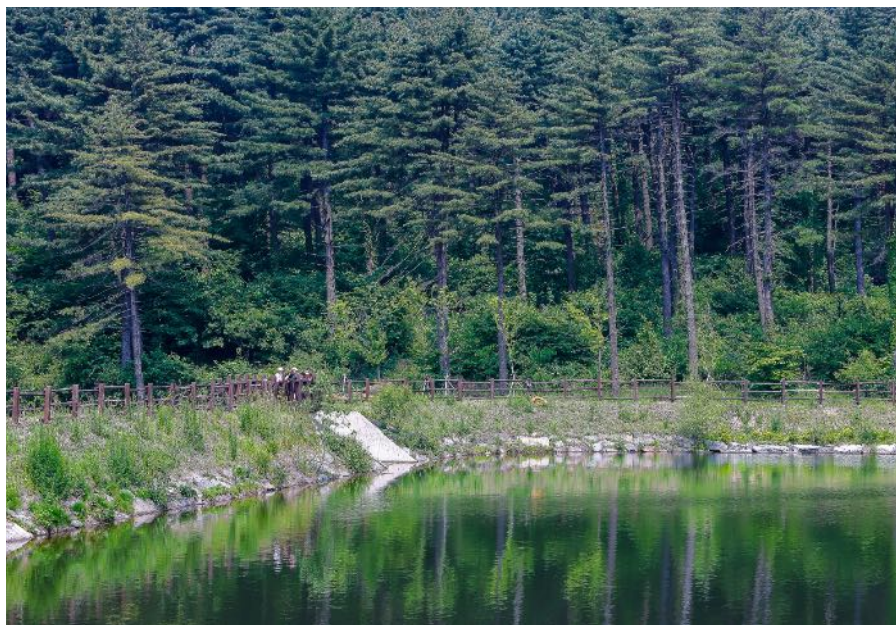
소유 도유림(경기도)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031)8008-6762,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031)8008-6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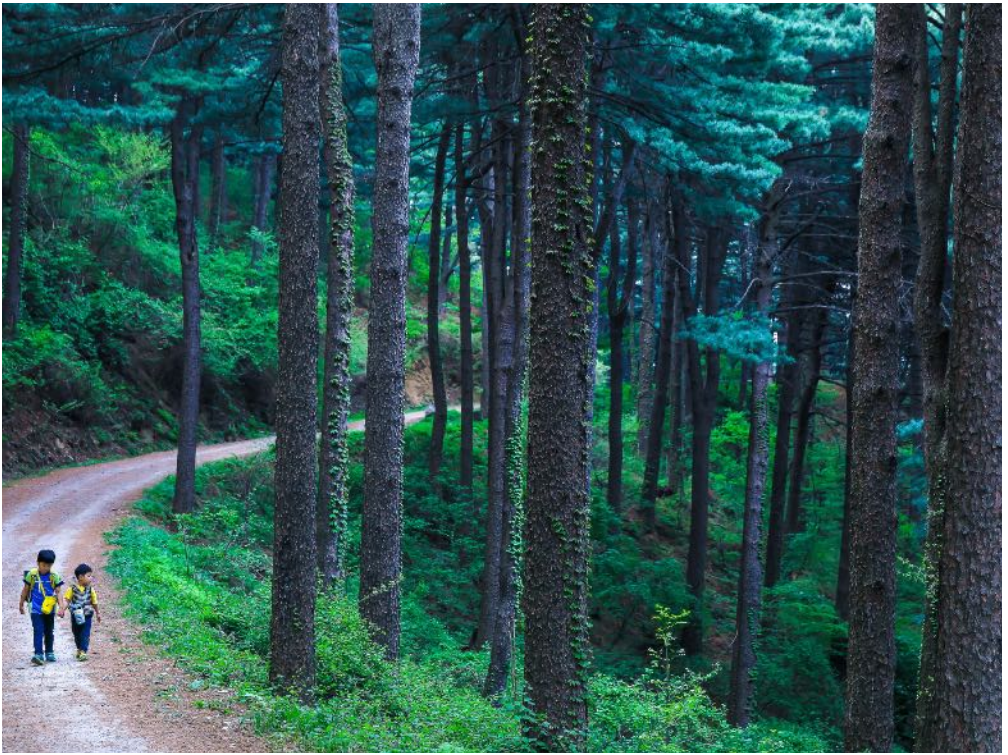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산92-1

가평 잣향기푸른숲은 축령산(886m)과 서리산(832m) 자락의 450~600m 높이에 자리 잡고 있다. 축령산은 태조 이성계가 사냥을 나왔다가 산세가 웅장하고 신비해서 산신에게 제사를 올린 산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비룡산이라고도 한다. 서리산은 북서쪽 응달진 급경사에 서리가 늘 녹지 않고 남아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5월에 만개하는 철쭉 군락이 유명하다. 잣향기푸른숲은 가평 8경 중 제7경에 속하는 곳이다.

가평 잣향기푸른숲은 1930년대 조림되었으며, 나이 80년 이상의 잣나무 5만여 그루가 분포하고 있다. 가슴높이 지름 36cm, 높이 25m, 임목축적 250m³/ha의 잣나무는 형질



가평 잣향기 푸른숲



이 우수하여 1964년 잣나무 채종림(우량한 씨앗을 기르고 채집하는 숲)으로 지정되었다. 2014년 잣향기푸른숲으로 이름 붙여져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잣향기푸른숲은 걷고 사색하고 치유하는 숲이다. 사계절 푸르른 잣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 자연의 넉넉한 생명력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잣향기푸른숲은 방문자센터, 숲 체험, 산림치유 프로그램, 목공 체험, 유아 숲 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한다. 또한 잣나무 문화를 알리는 축령백립관, 방문자센터, 명상 공간, 기체조 공간 등의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산책로 구간에는 화전민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1960~70년대에 이곳에 화전민이 살았는데, 그 마을 터에 너와집, 귀틀집, 솥가마 등을 재현해 놓아서 옛 화전민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어린이도 걷기 좋은 유치원생 코스(1.13km), 조금 가파른 성인 코스(4.05km), 평지길 편도, 산책길, 둘레길, 피톤치드길, 하늘호수길 등 여러 탐방로가 조성돼 있다.



NAVI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 289-146 ★ 289-146 Chungnyeong-ro, Sang-myeon, Gapyeong-gun, Gyeonggi-do

인근 주민들은 잣나무 부산물을 상품으로 생산하는 등 소득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Gapyeong Korean Pine Scented Green Forest

289-146, Chungnyeong-ro, Sang-myeon, Gapyeong-gun, Gyeonggi-do

Gapyeong Korean Pine Scented Green Forest is a forest that can walk, contemplate, and heal. There are 50,000 Korean Pine over 80 years old. The visitor center provides various services such as forest experience, forest healing program, woodworking experience, and infant forest experience. Furthermore, additional facilities such as Chukryeong White Forest Hall, a visitor center, and a meditation space are provided to promote Korean Pine tree culture. There are several trails, including Phytoncide Road and Sky Lake Road.



경제림을 키우기 위한 오랜 땀의 결실

003

양평 무왕리 낙엽송숲



주요수종 낙엽송 면적 174ha 조림연도 1964년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수원국유림관리소 031)771-4892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산143

고래산(543m)은 그다지 높지 않은 산으로 경기도 양평군과 여주시의 경계에 있다. 산 지명은 곡창지대인 여주 들녘에 마치 너른 바다의 고래등처럼 솟아 있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 남동쪽 산기슭에 위치한 신라시대 대사찰로 알려진 고달사에서 유래되어 조선시대에 고달산이라고 불리다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설 등이 있다.

고래산 기슭에 위치한 무왕리 낙엽송숲은 1964년부터 약 174ha 면적을 조림한 인공림이다. 낙엽송은 가슴높이 지름 38cm, 높이 25m, 임목재적 200m³/ha, 나이 51~60년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규모화·집단화된 인공림으로 집중적인 경영·관리가 가능한 숲이



양평 무왕리 낙엽송숲



다. 산림청은 무왕리 낙엽송숲을 숲의 주기능을 목재생산림으로 지정하여 경제림육성단지로 관리하고 있다. 2011년에 120ha, 2019년에 30ha 면적에 걸쳐 수익 숲아베기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시행하여 생장 상태가 아주 좋다.

무왕리 낙엽송숲은 무왕3리에서 임도(경기옛길 평해길 제8길 고래산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건장한 줄기를 뻗어올리고 가지를 펼쳐 질푸른 숲을 이룬다. 마치 고래가 일으키는 파도처럼 산비탈을 따라 일렁이며 보는 이를 압도한다. 가을 무왕리 낙엽송숲도 장관이다. 아름답리나무가 잎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바람에 유유자적 흔들리는 모습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깊은 위로와 울림을 전해준다.

무왕리 낙엽송숲과 이어진 경기옛길은 역사적 고증을 거쳐 지역 문화유산을 도보길로



NAVI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896-3 ★ 896-3, Muwang-ri, Jipyong-myeon, Yangpyeong-gun, Gyeonggi-do

연결한 역사문화탐방로이다. 모두 6개의 경기옛길이 조성되었으며, 그중 평해길은 구리에서 양평으로 이어지는 133km 구간이다. 평해길은 서울에서 관동 지역으로 연결되는 길로서 크게 망우왕숙길, 미음나루길, 정약용길, 두물머리나루길, 물끝길, 거무내길, 지평향교길, 고래산길로 나뉘며, 무왕리 낙엽송숲에 들르면 고래산길 구간(석불역 — 고래산입도 — 구둔역, 총 16km)을 함께 걸어보기를 권한다.

Japanese Larch Forest in Muwang-ri,

95, Soho-ro, Sangbuk-myeon, Ulju-gun, Ulsan

The average height of the Japanese larch forest in Muwang-ri, Yangpyeong, is 25m, and the trees are 60 years old. This forest was created collectively on a large scale for the purpose of wood production. The Gyeonggi Old Road, which is connected to this forest, is a former walking path that has been revived as a historical and cultural trail.



숲의 경제적 가치를 끌어올리다

004

양평 삼산리 잣나무숲



주요수종 잣나무·낙엽송 면적 100ha 조림연도 196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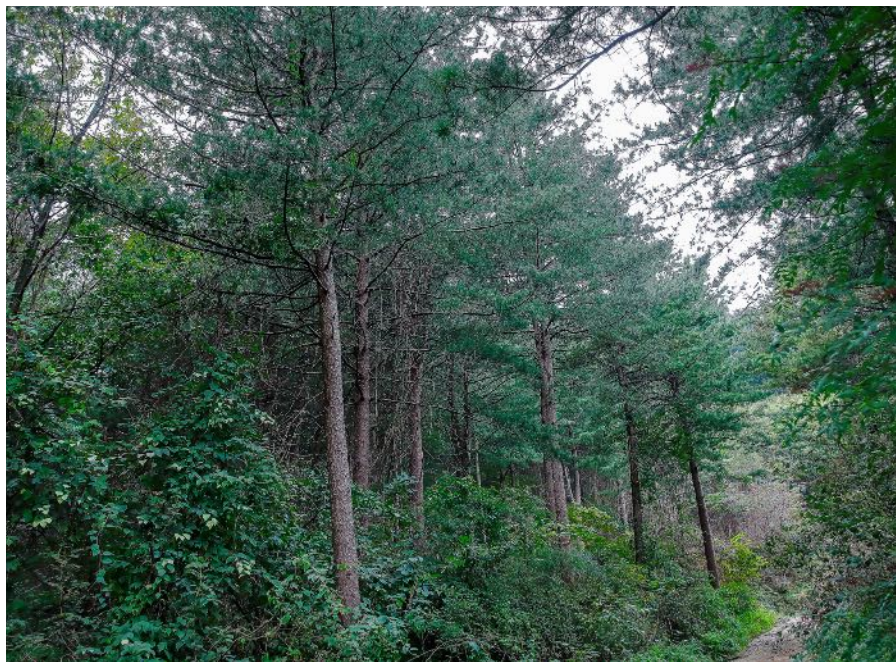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수원국유림관리소 031)771-4892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산95-1

양평 양동면 일당산(453m)은 정상이 높지 않고 등산로가 가파르지 않다. 사계절 물이 마르지 않는 곰지기계곡(2km)은 위로는 나뭇가지가 질푸른 터널을 이루고, 아래로는 수많은 야생화가 화사하게 얼굴을 내민다. 일당산이 가벼운 주말 산행을 즐기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다.

정상부에 오르면 양동면 소재지와 작은 마을이 눈 아래로 보이고, 멀리 원주 쪽으로는 비로봉을 비롯한 치악산 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시야가 확보되는 맑은 날에는 여주 쪽 남한강이 느긋하게 흐르며 반짝거린다.



양평 삼산리 잣나무숲



늘푸른 큰키나무인 잣나무는 경제적 효용성이 뛰어난 나무이다. 잣나무는 잎이 5가닥씩 모여 나고, 3~4년간 붙어 있다가 떨어진다. 고산지대의 추운 기후에서 주로 자라며, 일 단 뿌리를 내리면 곧게 하늘로 뻗어 오른다. 잣나무는 재질이 고르고 가볍고 향기가 좋고, 가공하기도 쉽다. 잣송이에 들어 있는 80~90개의 씨앗은 갖가지 요리와 약용으로 쓰인다.

양평 잣나무숲은 이처럼 산림 자원으로서 가치가 뛰어난 잣나무를 본격적으로 조림한 곳이다. 양평 잣나무숲은 1963년 100ha 면적에 처음 잣나무를 심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숲아베기를 하는 등 숲가꾸기를 실시했다. 양평 잣나무숲은 가슴높이 지름 34cm, 높이 17m, 임목축적 182m³/ha의 인공림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양평 잣나무숲은 2004



NAVI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역길 68-11 ★ 68-11 Samsanyeok-gil, Yangdong-myeon, Yangpyeong-gun, Gyeonggi-do

년 우량한 큰지름 잣나무를 생산하기 위한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양평 잣나무숲은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숲 내부에 임도가 잘 닦여 있어 접근성이 좋아서, 숲 탐방 시설을 마련하고 숲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Yangpyeong Korean Pine Tree Forest

san95-1, Samsan-ri, Yangdong-myeon, Yangpyeong-gun, Gyeonggi-do

Yangpyeong Korean Pine Forest was created artificially for economic purposes to obtain wood and seeds. Currently, entry by the public is not permitted. Near this forest, there is a kiln site where pottery was baked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re are ginkgo trees that are 500 and 700 years old, respectively.



거친 자연환경과 다난한 역사를 품은

005

강릉 대관령 금강소나무숲



주요수종 소나무 **면적** 450ha **조림연도** 1922~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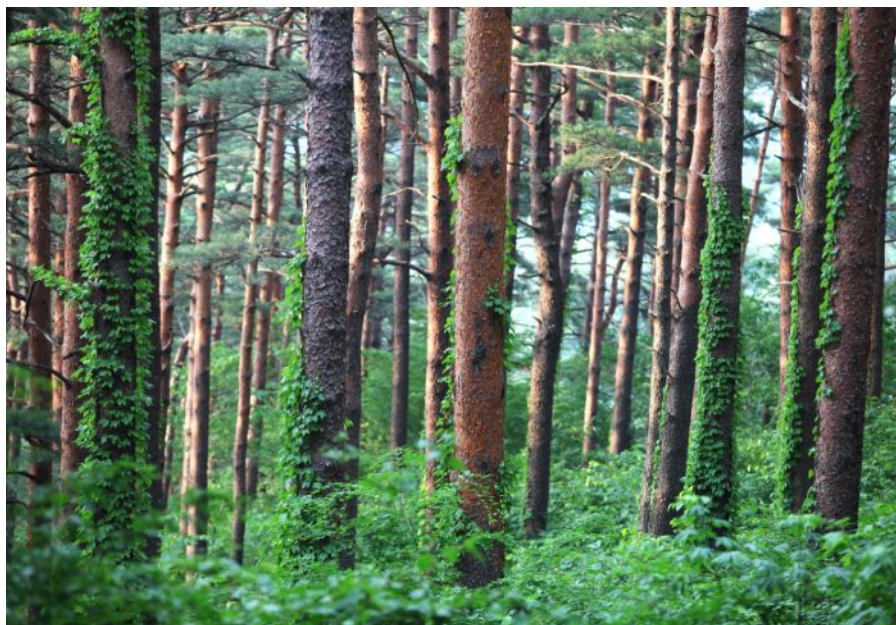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강릉국유림관리소 033)660-7732, 대관령숲길안내센터 033)336-403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1 외 2필

대관령 소나무숲은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일대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해안지역보다 기온 차이가 심하여 봄철은 계절풍이 강하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다. 열악한 환경을 당당하게 견뎌온 장대한 소나무숲의 면적은 400ha로 축구장 571개의 규모로 우리나라 대표적 금강소나무 군락지이다.

대관령 소나무숲은 1922~28년에 소나무 종자를 산에 직접 뿌리는 직파조림을 통해 나무를 키워 성공한 경우로 지금까지 100여 년 가까이 관리하고 있다. 소나무는 높이 20m, 가슴높이 지름 38cm, 임목축적 250m³/ha에 이른다.



강릉 대관령 금강소나무숲



2000년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서 ‘21세기를 위하여 보존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되고, 2002년에는 문화재 복원용 목재 생산림으로 지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2017년 산림청에서 지정한 ‘경영 경관형 10대 명품숲’에 올린 소광리 금강소나무숲, 인제 자작나무숲 등과 함께 선정되었다.

대관령 일대 산의 형세는 장엄하여 사계절이 수려하다. 대관령 정상부에서 시작하는 맑은 계곡물은 수많은 비경을 빚고 다채로운 생명들을 키우며 남대천을 따라 동해바다로 흐른다. 덕분에 이곳에는 아름다운 야생화와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대관령 기슭에는 1988년 전국 최초로 조성된 대관령국립자연휴양림이 자리하고 있다. 강의실과 숙박시설, 체력단련시설, 숲속교실, 숲해설 프로그램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과 야생화정원, 숲체험 프로그램을 갖춘 산림문화체험장이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전통 방식으로 숯가마에서 참나무숯을 굽기, 숯가마 찜질, 천연 숯가습기 만들기, 가족 단위 숲체험 활동인 ‘탄소를 잡아라’ ‘이야기명품숲길’ ‘초가집시간여행’,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체험활동 ‘꿈tree’ ‘은빛숲데이’ ‘꿈꾸는 숲’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NAVI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삼포암길 17(여홀리산림관광안내센터) ★ 17 Sampoam-gil, Seongsan-myeon, Gangneung-si, Gangwon-do

Daegwallyeong Geomgang Korean Red Pine Forest

133, Sampoam-gil, Seongsan-myeon, Gangneung-si, Gangwon-do
5760 Gyeonggang-ro, Daegwallyeong-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Daegwallyeong Korean Red Pine Forest in Gangneung is a representative Geumgangsong colony in Korea. It is a Korean Red Pine that was formed by sowing pine seeds about 100 years ago. These trees are used to restore palaces and cultural assets. It has been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several times for its beautiful forests. This forest is a recreational forest where youth and families can experience forest learning or stay overnight. There are Shin Saimdang, the mother of 50,000 won worth of Korean currency, and Lee I, the son of 5,000 won worth of Korean currency, who were Joseon Dynasty people and left famous poems about filial piety while walking through the forest path in the area.



하늘과 맞닿은 숲과 숲길

006

영월 함백산 하늘숲



주요수종 낙엽송·전나무·신갈나무 등 **면적** 2,771ha **조림연도** 1970년(낙엽송)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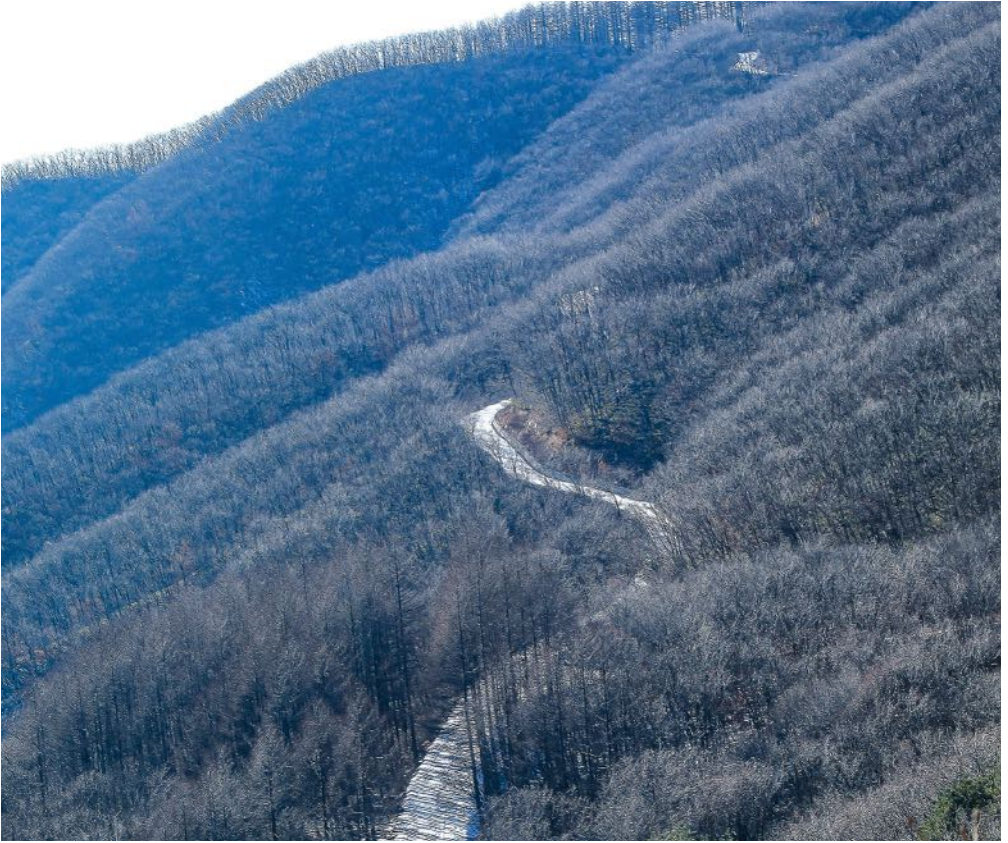
관리기관 영월·정선국유림관리소 033)371-813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산1-1 외 5필

강원도 동부 함백산(1,573m)은 태백·영월·정선에 걸쳐져 있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84ha)으로 지정되었다. 정상 부분에 주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나이 700년, 가슴높이 둘레 4m, 높이 15m의 주목 등 노거수가 600그루가량 분포하고 있다. 신갈나무·피나무·소나무 등 자생나무가 주를 이루고, 낙엽송 인공림이 저지대에 조성되어 있다.

함백산 하늘숲은 울창한 숲이 하늘과 맞닿아 있어 하늘숲길이라 불린다. 영월 청령포~삼척 소망의 탑까지 이어지는 구간(173.2km)이며, 이 중 만항재 쉼터부터 새비재까지의 32km 구간이 하늘숲길에 해당한다. 또한 1960년대 석탄산업이 활발할 때 함백산 탄광





에서 캔 석탄을 함백역까지 운반하던 길(운탄길)은 운탄고도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이 길은 1989년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들이 문을 닫은 후 도보 여행길로 이용되고 있다.

함백산 하늘숲은 국유림 2,271ha 면적에 소나무·낙엽송·신갈나무 등이 혼합림으로 이루어지고 나이 45년, 높이 15m 이상의 낙엽송이 자라고 있다. 운탄고도에서 가장 높은 만항재(1,330m)는 우리나라에서 차로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도로(지방도 414)이다. ‘운탄고도1330’이란 이름은 ‘운탄길’과 만항재의 높이를 합쳐 만들어졌으며, 하늘숲정원, 천상의 화원 공원이 있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8월 초에 야생화 축제가 열리고 낙엽송숲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NAVI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6-37(함백산소공원) ★ san216-37, Gohan-ri, Gohan-eup, Jeongseon-gun, Gangwon-do

함백산 하늘숲에는 12개 구간의 숲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운탄고도, 도롱이 연못 등이 있는데 운탄고도 중간에 있는 도롱이 연못은 탄광 지하 갱도가 무너져 내린 곳에 물이 차 오르면서 생겨난 연못으로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다.

Hambaeksan Sky Forest

865 Hambaeksan-ro, Gohan-eup, Jeongseon-gun, Gangwon-do

Yeongwol Taebaek Jeongseon Hambaek Mountain Sky Forest is located in the highest peak area in the eastern part of Gangwon-do and is designated and protected as a forest genetic resource protection zone. It is called the Sky Forest Road because it is mainly composed of native tree species such as Mongolian oak, lime trees, and Korean Red Pine tree, and the dense forest seems to touch the sky. There are various forest paths here, and you can experience the magnificent natural environment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극한 지역의 산림녹화 성공 모델

007

평창 대관령 특수조림지



주요수종 전나무·잣나무·독일가문비나무·낙엽송 등 **면적** 618ha **조림연도** 1976~86년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42, 대관령숲길안내센터 033)336-403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25 외 8

대관령의 산림은 과거에 대부분 황폐한 민둥산이었다. 해발 800~1,000m 고지대에 위치한 대관령은 기온차가 크고 바람이 거세고 겨울철 적설량이 많아서 식물이 자라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여기에 일제 강점기의 목재 수탈에 이어 1968년 화전민을 집단 이주시키고 산을 개간하게 허락하면서 더욱 급격하게 황폐해졌다. 고속도로변 국토녹화 계획에 따라 1976년부터 11년간 지속적으로 311ha 면적에 조림을 시행했다.

1차년도의 일반조림은 실패했다. 동해안과 영서지역에서 불어오는 강하고 차가운 바람이 완충작용 없이 곧바로 어린나무를 뒤흔들어 성장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듬



평창 대관령 특수조림지



해부터는 논흙 90t을 산꼭대기까지 옮겨와 조림지에 구덩이를 파고 흙을 채운 다음 전나무·잣나무·독일가문비나무·낙엽송 등 아한대 수종으로 조림했다. 또한 높이 3m의 방풍책을 4,813m 길이로 설치하고, 싸리나무로 통발을 만들어 어린나무를 감싸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지주목을 대고, 조림지 사이에 비료목으로 오리나무와 자작나무를 심었다. 이 밖에도 비료 주기, 죽거나 성장이 느린 나무를 캐내고 새나무 심기, 덩굴류 제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관리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의 《국유림 경영 100년사》에는 “거센 바람에 무너지면 세우기를 수십 번 되풀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대관령 특수조림지는 평균 높이 15m(10~18m), 가슴높이 지름 26cm(10~38cm), 임목축적 190m³/ha의 울창한 숲으로 변모했다. 대관령 특수조림지는 혹독한 기후조건을 극복하고 산림녹화에 성공한 경영모델임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NAVI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760(대관령숲길안내센터) ★ 5760 Gyeonggang-ro, Daegwallyeong-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Daegwallyeong Special Forest Site

527-2 Daegwallyeongmaru-gil, Daegwallyeong-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Daegwallyeong Special Forest Site is a management model forest that overcame the severe climate conditions of Daegwallyeong and succeeded in forest tree planting. Planting trees and taking roots were proceeded through installation of windbreaks and supports, soil removal, and forestation work. It has been widely known at home and abroad as a model planting case due to its excellent forest scenery such as Needle fir, Korean Pine, Norway spruces, and Japanese larches. It is now used as a field trip for students, private organizations, and foreign trainees.



대대로 이어져온 산림경영 가업

008

평창 봉평 잣나무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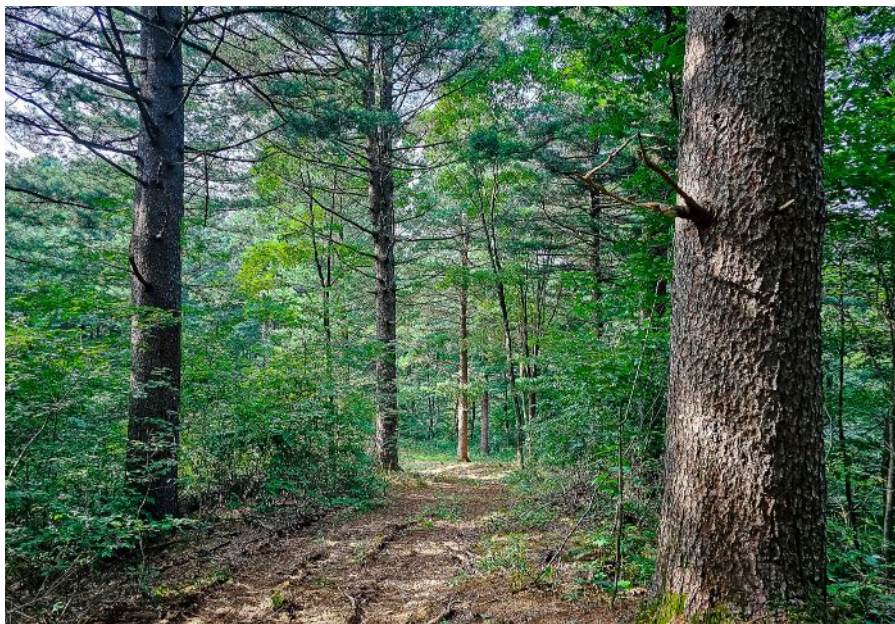
주요수종 잣나무 등 면적 22ha 조림연도 1964~65년

소유 사유림(개인)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예약제)

관리기관 아트인 아일랜드 033)336-177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산47 외 4필

평창군 봉평면 태기산(1,262m) 자락에 있는 봉평 잣나무숲은 독립가 박정희씨의 증조부 때부터 4대에 걸쳐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숲이다. 서당을 하시던 증조부께서는 1907년 전국에서 소나무 씨앗을 구해와 어린 묘목을 기르기 시작했다. 1910년에는 소나무 묘목으로 첫 조림을 하였고, 매년 수확을 낼 수 있는 수종을 찾아 잣나무와 백두산에서 구해온 잎갈나무 씨앗으로 어린 묘목을 길러서 1932년 2차 조림을 실시했다. 3차 조림은 1964~65년에 1차 조림 때 조성한 소나무를 수확하고, 잣나무와 낙엽송을 조림하였다. 또한 1991년에 잣나무로 4차 조림했으며, 1996년에 자작나무로 5차 조림했다. 각 조림 시기는 대를 이어 가족의 출생을 기념하면서 시행되어, 가족들이 숲에 대해 가지



평창 봉평 잣나무숲



는 애정과 책임이 각별하였다. 온 가족이 임업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업이 승계되고 있다. 현재에도 지속적인 숲가꾸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잣나무숲에는 가슴 높이 지름 50cm 이상인 한아름 되는 잣나무가 울창하게 자란다. 또한 가슴 높이 지름 120cm에 나이 200년이 넘는 음나무와 가슴 높이 지름 80cm 이상, 높이 20~27m에 달하는 1910년대 조림된 소나무, 1930년대 조림된 잣나무와 잎갈나무의 우람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숲에는 임도와 숲길이 완만하게 잘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무리 없이 산책할 수 있다. 또한 임산물 재배 견학을 비롯하여 아트인아일랜드 리조트 시설에서 산림휴양을 할 수 있



NAVI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522-9(백운동 종점) ★ 522-9 Mu-i-ri, Bongpyeong-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는 등 산림복합경영단지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풍치와 경관이 아주 우수하여 영화 <남한산성>과 드라마 <온더>의 촬영이 이루어지는 등 명품숲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ongpyeong Korea Pine Forest

170-19, Baegundong-gil, Bongpyeong-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Pyeongchang Bongpyeong Korea Pine Forest has been cultivated and grown by the entire family since 100 years ago, starting with the grandfather who studied trees and saplings. Within the forest, the slope is gentle and forest roads and forest trails are well developed, so anyone can take a walk and tour the forest product cultivation site without difficulty. Because of its excellent scenery, the forest was used as a filming location for the movie Namhansanseong, and the drama Yonder, and is also a popular location for many photo shoots.



금강소나무 우람한 비밀의 숲

009

평창 하안미 금강소나무숲



주요수종 소나무 면적 36ha 조림연도 1928년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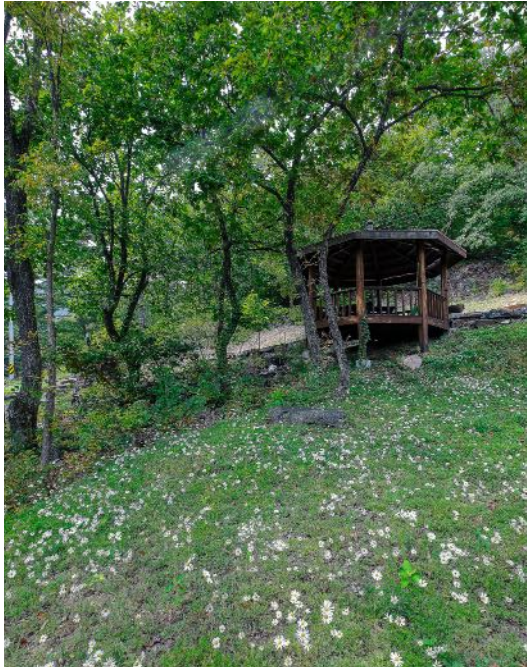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산153

강원도 평창과 정선에 걸친 가리왕산(갈왕산, 1,562m)은 삼국시대 이전 고대국가인 맥국의 갈왕(가리왕)이 피난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에는 분비나무·전나무·주목·잣나무·거제수처럼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종, 1,000m 이하 지대에는 신갈나무를 비롯한 천연 활엽수림과 소나무·낙엽송 조림지가 분포한다.

가리왕산 중턱에 위치한 하안미 소나무숲은 1928년에 금강소나무 씨앗을 뿌려 조성되었다. 하안미 소나무숲에는 36ha 면적에 나이 95년, 높이 20~30m, 가슴높이 지름 20~60cm인 1만5천여 그루의 금강소나무가 임목축적 200~300m³/ha를 유지하며 장엄한



평창 하안미 금강소나무숲



자태를 뽐내고 있다. 하안미리의 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되었지만, 생육 상태에 따라 속아 베기 같은 숲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어미 소나무가 직접 씨앗을 퍼뜨리도록 하는 천연하종갱신작업, 어미 소나무 주변에 어린 소나무 가꾸기, 잡목 베기 등 후계림 조성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평창 하안미 금강소나무숲은 2003년 제4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22세기를 위해 보전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었다. 정작 하안미리 금강소나무숲은 지역 주민들조차 이름과 위치를 잘 모를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다. 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4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가리왕산 우리 꽃 보기 행사 때 개방된다. 백년의 세월 동안 무르익은 금강소나무 군락 사이를 봄 햇살 맞으며 걷고 싶다면, 소나무 밑동의 수풀 사이로 수줍게 고개를 내민 한계령풀·얼레지·바람꽃·현호색·복수초 같은 야생화와 눈을 맞추는 즐거움에 빠져들고 싶다면,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NAVI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중왕산길 217-114 ★ 217-114 Jungwangsan-gil, Daehwa-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Geomgang Korean Red Pine Forest in Haanmiri

165, Daedeok-gil, Daehwa-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Pyeongchang Haanmiri Korean red pine forest is located in the middle of Gariwangsan Mountain and is a forest created by spraying Korean red pine seeds in the 1920s, and is designated and protected as a genetic resource protection forest. Although it is an old Korean red pine forest, continuous forest cultivation management is being carried out, and young Korean red pine trees are being nurtured to create a successor forest. So far, Gariwangsan Mountain has been utilized as a performance research site for the development of long-term national forest management models and ecosystem management application technologies.



잣 향기 가득한 숲

010

홍천 가리산 잣나무숲



주요수종 잣나무 면적 3,776ha 조성림도 193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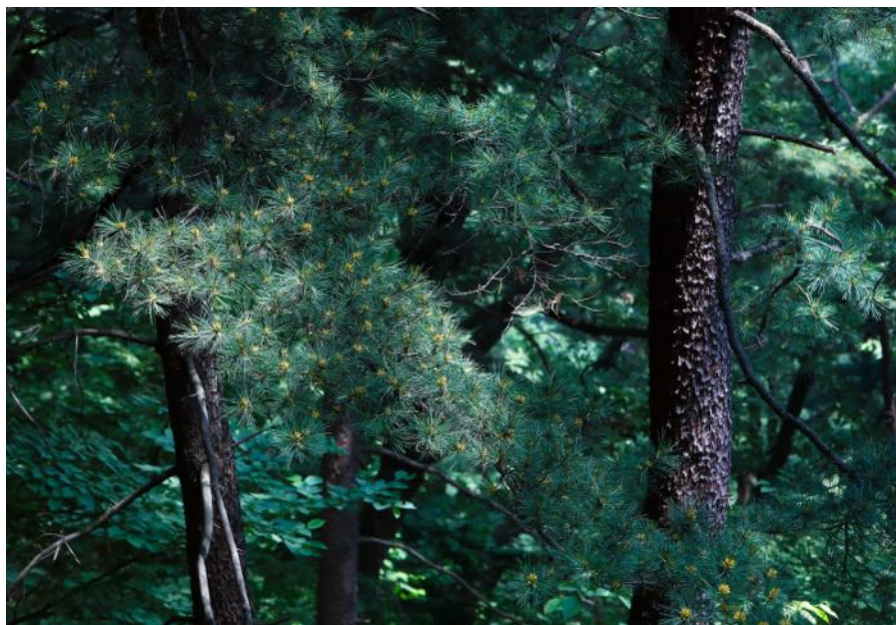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955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가리산(1,051m)은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에 걸쳐 있으며, 소양강의 수원을 이룬다. 산 봉우리가 노적가리처럼 생겼다 해서 가리산이라는 이름이 생겼으며,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 중 하나로 산세가 아름답고 기운차다.

산림청은 가리산 일대 6,600ha를 산림경영단지로 정비했으며, 이 가운데 3,900ha에 잣나무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에 1,800ha 면적의 잣나무 숲이 생겨났다. 풍천리에는 1937년에 처음 잣나무 씨앗을 뿌려 기르기 시작했으며, 이후 1974~76년에는 화전을 정리하고 그곳에 잣나무를 집중적으로 심고 가꾸었다.



홍천 가리산 잣나무숲



풍천리 잣나무 숲은 가슴높이 지름 42cm, 높이 25m, 임목축적 260m³/ha, 나이 40년이 넘는다. 어린나무 가꾸기, 속아베기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성장 상태가 좋은 늙은 나무는 특수 큰지름원목 생산도 가능한 상태이다. 잣나무는 예로부터 신성한 나무로 알려져 사찰의 대웅전을 짓는 목재로 쓰였다. 풍천리 잣나무숲(185ha)은 1982년 잣나무 채종림(우량한 나무 씨앗을 기르고 채집하는 숲)으로 지정되었다가 2006년에 해제되었다.

풍천리 잣나무숲은 2017년 산림청이 선정한 10개소 명품숲에 포함될 정도로 빼어난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자랑한다. 산림경영단지의 임도를 따라 전망대에 오르는 구간(왕복 8km)을 걸으면, 잣나무 고유의 향기가 황홀하게 감싼다. 가리산 잣나무숲 덕분에 홍천



NAVI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상평길 34-8 ★ 34-8 Sangpyeong-gil, Hwachon-myeon, Hongcheon-gun, Gangwon-do

군은 잣의 주요 생산지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가리산은 봄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오르며, 참아리·꽃머느리밥풀·하얀쥐오줌풀·선꼭두서니 등 갖가지 야생화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Garisan Korean Pine Forest

34-8 Sangpyeong-gil, Hwachon-myeon, Hongcheon-gun, Gangwon-do

Hongcheon Garisan Mountain is one of the nation's best Korean Pine tree forests. Korean Pine over 40 years old take up about 60% of the country's nut production. Since ancient times, Korean Pine have been known as sacred trees, and was mainly used to build important buildings in temples. If you take an 8km round trip trek along the forest road, you can have a unique experience where the fragrance of pine trees wraps around your body.



늘 푸른 숲에서 단풍을 만나다

011

횡성 상안리 낙엽송숲



주요수종 낙엽송·소나무 등 면적 53ha 조림연도 1938년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955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산90-1

상안리 낙엽송숲은 백덕산(1,350m)과 사재산(1,215m) 서쪽 자락에 위치한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과 평창군 방림면을 잇는 옛길(관동대로)의 고갯마루(문재)를 넘어가는 지점이다. 영동고속도로와 문재터널이 뚫리면서 옛길은 인적이 뜸해졌고, 자연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이 일대를 울창하고 푸른 숲으로 복원해놓았다. 낙엽송 숲으로 가는 입구에는 자작나무 인공림이 있고, 그로부터 입도를 따라 2km 정도 더 들어가면 된다.

상안리 낙엽송숲은 1938년에 조림한 낙엽송 38ha와 1983년에 조림한 잣나무 10ha, 그리고 천연림 소나무숲(나이 80~90년) 9ha와 참나무숲(나이 60년) 3ha가 분포한다. 상안



황성 상안리 낙엽송숲



리 낙엽송은 가슴높이 지름 38cm, 높이 28m이다. 상안리 낙엽송숲에는 A코스 0.6km, B코스 1.6km, C코스 3.8km, D코스 5.8km 등 네 개의 탐방로가 있다. 짧은 구간은 20분, 긴 구간은 3시간 40분쯤 걸린다. 숲 탐방로에는 편의시설, 야외학습장, 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숲 탐방로에서 이어지는 문재 정상에는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다. 상안리 낙엽송 숲에서는 2018년부터 산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지역 공동체(영농법인)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숲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2019년 산림청의 국유림 명품숲으로 선정되었다.

소나무과 침엽수인 낙엽송은 일본이 원산지이며 추위에 강하고 우리나라 기후에 잘 적응해서 산림녹화·산림복구 지역에 많이 조림된다. 침엽수이면서도 가을에 노랗게 물들었다가 겨울에 잎이 진다. 낙엽송은 소나무보다 빠르고 곧게 자라며, 목재의 결이 아주 단단해서 침목, 갱목 등으로 많이 쓰였다. 한때 낙엽송 송진은 상처 부위에 고약으로 바르고, 어린 눈은 차를 끓여 마시며, 잎은 약재로 쓰였다고 전해진다.



NAVI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325-2 ★ 325-2, Sangan-ri, Anheung-myeon, Hoengseong-gun, Gangwon-do

Japanese Larch Forest in Sanganri

san90-1, Sangan-ri, Anheung-myeon, Hoengseong-gun, Gangwon-do

The Sangan-ri Japanese Larch Forest in Hoengseong has excellent large-sized Japanese larch trees that were planted in the 1930s. You can find artificial forests of Korean Pine and East Asian white birchs, and natural forests of Korean red pine trees and oak trees. There are various convenient facilities such as four forest trails for each distance, an observatory, and a learning center, and you can experience the forest through a forest commentary program provided by the local community.



젊은 자작나무가 발산하는 생기와 활력

012

음성 원통산 자작나무숲



주요수종 자작·낙엽송 등 면적 60.5ha 조림연도 2004년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충주국유림관리소 043)850-0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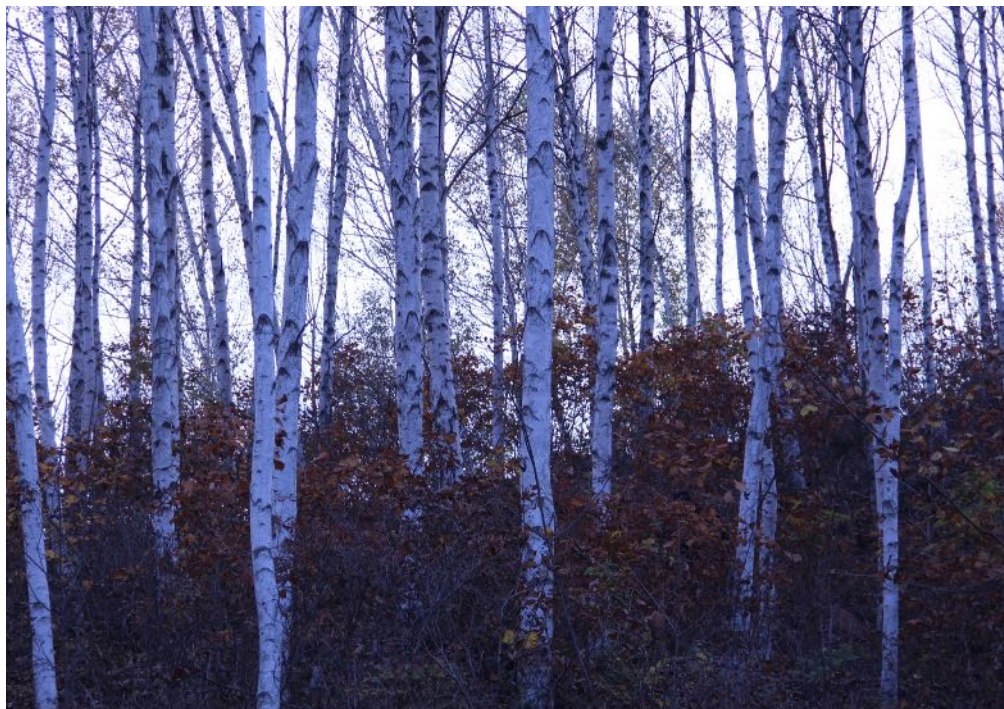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산57-1

원통산(645m)은 음성 감곡면과 충주 노은면, 양성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산세가 험준하며 갖가지 기암괴석과 활엽수가 주종인 울창한 숲이 형성되어 있다.

산림청은 원통산의 감곡면 기슭에 2004년부터 106ha 면적에 34만여 그루의 자작나무·잣나무·백합나무·물푸레나무·읍나무·산딸나무·산벚나무·전나무·낙엽송 등을 심어서 가꾸고 있다. 이곳 원통산 인공림에는 숲을 이룬 지 20여 년쯤 되는 젊은 나무들이 활기를 내뿜으며 자라는 중이다.



음성 원통산 자작나무숲



자작나무는 하얀 껍질을 가로로 돌려 입고, 단단하고 곧게 자라서 넓은 잎을 펼치는 모습 때문에 예로부터 영험한 나무로 여겨져 왔다. 자작나무 껍질은 아주 조밀하고 단단해서 옛날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배를 만드는 데 사용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종이로 사용하기도 했다. 천마총의 천마도도 자작나무 껍질에 그려진 것이다. 자작나무는 시베리아나 북유럽, 동아시아 북부, 북아메리카 북부의 추운 고지대에서 숲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연환경에서는 보기 드문 수종이다. 다만 최근 조림의 성과로 곳곳에 자작나무숲이 조성되었으며, 원통산 자작나무숲(61ha)도 그 사례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원통산 자작나무숲은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려 더욱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

원통산 자작나무숲에는 임도(3km)와 2020년에 새롭게 조성된 등산로(5.6km)가 이어져 있어서 비교적 쉽고 쾌적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숲나이 20여 년 되는 젊은 숲은 오래된 숲과는 다른 경쾌함과 자유분방함을 경험할 수 있다. 빠르게 키를 키우고 가지를 펼



NAVI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540(자작나무 숲 입구) ★ 540, Sagok-ri, Gamgok-myeo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지면서 제법 넉넉하게 산을 초록으로 물들인다. 자작나무숲 주변에 다양한 수종의 조림지와 진달래·철쭉 등 자생 꽃나무들이 계절에 따라 색다른 아름다움을 뽐낸다. 산림청은 원통산 자작나무숲을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숲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Wontongsan East Asian white birch Forest

407, Sagok-gil, Gamgok-myeo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Eumseong Wontongsan East Asian white birch Forest is famous for its East Asian white birch and Japanese larch trees that are about 20 years old. It is generally sai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an old forest and a young forest is that the color of the trees is vibrant. It is possible in this forest to check out such beauty. It is connected to a forest road and a hiking trail, allowing for comfortable trekking. East Asian white birch trunks were also used as a substitute for paper in the old days.



천연림과 인공림이 조화롭게 어울린 숲

013

충주 오청산 소나무숲



주요수종 소나무·천나무·낙엽송·백합 등 면적 745ha 조림연도 천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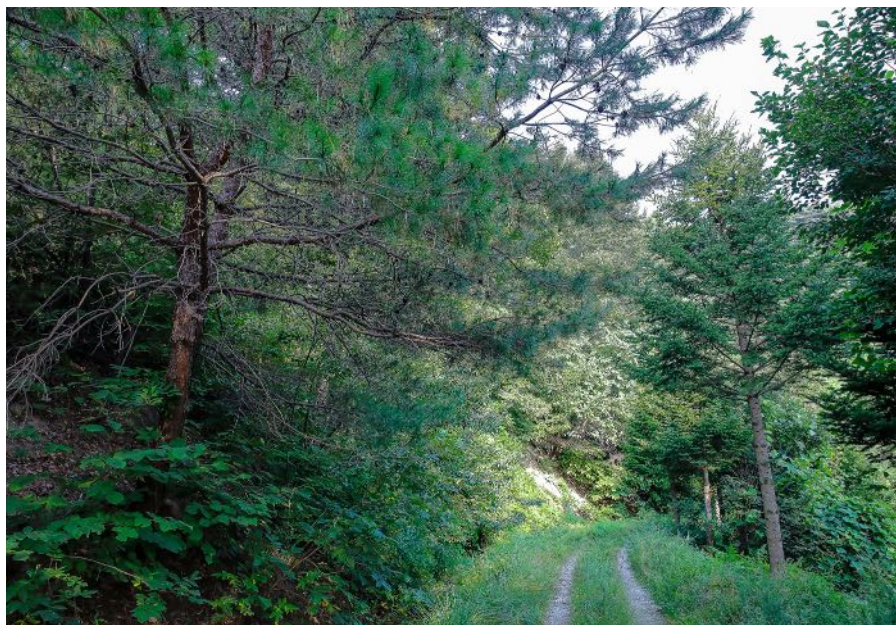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충주국유림관리소 043)850-0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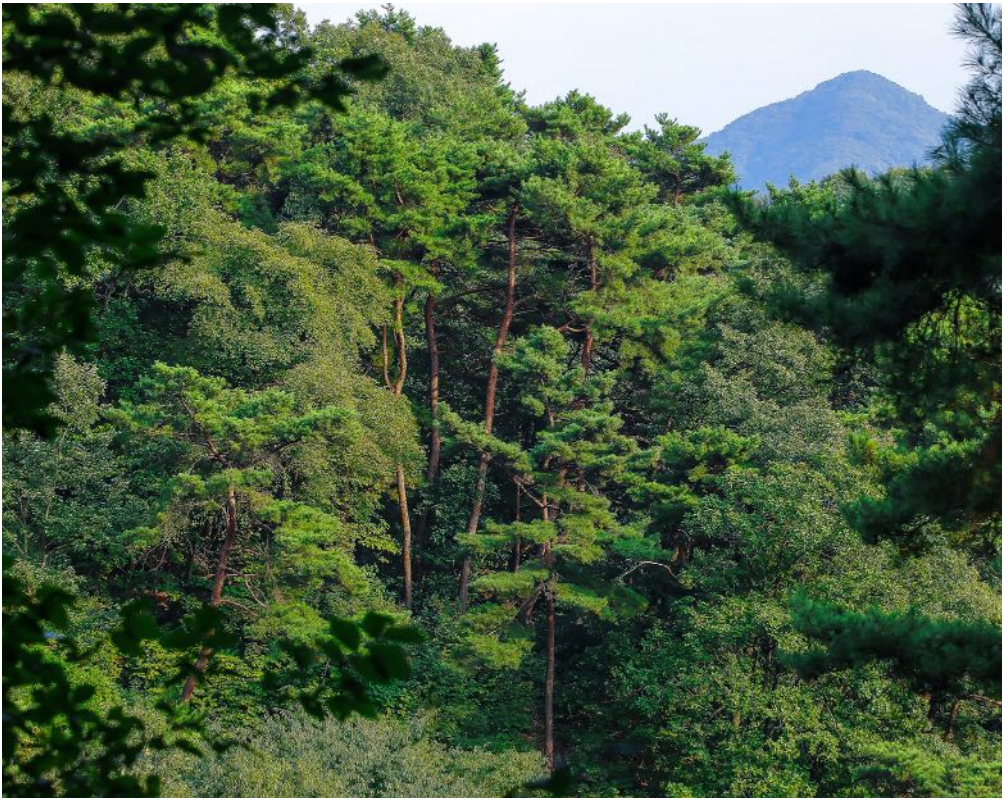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오청산(652m)은 충주시와 제천시의 경계를 이루는 나지막한 산이며, 오청산과 천등산 사이의 다릿재는 과거 충주와 제천을 오가려면 꼭 지나야 하던 고개이다. 오청산 정상에서 남쪽 사면인 충주 산척면 송강리 일대에 소나무숲이 위치한다. 송강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을 주위에 소나무숲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계곡과 저수지 등의 수량이 풍부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더불어 자연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오청산 소나무숲은 여의도 면적의 2.5배가 넘는 745ha 면적에 펼쳐진 천연림이며 나이 60년, 가슴높이 지름 32cm, 높이 12m에 이른다. 또한 이 숲에는 상수리나무가 나이 60



충주 오청산 소나무숲



년, 가슴높이 지름 16cm, 높이 9m, 임목재적 148m³/ha 상태로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다.

산림청은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오청산경제림단지로 지정하여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을 진행하며 관리하고 있다. 182ha에 낙엽송·전나무·물푸레나무·자작나무·백합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심고 가꾸며 향후 가치 높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런 꾸준한 노력 덕분에 오청산 소나무숲은 소나무·참나무류의 천연림과 다양한 수종의 인공림이 조화를 이루며 숲을 이루었다.

오청산 소나무숲은 나지막해서 숲길을 걸기에 부담이 없으며, 천연림 특유의 깊이감과 다채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특히 겨울철 눈 내린 소나무 설경이 아름답기로 이름 높다.



NAVI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길 492-65 ★ 492-65 Songgang-gil, Sancheok-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오청산 소나무숲에는 조림과 숲가꾸기, 산림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25km의 산림도로가 정비되어 있다. 이 숲길은 트레킹과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 활동에도 활용되고 있다.

Ocheongsan Korean Red pine Forest

492-65 Songgang-gil, Sancheok-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Chungju Ocheongsan Mountain Korean red pine Forest is low, so there is no burden to walk on the forest road. The Korean red pine forest makes you feel the depth and variety unique to the natural forest. In particular, the snowy landscape of Korean red pine trees in winter is famous for its beauty. In this forest, a 25km forest road is maintained to efficiently proceed with afforestation, forest cultivation, and forest protection. This forest road is used for forest leisure sports activities such as trekking and mountain biking.



민둥산을 신록으로 물들인 기업 정신

014

충주 인등산 인재의 숲



주요수종 가래나무·자작나무 등 면적 1,184ha 조림연도 19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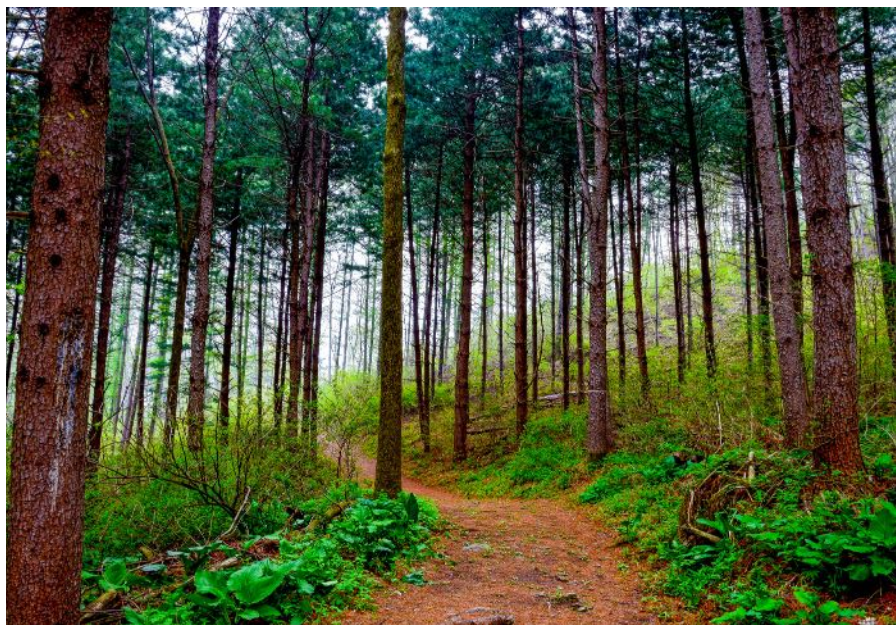
소유 사유림(법인)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허가제)

관리기관 SK임업 043)852-1413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8-1

충주 인등산(666m)에 위치한 인재의 숲은 1972년 설립한 서해개발(현 SK임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유림이다.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은 1960~70년대에 사람들의 무분별한 벌목으로 민등산이 늘어나자 1972년에 천안 광덕산, 충주 인등산, 영동 시항산 등 총 4,500ha의 산을 사들여 국내 최초로 기업형 조림사업을 시작했다. 그중 인등산 인재의 숲은 모범적인 조림사업 사례로 손꼽힌다.

인재의 숲은 총면적 1,184ha 중 542ha에 나이 40~50년의 우람한 가래나무(302ha)·자작나무(102ha)·루브라참나무·느티나무·은수원사시·들메나무 등을 조림하였으며,



충주 인등산 인재의 숲



642ha에는 천연림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중 주종을 이루는 가래나무는 13만여 그루(가슴높이 지름 20~40cm, 키 15~25m), 자작나무는 3만5천 그루(가슴높이 지름 15~30cm, 키 15~22m)가 자라고 있다.

인재의 숲에는 임도(19.5km), 숲 탐방로(1km), 작업로(5.5km) 등이 닦여 있다. SK임업은 인재의 숲에 2007년에 인재 양성 및 기업문화 전시 시설인 수펙스센터를 세우고, 2010년에 연수원 단지와 4개의 산책 코스를 조성해서 그룹 내 임직원 산행 및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SK임업은 자작나무 수액을 원료로 채취하여 만든 친환경 화장품을 출시했다.

인재의 숲은 경제림 보호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한다.



NAVI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인등로 404-83(SK수펙스센터) ★ 404-83 Indeung-ro, Sancheok-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Forest of Talented People

san118-1, Myeongseo-ri, Sancheok-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The Forest of Talented People located on Indeungsan Mountain in Chungju, is a private forest managed by SK Forestry. The late Choi Jong-hyun, former chairman of SK, began Korea's first corporate afforestation project by purchasing a total of 4,500ha of mountains in 1972, including Gwangdeoksan Mountain in Cheonan, Indeungsan Mountain in Chungju, and Sihangsan Mountain in Yeongdong, as bare mountains increased due to indiscriminate logging by people. Among them, the Indeungsan Forest of Talented People is considered an exemplary afforestation project. SK Forestry operates various training programs for executives and employees with the aim of fostering nature-friendly talent in the forest of talented people. To protect the sustainable ecological environment, visit by unauthorized outsiders is restricted.



산림자원 순환의 성공 사례

015

청양 신원리 산림경영숲



주요수종 자작나무·잣나무·낙엽송 등 면적 59ha 조립연도 2002~08년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부여국유림관리소 041)830-5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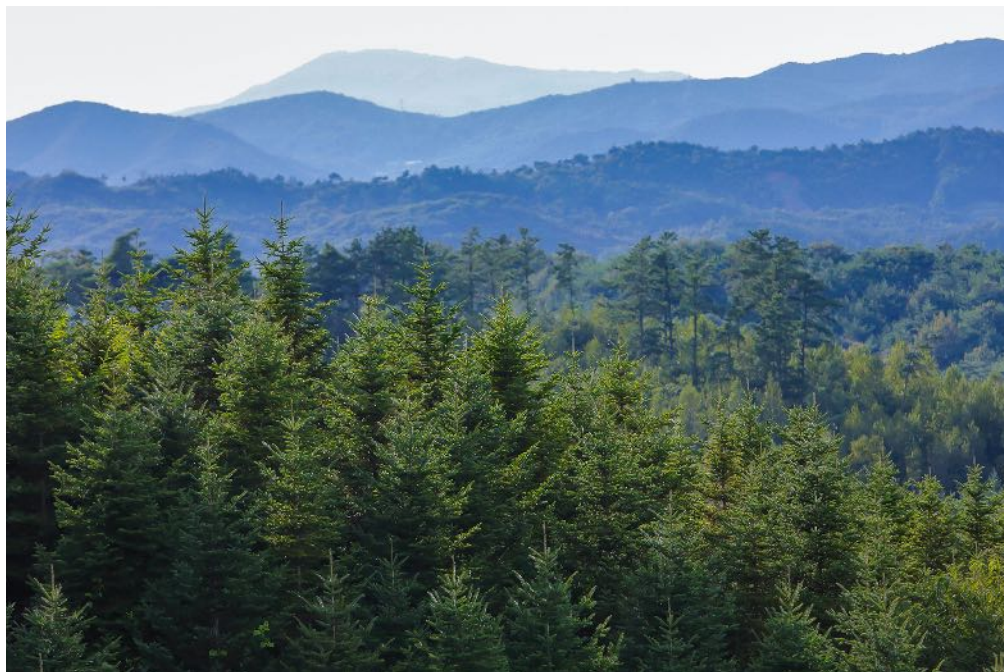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산100-1 외 3개소

청양 신원리에는 원골, 지곡절, 윗배나무골, 아랫배나무골 등의 자연마을과 사찰 봉정사가 있다. 신원리 산림경영숲은 문막산(338m) 남쪽 200~250m 지대에 위치한다. 신원리 산림경영숲은 산림자원 순환을 위한 산림경영를 목적으로 국유림 59ha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구역별로 나누어 조립되었다.

일정한 구간의 잡목을 순차적으로 베어낸 다음 자작나무·물푸레나무·상수리나무·전나무·낙엽송·잣나무·스트로브잣나무를 심었다. 초기에는 풀베기, 덩굴류 제거작업을 해 주고, 이후 지속적으로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작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높이 12m(8~13m), 가슴높이 지름 14cm(8~20cm), 임목재적 60m³/ha 숲을 이루었다.



청양 신원리 산림경영숲



더불어 2002년부터 나무의 성장뿐만 아니라, 아래층에서 자라는 쥐똥나무·싸리·청미래덩굴·진달래·고사리·국수나무·생강나무 같은 식물을 모니터링해서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다.

자작나무·스트로브잣나무·물푸레나무·전나무 등은 기후 조건상 충남 지역에서 자라기 어렵고 인공림으로 가꾸기도 힘들다. 신원리 산림경영숲은 실패 확률이 높은 나무를 성공적으로 조림한 사례로, 2007년 우수조림지품평회에서 최우수 조림지로 평가받았다.

청양 신원리 산림경영숲은 계획적으로 가꾸어져서 다양한 숲 형태를 뚜렷이 구별해서 체험할 수 있다. 종류별·나이별 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루는 모습을 비교 관찰할 수 있어서 교육 및 연구 장소로 활용성이 높다. 숲을 따라 임도와 마을길이 여러 갈래로 뻗어 있어 접근성도 좋다.

특히 고산지역의 한랭 기후에서 자라는 자작나무를 충남 지역에서 만나는 즐거움은 특별하다. 청양 신원리 산림경영숲에는 10만여 그루가 어느덧 하늘을 가릴 만큼 훌쩍 자라서 새하얀 줄기와 푸른 잎을 반짝인다. 이 밖에도 하얀 실타래 같은 꽃을 피우는 물푸레



NAVI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산32-1 ★ san32-1, Baekcheon-ri, Cheongyang-eup, Cheongyang-gun, Chungcheongnam-do

나무, 피톤치드 향을 한껏 내뿜는 스트로브잣나무 등이 저마다 특별한 색깔로 숲을 물들이고 있다.

Management Forest in Sinwonri

san100-1, Sinwon-ri, Bibong-myeon, Cheongyang-gun, Chungcheongnam-do

The forest management forest in Sinwon-ri, Cheongyang, is cultivated on a planned basis so that you can clearly distinguish and experience various forest forms. It is highly useful as a place for education and research because it is possible to compare and observe how trees grow by type and age to form a forest. There are several forest roads and village roads along the forest, so accessibility is good. In particular, the joy of meeting East Asian white birch growing in the cold climate of alpine regions in South Chungcheong is special.



편백과 단풍이 어우러진 절경

016

고창 문수산 편백숲



주요수종 편백 면적 73ha 조림연도 1971년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35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산100 외 1

노령산맥의 지맥인 문수산(621m)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전라북도 고창군과 전라남도 장성군 걸쳐 있으며 산 정상상을 중심으로 전북 고창군에서는 문수산, 전남 장성군에서는 축령산이라 부른다.

문수산 편백숲은 1971년에 73ha 면적에 조림되었다. 편백은 가슴높이 지름 26cm(최대 36cm), 높이 12m, 임분재적 178m³/ha에 이르는 우람한 자태를 뽐낸다. 숲아베기 등 적절한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분 목재로 생산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2018년부터 문수산-축령산 548ha 권역을 대상으로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을 시행해서, 편백숲을 활용한 산림치유센터 2개소와 산림치유시설(치유 정원, 치유 숲길,



고창 문수산 편백숲



숲속 놀이터 등), 하늘 산책로(스카이워크) 등을 조성하고 있다. 이중 문수산 산림치유센터는 치유문화도시로 특화된 고창에서 해양(구시포 등 해변, 갯벌) — 내륙습지(고인돌·운곡습지) — 산림(선운산, 방장산, 문수산) — 온천(석정온천)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또한 산림치유센터에서 문수산 정상까지 설치될 스카이워크에서는 편백숲과 고창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수산에는 편백 외에도 단풍나무(천연기념물 제463호), 고로쇠나무·비자나무·줄참나무·서어나무 등이 어우러져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문수사로 들어가는 숲길에는 나이 200~400년, 가슴높이 지름 30~80cm, 높이 10~15m의 단풍나무 500여 그루가 여행자들을 맞이한다. 특히 가을철 단풍 드는 시기의 숲길은 늙은 단풍나무가 화려하고도 유려한 절경을 자아낸다.



NAVI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수랑동길 85(국립고창치유의숲 제2치유센터) ★ 85 Surangdong-gil, Gochang-eup, Gochang-gun, Jeollabuk-do

Munsusan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san100, Hwasan-ri, Gochang-eup, Gochang-gun, Jeollabuk-do

Gochang Munsusan Forest is famous for its Japanese False Cypress trees and palmate maple trees. On the forest path leading to Munsusa Temple, travelers are greeted by about 500 palmate maple trees that are 200 to 400 years old, 30 to 80cm thick at chest height, and 10 to 15 meters tall. In particular, the forest path during the fall foliage season creates an enchanting scenery with the splendid and graceful shapes of old palmate maple trees. Munsusan Forest Healing Center has the characteristic of connecting the sea, tidal flats, inland wetlands, forests, and hot springs in Gochang, which is specialized as a healing cultural city.



한 기업가의 열정이 깃든 숲

017

강진 명주 초당숲



주요수종 백합나무·편백·테다소나무·삼나무 등 면적 960ha 조성림도 1969~2008년

소유 사유림(법인)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허가제)

관리기관 강진군청 061)430-3285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명주리 산46-3

강진군 칠량면 명주마을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비밀의 숲이 있다. 고 김기운 백제약품 회장이 1968년부터 50여 년간 200억 원 가까이 들여 조성한 사유림이다. 이 숲은 고인의 호 ‘초당’을 가져와 초당림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강진 초당림은 개인이 조성한 빼어난 인공조림단지로 평가받는다. 초당림에는 506만 그루의 나무가 조림되었으며, 조림용 기구를 도입해서 조림지 병해충방제, 비료 주기, 풀베기작업,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에 정성을 쏟았다. 1977년과 2001년에는 산불이 나서 편백과 삼나무 숲이 크게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강한 의지로 다시 건강하고 정돈된 숲을





조성했다.

초당림에는 편백 132만 그루, 테다소나무 105만 그루, 백합나무 30만 그루 등 17종 400~500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특히 백합나무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면적 조림지(160ha)로 알려져 있다 1977년 경에 조림된 백합나무숲은 굵기가 한 아름이 넘고 하늘을 찌를 듯이 자라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초당림 안 백제약품연수원에는 임업 전시관과 교육장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2004년에 설립된 초당제재소는 백합나무 등을 1차 가공해 수요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산림감시와 숲가꾸기, 버섯작업 등의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

초당림은 2009년 경영모델 숲으로 선정되어 숲길 데크가 놓여졌고, 편백·백합나무를 조림했으며, 산림학습원을 조성했다. 이 밖에도 숲가꾸기와 산림 휴양이 가능한 편익 시설



NAVI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명주리 689-20(초당물놀이장) ★ 689-20 Myeongju-ri, Chillyang-myeon, Gangjin-gun, Jeollanam-do

이 마련되었다. 2014년부터 일부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물놀이장과 삼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초당림 숲속힐링 체험 행사 기간에 초당림을 공개하고 있다.

Chodang Forest

685-37 Chilgwan-ro, Chillyang-myeon, Gangjin-gun, Jeollanam-do

Gangjin Chodang Forest is a forest created by a famous Korean pharmaceutical company with lily and Japanese False Cypress trees. At the time, most Koreans relied on firewood for energy, and even young trees were cut down to use as fuel. When a flood occurred, the mountains were washed away, soil piled up in the river, and the water flooded, causing damage to the rice fields around the river. It was a vicious cycle. The founder of the company felt sorry that the mountain was becoming bare, so he spent his own money and did his best to manage and grow trees beautifully in the forest. Currently, it is partially open to local residents, but not to the public.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숲

018

강진 서기산 편백숲



주요수종 삼나무·편백·리기테다소나무 면적 55ha 조림연도 19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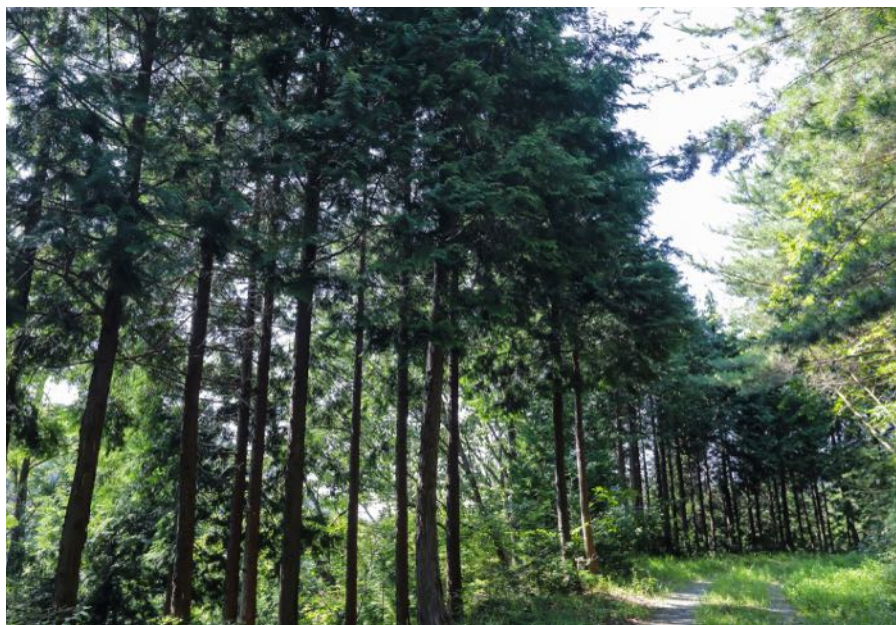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42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 산183

강진과 해남에 걸쳐 있는 서기산(515m)에는 소사나무와 소나무숲이 장관을 이루고, 봄이면 진달래로 물들고 봄내음 가득한 취나물, 고사리 등 산나물이 지척에 널린다. 구한 말과 일제강점기의 유학자이자 시인인 경회 김영근은 강진의 아름다운 여덟 곳을 꼽아, ‘금릉팔경’이라 일컬었다. ‘금릉’은 강진의 옛 지명이다. 금릉팔경 중 하나가 바로 서기산에서 바라본 서산낙조이다. 서기산 정상에 올라서면 남쪽으로는 드넓은 녹색 평야가 펼쳐지고 그 사이로 강진의 젖줄인 탐진강이 유려하게 흐른다.

산림청은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



강진 서기산 편백숲



적·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 서기산을 목재생산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977~95년까지 약 110ha의 면적의 산림에 337,000여 그루의 삼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을 심고 가꾸어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992년 조림된 55ha 면적의 편백은 가슴높이 지름 14cm, 높이 10m, 임목축적 151m³/ha 상태이며 꾸준한 숲가꾸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기산 편백숲은 임도를 통해 접근하기 쉬우며 숲의 경사가 완만하고 강진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어 하루 산행으로 적격이다. 서기산 정상은 그리 높지 않지만, 헬기장으로 조성되어 주변을 조망하기에 제격이다. 만덕산, 석문산, 덕룡산으로 이어지는 바위 능선은 힘찬 기상을 보여주며, 남도지방 특유의 사스레피나무와 곤충, 나비의 군무를 감상하기



NAVI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 산 249-15 ★ san249-15, Seosan-ri, Gangjin-eup, Gangjin-gun, Jeollanam-do

좋은 낭만의 길로 이어진다.

참고로 금릉팔경은 ①고성암 저녁 종소리 ②비파산에서 솟는 달 ③금강에서 들려오는 여울 소리 ④금사봉 아침 안개 ⑤죽도에서 돛단배가 저녁에 돌아오는 풍경 ⑥구강포에서 불을 켜고 고기를 잡는 야경 ⑦만덕산 아지랑이 풍경 ⑧ 서기산 낙조 등이다.

Seogisan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san183, Seosan-ri, Gangjin-eup, Gangjin-gun, Jeollanam-do

Seogisan Mountain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in Gangjin is managed by the Korean Forestry Government for economic purposes to produce wood. This forest is easily accessible by forest roads. This forest has a soil structure in which trees grow well. This area was famous as a traditional Korean ceramic production site, and now has the Gangjin Ceramic Museum.



대를 이룬 독립가의 삶이 깃든 숲

019

순천 백이산 편백숲



주요수종 편백 면적 67ha 조림연도 1963년

소유 사유림(개인)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순천시청 061)749-2775, 백이산편백 0507-1330-1316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신덕리 산138-25

백이산(582m) 편백숲은 조부모부터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임업을 성실히 경영해 모범이 되는 임업인 가문이 가꾼 숲이다. 산림청에서 엄격한 심사로 선정하여 부여하는 영예인 산림명문가로 선정된 서승욱 독립가가 산림자원을 가꾸고 제품을 개발해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산림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임학을 전공한 임학도였던 부친은 학교에서 배운 산림경영을 실현하고자 조모와 함께 임지를 구매하고 민둥산이었던 곳에 1963년부터 조림을 시작하여 4시간 이상 산을 오르내리고 산에 막사를 지어 생활하면서 몇 년에 걸쳐 순천시 외서면에 편백숲 67ha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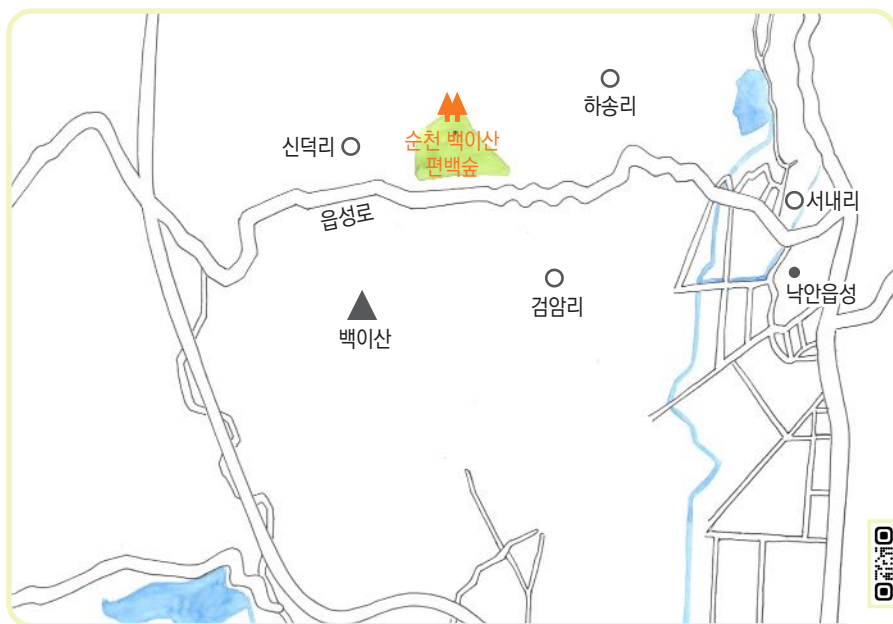


하였고 숲가꾸기를 지속했다. 서승욱 독립가도 부친의 뒤를 이어 임학을 전공하고 임업 후계자를 거쳐 자영 독립가로서 산림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백이산 편백숲은 꾸준히 조림이 이루어져 다양한 나이를 가진 편백숲이 어우러져 있다. 이 중 6영급 편백은 가슴높이 지름 30cm, 높이 15m, 임목축적 $300\text{m}^3/\text{ha}$ 로 우수한 생장을 보인다.

산림경영 기반인 임도 3.3km, 작업로 9.5km가 설치되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산림 작업이 가능하고 빈계재와 고동치 구간의 등산로가 백이산 편백숲 사이로 개설되어 있다.

서승욱 독립가는 백이산 편백숲의 숲가꾸기를 통한 산물은 목재와 부산물을 활용하여 친환경 목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자원화하여 산림 고부가가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귀산촌 아카데미,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육림업 산림경영 노하우를 예비 귀산촌인들과 공유하고 있다.



NAVI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하송리 산 62-3(분계제) ★ san62-3, Hasong-ri, Nagan-myeon, Suncheon-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on Baekisan

san138-25, Sindeok-ri, Oeseo-myeon, Suncheon-si, Jeollanam-do

The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on Baekisan Mountain in Suncheon is an exemplary case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that cultivates forest resources and generates income. This is a beautiful forest belonging to the Seo Seung-wook Family, which was selected as a “prestigious forestry family,” an honor bestow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to a family of foresters who have maintained the forest for three generations and become exemplary. This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which started planting trees in 1963, is currently operated under a forest management complex system that utilizes both wood and by-products through forest cultivation to turn them into eco-friendly products and resources. In addition, forestry education and forest management know-how are shared through the Returning-to Mountain Academy. Walking and hiking trails are open through the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so forest healing can be very beneficial.



지친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테라피 숲

020

김천 단지봉숲



주요수종 낙엽송·잣나무·자작나무 등 면적 1,247ha 조림연도 1992~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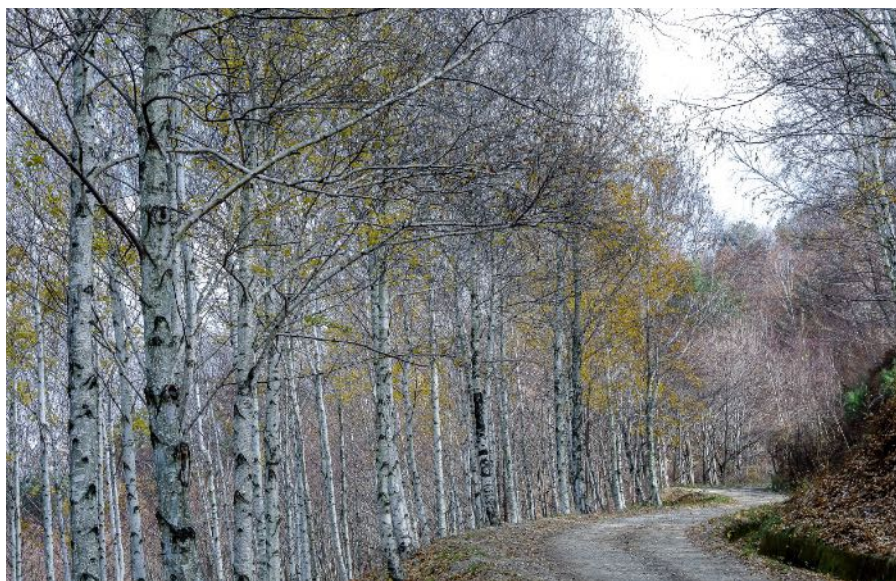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구미국유림관리소 054)712-4121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산9-2

산림청은 김천시 수도산(1,317m) 단지봉 일원에 1918년부터 약 20년간 4,926ha에 700만 그루의 낙엽송을 심어서 가꾸었으며, 이 중 1930년대 조림된 낙엽송 숲 일부를 보호림으로 지정하였다. 낙엽송 보존림은 가슴높이 지름 42cm, 높이 29m, 임목재적 308 m³/ha 상태를 이루고 있다. 우람하고 듬직한 낙엽송은 멋진 경관은 물론이고, 생태적·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가치가 있으며, 큰지름원목을 생산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1992~95년에는 잣나무·낙엽송·자작나무를 약 7ha 면적에 조림하였는데, 이 중 자작나무는 아직 줄기가 굵지는 않지만 싱그러움과 순백의 우아함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2020년 개장한 국립김천치유의숲에는 52ha 면적에 낙엽송·자작나무·잣나무·전나무 등이 무리지어 자라고 있다. 해발 고도 800m 전후 지대는 청정한 공기와 쾌적한 온도로





인하여 인간의 행복감이 높은 공간이다. 이 고도에 조성된 자작나무숲의 쾌적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울창한 7ha 자작나무숲을 활용하여 일반인을 위한 웰니스 테라피, 바디 테라피, 마인드 테라피,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치유두드림(林)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컬러링 테라피, 나만의 힐링숲, 연꽃팔지 만들기를 체험도 진행하고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으로는 온열 테라피, 숲해먹 테라피가 있으며, 녹색자금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고령자,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무료 숲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전체 치유의 숲을 자유롭게 걷고 싶다면 약 7시간이 소요된다.

국립김천치유의숲은 잣나무숲 데크로드, 숲속 명상소, 한반도습지, 세심정, 힐링센터 등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시설이 있다. 한반도 모양의 연못은 햇빛 산소, 경관 등 다양한 산림치유인자를 통하여 효과를 높이는 산림치유프로그램 시설이다. 다만 이 숲은 숙박 시설은 운영하지 않는다.

활엽수 중에서 자작나무는 삼림욕으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뿜



NAVI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수도길 1237-89(국립김천치유의숲) ★ 1237-89 Sudo-gil, Jeungsan-myeon, Gimcheon-si, Gyeongsangbuk-do

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800m 높이의 순백색의 숲을 거닐다 보면 숲을 보호하고 가꾼 이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우리 자연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

Danjibong Forest

1237-89 Sudo-gil, Jeungsan-myeon, Gimcheon-si, Gyeongsangbuk-do

Gimcheon Danjibong Forest is characterized by forest healing in pure white East Asian white birch forests around 800m above sea level. This high-altitude area is a space where human happiness is high due to clean air and pleasant temperatures. There are various programs and facilities for forest healing operated by Gimcheon National Healing Forest. However, there is no accommodation facilities.



황금빛 낙엽송으로 물드는 고갯길

021

봉화 우구치 낙엽송숲



주요수종 낙엽송 면적 202ha 조림연도 1984년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영주국유림관리소 054)630-4031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산1-1 외 2

우구치는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에서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으로 넘어가는 큰 고갯길이다. 재를 넘어가는 골짜기 모양이 소 입 모양을 닮아서 우구치라는 이름이 생겼다. 춘양면 일대는 경상북도 최북단의 깊은 산골이다. 1923년 일제강점기부터 채굴되던 금광(금정광산), 춘양목으로 통용되는 금강소나무 목재가 생산되는 곳으로 광물자원과 산림 자원이 풍성하다.

우구치에서 우구치리로 가는 길 주변에는 금강소나무와 낙엽송이 하늘 높이 자라고 있다. 우구치 낙엽송숲은 1984~85년에 조성한 조림지(200ha)로 가슴높이 지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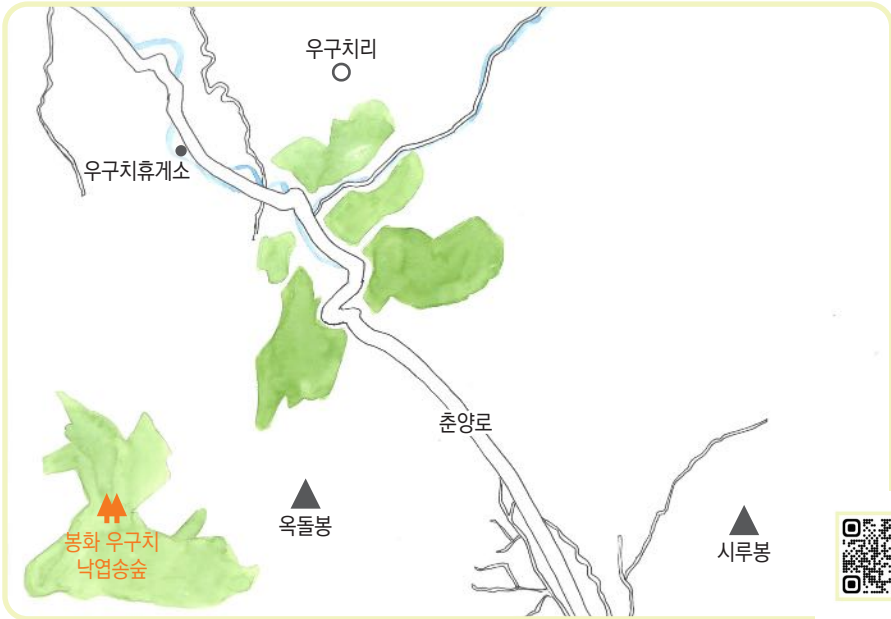
봉화 우구치 낙엽송숲



30cm, 높이 16~24m의 낙엽송이 8만 그루 넘게 자라고 있다. 낙엽송은 목재로서 가치가 높으며,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다음으로 많이 조림되는 나무이다. 우구치 낙엽송숲은 목재 생산지로 관리되고 있다.

우구치 낙엽송숲은 연둣빛 새싹이 돋는 봄, 황금빛 단풍이 물드는 가을에 최고의 경관을 선사한다. 또한 우구치 낙엽송 숲길을 따라 걷다보면 백두대간 등산로와 만나 도래기재에서 옥돌봉을 지나 박달령으로 연결된다.

옥돌봉(옥석산)은 산림청이 2006년에 지정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698ha)으로 신갈나무·소나무·피나무 등과 함께 큰연영초·금강애기나리·태백제비꽃 등 희귀 식물이 자라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나무나이 550년(추정), 밑동 둘레 105cm, 높이 5m, 가지 폭 7~8m이나 되는 철쭉이 구불텅구불텅 자라고 있다. 우구치철쭉은 2006년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인근 백두대간 마루금(물야면~춘양면) 철쭉군락지와 함께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NAVI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산 1-39 ★ san1-39, Uguchi-ri, Chunyang-myeon, Bonghwa-gun, Gyeongsangbuk-do

Uguchi Japanese Larch Forest

san1-1, Uguchi-ri, Chunyang-myeon, Bonghwa-gun, Gyeongsangbuk-do

The Bonghwa Uguchi Japanese Larch Forest, along with the Geomgang Korea red Pine Forest, show off their beauty as if they are holding onto the sky. It offers the best scenery in spring when light green buds sprout and in fall when golden autumn leaves are colored. The Uguchi Japanese Larch Forest Trail leads to the Baekdudaegan Doraegi Hill.

Okdolbong Peak in Uguchi Village is a forest genetic resource protection area designat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where rare plants grow. The azalea tree is estimated to be about 550 years old and it is growing in a winding manner. Uguchi azalea, the oldest tree in Korea, is designated as a protected tree and is also designated and managed as a national forest cultural asset.



인공림과 천연림이 어우러진 건강한 숲

022

봉화 청옥산 생태경영숲



주요수종 소나무·물푸레 외 11종 면적 177ha 조림연도 1970년대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영주국유림관리소 054)630-4031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외 1

봉화 청옥산(1,277m)의 고선계곡은 골이 깊고 수량이 풍부하여 다양한 수종들이 어울려 울창한 천연림을 이루고 있다.

산림청은 금강소나무 육성을 위해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일대 청옥산 산자락을 생태경영림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또한 참나무류·물푸레나무·단풍나무 등 다양한 식물 종이 건강한 숲을 이루고 있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청옥산 생태경영림은 대부분 인공림이며, 그중 소나무숲과 물푸레나무숲은 1980년대에 조성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천연림과 어우러져 인위적인 흔적이 사라지고 자



봉화 청옥산 생태경영숲



연스럽고 다채롭게 변모했다. 생태경영림 숲길은 주차장과 숲길안내소가 850m 지점에 있다 보니 정상까지 거리가 가깝고(왕복 7km), 길이 완만해서 여유 있게 걸어도 3시간이면 돌아올 수 있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활엽수길, 단풍나무길, 명상의 숲이 반겨주고, 화전민이 사용하던 숯가마터도 볼 수 있다. 뒤이어 자작나무숲, 잣나무숲을 지나면 노랑무늬붓꽃, 주걱비비추, 동자꽃, 히어리 등이 화사하게 피어난 야생화 자생지(자생식물원)가 반겨준다. 숲길의 끝자락 신갈나무 군락지를 지나면 어느덧 정상이다. 정상에 오르면 태백산, 장군봉, 소백산, 달바위봉의 봉우리와 능선이 사위에 시원하게 펼쳐진다.

인근에 위치한 청옥산자연휴양림은 1991년 개장했으며, 면적이 1만여ha로 우리나라 휴양림 가운데 가장 넓다. 이곳에는 나이 100년이 넘는 잣나무와 소나무·낙엽송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또 물놀이장, 체력단련장, 산막, 야영장 등도 마련되어 있다. 가까운 백천계곡도 꼭 둘러봐야 할 명소이다. 높다란 산에 둘러싸인 깊은 계곡은 곳곳에 눈시린 비경을 감추고 있다. 또한 태백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은 맑고 시원하기 이를



NAVI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청옥로 1261-32(금강소나무생태경영림안내소) ★ 1261-32 Cheongok-ro, Socheon-myeon, Bonghwa-gun, Gyeongsangbuk-do

데 없으며, 덕분에 천연기념물 74호 열목어의 최남단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Cheonggoksan Ecological Management Forest

1261-32, Cheongok-ro, Socheon-myeon, Bonghwa-gun, Gyeongsangbuk-do

Bonghwa Cheonggoksan Ecological Management Forest was designated as a forest genetic protection zone by the government to secure forest resources. Korean Pine trees and Korean red pine trees that are over 100 years old form a dense forest. Cheonggoksan Natural Recreational Forest has the largest area among the recreational forests in Korea. Camping and accommodation are available here. When accessing this recreation forest by car from anywhere, you must be prepared to be in a mountainous remote area, which will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산림경영의 모범으로 자리 잡은 숲

023

영덕 창수전시숲



주요수종 낙엽송 외 13종 면적 433ha 조림연도 1975~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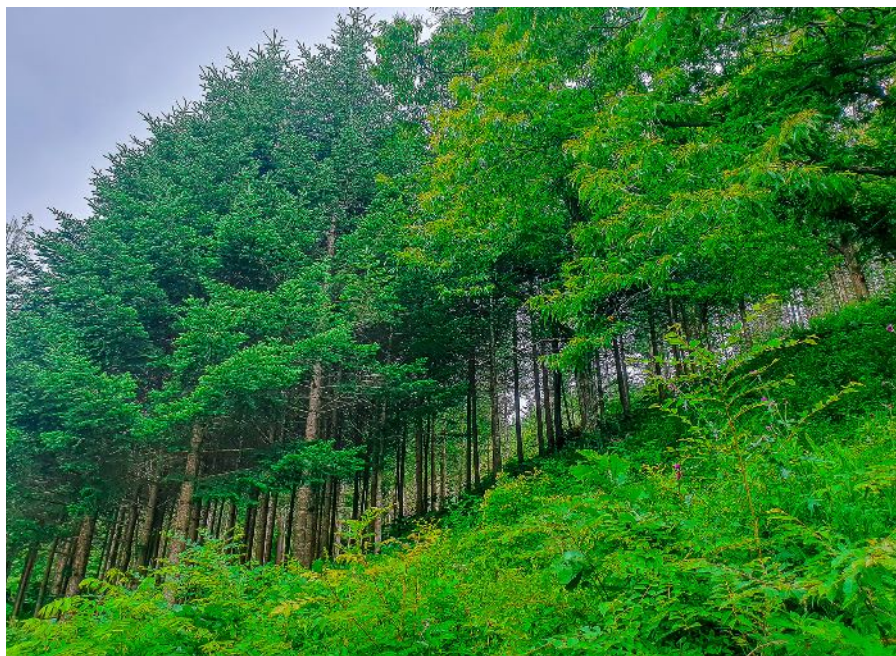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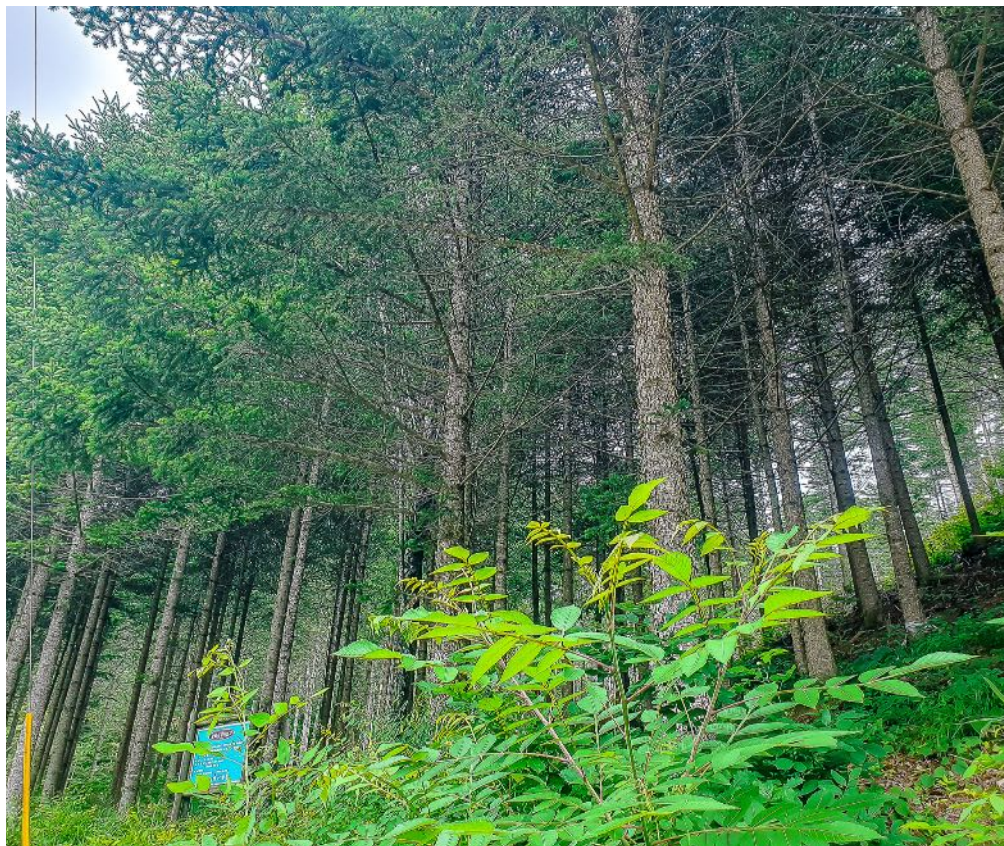
관리기관 영주국유림관리소 054)730-8131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산10-6

영덕 창수전시림이 있는 창수령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과 영덕군 창수면을 잇는 해발 700m의 고개이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고개가 너무 험해서 울면서 넘어갔다고 해서 읍령이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그러다가 인근 동네 이름을 따서 창수령으로 불리게 되었다.

창수전시림은 918번 지방도를 따라 영덕군에서 약 35km 떨어진 창수령 정상 인근에 위치한다. 1970년대 치산녹화 1차 계획 시행 당시 산림경영의 선도적 역할 및 교육 홍보를 위해 총면적 344ha가 조성되었다.





조림 권장 수종인 가래나무·소나무·독일가문비·낙엽송·잣나무 등 총 14개 수종을 심어, 숲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실행하여 다양한 나무들이 하늘 높이 뻗은 울창한 숲을 만들었다. 또한 임도와 트래킹이 가능한 등산로가 잘 개설되어 편리하게 산림체험을 할 수 있다.

자연경관이 우수한 창수전시림은 산림경영 시범과 대국민 홍보교육을 위한 전시교육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로 인접 공간에서는 각종 야생화를 만날 수 있고, 뒤로는 창수령의 경사지에 병풍처럼 줄을 서 있는 나무들의 화려한 풍광이 무척 빼어나다. 이문열 작가의 소설 《젊은 날의 초상》 속에서 숲과 나무에 대한 자연의 위대함을 감동적으로 서술한 대목의 배경이 된 숲으로 그 유명세가 높아졌다.



NAVI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창수4길 7-6 ★ 7-6 Changsu 4-gil, Changsu-myeon, Yeongdeok-gun, Gyeongsangbuk-do

Changsu Exhibition Forest

115-29, Changsu 4-gil, Changsu-myeon, Yeongdeok-gun, Gyeongsangbuk-do

Yeongdeok Changsu Exhibition Forest serves as an exhibition training center for forest management demonstrations and public promotional education. Various wildflowers can be found in the adjacent space of the road, and the colorful scenery of trees lined up like a folding screen on the slope of Changsuryung Hill becomes the background of the certification photo.



경이로운 생명력으로 되살아난

024

영양 검마산 금강소나무숲



주요수종 소나무 면적 1,259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영덕국유림관리소 054)730-8131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산23, 26

검마산(1,017m)은 나무와 바위가 마치 창과 칼이 꽃혀 있는 듯 보여 붙여진 이름으로, 산세가 빼어나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과거 선비들의 학문 수행지로도 유명했다. 검마산과 울연산 사이에 있는 본신계곡에는 금강소나무 군락이 울창하게 펼쳐져 있다. 이 천연 금강소나무는 예전부터 궁궐이나 사찰 건축 및 보수에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 금강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백성의 출입을 금지하는 봉산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많은 소나무가 수탈되었고, 한국전쟁 때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처럼 쓸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금강소나무는 강인한 회복력으로 스스로 뿌리내리고 잎을 펼쳐 오늘날 다시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영양 검마산 금강소나무숲



본신계곡에는 소나무·참나무류·신갈나무·오리나무·낙엽송·자작나무 등 다양한 수종들이 자라고 있는데 계곡을 중심으로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이 자리 잡고 있다. 생태경영림은 숲나이 50년이며, 가슴높이 지름 22cm, 높이 10m에 이르며 중간지름나무와 큰 지름나무가 능선과 계곡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중 40ha의 700그루 소나무가 문화재 복원용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은 임업 장비를 활용하여 숲을 가꾸는 임업기계화 시범사업장으로 정비되었으며, 2007년부터 금강소나무 후계림을 조성하고 있다.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에는 산책로를 따라 평상과 벤치, 유아 숲 체험 시설물, 금강소나무전시관, 수비솔솔유아숲체험원, 자생식물탐방로 등이 마련되어 있다. 더불어 계곡을 중심으로 한 먹이사슬 복원 프로그램(물막이보 설치, 갯벌들 등 식재, 새집 달기)과 에코투어(생태학습여행)를 시행하고 있다.

검마산 금강소나무숲 주변 검마산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관, 숲속도서관, 야영장, 산책로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NAVI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검마산길 191(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 ★ 191 Geommasan-gil, Subi-myeon, Yeongyang-gun, Gyeongsangbuk-do

Geommasan Geomgang Korea red Pine Forest

191 Geommasan-gil, Subi-myeon, Yeongyang-gun, Gyeongsangbuk-do

Geommasan Geomgang Korea red Pine Forest was utilized as a palace or temple building material, and is currently used for cultural heritage restoration. The forest age is 50 years, and each tree's average chest height is 22cm thick and 10m high. There are Geomgang Korea red Pine Exhibition Hall and native plant trails. In addition, there is a food chain restoration program centered on the valley. Nearby there are Jusil Village (Jo Ji-hoon's birthplace and literature hall) and Doodle Village (Lee Moon-yeol's birthplace).



숲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다

025

거창 북상 잣나무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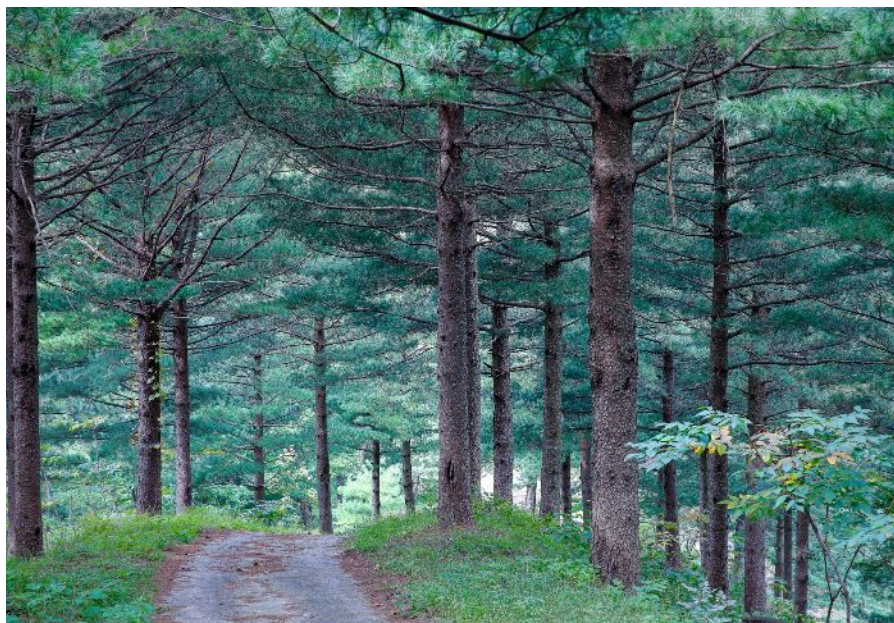


주요수종 잣나무 등 면적 271ha 조림연도 1975년
소유 사유림(개인)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예약제)
관리기관 북상임산 055)945-170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37-4~5

거창 북상 잣나무숲은 해발 500~1,000m에 위치하며 북상임상이 산림복합경영을 펼치고 있는 숲이다. 제1차 산림녹화 계획이 시행되던 1970년대 초에 독립가 유형렬 선생이 조림하였다. 유형렬 선생은 미래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임업인은 늘 부지런해야 하며 나무는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기에 자식처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는 신조로 사재를 털어 매입한 임야에 조림을 시작하였다.

입지 특성에 맞춰 잣나무와 편백, 낙엽송, 고로쇠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심었고 현재까지 271ha가 넘는 면적에 숲을 가꾸었다. 또한 1998년부터는 숲가꾸기를 통해서 지속가



거창 북상 잣나무숲



능한 산림자원을 구축하였고, 현재에도 해마다 지속적인 조림, 숲가꾸기 등으로 산림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잣나무 등 초기에 심어진 잣나무 등 나무들은 5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수확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기에 도달하였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산림소득을 다양화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산림복합경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연별 수입원으로 잣(실백),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계절별 수입원으로 고로쇠수액·두릅·고사리·자연산 송이·산약삼 등을 생산하고 있다.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소득 분야 등 우수한 산림 활용을 인정받아 1986년에는 모범독림가로 지정되고, 2008년에는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였다. 50여 년간 사유림 산림경영 노하우와 경험을 임업 후계자, 산촌 주민, 임학 전공생, 일반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교육연수원 운영하고 있다.



NAVI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병곡길 186-298(북상임산) ★ 186-298 Sansubyeonggok-gil, Buksang-myeon, Geochang-gun, Gyeongsangnam-do

Buksang Korean Pine Forest

san37-4~5, Sansu-ri, Buksang-myeon, Geochang-gun, Gyeongsangnam-do

In Geochang Buksang Pine Forest, 50 years ago, exemplary forest manager, Yoo Hyungryul, invested his personal property to buy a mountainous area and plant trees. Mr. Yoo said, "Forestry workers should always be diligent, and trees grow up listening to the sound of their owners' footsteps, so they should always take care of them with interest like their own sons and daughters. His belief like that is a lesson for many forestry workers. He has abundant know-how in planting trees and economically utilizing forests, and provides education to share this with forestry successors and the public. This forest earns forest income such as nuts as well as various wild vegetables.



산림의 미래가치를 향한 모색

026

의령 응봉산 황금부자숲



주요수종 소나무 면적 75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사유림(개인)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의령군 산림조합 055)573-2585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오목리 산75-1

응봉산(597m) 일대는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되어 명품 소나무, 편백 경제림, 밤나무 특화림, 두릅나무 특용수림, 청미래 등 총 225ha 면적에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변화하는 산림경영의 패러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응봉산 황금부자숲은 명품 소나무 숲가꾸기 사업지 75ha를 대상으로 임업의 6차산업화를 위하여 산림의 생산·치유·체험으로 다양한 가치 구현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조성했다. 2020~22년에 숲가꾸기가 이루어진 소나무숲은 가슴높이 지름 20m, 높이 15m, 임목축적 150m³/ha 상태이다. 소나무숲 아래에는 지역주민의 소득원이자 재배기



의령 응봉산 황금부자숲



술 증진을 위한 산림텃밭을 조성해서 주민에게 분양하였고, 황금회화나무, 황금사철나무 등을 심어서 경관적으로 미래가치를 높이는 일도 부지런히 하고 있다.

응봉산 황금부자숲은 임도 입구에서 산 정상부 산림광장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여 누구나 산림체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산림광장, 하트임도, 밤나무 특화림 산책로 시설로 여러 가지 숲의 가치를 구현하는 모범적인 숲이다.



NAVI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오목리 산 75-1(카카오맵 : 산림광장) ★ san75-1, Omok-ri, Yugok-myeon, Uiryeong-gun, Gyeongsangnam-do

Golden Rich Forest of Eungbongsan

san75-1, Omok-ri, Yugok-myeon, Uiryeong-gun, Gyeongsangnam-do

The Golden Rich Forest of Eungbongsan Mountain in Uiryeong is a representative place where you can check the changing paradigm of forest management through a luxury Korean red pine forest cultivation project site. The Golden Rich Forest is accessible by vehicle from the forest road entrance to the forest plaza at the top of the mountain, so anyone can conveniently experience the forest. It is an exemplary forest that embodies various forest values through a forest plaza, heart forest road, chestnut tree specialty forest, and trail facilities.



옷깃을 여미게 하는 청량하고 서늘한 숲

027

서귀포 서영아리오름 삼나무·편백 숲



주요수종 삼나무·편백 면적 409ha 조림연도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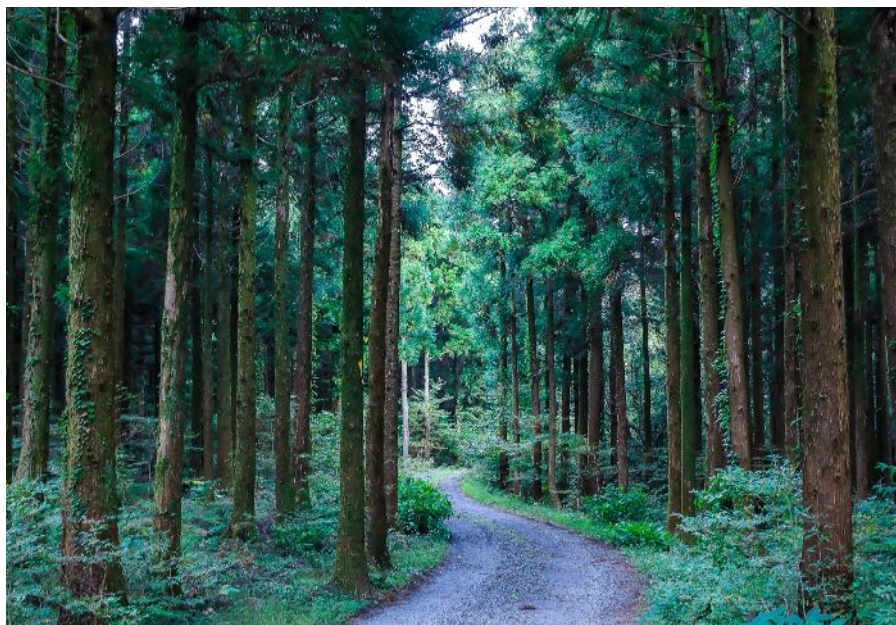
소유 사유림(개인)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서귀포시청 064)760-304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24

서영아리오름(높이 693m, 둘레 2,709m)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에 있는 오름으로, 신성한 산이라는 의미의 ‘영아리오름’, 용이 누운 모습과 닮아서 ‘용와이오름’, 동쪽의 남원을 수망리에 위치한 물영아리오름과 구별하기 위해 ‘서영아리오름’ 등으로 불린다.

한라산 서남쪽 기슭 중산간 지대에 자리 잡은 서영아리오름은 몸집이 크고 정상 부근은 산세도 가파르다. 정상부는 크게 두 개의 봉우리가 이어지며, 두 봉우리 사이에 말굽 모양의 굴부리(분화구)가 널찍하게 입을 벌리고 있다. 정상에서는 한라산이 손에 잡힐 듯 보이고, 완만하게 흘러내리는 구릉지대에 오뚝 솟은 오름들, 그리고 새파란 바다가 드넓



서귀포서영아리오름삼나무·편백숲



게 펼쳐진다.

서영아리오름 서쪽 사면에는 습지(행기소)가 숲속 깊이 몸을 숨기고 있다. 구멍이 숭숭 뚫린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제주에서 물이 고인 습지가 형성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서영아리 습지 주변은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었으며, 예전에는 근처 주민들도 물을 길어 사용했다고 한다.

서영아리오름은 한때 벌목 등으로 황폐해졌는데, 산사태나 홍수를 막고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1970년대에 삼나무와 편백을 심고 가꾸었다. 이 삼나무와 편백은 어느덧 서영아리오름 일대를 높푸른 숲으로 뒤덮었다. 또한 이곳 편백숲에서는 유기농 인증 표고버섯을 재배해서 지역주민의 산림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험림으로 지정해서 삼나무를 수확해서 활용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서영아리오름 숲에는 임도를 활용한 길이 동서로 연결된다. 늘씬하고 흰칠하게 자란 삼



NAVI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26 ★ san26, Sangcheon-ri, Andeok-myeon, Seogwipo-si, Jeju-do

나무와 편백이 숲길 양쪽으로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서 한여름에도 서늘하고 청량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이 숲길은 영아리오름, 마보기오름, 돌오름까지 이어진다. 한라산둘레길의 돌오름길 구간(보림농장 삼거리 — 돌오름 — 표고재배 삼거리 — 용바위 — 거린사슴 입구, 8km)과 연계해서 걷기에도 적당하다.

Seoyeongarioreum Forest

san24, Sangcheon-ri, Andeok-myeon, Seogwipo-si, Jeju-do

Seogwipo Seoyeongarioreum Forest is the largest artificial afforestation in the southern part of Jeju. The Japanese cedar and Japanese False Cypress are now caused by trees planted in the 1970s to protect the mountains devastated due to logging. These trees not only increase forest income, but also provide a recreational role for walking on the Dulegil trail.



제주의 자연환경이 빛은 신성한 공간

028

서귀포 한남 사려니오름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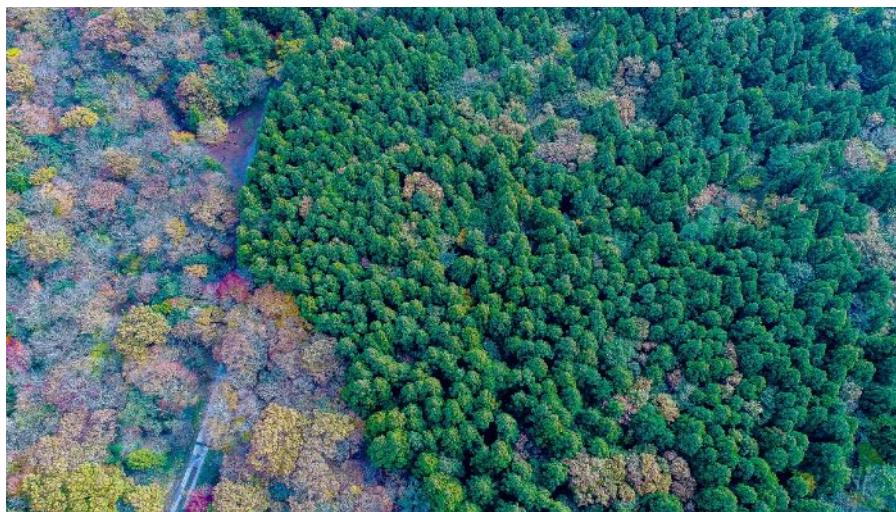
주요수종 삼나무·서어나무·참나무류·불가시나무 등 총 440종 **면적** 1,223ha **조림연도** 1933년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예약제)
관리기관 국립산림과학원(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064)730-727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2-1 외 1필

‘사려니’는 제주도 말로 ‘신성하다’는 뜻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한남리의 사려니오름은 주변 오름 중에서 가장 높고 가파르며, 봉우리 북동쪽으로 깊게 파인 반달 모양의 말굽형 분화구를 지닌 화산체이다. 사려니오름숲(한남연구시험림)은 오름을 중심으로 1,223ha 규모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오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평탄하여 접근성이 좋고, 천혜의 자원과 역사 유적이 어우러져 독특하고 유려한 풍경을 자랑한다.

사려니오름숲에는 삼나무·곰솔·편백·소나무·주목·비자나무 등 침엽수 6종과 낙엽활엽수 35종, 상록활엽수 19종 등 다양한 수종이 숲을 이루고 있다. 사려니오름숲의 주요수종인 삼나무는 1933년에 조림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1,850여 그루는 높이 30m, 가슴높이 지름 1m로 생장 상태가 아주 우수하다.

삼나무 외에도 불가시나무·서어나무·매죽나무·줄참나무·산딸나무·단풍나무·편백·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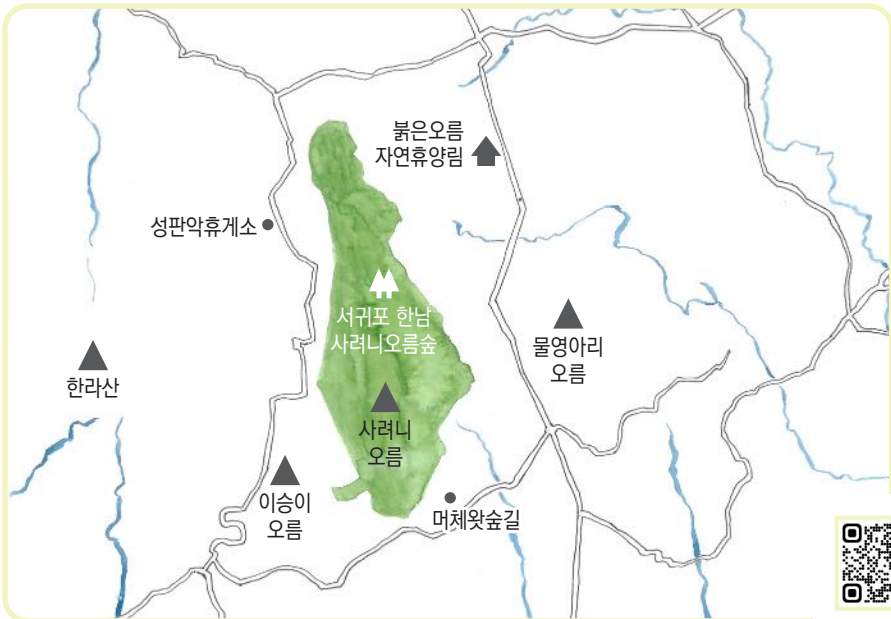
서귀포 한남 사려니오름숲



상나무 숲과 양하·참꽃나무·두루미천남성·성널수국·한라새우난초·오소리·제주족제비·노루·붉은사슴·매·팔색조·참매·박새·원앙·쇠살모사·제주도룡뇽·반디불이 등 천연기념물과 희귀종들이 안정적이고 다채롭게 생태계를 이룬다.

유네스코는 사려니오름숲을 제주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한남연구시험림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과 난대·아열대 수종들의 연구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사려니오름숲 일대에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가축을 방목하거나, 화전민이 숲을 만들고 곡식과 표고를 재배했으며, 숲속 곳곳에 화전마을과 숯가마터 등이 남아 있어 옛 제주 주민의 삶의 흔적을 엿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사려니오름숲을 방문하려면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휴양복지 → 숲길/둘레길 → 숲길 → 한남시험림탐방 메뉴에서 반드시 사흘 전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한라산둘레길의 사려니숲길은 제주시 봉개동 비자림에서 물찾오름을 거쳐 붉은오름까지 구간으로 사려니오름숲과는 다르다. 사려니오름숲에는 1.7km(40분), 2.3km(60분),



NAVI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651번길 255(한남시험림 탐방안내소) ★ 255 Seoseong-ro 651beon-gil, Namwon-eup, Seogwipo-si, Jeju-do

3km(80분) 등 세 가지 탐방코스가 조성되어 있으며, 한남연구시험림에서 듣고 보는 신비한 제주 숲 이야기, 버섯 체험, 목공 체험 같은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Saryeoni Forest

1648-87, 516-ro, Namwon-eup, Seogwipo-si, Jeju-do

Seogwipo Saryeoni Forest is located around Saryeoni Oreum. This is Jeju Island's representative Japanese cedar forest and is currently a research and experimental fores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Saryeoni Forest has 60 species of trees. Natural monuments and rare species inhabit the forest, and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such as old residential sites can be seen. Exploration courses and forest experience programs are operated, allowing for various forest experiences.



곧게 솟아나 사계절 푸르른 큰 숲

029

제주 죽은노꼬매오름 삼나무·편백 숲



주요수종 삼나무·편백 면적 55ha 조림연도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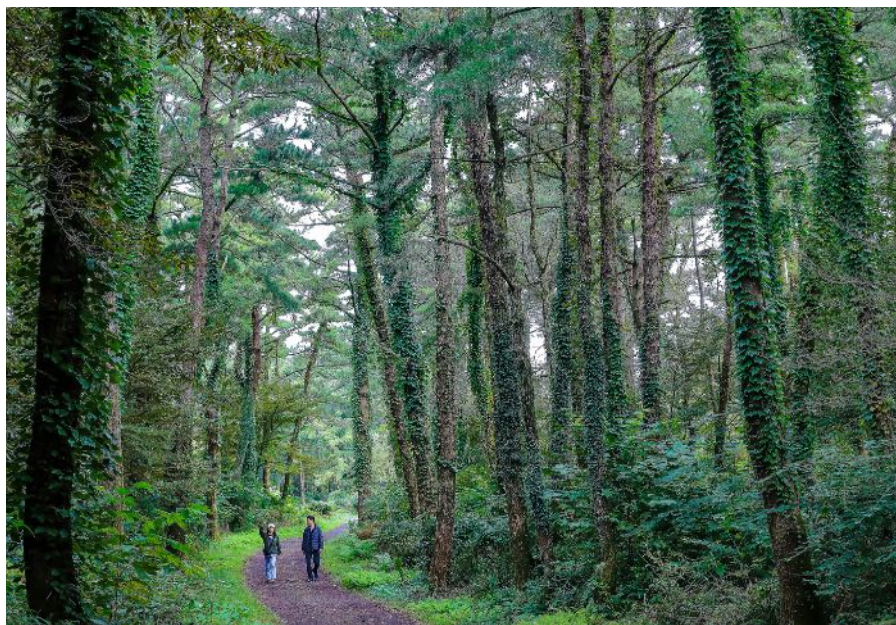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경영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제주시청 064)728-898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138

죽은노꼬매오름(높이 775m, 둘레 4,390m)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와 소길리 사이에, 바로 옆의 큰노꼬매오름과 나란히 솟은 오름이다. ‘죽은’은 ‘작은’을 뜻하는 제주 말인데, 큰노꼬매오름에 견주어서 작다는 뜻이지 자체로는 높고 크고 가파른 산에 가깝다. 오름 정상부에 오르면 북서쪽으로 벌어진 말굽 모양 분화구가 보이며, 제주 서쪽 바다와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다.

죽은노꼬매오름은 대부분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1970년대에 55ha 면적에 조림된 삼나무와 편백이 우람하게 하늘 높이 솟아 있다. 또한 졸참나무·서어나무·고로쇠나



제주 죽은노꼬매오름삼나무·편백숲



무·곰솔이 군락을 이루고, 나무 밑동 사이를 고사리와 조릿대가 뒤덮고 있다. 삼나무·편백숲은 대부분 국·공유림으로, 산림경영 기반 조성을 위한 임도가 마련되어 숲길로 활용되고 있으며, 숲가꾸기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죽은노꼬매오름 북쪽에는 너른 풀밭이 펼쳐지는데, 조선시대에 제주에 말을 기르기 위해 지정한 10곳의 목장 중 5소장이 있던 자리다. 목장 주변에는 돌담을 쌓아서 경계를 지었는데, 이 돌담을 잣성이라고 한다. 잣성은 해발고도에 따라 하잣성, 중잣성, 상잣성으로 나뉘는데, 이곳은 상잣성에 속하며, 죽은노꼬매오름 산책로에도 상잣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상잣길에는 지역주민들이 복원한 잣성이 쌓여 있어서 제주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정취를 한결 더 만끽할 수 있다.

죽은노꼬매오름 일대에는 253ha 면적의 서부자연휴양림이 조성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잔디 광장, 오토캠핑장, 유아숲체험원, 어린이 체육·놀이시설, 무장애 탐방로, 스카이라이프, 숲길 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NAVI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255-4 ★ san255-4, Sogil-ri, Aewol-eup, Jeju-si, Jeju-do

죽은노꼬매오름은 큰노꼬매오름과 갯물오름으로 길이 이어지며, 한라산둘레길(천아숲길 천아계곡—임도 삼거리—노로오름 삼거리—보림농장 삼거리, 8.7km)과 연계해서 도보여행을 즐길 수 있다.

Jokeunnokomeoreum Forest

san138, Yusuam-ri, Aewol-eup, Jeju-si, Jeju-do

Jeju Jokeunnokomeoreum Forest was planted with Japanese cedar trees and Japanese False Cypress in the 1970s. Most of the forests are so dense that they cover the sky. A natural recreation forest is created in this forest, and there are convenient facilities such as an infant forest experience center and a camping site. Here, the trekking course that connects to the Hallasan Dulegil Trail is preferred by many people. People who are not physically strong can walk quietly along the forest path.



서울 도심을 초록으로 물들이다

030

서울 북악산 열린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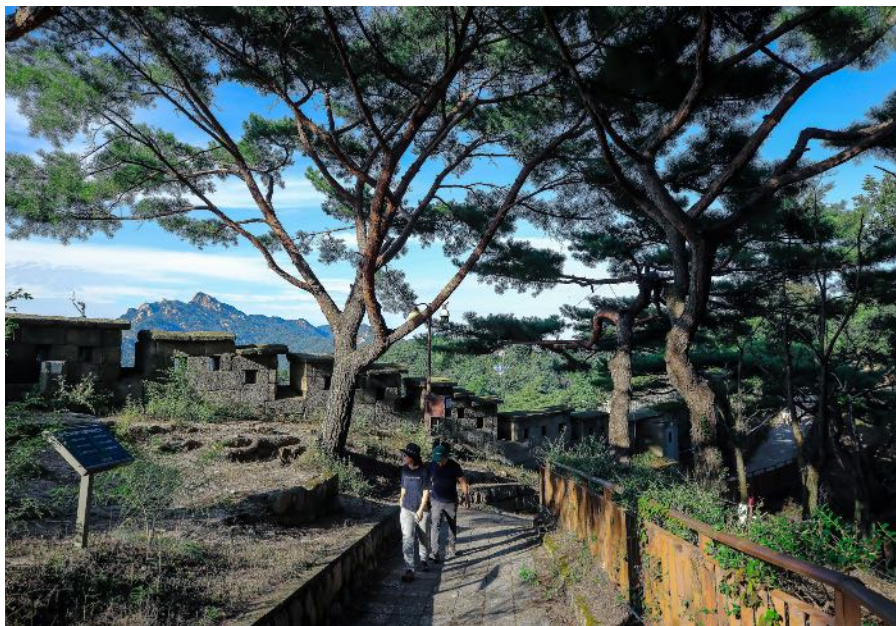
주요수종 소나무·신갈나무·아까시나무 등 면적 359.8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서울 종로구청 02)2148-2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 2-1번지

북악산(342m)은 경복궁의 북쪽에 우뚝 솟아 조선 왕실을 수호하는 산이었다. 북한산과 연결된 서울의 핵심 녹지로 소나무·신갈나무·졸참나무·상수리나무·오리나무·팔배나무 등과 인공조림된 아까시나무·물오리나무·은사시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우점종인 소나무는 정상에서부터 산기슭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인공조림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아까시나무는 점차 자연도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곡부에는 물오리나무·산벚나무·귀풍나무 등이 나타나고 화강암 지반의 특징 종인 노간주나무도 흔히 볼 수 있다. 숲 가장자리에는 보리수나무·국수나무·붉나무·병꽃나무 등 다양한 관목류가 많이 나타난다.



서울 북악산 열린숲



북악산 열린숲은 그동안 청와대 뒷산 군사보호구역으로 굳게 닫혀 있다가 54년 만에 개방되었다. 종로구에서는 2022년 청와대 개방에 맞추어 북악산 숲길 탐방로를 조성하였고, 이때 과거 군부대 순찰로를 따라 탐방로를 조성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했다. 또한 숲가꾸기를 통해 북악산 숲속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단장되었다.

북악산 열린숲은 장기간 군사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면서 자연스럽게 산림이 보존되었다. 주요 수종은 우람한 소나무와 신갈나무이다. 사방으로 연결된 숲길 터널을 오르면 북악산 정상부 스카이웨이 전망대까지 다다를 수 있다. 문화해설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고 북악산 기슭에 위치한 삼청공원의 유아숲체험원에서는 산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악산 열린숲은 인사동, 삼청동 등지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하고, 대중교통편도 잘 갖춰져 있다. 숲길을 걷는 내내 대도시 한가운데 이처럼 아름답고 시원한 숲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경탄할 것이다.



NAVI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청와대 춘추관) ★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Bukaksan Open Forest

134-1, Bukchon-ro, Jongno-gu, Seoul

Bukak Mountain Open Forest had been closed off as a mountain behind the Blue House, but was fully opened for the first time in 54 years. Jongno-gu Office did forestry along the Bukaksan Mountain trail, including Mongolia oaks and Korean red pine trees, which are the main species of the forest. As a result, the scenic value of Bukaksan Mountain's forest was highly enhanced. Forest experience education is provided at the Infants' Forest Experience Center in Samcheong Park, located at the foot of Bukaksan Mountain. It is the best mountainous forest path to access from downtown Seoul.



서울 시민이 사랑한 도심 속 쉼터

031

서울 우이동 솔밭공원 소나무숲



주요수종 소나무 면적 3.5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군유림(서울 강북구)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서울 강북구청 02)901-695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61

조선시대에 우이동은 도성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마을로, ‘우이(牛耳)’라는 이름은 삼각산의 봉우리가 마치 소의 귀처럼 생긴 것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북한산국립공원의 동쪽에 자리한 우이동 솔밭공원 소나무숲은 꾸미거나 가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천연림이다.

우이동 솔밭공원 소나무숲은 사유지로 80년대 중·후반 개발 붐이 이곳까지 이어져 1990년에는 아파트 개발지로 선정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숲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1997년 서울시와 강북구가 땅을 매입



서울우이동솔밭공원소나무숲



하고 2004년에 솔밭근린공원으로 조성했다.

솔밭공원 면적은 3.5ha로 나이 100년의 소나무 1천여 그루, 느티나무·상수리나무 등이 함께 자라는 숲을 이루고 있는데, 솔밭공원에는 서울 유일의 평지형 소나무숲이 있어 줄기가 곧게 자란 늙은 소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솔밭공원은 자생 소나무를 최대한 보존한 가운데 실개울, 생태연못, 그늘 시설, 산책로 등 조경 시설, 배드민턴장, 건강지압길 등 운동 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휴식 시설, 야외 무대, 놀이마당, 조형물 등 문화시설 등을 갖춘 생태문화공원이다. 또한 감국·관중·금낭화·꽃무릇·꽃창포·비비추·원추리·옥잠화 등 27종의 야생화와 수생 식물도 관찰할 수 있다.

솔밭공원은 주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문화 행사가 열리는 축제의 장이며 정서교육과 생태교육의 장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숲의 좋은 예이기도 하다.



NAVI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61 ★ 561 Samyang-ro, Gangbuk-gu, Seoul

Korean Red Pine forest in Solbat Park

561, Samyang-ro, Gangbuk-gu, Seoul

The Korean red pine forest in Solbat Park in Ui-dong is a natural forest, close to downtown Seoul, making it a comma in Seoul that many people visit. In addition to the Korean red pine trees that grow naturally, various wild flowers and aquatic plants live here, and it is loved as an ecological and cultural park equipped with sports facilities and an outdoor stage.



역사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듩직한 벗

032

서울 인왕자락숲



주요수종 소나무·상수리나무·아까시나무 등 면적 108.6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서울 종로구청 02)2148-2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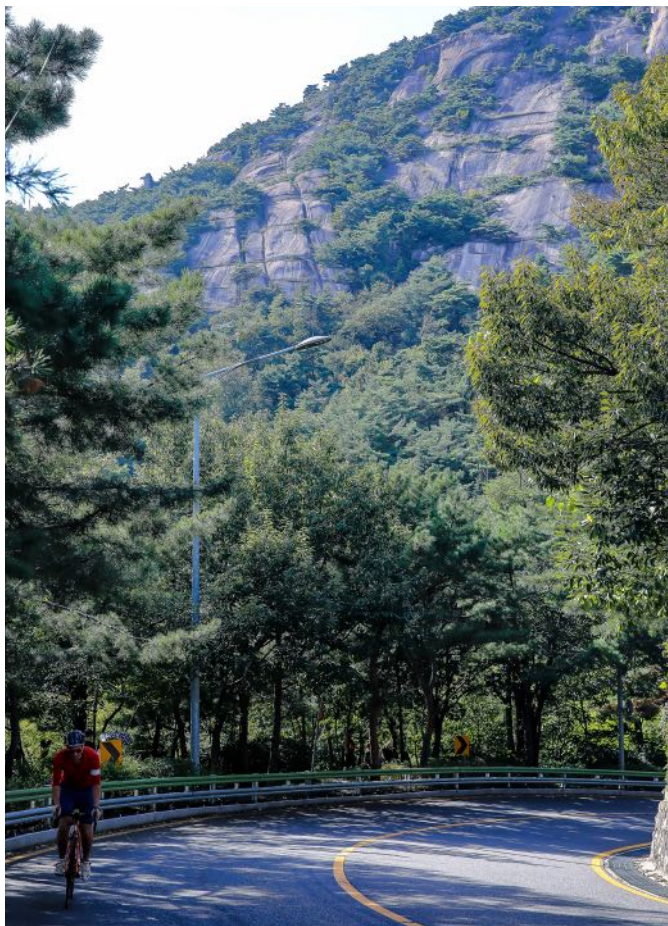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산 3-14 일대

인왕산(338m)은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에 걸쳐 있다. 인왕산은 그리 높지 않지만 산 전체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숲과 기암괴석이 조화를 이루어 신비감을 자아낸다. 조선시대 많은 이들이 방문하여 신비한 인왕산을 글과 그림으로 묘사하였다. 겸재 정선 <인왕제색도>가 대표적이다.

조선시대에는 ‘인왕산 모르는 호랑이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호랑이 출몰이 잦은 울창한 숲이었다. 조선 흥망성쇠 역사의 면면을 함께한 담담한 소나무가 골고루 산재해 있다. 인왕자락숲은 주로 소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상당수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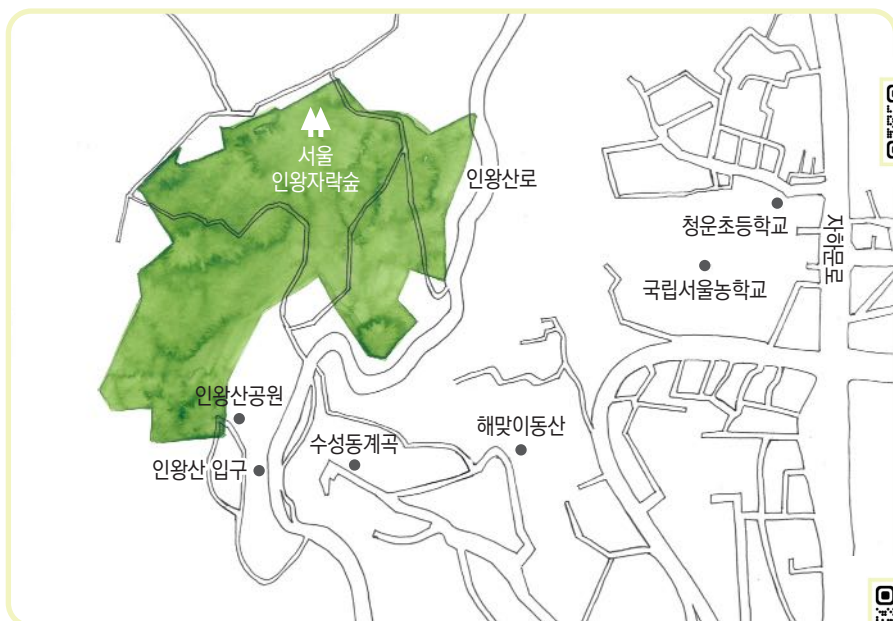


서울 인왕자락숲



이곳 일대는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통제되었다가 개방되면서 순찰자들의 길이 아담한 숲길로 변모하였다. 사직단—황학정—수성동계곡—전망대—청운공원—운동주문학관에 이르는 인왕산자락길에는 울창한 숲 경관과 더불어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유적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서울 도심의 경관이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그야말로 역사·문화·생태가 살아 숨 쉬는 숲길이다.

인왕산자락길은 서울도성과 창의문까지 이어진다. 또한 대중교통 및 지하철이 가까이 연결되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



NAVI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15-32(황학정) ★ 15-32 Sajik-ro 9-gil, Jongno-gu, Seoul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119(윤동주문학관) ★ 119 Changuimun-ro, Jongno-gu, Seoul



윤동주문학관

Inwangsan Jarakgil Forest

san3-14, Ogin-dong, Jongno-gu, Seoul

Inwangsan Mountain's Jarakgil Forest is dominated by Korean red pine trees and oak trees. Inwangsan Mountain is entirely made of granite, and the forest and strange rock formations are in harmony, and famous painters have painted a lot since ancient times. In the meantime, the patrollers' path of the military protection zone was transformed into a forest path. Gyeongbokgung Palace, the highest palace of Joseon, is connected to this mountain and has the charm of experiencing history, culture, and nature all at once.



부산시민의 오랜 벗

033

부산 성지곡 삼림욕장 편백숲



주요수종 편백·삼나무 면적 10ha 조립연도 1909년

소유 시유림(부산시)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부산 부산진구청 051)605-4546, 부산어린이대공원 051)860-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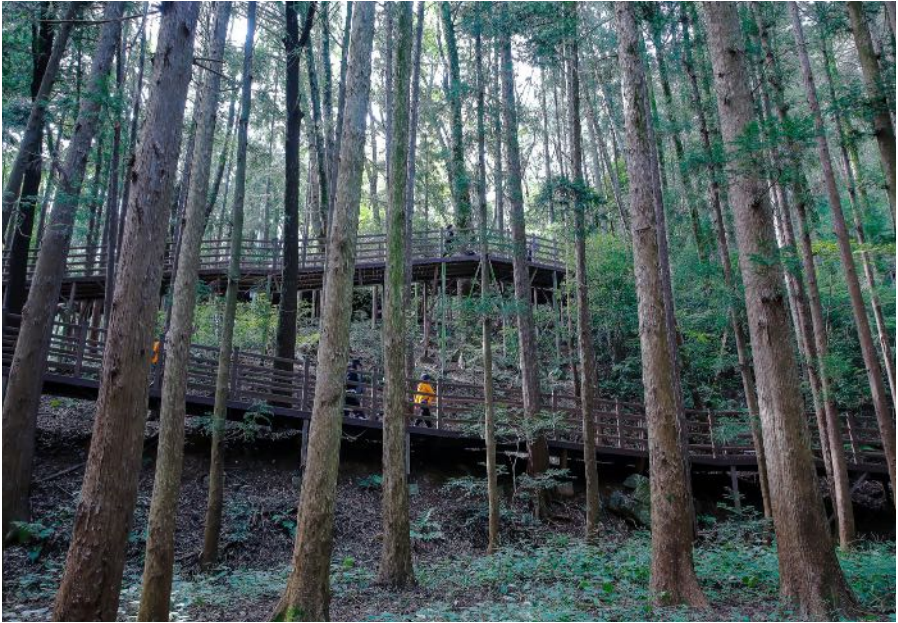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98-1

백양산(642m)은 부산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덕분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아왔다. 백양산 동쪽 기슭의 성지곡을 따라 흐르던 물은 부전천으로 이어지며, 부산 도심을 흐르는 동천으로 합류한다. 이곳 성지곡에는 오랜 역사를 품은 수원지가 있다.

1909년에 식수로 사용할 수원지를 만들기 위해 백양산 중턱 성지곡에 댐이 건설됐다. 성지곡 수원지가 생겨나던 시기에 백양산은 황폐한 민둥산이었으며, 산사태를 방지하고 토사가 수원지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편백과 삼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이후 성지곡



부산 성지곡 산림욕장 편백숲



수원지는 식수원으로 사용되면서 꾸준히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1941년 성지곡 수원지 일대에 시민들의 휴식과 놀이시설을 갖춘 유원지가 개장했으며, 1972년 낙동강 상수도 공사가 완공되면서 상수원으로서 역할이 중단되었고, 1978년에 자연보호지구로 지정되었으며, 1978년 어린이대공원으로 개발되었다.

이처럼 오랜 역사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성지곡 수원지는 백여 년 동안 꾸준히 보호·관리되어왔다. 산림욕장이 된 지금은 피톤치드 농도가 주변에 비해 월등히 높아 방문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숲으로 손색이 없다.

성지곡수원지는 도심에서 가깝고 산책로와 수변공원, 산림욕장 등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부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아침저녁으로 산책로를 느리게 걸으며 물에 비치는 아름다리나무 그림자를 감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수원지 북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성지곡산림욕장은 10ha 면적에 총 거리 3.5km 산책로



NAVI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부산어린이대공원) ★ 295 Saessak-ro, Busanjin-gu, Busan

를 따라 편백과 삼나무 등 5만여 그루의 나무가 말끔하게 정돈된 상태로 늘어서 있다. 편백과 삼나무숲은 근거리에 크고 복잡한 도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해줄 만큼 상쾌하고 고요하다.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in Seongjigok Forest Bathing Site

295, Saessak-ro, Busanjin-gu, Busan

The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area including Seongjigok Forest Bathing Site in Busan supplies drinking water used by Busan citizens. Due to the abundance of water, Japanese cedar and Japanese False Cypress grow luxuriantly and display a beautiful appearance. As it is close to the city center, trails, waterfront parks, and forest baths are well established, and it has long been loved by Busan citizens.



도심에서 즐기는 편백 테라피

034

부산 황령산 편백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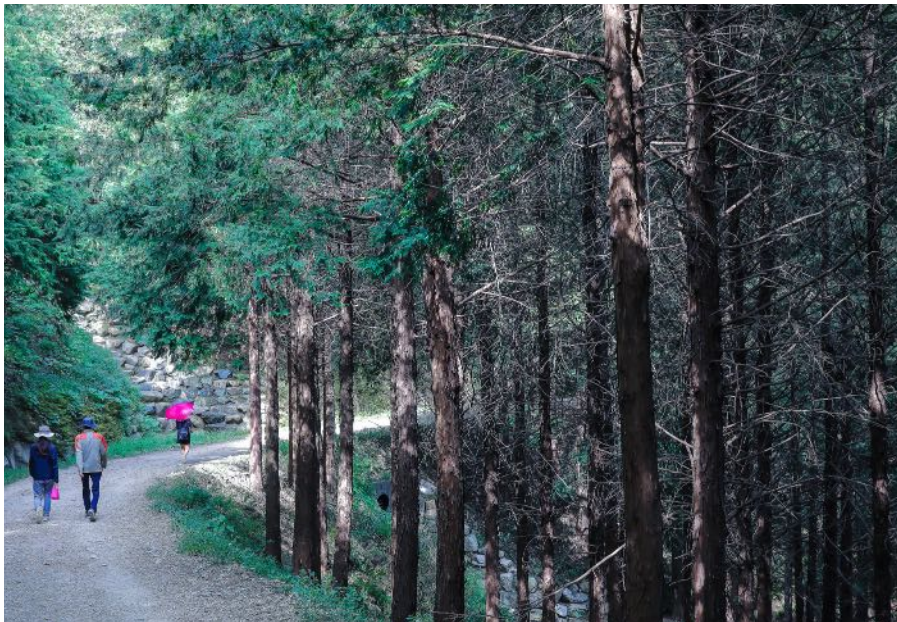


주요수종 편백 면적 76ha 조림연도 1976~81년 소유
사유림(개인)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부산
남구청 051)607-4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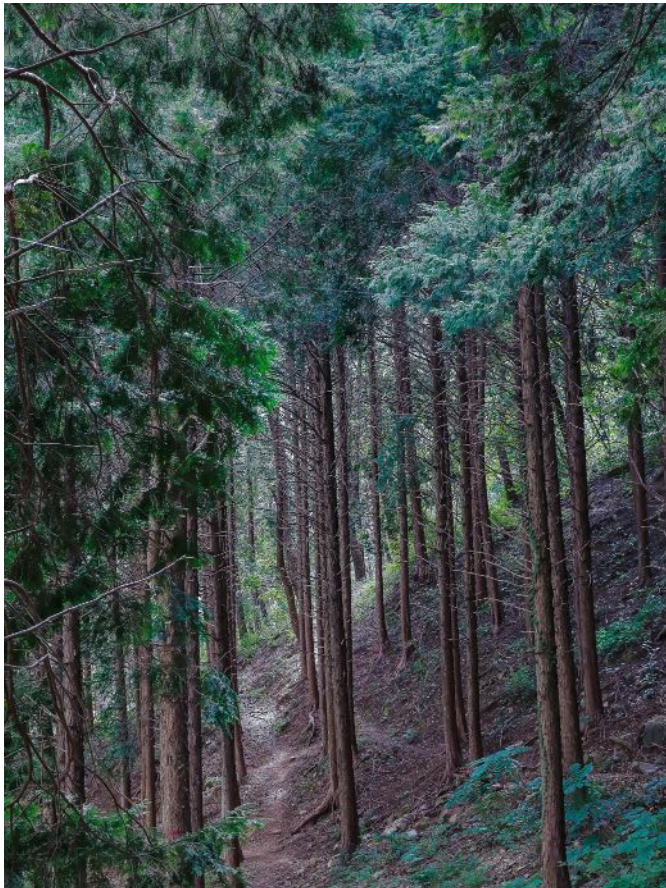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산 54-36번지 일원

부산 남구에 있는 황령산 편백숲은 1976년부터 1981년까지 경제림 조성을 위해 76ha 에 19만 그루의 편백나무가 심어진 곳으로, 현재는 가슴 높이 두께가 20cm가 넘는 편백나무 가 뻗뻗이 자라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황령산 바람고개에서 시작되는 약 1km의 임도 산책 즐기기에 적합하고,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편백숲 내에 개설된 임도를 통해 탐방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황령산 편백숲 근처에 위치한 황령산 입구 문헌 생태숲은 공동묘지 및 무단경작지를 개선하여 조성되었으며, 2016년부터 이팝나무 등 60여 종의 수목과 계절마다 다른 야생초



부산 황령산 편백숲



를 심어두었다. 면적이 2.8ha인 도심(문현동) 속의 작은 생태숲은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 쉼터, 정자 등을 갖추고 있어 휴식과 자연을 즐기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황령산은 전망대와 벚꽃길로도 유명한데,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지 선정을 기념하여 시민들의 휴식처 조성을 위하여 왕벚꽃나무를 심었다. 꽃잎들이 풍성한 봄철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이고 황령산 전망대까지 연결되어 방문이 편리하다. 4월에는 황매화 군락지에서 노란 빛깔의 꽃을 볼 수 있고 9월에는 꽃무릇 등 야생화가 자라고 있어 편백숲의 울창함과 함께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광안대교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황령산 봉수대, 전망쉼터, 사자봉은 부산 전역의 경관



NAVI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산 53-19 ★ san53-19, Daeyeon-dong, Nam-gu, Busan

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으며, 높이 약 10m 돌탑 길을 따라 황령산 편백숲으로 이어지는 길은 황령산 편백숲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로 중 하나이다.

Hwangnyeongsan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san54-36, Daeyeon-dong, Nam-gu, Busan

Busan Hwangnyeongsan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is located on Hwangnyeongsan Mountain, which is located in the center of Busan Metropolitan City. Because this mountain is not rough, it is a comfortable natural resting place that many citizens enjoy. Hwangnyeongsan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began to be built in 1976, and currently, Japanese False Cypress over 20cm thick are growing densely. In spring, the cherry blossom trees bloom, making it a famous cherry blossom spot in Busan, attracting more and more visitors.



서해의 파도와 바람이 키워낸 숲

035

인천 무의도 호룡곡산·국사봉숲



주요수종 소나무·소사나무·떡갈나무 등 면적 331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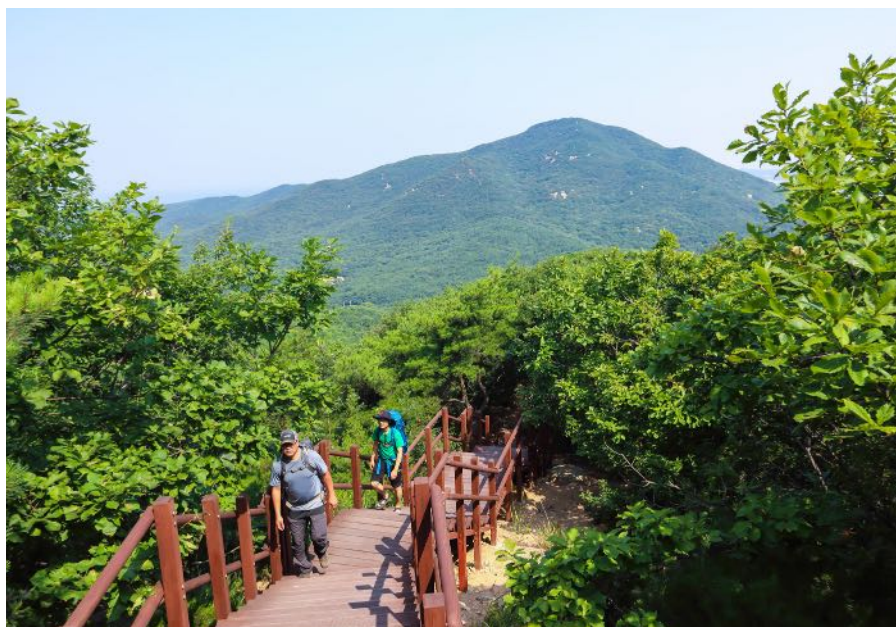
관리기관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61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51-1 외 50필

무의도는 인천국제공항(영종용유도)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섬 생김새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장수가 칼춤을 추는 모습, 또는 여인이 춤추는 모습을 닮아서 무의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과거에는 영종용유도와 방조제로 연결된 잠진항에서 대무의항 사이를 연락선이 운항했으며, 2020년에 무의대교가 정식 개통하면서 육지와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었다. 빼어난 비경을 자랑하는 무의도는 접근성이 좋아지고, 해안길 테크 등 여행자들을 위한 시설을 정비하면서 많은 사람이 찾는 서해 명소가 되었다.

호룡곡산(246m)은 호랑이와 용이 싸운 장소라는 전설이 있으며, 낮은 고도이지만 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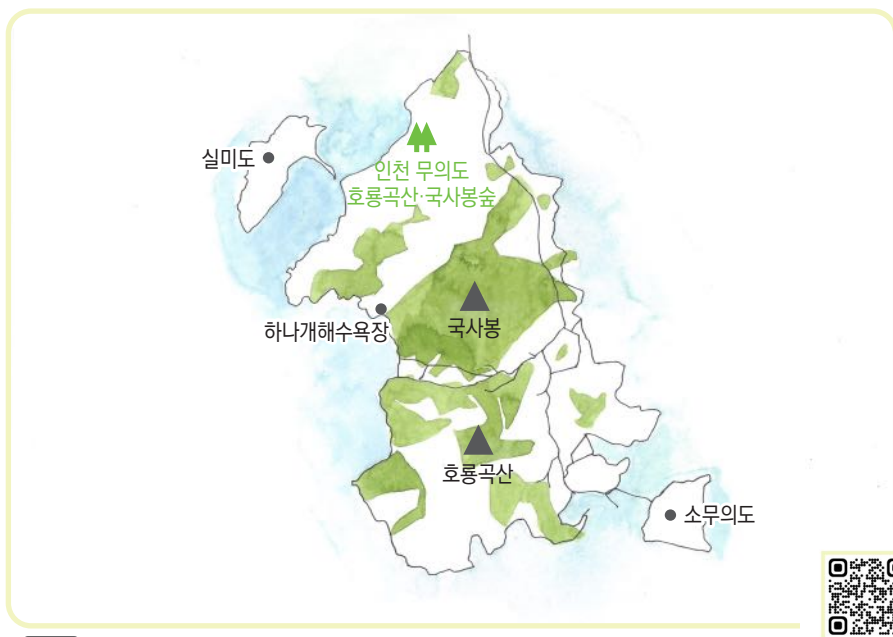




상부는 이름에 걸맞게 경사가 가파르고 제법 굽직한 바위도 여기저기 모습을 드러낸다. 호룡곡산은 섬 중앙의 국사봉(230m)과 함께 황해의 알프스라고 불리며, 호룡곡산에서 국사봉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걸으면 왼편에는 서해바다, 오른편에는 인천공항이 펼쳐진다. 무의도 한가운데 자리한 포내마을도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호룡곡산·국사봉 숲은 331ha 면적의 천연림으로 소나무·소사나무·떡갈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소나무·소사나무·떡갈나무는 가슴높이 지름 10cm, 높이 12m, 축적 115m³/ha, 나이 40년 상태이다. 눈썰미가 좋은 이들은 개불알난 같은 희귀식물도 발견할 수 있다. 산림청은 2016년 현장토론회를 거쳐 등산로 숲길 20km를 조성하면서 경관림 가꾸기를 시행했다.

무의도에는 해안을 따라 데크길이 마련되어 있어서 여유롭게 걸으며 탁 트인 서해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무의도 서쪽 해변은 파도와 바람에 깎인 바위 절벽이 기묘하고 황홀하다. 무의도에서 가장 큰 개펄이라는 뜻의 하나개해수욕장에는 1km 구간 가득 고운 모래가 반짝이며, 바닷길이 열리면 실미도까지 걸어갈 수 있다.



NAVI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502번길 2 ★ 2 Daemuui-ro 502beon-gil, Jung-gu, Incheon

무의도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소무의도도 꼭 둘러보아야 할 섬이다. 소무의도는 특히 만선과 안전을 기원하며 풍어제를 지내던 부처깨미길, 몽돌과 조개껍데기가 파도에 나뒹구는 몽여 해변길, 키작은 소나무길 등 총 8구간으로 이루어진 무의바다누리길은 걷는 내 푸른 바다를 볼 수 있고 각 구간의 특징이 뚜렷해서 걷는 즐거움이 넘친다.

Muuido Horyonggoksan Guksabong Forest

74, Hanagae-ro, Jung-gu, Incheon

Incheon Muuido Horyonggoksan Guksabong Forest is an island located south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t is a natural forest 330 times the size of a soccer field, and various trees such as Korean red pine trees and Korean hornbeams are intertwined, each growing naturally in its own way. These days, many people can use the forest trails conveniently as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improved the forest roads to make them easier for citizens to use. It is a beautiful place with a harmony between the sea and the island forest.



대청호가 내려다보이는 쉼터

036

대전 고봉산 도시숲



주요수종 소나무·낙엽송·메타세쿼이아 등 면적 121ha 조림연도 천연림, 인공림(19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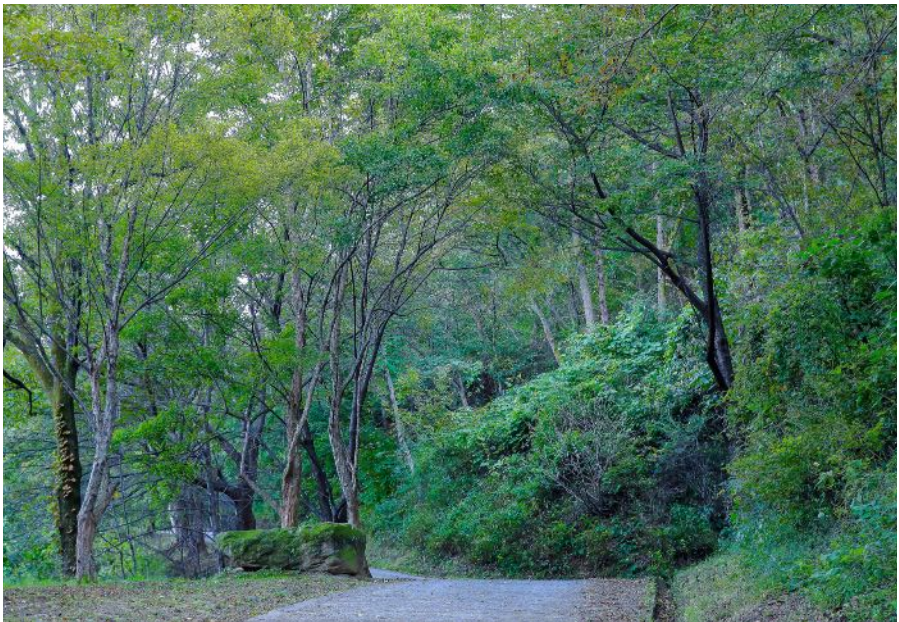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부여국유림관리소 041)830-5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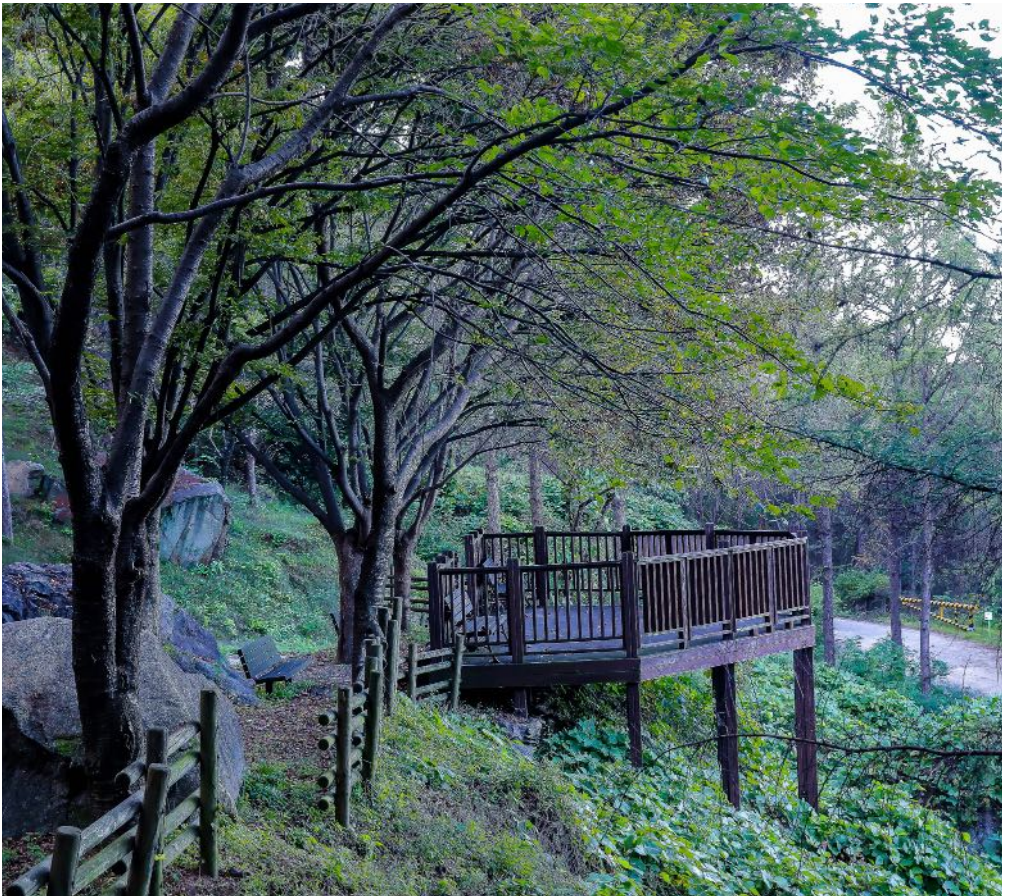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산42 외 1

대전시 동구에 있는 고봉산(335m)은 몸집이 아담하며, 계족산으로 연결된 산으로, 정상 부에서 대청호수가 넉넉히 조망된다. 고봉산 정상부에는 대전시 기념물 제21호로 지정된 고봉산성 성벽 유적이 일부 남아 있다. 고봉산성은 백제시대에 축조한 둘레 250m의 소규모 산성으로, 가까운 질현성과 함께 질티고개를 감시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봉산 도시숲은 대청호 방향의 기슭에 위치한다. 고봉산 도시숲은 매실나무·벚나무·모과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유실수원이 있고, 소나무는 능선부, 상수리나무는 사면부, 독일가문비는 사면 하단부, 낙엽송은 임도 좌우로 넓게 숲을 이루고 있다.



대전 고봉산 도시숲



이들 숲은 나이 30~50년의 인공림으로, 산림청은 2001~03년에 121ha 면적에 야생화 단지와 테마 숲길을 정비하고, 등산로 안내와 숲 해설 안내문을 세우고, 벤치와 평상, 전망대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나아가 2016년부터 9.6ha 소나무·백합·가래나무·편백·느티나무를 심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통해 꾸준히 숲을 가꾸었다. 특히 원래 이곳의 지명이 ‘가래울(추곡)’인데, 가래나무가 많은 계곡이라는 뜻이다. 마을의 역사를 되새기는 뜻에서 새로이 조림한 숲은 가래나무가 가장 넓은 면적(4.6ha)을 차지한다.



NAVI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산 28-6(길치문화공원) ★ 65, Sinsang-ro, Daedeok-gu, Daejeon, Republic of Korea

Gobongsan Urban Forest

san42, Chu-dong, Dong-gu, Daejeon

Daejeon Gobongsan Urban Forest contains plum trees, cherry trees, and Korean red pine trees. These forests are artificial forests with a tree age of 30 to 50 years.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maintained wildflower complexes and themed forest paths, established hiking trail guides and forest commentary notices, and prepared convenient facilities such as benches, low wooden benches, and observatio decks.

The forest is made more beautiful by continuously planting and cultivating trees.



은빛으로 일렁이는 영남 알프스

037

울주 신불산 억새숲



주요수종 소나무·신갈나무·억새 등 면적 338ha 조림연도 천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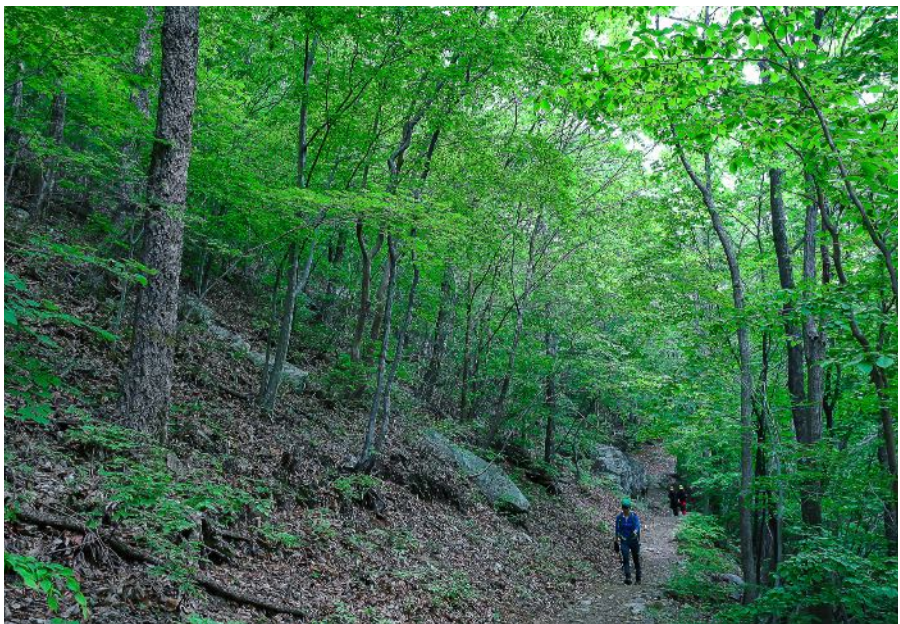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양산국유림관리소 055)370-273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2

울산, 밀양, 양산, 청도, 경주의 접경지에 걸쳐 있는 가지산(1,241m)을 중심으로 해발 1,000m가 넘는 간월산, 신불산, 영축산 등 8개의 산을 ‘영남 알프스’라고 부른다. 유럽의 알프스처럼 지대가 높고 경관이 아름다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영남 알프스에는 과거 화산활동이 빚어낸 기암괴석이 능선마다 우뚝 솟아 있고, 고도에 따라 다채로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영남 알프스 능선에는 유난히 억새 평원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신불산과 영축산 사이의 평원(198ha), 신불산과 간월산 사이의 간월재(33ha)가 넓은 면적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신불산(1,159m)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과 삼남면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의 경



울주 신불산 억새숲



계를 이루는 산으로, 동쪽 능선을 따라 기암괴석이 신화 속 거인처럼 우람한 자태를 뽐낸다. 신불산 정상부는 평평한 습지이며, 바람이 거세고 기온 차가 심하다. 독특하고 열악한 고지대 환경에 생명력이 질기고 강한 억새가 적응하며 드넓은 군락을 이루었다. 가을이 되면 억새 줄기는 갈색으로, 억새꽃은 하얀색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햇빛에 반짝이며 바람에 일렁이는 신불산 억새밭은 숨 막히는 장관을 연출한다. 억새꽃이 만개하는 10월에 신불산 평원에서 영남알프스억새대축제가 열린다.

신불산 정상부 습지에는 억새 외에도 소나무·신갈나무·노각나무·물오리나무·정향나무 등과 희귀식물인 처녀치마·설앵초·끈끈이주걱 등이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또한 신불산에서 영축산으로 이어지는 4km 능선 구간에는 억새와 함께 나이 40년, 가슴높이 지름 16cm, 높이 11m의 소나무, 신갈나무, 물오리나무 등이 숲을 이루고 있다. 신불산 정상부 억새숲은 2008년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신불산 자락의 울주군 상북면 일대에는 1998년에 조성된 국립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이



NAVI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855(백내2주차장) ★ 855, Icheon-ri, Sangbuk-myeon, Ulju-gun, Ulsan, Republic of Korea

자리 잡고 있다. 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은 다른 휴양림과는 달리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하단에서 상단 휴양림을 가려면 1시간쯤 걸어가야 한다.

Sinbulsan Purple Maiden Silvergrass Forest

200-78, Eoksaebeol-gil, Sangbuk-myeon, Ulju-gun, Ulsan

Ulju Sinbulsan purple maiden silvergrass Forest is located in the 'Yeongnam Alps' region. The eight mountains over 1,000 meters above sea level are called the 'Yeongnam Alps.' It is named so because the terrain is high and the scenery is beautiful, like the European Alps. Strangely shaped rocks created by past volcanic activity rise tall on each ridge, forming a diverse ecosystem depending on the altitude. The Yeongnam Alps ridges boast an unusually rich landscape of purple maiden silvergrass.



도심의 탁한 공기를 청정하게 씻어주는

038

수원 광교산 솔향기숲



주요수종 리기다소나무·상수리나무·신갈나무·소나무·아까시나무 **면적** 846ha

조림연도 천연림, 인공림(1960년대) **소유** 국공사유림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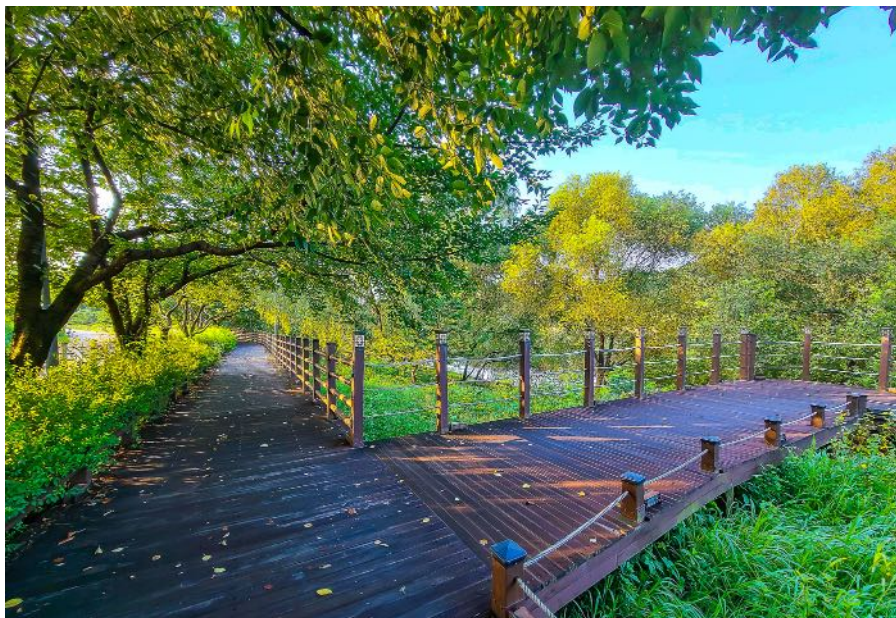
관리기관 수원시청 031)228-4787, 광교산 등산안내소 031)228-457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산58-1

광교산(582m)은 수원시와 용인시를 품고 있는 산으로 고려 태조 왕건이 정상에서 발현한 광채를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여겨 광교(光敎)라 했다는 전설이 있다. 광교산에는 청정지역의 지표인 반딧불이 서식지가 있다. 도심 인근에서 반딧불이가 산다는 것은 그만큼 광교산이 청정한 자연환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광교산 일대 산책로와 완만한 산행로는 숲 향기 가득하고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일품이다. 또한 매년 자연체험을 통한 자연친화 프로그램 위주로 열리는 광교산 축제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광교산 솔향기숲은 면적 846ha로 수원시 상광교동에 위치한다. 가장 많은 리기다소나



수원 광교산 솔향기숲



무 인공림은 나이 40~50년, 높이 10m 정도이다. 그 외 신갈나무·상수리나무·아까시나무 인공림 숲의 나이도 대부분 40~50년 되는 혼합림이다. 은방울꽃·둥굴레 등 다양한 자생식물이 널리 군락을 이루고 있다.

수원에는 수려한 여덟 경관, 즉 수원팔경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광교적설(光敎積雪)’이다. 광교산에 눈이 많이 내려 쌓인 풍경을 일컫는다. 눈이 많이 내린다는 것은 곧 사계절 내내 수량이 마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광교산은 샘이 많고 식물이 싱그럽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다.

광교산 솔향기숲에서는 유아숲체험, 수원팔색길 행복체험 걷기여행 같은 산림체험치유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한다. 35개 정도의 등산로와 쉼터, 화장실 등 시설이 정비되어 있다. 또한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를 물리친 김준룡 장군 전승 기념비문이 새겨진 바위가 수백 년 세월 나무와 함께 숲을 지키고 있다.



NAVI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413-2(등산안내소) ★ 413-2, Sanggwanggyo-dong, Jangan-gu, Suwon-si, Gyeonggi-do

Korean Red Pine Fragrance Forest of Gwanggyosan

san58-1, Sanggwanggyo-dong, Jangan-gu, Suwon-si, Gyeonggi-do

The Korean red pine Fragrance Forest of Gwanggyosan Mountain in Suwon is characterized by a promenade and gentle hiking trails filled with the scent of Korean red pine trees, due to the surrounding lakes and mountains. The Gwanggyosan Mountain Festival, which shares nature-friendly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nature experiences every year, is famous. It has convenient access from the city. Forest experience healing programs such as infant forest experience and Suwon happiness experience walking tour are continuously operated.



바닷가 모래밭에 뿌리내린 강인함의 미학
강릉 해안 소나무숲

039



주요수종 곰솔·소나무 면적 18ha 조림연도 1970~90년

소유 군유림(강릉시)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강릉시청 033)640-518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송정동 산1-4

동해안 중부의 너른 평지에 자리 잡은 강릉시는 서쪽으로 태백산맥이 듩직하게 도열해 있고, 동쪽으로 짙푸른 동해가 아스라이 펼쳐져 있다. 겨울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편현상을 일으켜 기온이 따뜻하고, 계절에 따라 한류와 난류가 흘러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한다. 또 과거에 동해안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대관령 고갯길도 가까이 있어서 예로부터 동해안의 중심 도시로 기능했다.

강릉의 사천 해변과 안목 해변 사이에는 소나무가 곳곳에 숲을 이루고 있다. 주로 바닷가 기후와 환경에서 잘 자라는 곰솔로 이루어진 방풍림이다. 이 소나무는 나이가 40~80



강릉 해안 소나무숲



년 정도이며, 모래밭에 굳세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구부정하게 키워 올린 모습에서 세월의 모진 풍파를 짐작할 만하다. 바닷가 소나무숲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지척의 푸른 파도와 어우러져 경이로운 풍경을 자아낸다. 이 때문에 일부러 바닷가 소나무숲을 찾아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강릉 해안 소나무숲 중에서 모래언덕에 숲이 있고, 해수욕장과 너른 동해를 멀리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는 송정 소나무숲이 손꼽힌다. 송정 소나무숲은 경포호 남쪽 끝에서 강릉항(안목항)까지 4.3km 직선 해안을 따라 모래언덕 위에 기다랗게 이루어져 있다. 송정 소나무숲은 폭이 100~400m 정도이며, 숲 안으로 들어가면 제법 울창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돈다.

송정 바닷가숲은 1970~90년에 소나무와 곰솔을 심어 조성했으며, 소나무는 숲의 중간부분, 곰솔은 양쪽 끝과 바닷가 쪽에 주로 분포한다. 숲의 북부와 남부에는 상업지와 주거지가 있으며, 중심부의 곰솔은 야외실습장, 산책로 등으로 일부 훼손된 상태이다.

송정 소나무숲 남쪽 끝 강릉항 부근에는 해발 37m의 죽도봉이 봉긋하게 솟아 있다.



NAVI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송정동 산 1-4(송정해변) ★ 85-35, Changhae-ro, Gangneung-si, Gangwon-do

죽도봉은 본디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섬이었었는데, 오랜 기간 그 사이에 모래와 자갈이 쌓여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이다. 죽도봉에도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꼭대기에서 바라본 동해와 바닷가, 그리고 소나무숲 풍경은 또 다른 맛을 선사한다.

Forest on Gangneung Coast

san1-4, Songjeong-dong, Gangneung-si, Gangwon-do

The Korean red pine and black pine forest on the Gangneung coast was created to block the wind from the beach. The trees are bent inland due to the influence of the wind blowing from the sea to the land. The harmony of the sunny beach and the shade of the Korean red pine and black pine forest provides comfort to vacationers who enjoy recreation. Anyone, anywhere, can enter this forest freely. This area has military facilities, so you should be careful because you may be disadvantaged if you use a leisure drone.



금강산을 거니는 듯한 정취

040

고성 어천리 금강소나무숲



주요수종 소나무 면적 16.7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사유림(개인)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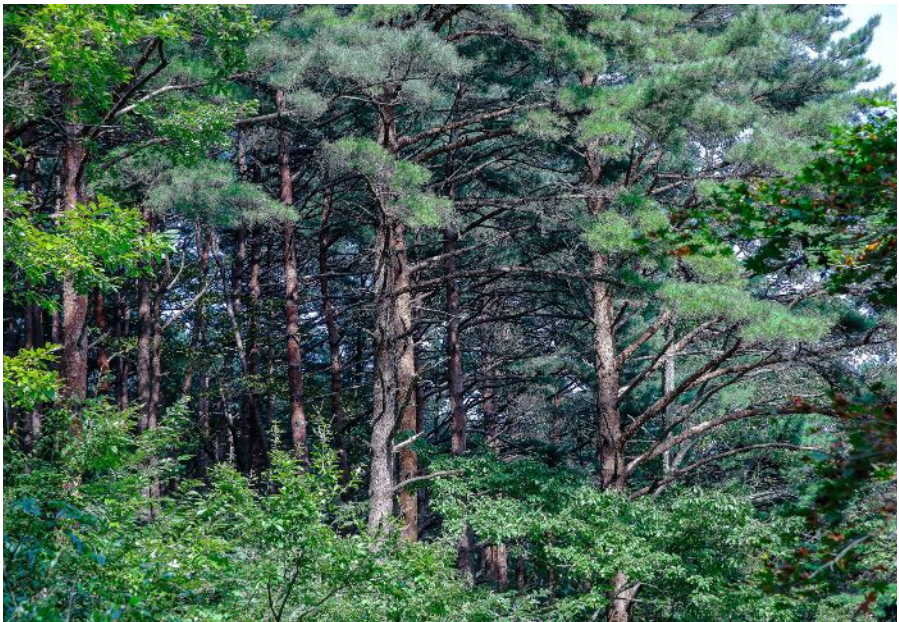
관리기관 고성군청 033-680-3382, 독립가 010-5124-160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을 어천리 산200, 202, 202-1

금강소나무숲이 위치한 강원도 고성군 간성은 동해안 북단부에 해당하며 인근의 금강산을 가는 통문 역할을 한다. 붉은 거북무늬 외피가 특징인 오래된 금강소나무가 집단 자생하고 있는 고성 금강소나무숲은 금강산 향로봉 동쪽 자락에 있다.

고성 금강소나무숲은 사유림으로 독립가가 산림경영을 하고 있다. 숲에는 가슴높이 지름 30~70cm, 높이 10m 정도의 소나무가 주로 분포하고 있고 신갈나무 같은 참나무류와 느티나무·단풍나무 등이 상생하고 있다.

숲에는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한대성 이끼(선태식물)와 희귀



고성 어천리 금강소나무숲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숲길을 걷기 편하도록 잘 정비되어 있고 버섯 채취 체험도 할 수 있다.

가을철 단풍이 들 때와 봄철 벚꽃이 필 때는 금강소나무숲과 어우러져 아주 독특하면서도 환상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남쪽에서 금강산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영화 촬영지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금강산으로 가는 동해안 북단의 자연환경과 산세가 가지는 묘한 아름다움이 금강소나무숲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NAVI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산 193 ★ 131-43, Eocheon-gil, Ganseong-eup, Goseong-gun, Gangwon-do

Goseong Geomgang Korean Red Pine Forest

131-35, Eocheon-gil, Ganseong-eup, Goseong-gun, Gangwon-do

In Goseong Geomgang Korea red Pine Forest, old Geomgang Korea red Pine trees with characteristic red turtle-patterned bark grow in groups. In autumn foliage and spring cherry blossom season, you can feel the unique atmosphere of Geomgangsan Mountain in harmony with the Geomgang Korea red pine forest. Geomgangsan Mountain is the most beautiful mountain in Korea that everyone has wanted to visit since the past. With the excellent scenery of this forest, it is often used as a filming location because it is an area where you can experience the atmosphere of Geomgangsan Mountain in the south.



복잡한 도심 속 초록 공간

041

동해 천곡동 도시숲



주요수종 소나무·아까시나무 면적 1.3ha 조림연도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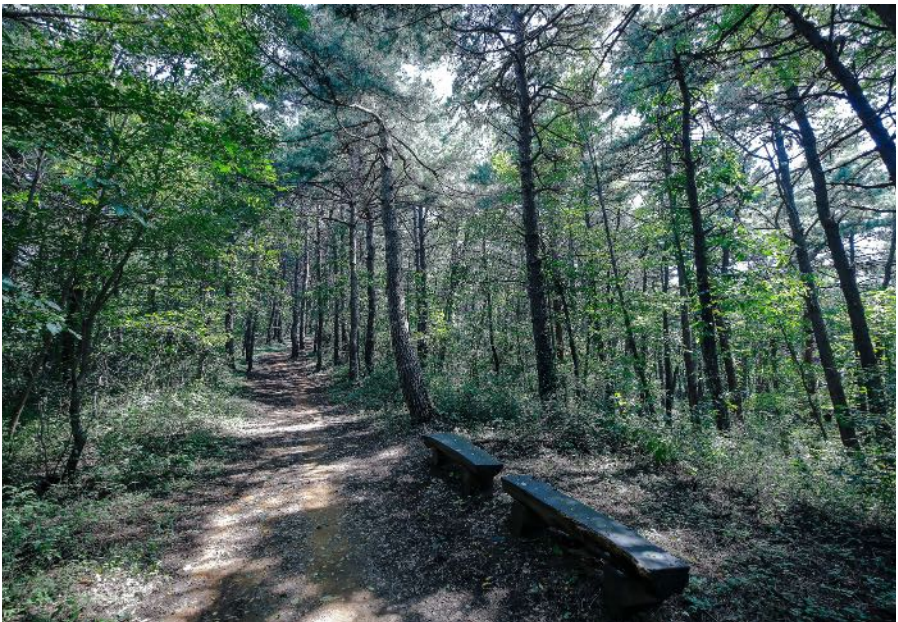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삼척국유림관리소 033)570-524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동 산175-4 외 4필

도시는 일반적으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걷기, 운동, 치유, 휴식 등을 위한 공간으로 국민과 도시를 건강하게 한다. 천곡동 숲은 울창한 수목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도시숲이다.

동해 천곡동 도시숲은 동해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금융·유통의 중심가인 천곡동 시내에 조성된 숲이다. 도시숲은 산림청에서 도심 속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쾌적한 녹색 공간을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푸른 숲을 만끽하도록 조성하였다.



동해 천곡동 도시숲



천곡동 도시숲의 주요 수종은 소나무로, 평균 가슴높이 두께 26cm, 높이 16m이며, 번잡한 도심에 바로 인접해 있는 산에서 보기 드문 우량 숲이다. 밀집된 소나무 사이로 제법 큰 아까시나무와 기타 활엽수가 하층을 구성하고 있다.

숲에는 동해시에서 관리하는 유아숲체험원과 산림치유교육이 가능한 모험 줄타기, 통과 장애물, 운동기구, 쉼터 등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어느 방향에서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며 산책코스는 고령자와 유아들이 무리하지 않게 이용할 정도로 완만하고 안전하게 정비되어 있다.



NAVI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샘실1길 43 ★ 43 Saemsil 1-gil, Donghae-si, Gangwon-do

Cheongok-dong Urban Forest

san175-4, Cheongok-dong, Donghae-si, Gangwon-do

Donghae City Cheongok-dong Urban Forest is a forest uniquely created in downtown Cheongok-dong, the center of public institutions, finance, and distribution, including Donghae City Hall. It forms a strong Korean red pine colony which is very rare in the city. There are gentle trails and well-equipped educational facilities for infants to experience forestry. Near this forest is Cheongok Golden Bat Cave, a natural limestone cave. Golden bats, an endangered species, inhabit among the stalactites. In addition, nearby the forest, there is also a clean water beach in the East Sea with beautiful mountain view in the background.



전쟁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양구 DMZ 펀치볼숲

042



주요수종 물박달나무·느릅나무·다릅나무·신갈나무 등 면적 3,241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국유림(산림청) 구분 휴양 개방여부 개방(예약제)

관리기관 민북국유림관리소 033)480-8543, DMZ펀치볼둘레길 안내센터 033)481-856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우리 산1 외 242필

양구군 해안면에는 대암산(1,304m)과 도솔산(1,148m)과 대우산(1,179m)으로 둘러싸인 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분지의 화강암은 장석, 석영, 운모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석은 비 바람에 빠르게 풍화되는 성질을 띤다. 따라서 장석이 빠르게 침식되어 분지를 이룬 것이다. 분지는 동서 너비 8.5km, 남북 너비 7km로 아주 동그란 원형이고, 분지 바닥은 해발 400~500m로 편편하고 완만하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 종군기사가 가철봉에서 내려다본 노을빛 분지 형상이 매우 아름답고 마치 펀치(포도주에 과일을 섞어 만든 칵테일)를 담은 그릇 같다고 탄성을 질렀다는 일화가 전해지며, 이때부터 ‘펀치볼’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펀치볼은 DMZ(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휴전과 함께 사람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자연 상태를 유지했다. 분단의 아픈 역사 때문에 역설적으로 펀치볼에서는 각종 희귀 식물과 멸종 위기 동물이 다양하고 풍성한 생태계를 이루었다.

산림청은 2010년부터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5개 마을을 따라 이어지는 DMZ 펀치볼 숲을 정비했다. 이로써 펀치볼 숲은 신갈나무가 주를 이루는 천연림과 전나무·자작나무·소나무 등이 조립된 인공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펀치볼 숲에 평화의 숲길(14km), 오유발길(21.1km), 만대벌판길(21.9km), 먼땃재길(16.2km) 등 네 갈래 둘레길을 닦아놓아 각각 특색 있는 숲과 경관을 체험할 수 있다.

평화의 숲길에서는 와우산의 후리 자작나무숲, 탐스러운 벚꽃 등과 함께 벅커와 철책선 같은 분단의 상징물도 볼 수 있다. 오유발길에서는 2008년에 지정된 유전자원보호림(377ha)에서 신갈나무·찰피나무, 희귀식물종인 개느삼·금강초롱·꽃개회나무·금마타리와 함께 운이 좋으면 멸종위기 1급종인 산양과 눈이 마주칠 수 있다. 만대벌판길에서는 국립DMZ자생식물원, 만대저수지, 성황당을 지키는 나이 180년의 졸참나무 보호수, 나이 200년의 만대리 형제나무(느릅나무), 소나무숲이 등이 반겨준다. 마지막 먼땃재길은 군사지역의 오싹한 지뢰밭 길을 지나, 인제군과 경계를 이루는 능선의 민통선을 따라 걸으며 북녘의 금강산, 스탈린고지 등을 아스라이 조망할 볼 수 있다.



NAVI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해안서화로 23(DMZ펀치볼둘레길) ★ 23 Haeanseohwa-ro, Haean-myeon, Yanggu-gun, Gangwon-do

DMZ 펀치볼 숲 둘레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dmztrail.or.kr). 둘레길 주변에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지뢰가 남아 있어서 반드시 숲길등산지도사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대암산 봉우리에는 고지대 습지인 용늪(천연기념물 제246호)이 있다.

DMZ Punchbowl Forest

san1, Oyu-ri, Haean-myeon, Yanggu-gun, Gangwon-do

Yanggu DMZ Punchbowl Forest is a round basin-shaped terrain. Because it is located within the DMZ(Civilian Entry Control Line), it was maintained in a natural state without human intervention after cease fire. Paradoxically, because of the painful history of division, various rare plants and endangered animals have formed an incredibly diverse and rich ecosystem in the Punchbowl.



햇빛 머금고 바람 품은 소나무숲

043

양구 양지말 솔내음숲



주요수종 소나무 면적 60ha 조림연도 1983년

소유 국공유림(산림청,양구군)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양구군청 033)480-738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산48, 상리 산27

양구읍 상리(양지말) 솔내음숲은 국유림으로 107ha 규모에 나이 40~50년 소나무와 낙엽송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솔내음숲에는 약 3km에 이르는 숲길과 데크, 쉼터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가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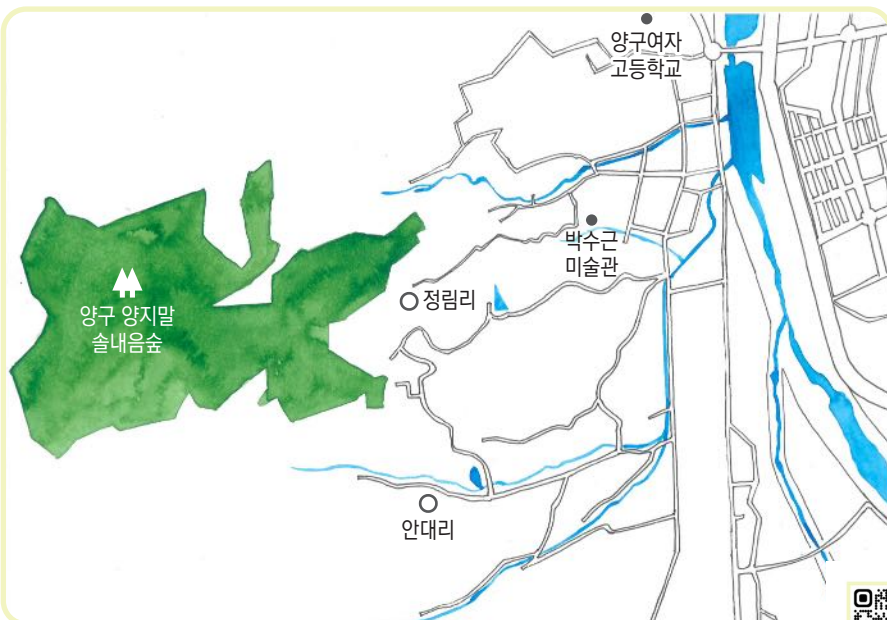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은 국토 정중앙점에 위치하여 인체의 배꼽에 비유해 생명체의 근원을 브랜드화하고 있다. 자연 속 도시 양구는 어머니 품처럼 아늑하고 편안함을 주는 고장이다.



양구 양지말 솔내음숲



분단되기 이전에는 금강산 가는 주요 도로가 양구를 지나가서 한때 번성했지만, 현재는 옛길이 끊긴 상태이다. 양구는 군사지역이 많아서 양구 주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한편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었다. 그래서 양구 양지말 솔내음숲과 천연보호구역 두타연을 비롯하여 발길 닿는 곳마다 천혜의 풍경이 펼쳐진다.



NAVI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365번길 85 ★ 85 Parksookeun-ro 365beon-gil, Yanggu-eup, Yanggu-gun, Gangwon-do

Yangjimal Solnaeum Luxury Forest

san48, Jeongnim-ri/san27, Sang-ri, Yanggu-eup, Yanggu-gun, Gangwon-do

Yanggu Yangjimal Solnaeum Luxury Forest is located in the exact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map. It has a natural environment that is so natural that it is called the source of life by comparing it to the human navel. This area was a major military area in the past, so the natural environment has been well preserved. The agricultural products produced in this region are famous for being excellent in the country. Right now, if you want to find the purity of nature, I recommend you go to this forest in Yanggu.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옛길

044

영월 태화산 경관숲



주요수종 신갈나무·소나무·낙엽송·굴참나무 등 면적 715ha 조림연도 천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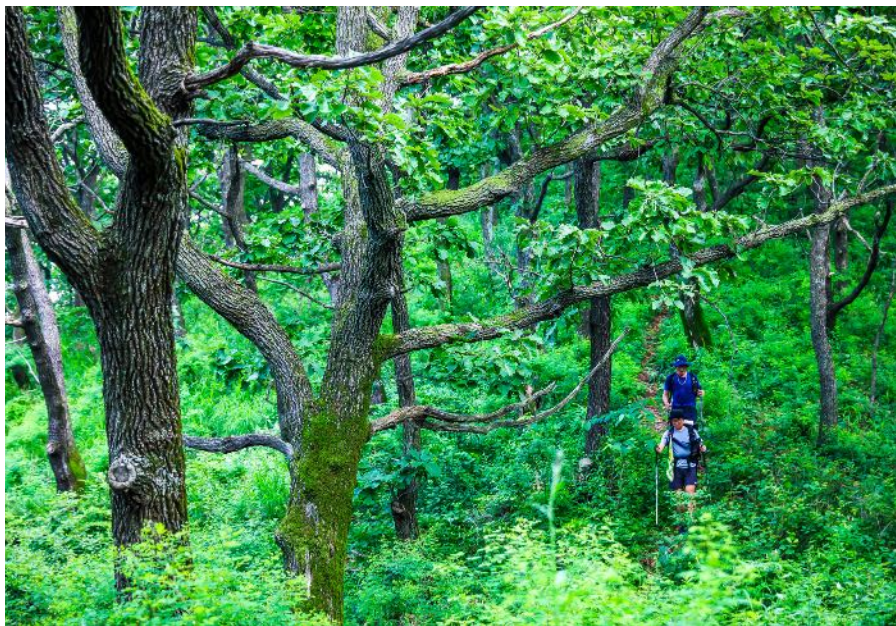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3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흥월리 산38 외 3필

태화산(1,027m)은 강원도 영월의 진산으로 영월과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사이에 위치한다. 정상 북서쪽 능선 끝자락에는 굽이굽이 흐르는 남한강이 내려다보인다. 현재 산성은 거의 훼손되었으나 성터에서의 조망이 남한강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숲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태화산성은 신갈나무숲으로 이루어진 정상에서 동북쪽으로 이어지는 해발 900m 봉우리에 포곡형 구조의 형태로 있으며, 성벽은 거의 허물어져 신갈나무가 무성하다. 망을 보는 망대의 흔적이 있고, 인근에 잣나무 인공림도 있다. 태화산 정상에서는 남쪽으로는



영월 태화산 경관숲



소백산 자락 각 봉우리와 월악·금수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영월읍 시가지가 보인다.

태화산 경관숲은 신갈나무·소나무 등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억새밭과 다양한 경관의 숲으로 소나무는 한 아름이 넘는 것도 있지만, 가슴높이 지름 26cm, 높이 14m 정도이다. 신갈나무와 수령이 오래된 노거수도 있다.

태화산은 가을 단풍이 유명하며, 태화산에서 산행을 시작하여 북벽으로 이어지는 약 13km의 코스는 강원도 영월군과 충청북도 단양군을 연결해주는 소통과 화합의 옛길이다. 북벽은 깎아지른 듯한 석벽이 병풍을 두른 모양으로 늘어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NAVI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흥월리916(솔무정 버스정류장) ★ 916, Heungwol-ri, Yeongwol-eup, Yeongwol-gun, Gangwon-do

다. 태화산 남쪽 사면에는 담배·마늘·고추를 비롯한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1ha 규모의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어 있다.

Taehwasan Scenic Forest

san38, Heungwol-ri, Yeongwol-eup, Yeongwol-gun, Gangwon-do

Taehwasan Mountain Scenic Forest in Yeongwol is located between Yeongwol and Danyang-gun, Chungcheongbuk-do. It consists of Quercus trees and, there is also an artificial Korean Pine tree forest around Taehwasanseong Fortress. This place is made up of purple maiden silvergrass fields and forests of various landscapes, and there are old trees, Korean red pine trees, Japanese larch trees, and oriental cork oak trees, and you can enjoy the beautiful scenery of the forest in harmony with the Namhan River.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숲

045

인제 방태산 아침가리숲



주요수종 소나무·신갈나무·물푸레나무·피나무·분비나무 **면적** 1,897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4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82-1번지 외 1필

방태산(1,435m)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과 상남면에 걸쳐 있고 깃대봉, 구룡덕봉과 능선으로 이어지는 높고 깊은 산이다. 방태산은 골짜기와 폭포가 많아 계절마다 빼어난 경관을 보여주며, 나무들이 울창하고 사계절 내내 물이 마르지 않아 희귀식물이 가득하다.

방태산 기슭에 깊이 숨어 있는 오지 산골에는 ‘삼둔(살둔·월둔·달둔)’과 ‘사가리(아침가리·적가리·연가리·명지가리)’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다. 삼둔은 산속의 편평한 둔덕 세 곳을 일컫는 말로, 방태산 남쪽 내린천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사가리는 밭을 갈아 일굴 수 있는 땅덩이가 있는 네 장소를 일컫는 말로, 이 가운데 아침가리는 아침에 잠시 밭을 갈 정도



인제 방태산 아침가리숲



로만 해가 비치고 금세 저버리는 땅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둔사가리는 예로부터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난처로 소개될 만큼 이름난 첩첩산중이다.

아침가리숲에는 구룡덕봉 기슭에서 발원하여 방태천으로 흘러가는 물길을 따라 깊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 이 계곡을 중심으로 소나무·신갈나무·물푸레나무·피나무·분비나무·거제수·전나무 등 침엽수와 활엽수가 경쟁하듯 뻗뻗하고, 그 사이로 너도바람꽃·복수초·얼레지·참꽃마리·산꿩의다리·금강초롱 등 야생화가 무성하고, 자생하고 열목어·금강모치·어레미·수달(천연기념물 330호)·족제비·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328호)·꼬리치레도롱뇽 등 희귀동물들이 왕성하다.

아침가리숲 가는 길은 쉽지 않으며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쉽사리 길을 주지 않는 만큼, 일단 숲길에 들어서면 아름다리나무가 하늘을 가리며 터널을 만들어 찾는 이들을 반긴다. 깊고 서늘한 숲길을 따라 계곡을 흐르는 시원한 물소리와 나뭇잎 사이를 지나는 바람소리,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 절정의 고요와 평안을 느낄 수 있다.



NAVI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조침령로 1063 ★ 1063 Jochimnyeong-ro, Girin-myeon, Inje-gun, Gangwon-do

오지를 즐겨 찾는 전문가들은 월정사에서부터 오대산 북대사를 넘어 아침가리숲을 이틀에 걸쳐 걸어보라고 추천한다.

Bangtaesan Achimgari Forest

89-53, Bangdongyaksu-ro, Girin-myeon, Inje-gun, Gangwon-do

Inje Bangtaesan Achimgari Forest is one of the most remote places in Korea. There are mountains piled up on all sides so that even if wars broke out and ended in the past, the people of this area were not aware of it. It is natural that the mountains are high and the valleys are well developed, so the rare trees and wild plant ecosystems of this area are well preserved. These days, many people visit for trekking. However, you must be very careful of wild boars, snakes, and bees.



순백의 생명력으로 반짝이는

046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주요수종 자작나무 면적 6ha 조림연도 1992년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4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원대리 산75-22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은 원래 소나무숲이었다. 하지만 솔잎혹파리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소나무를 베어내고 1989~96년까지 138ha에 자작나무 69만 그루를 심어서 다시 숲을 조성했다. 활엽수이면서 차가운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자작나무는 이곳 지형에 빠르게 뿌리내리고 성장해서 군락을 이루었다.

이 가운데 1992년에 조림한 6ha의 자작나무숲이 2012년 산림청에서 선정한 명품숲으로 지정되었다. 높이 13m, 가슴높이 지름 14(6~36)cm의 자작나무 5,500여 그루는 원대봉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정상부의 해발 800m 부근에 서로 조밀하게 기대어 서서 실바람에도 이파리를 날리고, 환한 햇살을 숲길에 흩뿌린다. 그 덕분에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원대리 자작나무숲에 가려면 주차장에서 1시간~1시간 30분가량 걸어 올라가야 한다. 제법 가파른 구간도 있지만 잘 정비되어서 어린이와 노약자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자작나무숲에는 자작나무코스(0.9km), 치유코스(1.5km), 탐험코스(1.1km) 등 7개 탐방로를 따라 숲속 교실, 생태연못, 인디언집, 야외무대, 전망대, 쉼터 같은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자작나무숲 가운데 25ha는 유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유아숲체험원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자작나무가 속삭이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숲 전체를 둘러보는 데 50분~80분 정도 소요된다. 겨울철에는 일부 진입로가 통제된다.

인제 자작나무숲은 새잎 돋는 봄, 초록 그늘을 드리우는 여름, 연갈색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 눈과 은빛 수피가 어우러진 겨울, 사계절 내내 독특하고 고고한 자태를 뽐낸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작나무숲에 매료되어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관광 100선’에



NAVI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자작나무숲길 760(자작나무숲 안내소) ★ 760 Jajangnamusup-gil, Inje-eup, Inje-gun, Gangwon-do

2015년부터 5번 연속 선정되었다.

Inje East Asian White Birch Forest

760, Jajangnamusup-gil, Inje-eup, Inje-gun, Gangwon-do

Inje East Asian white birch forest is a forest plant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in 1992, and the scenery of the forest filled with white-bark trees is spectacular, as if a Taoist fairy dressed in white is flying in the sky. As Korea's representative eco-tourism destination visited by many people from home and abroad, it operates forest education programs to help infants'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such as the Infants' Forest Experience Center, where infants can experience various forest cultures.



검은 석탄길을 푸르게 되살리다

047

정선 지장산 단체의 숲



주요수종 낙엽송·자작나무·산벚나무 등 면적 14ha 조림연도 2011년

소유 국사유림(산림청,법인)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정선국유림관리소,하이원리조트 033)560-554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239

정선 지장산 단체의 숲은 과거 대한민국의 주력 에너지인 석탄 연료를 생산하는 광산이었다. 광산은 지하자원을 캐내는 산림자원의 파괴였고 이를 복구하는 조림이 필수였다. 광산이 폐쇄되면서 인근 주민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원랜드와 하이원리조트가 조성되었다.

지장산 단체의 숲은 고한·사북 일대를 아우르는 매우 넓은 지역이다. 이 일대는 자작나무·낙엽송·산벚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다. 과거 석탄을 운반하던 길, 운탄고도는 현재 주요한 산림치유 숲길 역할을 한다. 이곳 하늘길 트레킹코스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정선 지장산 단체의 숲



350여 종의 야생화가 사계절 지천을 이룬다. 샬스테이지·얼레지·원추리가 군락을 이루며 꽃을 피워 올리는 모습은 장관이다.

하이원 고원숲길의 도롱이연못은 70년대 탄광 갱도 지반침하로 발생하여 형성된 생태연못이다. 연못을 감싸고 도는 낙엽송 숲길은 북유럽의 그윽한 숲을 연상시킨다. 하늘 높은 나무들이 거대한 숲 터널을 형성하고 있다.

지장산 단체의 숲은 산림치유 숲길을 잘 활용한 롤모델이라 할 수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과거 석탄 운반 길을 잘 정비한 트레킹코스, 그리고 안전한 시설 설치와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세계적 명상 전문가 대회와 각종 숲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공급하고 있다.



NAVI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하이원길 424(힐콘도체크인센터) ★ 424 High1-gil, Gohan-eup, Jeongseon-gun, Gangwon-do

Jijangsan Group Forest

424, High1-gil, Gohan-eup, Jeongseon-gun, Gangwon-do

The Jeongseon Jijangsan Group Forest is a very natural forest path that was created by changing the road used to transport coal from mines into a trekking course. Over 350 species of wild flowers bloom throughout the four seasons from spring to fall. In addition, Sha Stage, Dog-tooth Violet, Day Lily colony is spectacular. It can be said to be a role model that makes good use of forest healing forest trails in Korea. There are natural environments, well-maintained trekking courses, safe installation of facilities, and various programs. Worldwide meditation expert competitions are held here, and various forest program experts are developing and supplying forest-related contents.



옛길의 정취를 오롯이 간직한

단양 죽령 옛길숲

048



주요수종 낙엽송·잣나무·활엽수 **면적** 300ha **조림연도** 1972년(낙엽송), 1981년(잣나무)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단양국유림관리소 043)420-0341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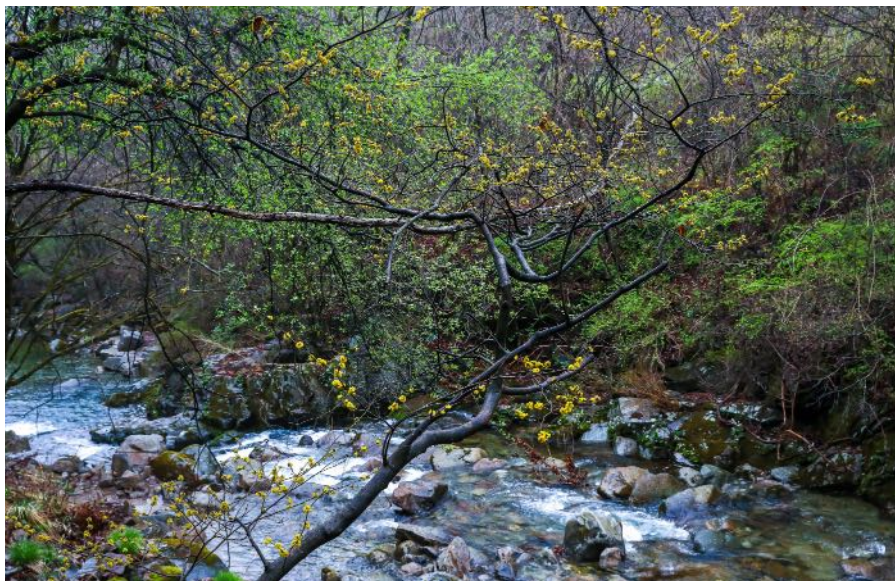
죽령(689m)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과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이에 있는 고개로, 《동국여지승람》에는 신라 8대 아달라왕 5년(서기 158년)에 죽죽(竹竹)이라는 사람이 처음 고갯길을 닦아서 죽령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죽령은 경상도 동북지방 여러 고을이 서울과 충청도 등지를 연결하는 경제·정치·문화의 대동맥이었다. 죽령 고갯길에는 청운의 뜻을 품고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 공무를 집행하는 관원, 봇짐과 등짐을 진 행상과 보부상들로 번잡했고, 곳곳에 객점과 마방들이 즐비했다.

그러나 철도와 고속도로 등이 새로이 만들어지면서 죽령 옛길은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단양 죽령 옛길숲



끊어졌다. 그러다가 1999년에 영주시가 희방사역에서 죽령주막까지 2.5km 구간을 복원하여 죽령의 옛 자취를 되살렸다. 소백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죽령 옛길은 희방사역—느티재—주막터—주점터—죽령마루까지 이어진다. 문화재청에서는 죽령 옛길을 명승으로 지정했으며, 죽령 옛길과 관련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희방사역 갈림길에서 희방사, 희방폭포 방향으로 연화봉까지 이어지는 길을 조성했다.

죽령 옛길 주변의 숲(죽령지구)은 전체 면적 1,950ha 중 국유림이 1,553ha, 공·사유림이 397ha이며, 이 가운데 1,925ha가 소백산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된다. 국유림에는 낙엽송(410ha, 1972년)과 잣나무(90ha, 1981년)가 넓은 면적에 숲으로 조성되었다.

인공림인 낙엽송·잣나무숲은 가슴높이 지름 24cm, 높이 15m, 나이 50~60년이고, 낙엽송 인공림에는 물오리나무·물푸레나무·산뽕나무 등이 빈 공간을 차지하고 함께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천연림인 소나무는 나이 70년, 가슴높이 지름 28cm, 높이 12m, 굴참나무는 나이 70년, 가슴높이 지름 24cm, 높이 12m이다.

죽령 옛길에는 산적을 소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다자구 할머니, 상원사 동종, 고구려 명장 온달 장군 등 험준한 고갯길 굽이마다 수많은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계절별·



NAVI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죽령로 2152(단양죽령휴게소) ★ 2152 Jungnyeong-ro, Daegang-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테마별 체험상품, 지역 특산물(단양아로니아, 소백산고로쇠수액 등) 판매장을 지역주민이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다.

Jukryeong Old Road Forest

san1-14, Yongbuwon-ri, Daegang-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Danyang Jukryeong Old Road Forest was the main artery of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transportation connecting Gyeongsangbuk-do and Chungcheongbuk-do across the Jukryeong hill. Most of the forest around the old Jukryeong road is included in the Sobaeksan National Park area. The artificial forests of Japanese larch and Korean red pine trees form dense forests that are about 50 to 60 years old. The beautiful forest along with the winding old road creates a mysterious harmony.



수려한 꽃을 닮은 기암괴석 절경

049

단양 황정산 바위꽃숲



주요수종 졸참나무·소나무·낙엽송·물박달나무 등 면적 252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단양국유림관리소 043)420-0341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74-1

황정산(959m)은 산 전체가 칠성암, 마당바위, 괴물바위, 돌탑바위 같은 기암괴석으로 가득하다. 황정산 바위꽃숲에는 바위가 많고, 그 자태가 아름답게 피어난 꽃과 같아 바위꽃이라 불린다. 황정산은 40년생 참나무류와 소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대팻집나무, 팔배나무 등 특이수종들이 자생하고 있다.

황정산 정상을 중심으로 북사면과 북서사면의 7부 능선 이상은 신갈나무숲이, 남사면과 남동사면은 소나무로 덮인 바위가 많으며 신갈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은 10~20cm, 나이는 30~40년 정도다.



단양 황정산 바위꽃숲



황정산 일대의 국유림 1,500ha를 연차별로 숲을 숲 가꾸기 작업을 통해 관리하였는데, 이 중 252ha가 ‘바위꽃숲’으로 지정되었다. 주 수종인 소나무, 참나무류는 나이 30~60년, 가슴높이 지름 18~30cm, 높이 10~25m로 바위와 나무가 어우러진 산수화와 같은 풍경이 곳곳에 펼쳐진다.

황정산 숲길 정비 사업을 통해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능선을 따라 제2 단양팔경 중 하나인 칠성암, 원통암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NAVI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황정산로 239-11(국립황정산자연휴양림) ★ 239-11 Hwangjeongsan-ro, Daegang-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황정산 휴양림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 계곡물이 조화를 이뤄 휴양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으로 석화봉 등산코스, 오토캠핑장이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Hwangjeongsan Rock Flower Forest

239-11, Hwangjeongsan-ro, Daegang-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Hwangjeongsan Mountain Rock Flower Forest in Danyang is called 'rock flower' because the entire Hwangjeongsan Mountain is surrounded by strange rocks and bizarre stones, and its appearance resembles a beautifully blooming flower. The landscape is particularly beautiful, with Korean red pine trees, oak trees, and rocks. There are many tourist attractions such as Danyang Gosu Cave which are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s and Dodamsambong Peak, so it is good to visit together.



고원에 펼쳐진 천연림 바다

050

보은 충북알프스휴양림숲



주요수종 소나무·신갈나무 면적 90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군유림(보은군) 유형 휴양 개방여부 기간 개방(예약제)

관리기관 보은군청 043)540-3354,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043)543-1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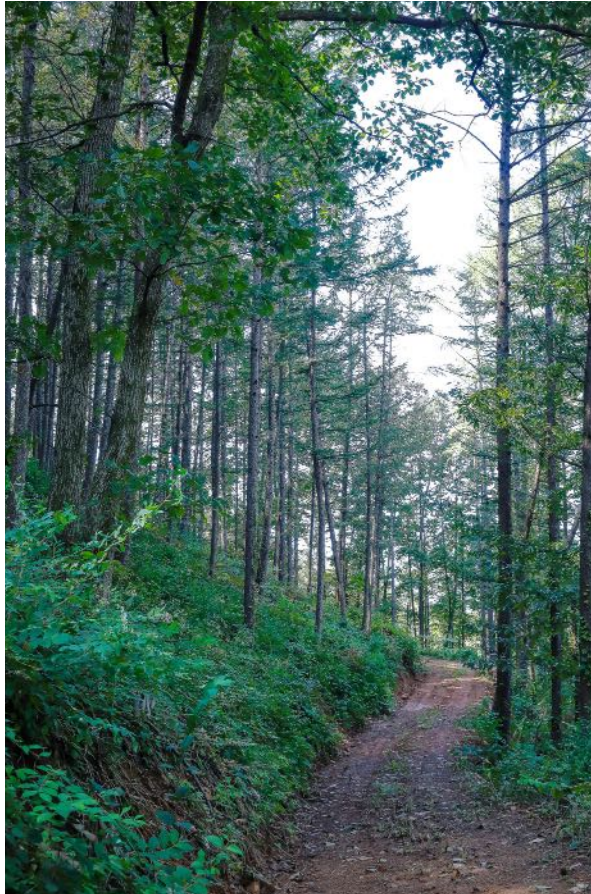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 산15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숲은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심산유곡에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이루어진 천연림이다. 보은은 국토의 중앙부에 해당되며 빼어난 청정 산악지역으로 명성이 높다. 그중 소백산맥 줄기 가운데 있는 속리산(1,058m)과 구병산(876m)을 잇는 43.9km의 구간이 유럽 알프스 같다 하여 ‘충북 알프스’라고 불린다.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숲은 총 90ha 면적에 이뤄진 천연림이다. 우점종인 소나무는 가슴높이 지름 27~46cm, 높이 12~15m이며, 더불어 신갈나무·굴참나무·졸참나무 등 참나무류와 산벚나무·쇠물푸레·당단풍나무 등이 분포하고, 그늘사초·애기나리·노루발



보은 충북알프스휴양림숲



등 초본식물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다.

숲길은 가볍게 산책하거나 등산하도록 잘 정리되어 있으며, 휴양림에서는 펜션형 숙박, 물놀이장,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과 생태학습, 목공예체험, 숲해설, 그리고 4월~5월에는 산나물체험 같은 다채로운 산림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 충북지역을 대표하는 휴양림으로 이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과 충남 경북 등지에서도 많이 찾아온다.

가까운 거리에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호)과 법주사 입구의 오랜 세월을 견뎌내고 즐비



NAVI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속리산로 1880(충청북도알프스자연휴양림) ★ 1880 Songnisan-ro, Sanoe-myeon, Boeun-gun, Chungcheongbuk-do

하게 늘어선 소나무들은 이곳이 소나무의 고장임을 보여준다. 휴양림 숲 지척에는 속리산국립공원이 있어서 이와 연계한 숲 아웃도어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다.

Alps Natural Recreation Forest

1880 Songnisan-ro, Sanoe-myeon, Boeun-gun, Chungcheongbuk-do

Chungbuk Alps Natural Recreation Forest is a natural forest made up of a natural environment. Korean red pine trees are the main species, and there are various types of oak trees. There are well-organized forest roads for walking or climbing in this forest. Accommodation is available and using water play facilities and doing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are possible. There is Songnisan National Park nearby, so it is good for forest experience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em.



열두 굽이 고갯길에 펼쳐진 숲 바다

051

보은 속리산 말티재숲



주요수종 소나무·리기다·낙엽송·신갈나무 등 면적 119ha 조림연도 천연림, 인공림(1980년대)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보은국유림관리소 043)540-7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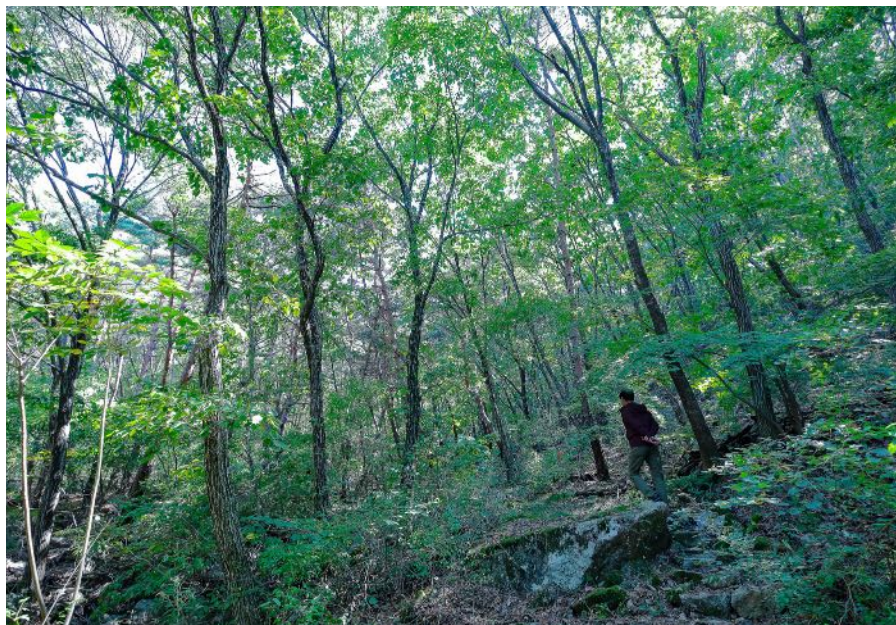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5-1

'속세로부터 떠나온 산'이라는 뜻의 속리산(1,058m)의 깊은 계곡과 높은 바위 봉우리는 소금강으로 불릴 만큼 아름답고 웅장하며, 197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속리산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법주사를 비롯해,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962년 지정), 망개나무(천연기념물, 1968년 지정) 등 귀중한 자연·문화유산이 가득하다.

속리산의 관문 말티재(정상 430m, 하단부 270m)는 보은 읍내에서 속리산(내속리면) 방향으로 약 8km 지점에 있는 구불구불 열두 굽이가 숲과 어우러진 가파른 고갯길이다. 조선 세조가 속리산으로 행차할 때 타고 왔던 가마를 말로 갈아타고 이 고갯길을 넘어 말



보은 속리산 말티재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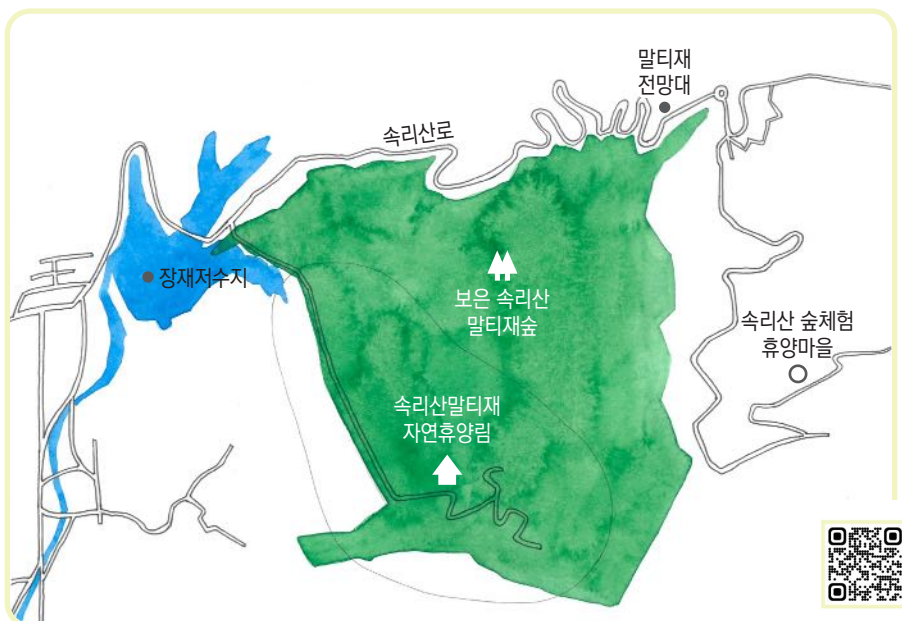


티고개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말티재 숲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산림욕에 적합하며, 인근에 속리산 자연휴양림과 장재저수지가 어우러져 가을 단풍 경관이 빼어나다. 천연림과 인공림이 어우러진 건강한 숲으로 리기다소나무를 비롯해 소나무·백합·낙엽송·신갈나무·상수리나무 등이 군락을 이룬다. 2015년부터 숲가꾸기 등을 실시하여 생육 상태가 건강해지고, 종류별 분포도 더욱 균형을 갖추었다. 여기에 더하여 2007~08년에 34ha 면적에 심은 소나무는 가슴높이 지름 20cm, 높이 15m, 임목재적 180m³/ha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주변 국유림 1,000ha에는 나이 40년이 넘는 소나무·리기다소나무·낙엽송 등의 침엽수와 참나무류가 숲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량 목재 생산을 위한 말티재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말티재 아래쪽에는 2002년 개장한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에는 산책로(2.5km)와 속리산 말티재 정상과 연결된 등산로(1.5km)가 잘 정비되어 있고, 휴양림 빈터에 머루·다래·



NAVI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4-14(멀티재전망대) ★ san4-14, Jangjae-ri, Jangan-myeon, Boeun-gun, Chungcheongbuk-do

더덕·도라지·두릅 등 토속 식용식물과 오가피·산초·오미자·구기자 등 약용식물원이 조성되어 있다. 자연을 체험하고 학습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Maltijae Forest

256, Songnisan-ro, Jangan-myeon, Boeun-gun, Chungcheongbuk-do

Boeun Maltijae Premium Forest is located at the gateway to Songnisan Mountain. Songnisan Mountain is full of valuable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including Beopjusa Temple,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and Jeongipumsong(a Korean red pine tree), a natural monument. Maltijae Forest is a mixture of coniferous and broad-leaved trees, making it suitable for forest bathing. The nearby Songnisan Natural Recreation Forest and Jangjae Reservoir provide a spectacular view of fall foliage.



오래된 소나무가 건네주는 깊은 울림

052

부여 만수산자연휴양림 노송숲



주요수종 소나무 면적 130ha 조림연도 천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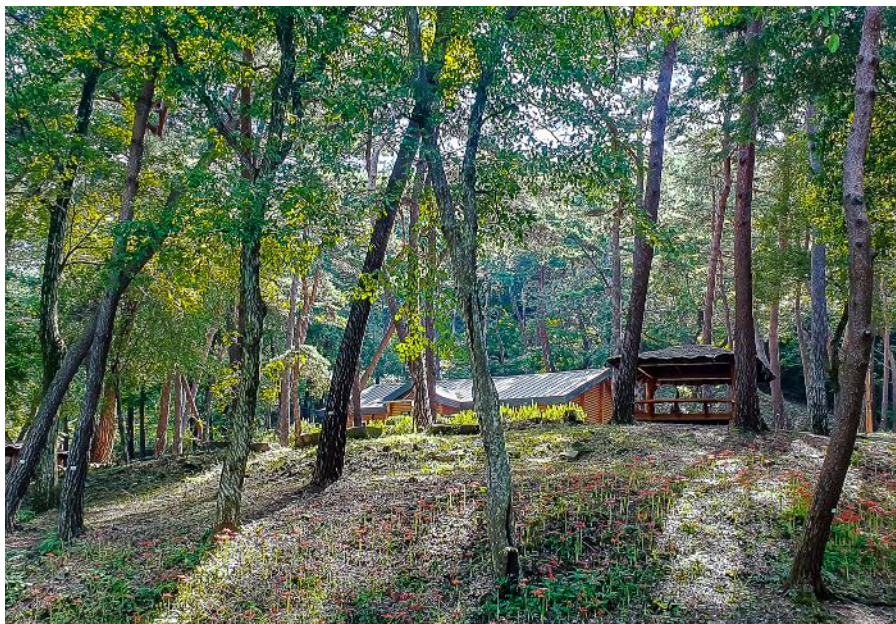
소유 도유림(충청남도)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예약제)

관리기관 부여 만수산자연휴양림 041)832-6561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삼산리 산40

충남 보령과 부여 경계의 만수산(575m)은 산세가 여덟 계곡으로 연꽃처럼 형성되어 경관이 수려하고 소나무와 참나무류 천연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 숲이 무성하여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가 잘 보전된 곳이기도 하다. 노송숲 인근의 무량사는 세조의 왕위찬탈에 격분한 매월당 김시습이 명산대천을 떠돌다 말년을 보냈다고 전한다.

만수산자연휴양림 노송숲은 이름에 걸맞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 크고 곧게 자란 근사한 소나무로 넘쳐난다. 꾸준히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소나무숲의 생육상태도 건강하며, 중부지방 소나무숲 중에서 아름다운 경관으로 손꼽힌다.





노송숲은 입구에서부터 무성하게 뻗어 사계절 푸른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 특유의 자태를 자랑한다. 이 노송의 사계절 푸른빛을 배경으로, 봄에는 산벚꽃이 눈처럼 내리고, 가을이면 화려한 단풍이 타오르고, 겨울에는 순백의 눈이 쌓인 감동적인 풍경은 사람들에게 산림치유의 백미를 맛보게 한다.

만수산자연휴양림은 소나무숲과 계곡 사이에 산막과 복합시설, 물놀이장을 비롯하여 숙박시설, 캠핑장, 공연장, 어린이 놀이터, 산책등산로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잘 갖추었으며, 산림치유지도사가 숲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정신적·신체적 면역력을 높이는 숲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NAVI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휴양로 107(만수산자연휴양림) ★ 107 Hyuyang-ro, Oesan-myeon, Buyeo-gun, Chungcheongnam-do

Old Korean Red Pine Forest in Mansusan

107, Hyuyang-ro, Oesan-myeon, Buyeo-gun, Chungcheongnam-do

Buyeo's Mansusan Natural Recreation Old Korean red pine Forest is full of beautiful Korean red pine trees that have grown tall and straight over a long period of time to match the name old Korean red pine tree forest. It is famous for being one of the best landscapes among Korean red pine forests in the central region. The Old Korean red pine Forest extends out lushly from the entrance and boasts the unique appearance of Korean red pine-scented trees that do not lose their green color throughout four seasons. It is a natural recreation forest with various convenience facilities such as a water playground, accommodation facilities, camping sites, and walking trails.



사계절 푸르름을 간직한 곰솔 천연림

053

서천 희리산 해송숲



주요수종 곰솔 면적 143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부여국유림관리소 041)830-5042

충청남도 서천군 중천면 산천리 산35-1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희리산(329m)의 최고봉은 문수봉으로 네 장사가 놀던 자리라고 불리는 사인대가 있다. 바로 이 사인대 아래 140m의 절벽과 문수사 절터가 있으며, 산 전체가 곰솔로 뒤덮여 있어 연중 푸르름을 간직하고 생기가 느껴지는 곳이다.

희리산 아래 계곡에는 희리산 해송숲의 특색을 활용하고자 1998년 국립희리산자연휴양림을 조성했다. 숲 주변에는 야영 데크와 캠핑 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캠핑 장소로도 인기가 많다. 휴양림을 기점으로 회귀하는 임도가 만들어져 있고 MTB,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산림욕을 즐기기에 적합하며 산림휴양·치유·문화 등



서천 희리산 해송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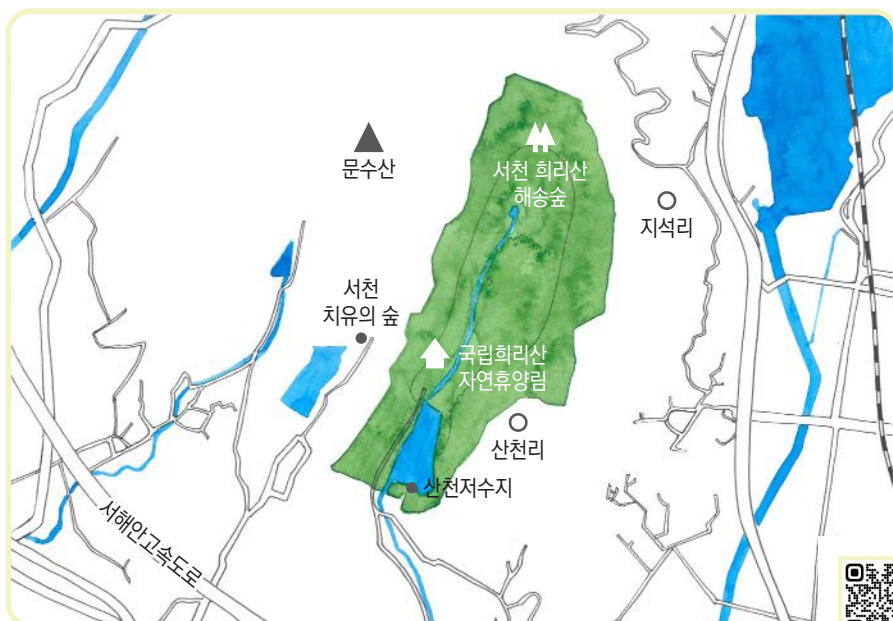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희리산 해송숲은 희리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림으로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나이 50~60년, 가슴높이 지름 18cm, 높이 11m의 곰솔이 자라는 울창한 숲이 되었다. 희리산 휴양림에는 산벚·참나무류·단풍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야영장은 벚꽃 나무가 있어 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또한 야생화 관찰원이 조성되어 있어 할미꽃·비비추·원추리·꽃창포 등 사계절 아름다운 야생화 관찰이 가능하다.

휴양림 가까이에 있는 서해안 갯벌에서는 가족 단위의 조개잡이도 할 수 있어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휴양림 내에는 등산로가 설치되어있고, 숙소인 숲속의 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나무·잣나무·낙엽송·삼나무·해송·층층나무·참나무류 등의 단일 수종으로 내부를 장식하여 수종별 고유의 향기를 품고 있는 특별한 숙소다.

문수산·희리산 기슭에 서천군에서 조성한 65ha 규모의 서천 치유의 숲에는 치유센터



NAVI 충청남도 서천군 중천면 희리산길 206(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 206 Huirisan-gil, Jongcheon-myeon, Seocheon-gun, Chungcheongnam-do

(546m²), 무장애길(1km), 대나무 소리 쉼터, 수변 명상 숲, 하늬바람 풍욕장, 황토 숲길, 소나무 명상 숲길 등이 있다. 곰솔숲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저수지와 서해의 경치는 특히 장관이다.

Heerisan Black Pine Forest

206, Huirisan-gil, Jongcheon-myeon, Seocheon-gun, Chungcheongnam-do

Seochon Heerisan Mountain Black Pine Forest is a natural forest, and has become a dense forest where black pine trees grow through continuous forest cultivation since 1992. There is a hiking trail, and it also operates a special accommodation, the only one in Korea where its interior is decorated with a single species of tree, allowing you to feel the unique scent of the tree. It is a great place to travel because it is rich in tourist attractions and seafood.



기암괴석과 활엽수가 그려낸 산수화

054

진안 운장산 갈거계곡숲



주요수종 굴참나무·신갈나무 등 면적 휴양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무주국유림관리소 063)320-3646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83

운장산(1,125m) 남서쪽에는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 곳곳에 비경을 품은 갈거계곡(7km)이 위치하고 있다. 갈거계곡 끝자락에는 갈거마을이 있는데, 과거 천황사라는 고찰의 스님들이 진안에서 콩을 장만해 오다 너무 무거워 무거마을에서 쉬었다가, 갈거마을에서 맷돌에 갈고, 조포마을에서 고운 베에 싸 두부를 만들었다고 하는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갈거마을에서 갈거계곡으로 들어서면 곧장 깊고 서늘한 숲이 나타난다. 깊은 계곡 사이로 가슴높이 지름 16cm, 높이 10m, 임목축적 55m³/ha, 나이 40년에 이르는 굴참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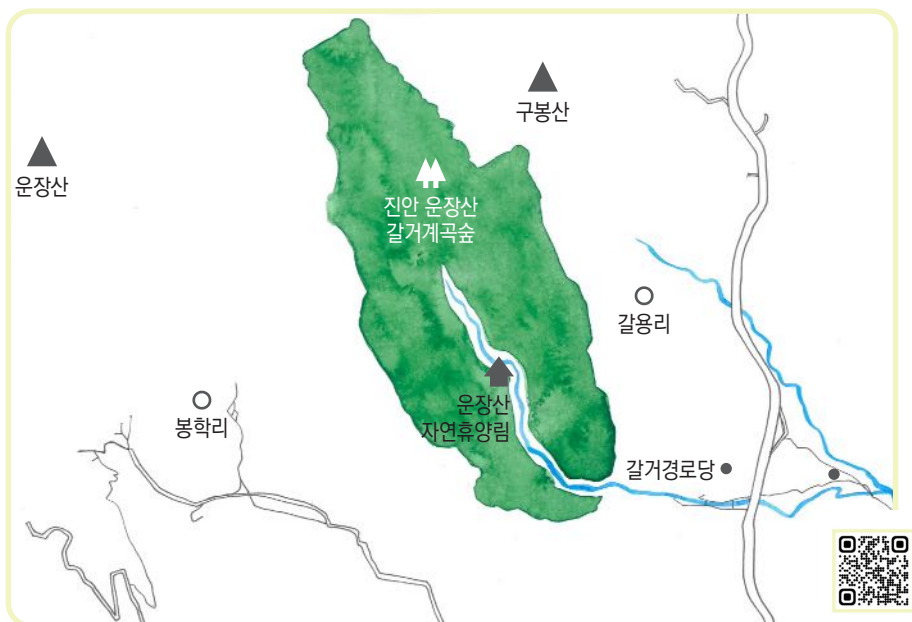


진안 운장산 갈거계곡숲



와 각종 활엽수가 무성하게 숲을 이루고 있다. 또한 700여 평이나 되는 마당바위, 해기소, 정밀폭포 등 크고 작은 폭포와 어우러진 기암괴석과 우거진 숲이 산수화를 첩첩이 이어놓은 듯한 풍광을 만들어낸다.

숲은 활엽수 혼합림으로 계곡 주변에는 활엽수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심신 치유에 도움을 주는 음이온이 많으며, 가을철에는 계곡을 물들이는 단풍의 풍경이 일품이다. 갈거계곡의 주요 구간에는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계곡을 이용하는 피서객으로, 가을철에는 활엽수림의 오색단풍을 보기 위해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NAVI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휴양림길 77(운장산자연휴양림) ★ 77 Hyuyangnim-gil, Jeongcheon-myeon, Jinan-gun, Jeollabuk-do

운장산은 높지만 완만하고 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노약자를 동반한 가족들이 방문하기에도 무리가 없다.

Galgeo Valley Forest

77, Hyuyangnim-gil, Jeongcheon-myeon, Jinan-gun, Jeollabuk-do

Unjongsan Galgeo Valley Forest is a mixed broad-leaved mixed forest. Here, strangely shaped rocks and waterfalls, along with the forest, are reminiscent of an oriental painting. The forest here is as thick as a primeval forest, and the National Unjongsan Mountain Natural Recreation Forest is located here. Vacationers use the valley in summer and visitors visit the recreational forest to see the colorful foliage of the broad-leaved forest in autumn.



가지런히 정돈된 휴식과 치유의 정원

055

나주 전남 도민의 숲



주요수종 메타세쿼이아·향나무 등 1,160여 종 면적 66ha 조림연도 1973~2022년

소유 도유림(전라남도)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061)338-6300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 7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1922년 전라남도 광주 임동에서 ‘도립임업묘포장’으로 시작하여, 1937년 ‘임업시험장’으로 승격하였다. 1973년에는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나주 산포면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새로 자리 잡은 곳 66ha에 시험림과 치유의 숲을 조성했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자원을 발굴하고, 외래종 나무가 적응하도록 시험하기 위해 메타세쿼이아·향나무·삼나무·팽나무·소나무 등 1,160여 종의 나무를 심고 가꾸었으며, 이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나이 50년의 건강한 숲을 이루었다.

시험림(16ha)에는 테다소나무·삼나무·붉가시나무 등 920종 6만2천여 그루가 자라고,



나주 전남 도민의 숲



2019년 개장한 빗가람 치유의 숲에는 층층나무·갈참나무·산초나무 등 240여 종이 군락을 이룬다. 그중에서도 우람하고 드높은 몸집을 자랑하는 메타세쿼이아 숲길과 마을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주는 향나무 숲길이 인기다. 이 밖에 온실, 유용식물원, 약초원, 미로원, 희귀식물원, 표본수원, 기념식수원, 방향식물원 등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전문성과 내공이 묻어나는 시설도 가득하다.

드넓은 평지에 구역을 나누고 갖가지 나무 종을 가지런하게 키운 숲은 마치 커다란 정원을 걷는 듯한 안락함과 편안함을 준다. 연간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숲에서 휴식과 위안을 얻었으며, 또한 인생사진 명소로 각광받으며 젊은 층의 방문도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도민의 숲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도시근교형 치유의 숲 모델을 통해 생애주기별 7단계의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림치유센터·숲치유정원·식산오름길·숲속사색길 등에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숲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도록 돕는 유아숲체험, 일반인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숲해설, 산



NAVI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 7(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 7 Dado-ro, Sanpo-myeon, Naju-si, Jeollanam-do

림학교와 나무병원 등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50여 년간 숲을 가꾸고 보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명품 공원화 계획을 통해 차별화된 도민의 숲을 조성 중이다.

Jeonnam Provincial Forest

7 Dado-ro, Sanpo-myeon, Naju-si, Jeollanam-do

Naju Provincial Forest contains a variety of Korean red pine and Japanese cedar trees that were experimentally planted by the Jeollanam-do Forest Resources Research Institute to help exotic trees adapt. This tree forest has recently been reborn through a forest healing program. Many children and families participate in this program. It is a useful place for foreigners who want to learn about Korean forests.



후대에 물려줄 값진 숲정원

056

보성 윤제림 숲정원



주요수종 상수리나무·편백·삼나무·고로쇠나무 등 면적 300ha 조림연도 1969년

소유 사유림(개인,기관)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영농법인 윤제림 061)853-6090

전라남도 보성군 검백면 주월산길 222

고 정상환 선생은 평소 ‘숲은 후대에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숲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그는 사업을 해서 모은 재산을 털어 1969년에 보성군 검백면 초암산과 주월산 일대 265ha의 임야를 사들여 편백, 곰솔 등 6만 그루를 심기 시작했다.

이후 1971년 조림 사업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1981년에는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임도를 만들고, 늙은 밤나무를 새로운 나무로 바꿔 심는 10개년 계획을 다시 시행했다. 솔잎혹파리가 기승을 부리던 80년대에는 피해를 입은 나무를 모두 거둬내고 상수리나무를 심어서 가꾸었다. 이로써 전국에서 손꼽히는 참나무숲을 조성하여 ‘상수



보성 윤제림 숲정원



리 할아버지’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또 1978년에 조림왕으로 추대되었고, 윤제장이라는 훈장을 받자 호를 ‘윤제’로 정했고, 숲 이름도 윤제림이 되었다.

50여 년에 걸쳐 조성된 윤제림은 현재 337ha로 면적을 넓히고, 대를 이어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윤제림은 산 곳곳에 새로운 나무가 조림되고, 5년마다 숲아베기와 가지 치기를 하는 등 쉽 없이 보호·관리되었다. 오늘날 윤제림은 참나무류·백합나무·구상나무·홍가시나무 등 16종이 건강하게 군락을 이루었으며, 개암나무·구지뽕나무·고로쇠나무와 참나무류 천연림(50ha)도 포함하고 있다.

윤제림은 1·2·3차 산업이 융합된 6차산업을 위한 산림복합경영을 목표로, 생산과 제조와 판매까지 자체적으로 일괄처리하고 있다. 임산물 재배와 가공산업(산마늘·취나물·도라지·더덕·표고버섯·구지뽕 등)과 친환경 먹거리 채취 등 체험 입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휴양시설(야영장, 펜션 등), 산림치유센터, 치유정원, 치유프로그램, 숲정원(성림정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치유정원과 성림정원은 편백·플라밍고셀렉스·안개나무·수국·핑크물리 등이 어우러져 계절마다 색다른 경관을 내보이고, 정원 안에 위치한 산림치유센터



NAVI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주월산길 222(윤제림) ★ 222 Juwolsan-gil, Gyeombaek-myeon, Boseong-gun, Jeollanam-do

에서는 족욕과 반신욕을 즐길 수 있다.

2만평 규모의 편백숲에는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으며, 윤제림에서 주월산 정상까지는 임도로 이어져 있어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 주월산 정상 전망대에서는 순천만부터 득량만까지 드넓은 남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Yunjerim Garden Forest

222, Juwolsan-gil, Gyeombaek-myeon, Boseong-gun, Jeollanam-do

Boseong Yunjerim Garden Forest is a dense forest formed by an individual named Jung Sang-hwan who spent money to plant trees because many of the mountains were bare in 1969. He is a famous person who has become a role model to the extent that he is honored as the King of Trees. This garden, which is harmonized with various trees, allows you to experience forest healing and collect various forest products.



영화 촬영지 명소로 알려진 조림 성공지

057

장성 축령산 편백숲



주요수종 편백·삼나무·낙엽송 등 면적 388ha 조림연도 1956~76년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42, 장성 치유의 숲 061)393-1777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97 외 34

장성 죽령산 편백림은 1956~76년에 걸쳐 조성한 편백숲이다. 조림왕 고 임종국 선생이 험벗은 산야에 사재를 들여 21년 동안 삼나무·편백·밤나무·리기다소나무 등을 심고 가꾸었다. 당시 조림 면적이 총 569ha로, 북하면 월성지구와 서삼면 모암리에 편백과 삼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총 280만 그루를 심은 공로로 철탑산업훈장 등 많은 상을 수상했다.

1968년 전국에 몰아닥친 극심한 가뭄으로 발작물뿐만 아니라 나무들이 전부 말라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임종국 선생은 물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에 물을 줄 정도로 나무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



장성 축령산 편백숲



1979년에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산림청에서 2002년에 258ha를 매수하여
숙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 관리를 다시 시작했다. 이를 통해 가슴높이 지름 40cm, 높이
20여m, 임목축적 $260\text{m}^3/\text{ha}$ (최대 $500\text{m}^3/\text{ha}$)에 이르는 편백과 삼나무가 뻗뻗하게 들어
선 울창한 숲으로 되살아났다.

산림청에서는 축령산 편백숲을 목재를 생산하는 경제림으로 육성을 하지 않고 피톤치
드가 많이 나오는 편백의 특징을 살려 치유의 숲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시설
을 설치하여 피톤치드 방출량이 많은 편백숲으로 국립장성숲체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숲내음 숲길, 산소 숲길, 건강 숲길 등 테마별 숲길이 6개가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안
내센터, 명상쉼터 등의 다양한 체험시설이 있어 편리함을 더한다.

장성 축령산 편백숲은 우리나라 평균 축적의 2배가 넘는 우량한 치유의 숲으로 지정이
된 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영화촬영지 명소로 자리 잡으



NAVI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추암로 716(국립장성치유의숲) ★ 716 Chuam-ro, Seosam-myeon, Jangseong-gun, Jeollanam-do

며 임권택 감독의 <태백산맥>을 비롯해 많은 영화들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또한 해외 각국에도 조림 성공지로 널리 알려져 대학·교육기관·지자체 등의 견학 코스로 찾는 이들이 많다.

Chungnyungsan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san97, Moam-ri, Seosam-myeon, Jangseong-gun, Jeollanam-do

Jangseong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is a representative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in Korea created over a period of 21 years. It is designated and managed as a healing forest by taking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a lot of phytoncide. Since the 1990s, it has been known as a famous movie location, and many movies have been filmed here.

It is also a place visited by foreign countries as a tour of successful afforestation sites.



위대한 유산이 남긴 편백숲의 가치

058

화순 무등산 편백숲



주요수종 편백 면적 21ha 조림연도 1950년대
소유 사유림(개인)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무등산편백자연휴양림 061)373-2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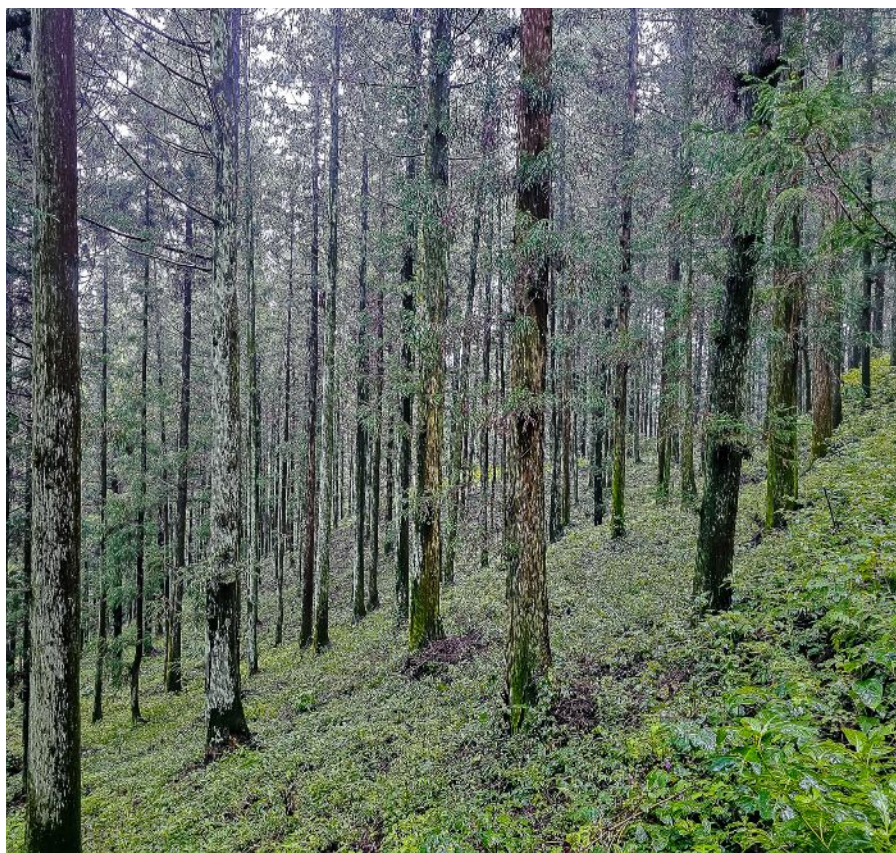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안양산로 685

전라남도 화순 무등산편백자연휴양림 편백숲은 무등산국립공원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주광역시와 화순군에서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산림 분야 최고의 영예로 일컬어지는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된 고 진재량 독립가가, “미래 세대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남겨주려면 숲을 만들고 가꾸야 한다”라는 신조로 화순과 담양 일대에 667ha의 편백과 삼나무 숲을 조성해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전쟁 직후, 1950년대부터 60여 년간 편백·삼나무를 조림하고 지속적인 숲 가꾸기를 시행하여 나이 60년, 가슴높이 지름 20~40cm, 높이 20~30m의 울창한 편백숲을 이루었다.



화순 무등산 편백숲



숲에는 등산 순환로와 산책로, 오솔길 등이 조성되어 있어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더운 여름에도 시원스러운 숲의 기운이 매력적이며 특히 60년 수령의 편백들이 시원스럽게 하늘 높이 치솟아 있어 울창한 숲속을 흐르는 피톤치드 향을 만끽할 수 있어 더욱 좋다. 5월에는 철쭉이 피어나 환상적인 풍경이 연출되고, 겨울철 하얀 눈 사이로 더욱 짙어진 숲길을 걸으면 이국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100% 자체 생산된 목재로 통나무로 산막, 휴양림, 산림욕장까지 조성하여 산림 휴양과 숲해설, 목재 체험, 건강교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숙박 시설 지구와 편백숲 산책로는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 여유로운 산책과 명상을 즐길 수



NAVI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산166(무등산편백자연휴양림) ★ san166 Ansim-ri, Iseo-myeon, Hwasun-gun, Jeollanam-do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무등산자연휴양림 편백숲은 울창한 숲은 물론 대를 이어 산림 경영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유림 경영 우수 모델이기도 하다.

Mudeungsan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685, Anyangsan-ro, Iseo-myeon, Hwasun-gun, Jeollanam-do

Hwasun Mudeungsan Japanese False Cypress Natural Recreation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is a place where Japanese False Cypress over 60 years old grow densely and is a valuable private forest completed through continuous forest cultivation. This forest was created with great individual passion, and many people pay tribute to the tree-planting process. It helps travelers enjoy the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to their heart's content through various experience programs, and is considered an excellent model for private forest management.



어머니 품처럼 아늑하고 따스한 숲

059

화순 편백과 참나무숲



주요수종 편백·삼나무·참나무류 면적 17.5ha 조림연도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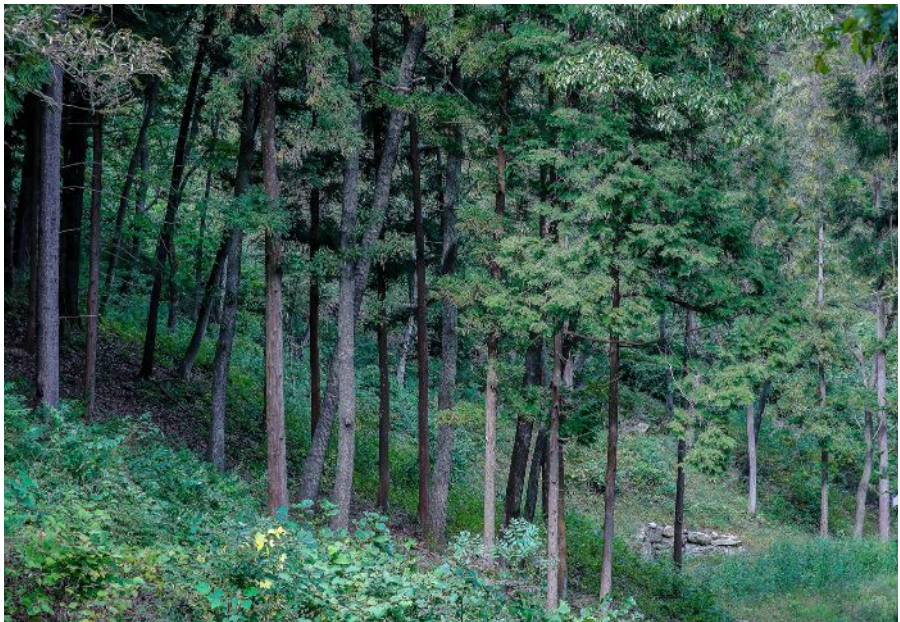
소유 사유림(개인)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화순군청 061)379-3703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면 유천리 산320, 321

모후산(918m)은 전라남도 순천시와 화순군 사이 경계를 이루며 지리적으로 요충지이면서 산세 또한 험준하다. 모후산은 고려시대에 ‘산삼 또는 인삼이 많이 나는 산’이라는 뜻으로 나복산이라고 불렸으며, 조계종 송광사의 창건 설화와 연관이 깊다. 이후 조선시대에 모후산으로 바뀌었는데, 산세가 어머니 품속처럼 따뜻하고 아늑해서 붙여진 듯하다. 모후산의 깊은 계곡과 기암괴석, 울창창한 숲은 놀랍도록 포근하면서도 끝 모를 절경이 펼쳐진다.

모후산 편백·참나무숲은 화전으로 황폐해진 지역을 복구하여 조림한 숲이다. 약 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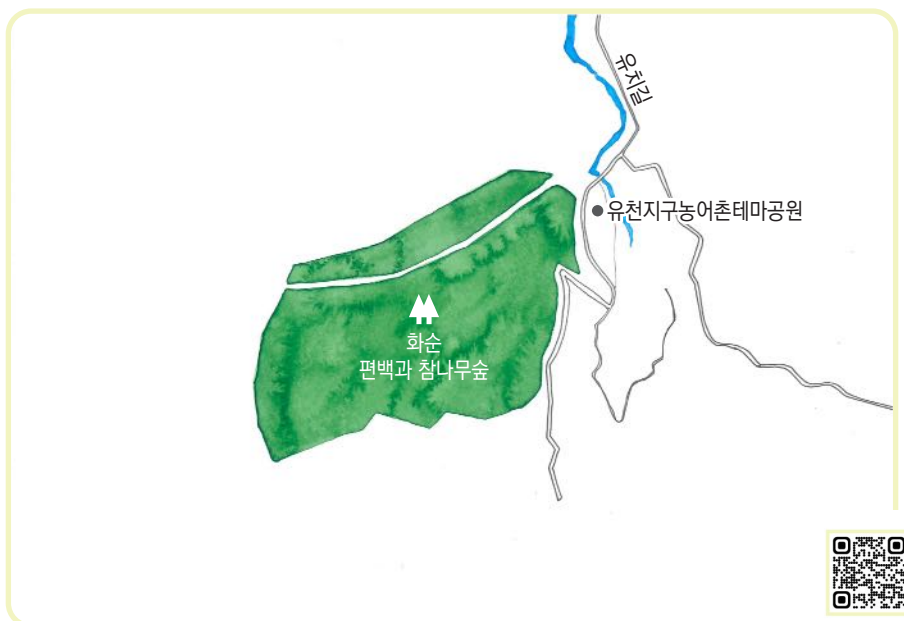


화순 편백과 참나무숲



된 삼나무·편백·소나무·단풍나무·참나무류 등 다양한 수종이 무성하게 어우러져 자란다. 이 숲 안에는 마치 작은 수목원 같은 주제별 관상수원, 활엽수원, 침엽수원이 있다. 또한 산약초 재배지, 특산 식물원 등 연구기반을 갖춘 임산물 이용과 산림 경영 모델 숲이기도 하다.

화순군은 모후산에 고려인삼의 시배지 복원사업을 하면서 생태숲을 조성했으며, 그 일환으로 이곳에 숲길 트레킹 코스와 아토피 치유 체험장을 설치하였다. 모후산 편백·참나무숲은 ‘가을철 걷고 싶은 숲길’ 대상, ‘전국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가지 명예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모후산 편백·참나무숲은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이 이어져 심신을 진정시키고 산림치유 하기에 좋은 곳이다.



NAVI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면 유천리 989(유천지구농어촌테마공원) ★ 989, Yucheon-ri, Dongbok-myeon, Hwasun-gun, Jeollanam-do

Japanese False Cypress and Oak Forest of Hwasun

san320~321 Yucheon-ri, Dongbok-myeon, Hwasun-gun, Jeollanam-do

Hwasun Japanese False Cypress and Oak Forest is a Japanese cedar and Japanese False Cypress tree forest about 50 years old that was reforested by restoring an area that had been devastated by slash-and-burn in the area around Mohu Mountain in Hwasun-gun. It is a famous place for the cultivation of Korean ginseng. It is also a model forest for the use of forest products and forest management with a research base, including a farm for wild medicinal herbs and a specialty botanical garden. A forest trekking course and an atopic healing experience center were set up. As a result, it has become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attracting many people from all over the country. It has honors such as 'a beautiful forest, a path you want to walk on.'



선비처럼 고고하고 기개 넘치는

060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숲



주요수종 소나무·벚나무 면적 1.7ha 조림연도 19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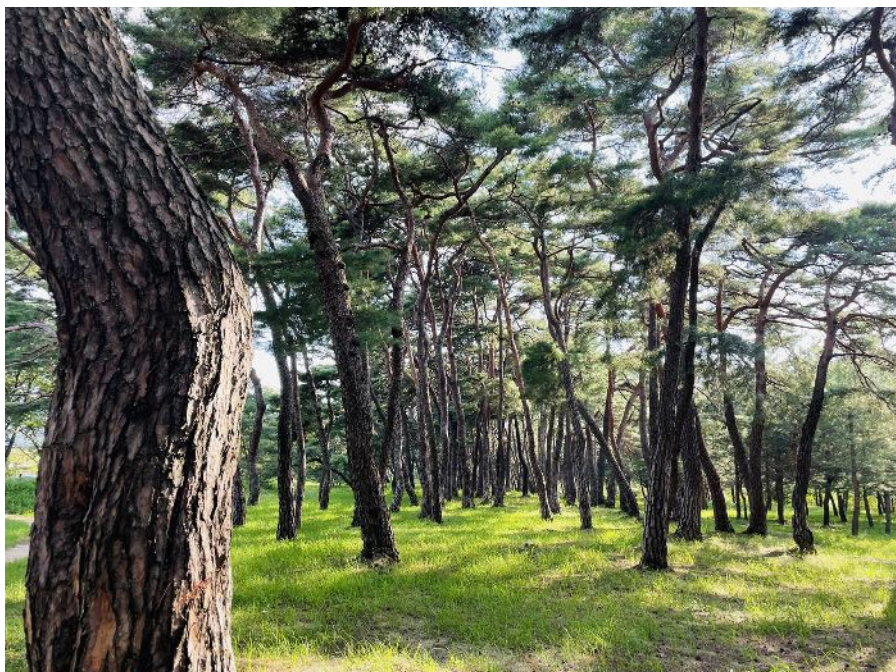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환경부)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안동시청 054)840-6461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164-1

안동 하회마을은 조선시대 영의정 서애 류성룡가 집성촌으로 유명하다. 경북 북부지역의 양반가 마을의 실생활을 엿볼 수 있는 민속문화 유산이 동네를 감고 돌아나가는 하회(河回)처럼 유유히 흐른다. 이 마을 북서쪽 강변을 따라 넓은 퇴적층 모래에 있는 소나무숲이 만송정숲(천년기념물 제473호)이다.

만송정숲을 관리하는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조선 선조 때 서애 류성룡의 형인 겸암 류운용이 강 건너편 바위절벽 부용대의 거친 기운을 완화하고 북서쪽의 허한 기운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숲



을 메우기 위하여 소나무 1만 그루를 심었다고 하여 만송정이라 한다. 1983년에 세운 만송정비에는 이 숲의 내력과 함께, 현재의 숲은 1906년에 다시 심은 나무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숲에는 나이 90~150년 된 소나무 100여 그루와 마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심는 작은 소나무들이 함께 자란다. 이 소나무들은 높이 16~18m, 가슴높이 지름 30~70cm 상태이다. 만송정숲은 여름에는 수해를 막아주고 겨울에는 세찬 북서풍을 막아주며, 마을 사람들의 휴식공간 혹은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하회마을에서는 만송정숲에서 강 건너편 부용대 정상까지 밧줄을 연결해서 불꽃을 피우는 선유줄불놀이가 매년 음력 7월 16일 밤에 열린다. 부용대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불꽃이 공중에서 터지고, 그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은 장관이다. 선유줄불놀이는 4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놀이문화이다. 과거에는 선비들의 뱃놀이를 하면서 이 불꽃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수십 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NAVI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164-1 ★ 1164-1, Hahoe-ri, Pungcheon-myeon, Andong-si, Gyeongsangbuk-do

복원해서 열고 있다.

만송정숲은 하회마을의 오랜 역사와 어우러져 문화·경관·생태적 가치가 매우 크다.

Mansongjeong Forest in Hahoe Village

186-8 Jeonseo-ro, Pungcheon-myeon, Andong-si, Gyeongsangbuk-do

Andong Mansongjeong Forest is a Korean red pine forest created in Hahoe Village 500 years ago by Foongsoo, a tradition Korean culture. It comes to have a function of preventing wind and flood after planting 10,000 trees along the Nakdonggang River, which turns around this village. If you take a relaxing walk in this historic Korean red pine forest, you can contemplate about the culture of 500 years and present. Various traditional cultural evets are held throughout the year in this village.



심표를 닮은 산책로

061

영덕 벌영리 메타세쿼이아숲



주요수종 메타세쿼이아 면적 10ha 조립연도 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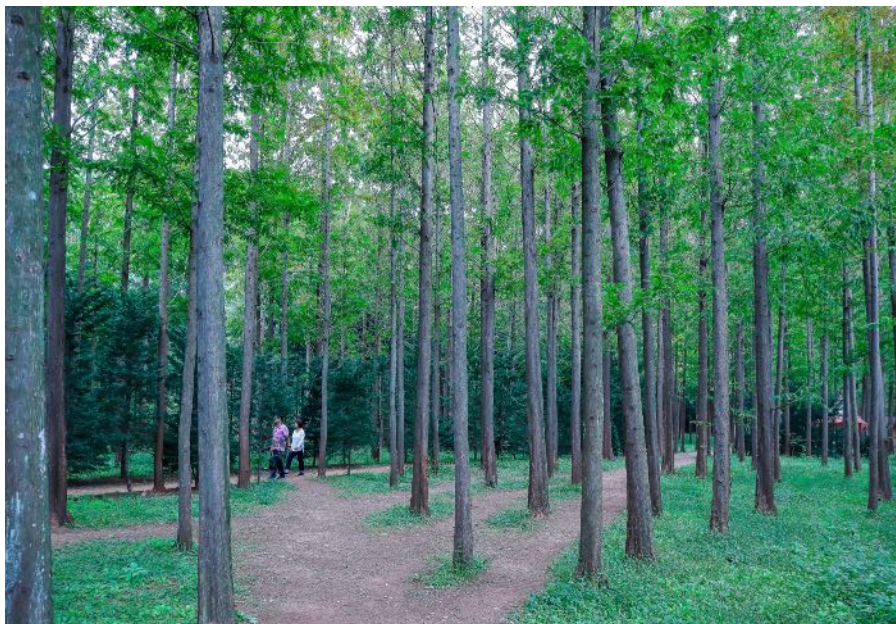
소유 사유림(개인)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영덕군청 054)730-6412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산54-1

경상북도 영덕에서 북쪽으로 20km 거리에 있는 영해면 벌영리 메타세쿼이아숲은 국도 7호선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다. 산림 내 산책로 및 휴게 쉼터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은 사유림으로 20년 전에 면적 10ha에 메타세쿼이아 어린나무를 심은 이후 숲 가꾸기를 실시하여 현재 울창한 숲이 조성되었다. 메타세쿼이아는 낙엽이 지는 침엽수로 높이 35~50m, 가슴 높이 지름 2.0~2.5m까지 자라며 중국 후베이성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메타세쿼이아숲 가운데로 400m 길이의 산책로가 있고, 높이 20m에 가까운 기다란 메



영덕 벌영리 메타세쿼이아숲



타세쿼이아가 줄지어 자라고 있다. 숲에는 비비추·취나물·애기똥풀 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숲 곳곳에는 키 작은 측백과 편백이 줄지어 자라고 있다. 또한 여러 갈래 산책로가 있어 삼림욕을 하기 적당하고, 숲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으며, 계단을 올라 전망대로 가면 숲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벌영리 메타세쿼이아숲은 출입 비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숲 입구에 있는 주차장도 무료



NAVI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별영리 939(주차장) ★ 939, Beoryeong-ri, Yeonghae-myeon, Yeongdeok-gun, Gyeongsangbuk-do

로 운영되고 있다. 숲은 봄에는 연록으로, 여름엔 짙은 초록으로, 가을에는 황갈색으로, 겨울에는 잎이 떨어진 가지를 관찰할 수 있는 즐거운 생태체험이 가능하다.

Dawn-redwood Forest in Beolyeongri

san54-1, Beoryeong-ri, Yeonghae-myeon, Yeongdeok-gun, Gyeongsangbuk-do

The dawn-redwood Forest in Beolyeong-ri, Yeongdeok, Gyeongsangbuk-do is a private forest with excellent accessibility. It was created through steady forest cultivation after planting young dawn-redwood in an area of 10ha 20 years ago. There is a beautiful trail in the middle of the forest, so it is good to take a forest bath. It is a beautiful place where you can enjoy ecological exploration with convenient facilities such as shelters and observatories. In particular, this area is famous for 'Yeongdeok snow crab,' and festivals with the theme of special dishes are often held there.



젊은 자작나무숲이 발산하는 생명의 기운

062

영양 죽파리 자작나무숲



주요수종 자작나무 면적 34ha 조림연도 1993년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영덕국유림관리소 054)730-8131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39-1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는 검마산, 울연산, 금장산 등 높고 험한 산에 겹겹이 둘러싸여 외진 산골마을이다. 조선시대에 보부상들이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는데, 언덕에 대나무가 많아서 죽파리라는 마을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죽파리 자작나무숲을 찾아 검마산을 오르는 길은 깊은 산골이라 어렵고 불편하다. 죽파리 마을의 주차장에서 좁은 임도를 따라 3.2km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수고로움을 단번에 만회해줄 비경이 기다리고 있다. 죽파리 자작나무숲은 1993년에 30ha 면적에 조림되었으며, 그로부터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영양 죽파리 자작나무숲



척척산중 자작나무숲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사계절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해야 하고, 낙엽송·전나무·소나무·신갈나무·잣나무 등 숲의 다양한 식물 종과 생존 싸움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강인하고 듬직한 모습으로 성장했다. 원시림에 가까운 주변 생태계에서도 자작나무는 연륜이 쌓인 하얀 줄기와 검은 옹이 자국과 푸른 잎을 반짝이며 단연 존재감 자랑한다.

산림청은 자작나무숲을 포함해서 죽파리 일대 국유림(83ha)과 임도(7.1km)를 국민의 숲으로 지정했다. 또한 영양군, 경상북도, 산림청은 힘을 모아 죽파리 자작나무숲을 휴양과 힐링의 명소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탐방로, 힐링센터, 체험원, 에코로드(전기차), 임산물 카페, 탐방로, 전망대 등 시설이 완비되면 한결 편안하고 아늑한 숲체험을



NAVI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522(영양자작나무숲안내센터) ★ 522, Jukpa-ri, Subi-myeon, Yeongyang-gun, Gyeongsangbuk-do

할 수 있을 것이다.

죽파리 자작나무숲에서 가까이 있는 외씨버선길 7코스 치유의 길(자생화공원 — 무아교 — 아름다운숲길 — 우련전, 8.3km)은 걷기에 부담이 없으며 포근한 경관이 일품이다.

East Asian White Birch Forest of Jukpali

san39-1, Jukpa-ri, Subi-myeon, Yeongyang-gun, Gyeongsangbuk-do

The East Asian White Birch Forest of Yeongyang Jukpali is located in a very deep mountain range. It takes a lot of time to get to this area by car from the city. As such, the air is clean, and the forest presents comfort to visitors. The healing center and forest trails are well maintained, so you can conveniently enjoy forest healing.



숲이 가진 놀라운 치유의 기록

063

영주 두산리 마실치유숲



주요수종 낙엽송·신갈나무 등 면적 58ha 조림연도 천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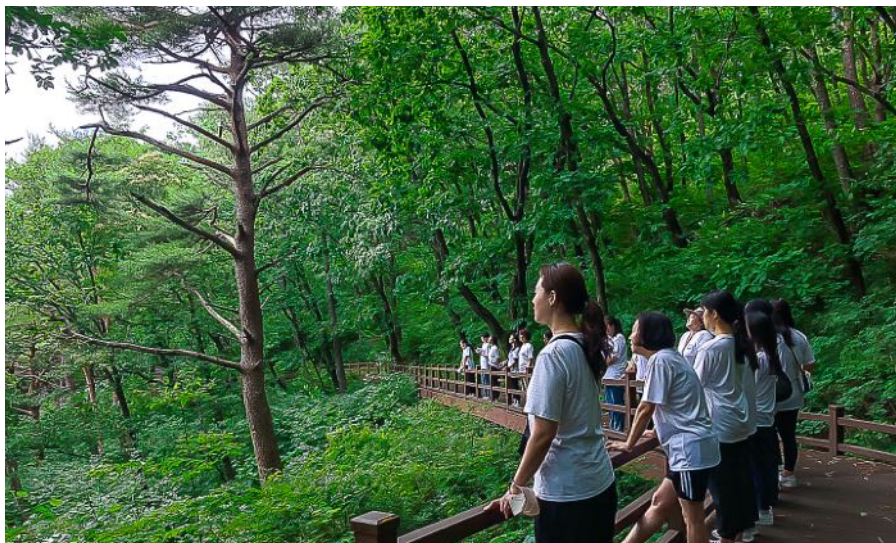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예약제)

관리기관 영주국유림관리소 054)630-4031, 국립산림치유원 054)639-3400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산32-1

소백산은 비범한 산세와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으로 신성시되어왔으며, 198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소백산 줄기의 옥녀봉 일대에는 면적 2,889ha의 넓은 국립산림치유원이 있다. 백두대간의 숲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능선 양쪽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건강증진센터와 숲 치유센터, 치유숲길, 치유정원 등을 마련해 놓고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치유원에서 목적에 따라 조성한 백두대간 능선의 숲길을 활용해 50km 조성을 마쳤다. 마실치유숲길, 마루금치유숲길, 문화탐방치유숲길, 금빛치유숲길 등 총 7곳으로 구성해 숲길을 활용한 트레킹 프로그램(감성충전, 낭만 충전 트레킹, 밸런스 워킹 등)도 제공하고 있다.



영주 두산리 마실치유숲



이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마실치유 숲길로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건강증진센터가 있는 주치마을과 연결되는 완만한 코스로 울창한 숲속을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경사도가 아주 완만하게 조성된 데크로드에서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숲길 곳곳에는 해든솔 쉼터, 숲바람 쉼터 등이 있으며, 푸르미 쉼터에서는 연화봉, 비로봉, 국망봉 등 소백산 주요 봉우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휠체어 이용자나 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 데크로드도 설치되어 있으며, 데크로드 주변에는 낙엽송 숲과 붉은 줄기의 커다란 소나무·신갈나무 등이 자라고 있으며 단풍나무들도 있어 더욱 아름답다.

영주 마실치유의 숲은 수량이 풍부하여 숲이 자라는 조건을 잘 갖추었다. 한편 비가 오면 수량이 넘쳐서 숲길이 유실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이 숲 지역은 정감록에 나오는 명당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지세라고 한다. 예로부터 질병과 전쟁을 피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구한말, 일제강점기, 6·25동란 당시에도 역사의 파도에 떠밀려온 사람들이 이곳 산자락에 마을을 형성했다.



NAVI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테라피로 124(국립산림치유원) ★ 124 Therapy-ro, Bonghyeon-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Masil Healing Forest

209-1 Therapy-ro, Bonghyeon-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Yeongju Masil Healing Forest is located in Sobaeksan National Park. It is a place where many people rest and gain strength as various forest healing programs are systematically operated. Forest healing facilities are installed on a very large scale.

You can feel the vitality of the dense forest while walking along the Masil Healing Forest Road, and you can also enjoy the beautiful scenery at the foot of Sobaeksan Mountain. In particular, a barrier-free deck road has been created with consideration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so anyone can visit conveniently. There is a folk culture here that is protected from war diseases, so economically wealthy people in the past gathered to form a village.



안개 자욱히 흐르는 몽환 세계

064

청송 화장리 자작나무숲



주요수종 자작나무 면적 8.5ha 조림연도 1996년

소유 군유림(청송군)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청송군청 054)870-6316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화장리 산11-1

청송 자작나무숲은 1996년 8.5ha를 조성한 울창한 숲이다. 산책이 가능한 임도, 소로길, A코스(2.06km), B코스(1.15km) 등 4개의 코스가 있다. 나무 숲길은 완만하고 부드러워서 차분하게 걸기에 알맞다. 숲길 양옆에는 자작나무가 봄의 싱그러움, 여름의 반짝임, 가을의 화려함, 겨울의 아늑함으로 갈아입으며 사람들을 반긴다.

흔히 자작나무숲은 몽환적 분위기나 동화 속 풍경을 묘사할 때 많이 인용된다. 무포산이 깊이 품고 있는 한적한 청송 자작나무숲은 상상 속에서 그리던 풍경을 연출하고는 한다. 자작나무숲 인근에는 농업용수 저수지인 주산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피어오른 질



청송 화장리 자작나무숲



은 안개가 간간이 숲을 뒤덮는다. 안개가 흐르는 자작나무숲은 그야말로 신화 속 별세계이다.

자작나무는 층층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흰색이며 옆으로 얇게 벗겨진다. 꽃은 4월에 피는 암수한그루이고 열매는 9월에 익는다. 나무껍질은 기름 성분이 있어서 불에 태우면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고 하여 자작나무라고 전한다. 줄기의 껍질은 매끄럽고 잘 벗겨져서 과거에 종이를 대신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불경을 새기는 데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자작나무 수액을 뽑아서 건강음료로 마시기도 한다. 인간에게 지혜와 건강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작나무에 맑은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도 했다.



NAVI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산40-1(피나무재 임도입구) ★ 222-31, Mpyeong-ro, JuWangSan-myeon, Cheongsong-gun, Gyeongsangbuk-do

청송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산철쭉제와 사과특산물, 달기약수가 유명하다.

East Asian White Birch Forest in Cheongsong

san11-1, Hwajang-ri, Bunam-myeon, Cheongsong-gun, Gyeongsangbuk-do

East Asian white birch Luxury Forest in Cheongsong was cultivated in 1996, and it forms a dense forest on a wide area. There are four courses available for trekking, including forest road, small trail road, course A(2.06km), course B(1.15km). The forest path is gentle and smooth, making it suitable for a calm walk. The forest of Jamak trees in this area makes you feel something like a fairy tale mystery.



주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숲

065

거제 계룡산 편백숲



주요수종 편백·삼나무 등 면적 29ha 조림연도 196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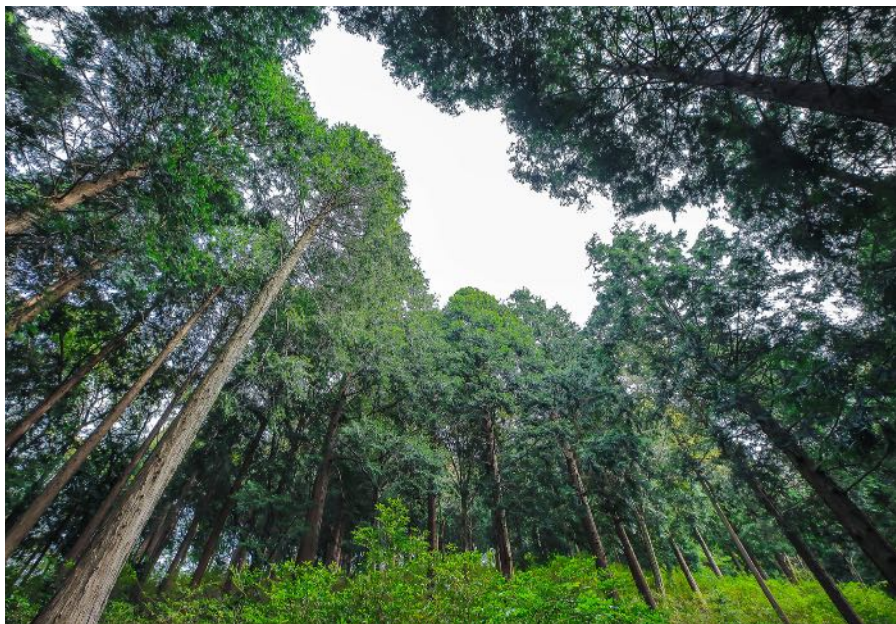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35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산91 외 3

닭의 머리와 용의 몸체를 나타내는 계룡(鷄龍) 형태의 산은 기운이 넘친다고 전해진다. 거제도 계룡산(570m)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거인이 양팔로 새끼를 감싸 보호하듯 거제 시내를 수호하는 형국이다.

계룡산 자락 장평동에 1963년 주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약 35만 그루의 편백숲이 조성되었다. 계룡산 편백숲에는 29ha 면적에 50년 이상의 편백과 삼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50년이 넘는 편백숲은 아주 희귀한 편이다.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6cm, 높이 14m 정도로 건강하게 잘 자란 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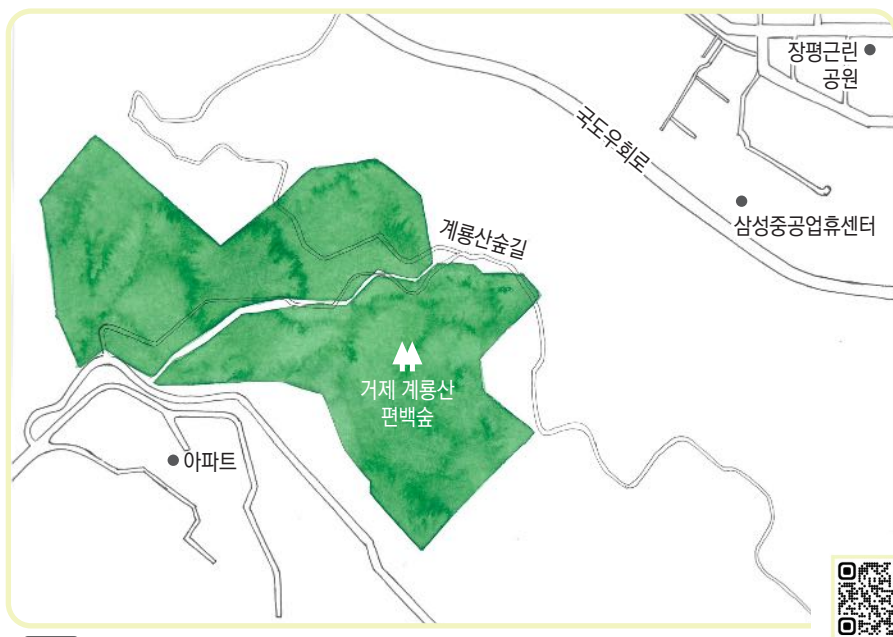


거제 계룡산 편백숲



산림청이 선정한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여행하기 좋은 국유림 명품숲 5개소에 포함될 정도로 아름다운 자태를 과시한다. 현재 편백 사이에서 힐링 치유하도록 명상쉼터와 평상, 벤치 그리고 아기자기한 오솔길과 임도가 자연 친화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계룡산 유아숲체험원을 2020년에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다.

계룡산 편백숲은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도가 매우 좋은 도시휴양림이다. 인근 거제지



NAVI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산102-2 ★ san102-2, Jangpyeong-dong, Geoje-si, Gyeongsangnam-do

역 조선업 관련 종사자 가족들의 심신을 위로하며, 한편으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흡수하는 착한 숲의 기능을 발휘한다.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in Gyeryongsan

san91, Jangpyeong-dong, Geoje-si, Gyeongsangnam-do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in Geoje is dominated by Japanese False Cypress that are over 50 years old. In Korea,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s that are more than 50 years old in Korea are very rare. For convenience of walking and healing, meditation shelters, benches, cute paths, and forest roads are installed in an eco-friendly manner. Above all, things, Geoje Gyeryongsan Infant Forest Experience Center operates various forest welfare programs that are frequently visited by children and families.



한려수도 경관에 편백의 향기를 더하다

066

남해 봉화리 편백숲



주요수종 편백 면적 120ha 조림연도 1966~6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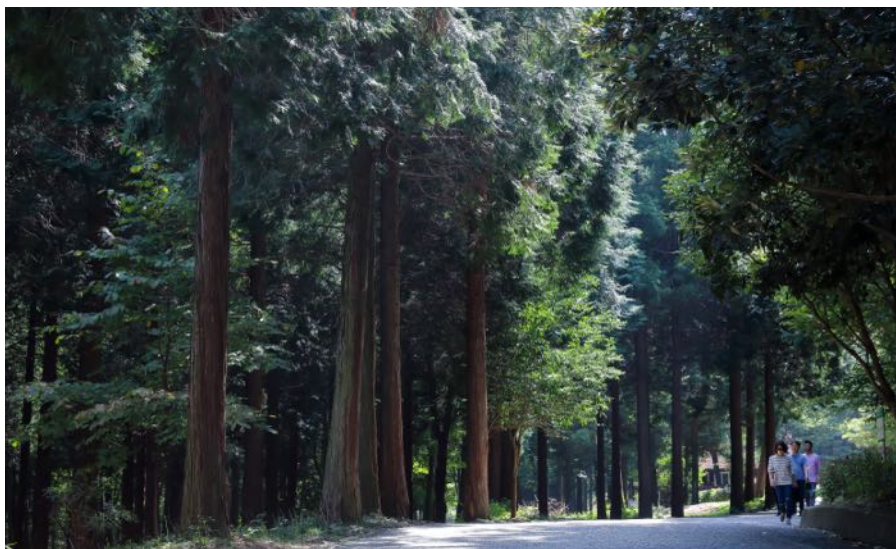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35,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055)867-7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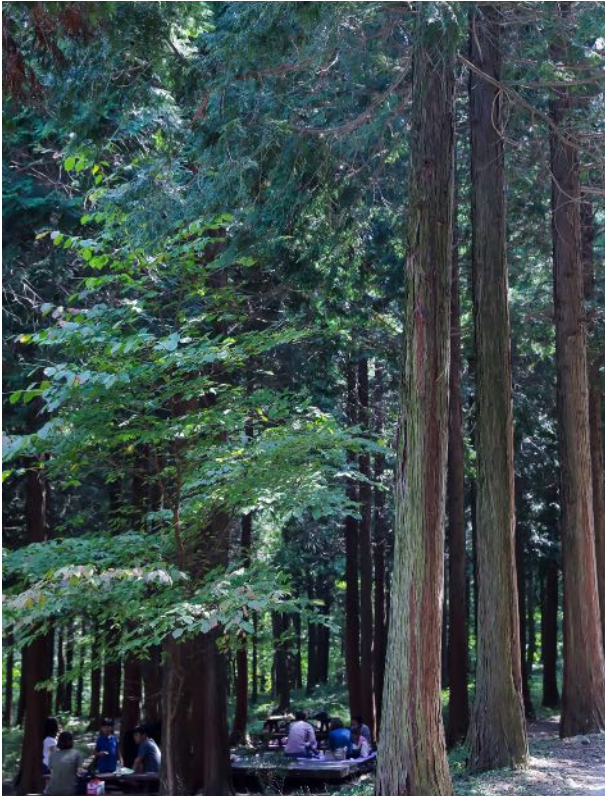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553-1

경상남도 남해는 본디 섬이며, 1973년 남해대교가 개통되면서 육지와 연결되었고, 1980년 창선교가 놓이면서 창선도가 연결되었다. 남해는 1968년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최초의 해상공원인 만큼 가치 있는 역사 유적이 풍부하고 자연 풍광이 수려하다. 이 아름다운 풍경이 한껏 펼쳐진 삼동면에 남해 편백숲이 자리하고 있다.

남해 편백숲은 1966~67년에 120ha 면적에 조림한 편백과 삼나무가 인공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편백은 가슴높이 지름 22cm, 높이 13m, 축적 118m³/ha, 나이 60년 상태이다. 현재는 금산 편백숲을 중심으로 512ha의 편백숲이 분포하고 있으며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여유롭고 가볍게 숲을 거닐 수 있다. 해마다 이곳에는 수많은 여행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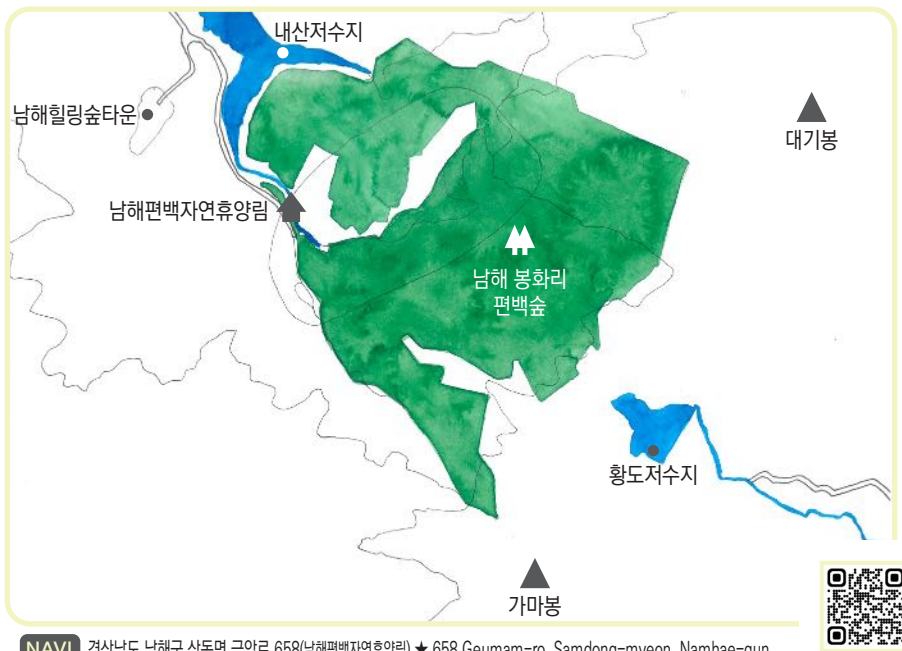


남해 봉화리 편백숲



남해 편백숲의 중심에 위치한 남해편백자연휴양림은 1998년에 개장한 자연휴양림이다. 휴양림에는 숲속의 집, 야영장, 숲탐방로, 물놀이장, 어린이놀이터, 숲속 강의실, 일출 전망대, 산책로, 등산로, 잔디마당, 체력단련시설, 산림복합체험센터 등의 휴양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산림복합체험센터에는 테라피치유실, 찜질체험실, 편백족욕장 등의 산림치유시설과 숲속 VR체험, 클라이밍, 샌드아트, 정글집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가득하다.

남해 편백숲 인근에는 삼동면과 창선면 사이의 지족해협에 설치된 전통 고기잡이 죽방렴(대나무 어사리)이 유명하고, 천연기념물 제150로 지정된 물건방조어부림이 있다. 가천 다랭이마을의 다랭이논(명승 제15호)도 놓칠 수 없는 여행지이다. 다랭이마을은 바닷가



NAVI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658(남해편백자연휴양림) ★ 658 Geumam-ro, Samdong-myeon, Namhae-gun, Gyeongsangnam-do

마을이지만 해안절벽을 끼고 있는 탓에 고기잡이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마을주민들은 산비탈을 깎고 한 층 한 층 돌을 쌓아 다랭이논을 만들었다고 한다. 더불어 금산 보리암에서 내려다보는 남해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감동을 선사한다.

Namhae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658, Geumam-ro, Samdong-myeon, Namhae-gun, Gyeongsangnam-do

Namhae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has a forest of Japanese cedar and Japanese False Cypress that are about 60 years old. It is one of the largest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s in Korea. There are trekking courses, camping sites, forest experience education, and facilities for various direct experiences. It is a famous forest experience site with 250,000 people visiting every year.



산과 바다가 조화로운 자연휴양림

067

사천 각산자연휴양림 편백숲



주요수종 편백 면적 20ha 조림연도 1950년대

소유 군유림(사천시)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사천시청 055)831-3431,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055)835-9524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산170-2 외 25필

사천 각산은 소유주(경남연탄)가 1950년대 후반부터 나무를 심고 숲가꾸기를 하여 20ha의 편백숲을 조성했다. 사천시가 4년여의 협상 끝에 편백숲을 모두 매입하고, 주변 국공유지를 더해 산림휴양림으로 발전했다. 이어 39ha의 자연휴양림이 모습을 갖추고 2021년에 완공하여 사천시의 대표 관광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천각산자연휴양림 편백숲은 면적 20ha에 나이 60~70년, 가슴높이 지름 20~30cm가 되는 편백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편백숲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 산과 바다의 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고, 가을철이면 편백숲 사이의 단풍과 계곡이 장관을 이룬다.



사천 각산자연휴양림 편백숲



사천 각산은 도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해발 408m의 산으로, 바다를 향해 돌출되어 있어 특히 바다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정상부에는 돌을 모아 만든 고려 시대의 봉화대가 있으며, 능선에는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242m의 돌로 쌓은 석성인 각산산성도 있다. 또한 사천 케이블 카 자연휴양림과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어 각산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다.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은 산림 휴양관, 숲속의 집, 산을 관리하기 위한 임도, 편백숲을 가로지르는 숲속 산책로, 숲 놀이터, 어린이 물놀이장, 계류 탁족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걷기 좋은 숲길을 4개 코스로 조성해 놓았고, 명품숲과 인접한 사천바다 케이블카는 2.3km의 길이로 국내 최초 바다와 섬, 그리고 산을 잇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섬



NAVI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길 242-45(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 242-45 Siran-gil, Sacheon-si, Gyeongsangnam-do

(초양도), 바다(사천바다)와 산(각산)을 잇는 3개 정류장(대방, 초양, 각산)에서 승·하차를 가능도 가능하다.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내 유아 숲 체험원이 있어 모험 놀이대 등 다양한 놀이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Gaksan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242-45, Siran-gil, Sacheon-si, Gyeongsangnam-do

Sacheon Gaksan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began planting trees in 1950, and is known as a major tourist attraction in Sacheon and a natural recreation forest of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after completion in 2021. As it protrudes toward the sea, the beautiful sea scenery is spectacular. It is a representative natural recreation forest in Sacheon, where you can meet local cultural heritage, including Sacheon Cable Car.



저절로 마음을 내려놓는 숲길

068

사천 다솔사 명상숲



주요수종 편백·삼나무·소나무 면적 120ha 조림연도 1970~80년대

소유 사유림(사찰림)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사천시청 055)831-3431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용산리 산11

사천 다솔사는 사천구경 중 하나이다. 산의 형세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는 모습이라고 해서 ‘다솔(多率)’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다솔사는 신라 지증왕 때 창건한 유서 깊은 천년고찰로, 진신사리를 모시는 적멸보궁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천년고찰, 녹차밭, 아름다운 숲 3가지 주제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천년고찰에는 건축물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고고한 정신문화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만해 한용운이 이곳에 기거하면서 독립운동조직 만당을 조직하였다. 100여 년 전 만해의 회갑을 기념하며 사찰 앞마당에 심은 황금촉백나무는 여전히 건





재하다.

승려·독립운동·정치인·교육자인 효당 최범술이 근대 차문화를 정립하고 부흥시킨 곳도 다솔사이다. 또한 소설가 김동리는 이곳에서 불교적 구도와 소신공양을 다룬 《등신불》을 집필했다.

다솔사 입구부터 절에 이르는 길에는 나이 40~50년 편백과 삼나무숲이 있고, 굽기가 한 아름 되는 나이 100년가량의 붉은 줄기의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룬다. 솔밭길 중간 쯤에는 조선시대 고종이 하사한 어금혈봉포 비문이 있다. 인근에 세종과 단종의 태실이 있으니 일반인들의 묘지를 쓰지 말라는 교지이다. 다솔사 주변 소나무숲이 잘 보전된 이유이기도 하다. 다솔사에는 특이하게도 일주문이 없다. 어쩌면 절의 입구에서 하늘을 찌르는 숲을 걸다 보면 자연스레 하심(下心)이 되니 일주문을 대신하는 게 아닐까.

다솔사에서 산으로 오르다 보면 굴참나무·줄참나무·서어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활엽수 숲이 있고, 그 위 쉼터부터 900여m 평탄한 길에는 소나무가 하늘을 덮을 정도로 울창한 숲을 이룬다. 굽기가 한 아름에 가깝고 수령도 100년 정도 되는 소나무도 중간중간 만



NAVI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다솔사길 413(다솔사) ★ 413 Dasolsa-gil, Gonmyeong-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날 수 있다. 이 숲길을 가만히 걸으면 ‘명상숲’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를 금세 이해할 것이다.

Dasolsa Meditation Forest

413 Dasolsa-gil, Gonmyeong-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Dasolsa Temple Meditation Forest in Sacheon is characterized by a thousand-year-old temple, a very large green tea field, and a beautiful Korean red pine forest.

The temple is famous for being practiced by many excellent monks and created or studied by authoritative writers and tea experts. There is a monument of sentences written by the king of the Joseon Dynasty to preserve this forest well. If you look around the forest paths and temples of this place, you will know why it is called ‘Dasolsa Meditation Forest’.



호수와 숲의 아름다운 조화

069

진주 진양호반 물빛숲



주요수종 편백 면적 20ha 조림연도 1980~94년

소유 군유림(진주시)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진주시청 055)749-6964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산173-5

진양호는 1970년 남강을 막아서 만든 남강댐에 의해서 생긴 인공호수로 물이 맑고 주변 경관이 좋은 진주시의 명소이다. 호수에 인접한 고속도로와 국도로 광역접근성이 우수하다. 진양 호반에는 1970년대부터 2001년까지 편백이 인공조림되었고, 천연림과 인공림이 조화를 이뤄 수려한 호반 풍경과 더불어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물빛숲은 진양호 공원에 위치한 1980~94년에 조림했으며, 약 20ha 면적에 높이 11~13m에 이르는 편백으로 가득한 숲이다. 숲아베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야 확보 및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 청량감을 불어넣어 여행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숲 가



진주 진양호반 물빛숲



꾸기 수목 부산물을 산림바이오매스 폐기물 처리업체와 협약을 맺어 산업적 목재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했다.

진양호반 물빛숲을 지나가는 양마산 둘레길은 호수와 편백숲 산림욕이 있는 길로 잔잔하고 고요한 진양호를 바라보며 편백 숲길 속 향기 테라피를 즐길 수 있다. 물빛숲 내에는 산책로를 개설하고 70여 종의 화목류도 자라고 있어 교육적 기능은 물론 사계절 꽃과 열매를 감상할 수 있다.

진양호 공원에는 양마산 물빛길과 귀곡동 일원 자연생태 문화 탐방로가 개설되어 있으



NAVI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437-8 ★ 437-8, Panmun-dong, Jinju-si, Gyeongsangnam-do

며, 봄에는 만개하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 그리고 진주 8경인 진양호 노을도 아름답다. 주변에는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어 있고, 다양한 테마로 만든 공간들이 있어 숲 체험은 물론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숲이다.

Mulbit Forest in Jinyang Lake

105, Namgang-ro 1beon-gil, Jinju-si, Gyeongsangnam-do

Jinyang Lake in the Mulbit Forest near Jinyang Lake in Jinju was artificially created in 1970 and is known as Jinju City's representative tourist attraction due to its clear water and beautiful surrounding scenery. There is also a Dulle-gil where you can take a walk through the densely packed Japanese False Cypress, so you can enjoy the refreshing feeling of phytoncide to your heart's content. You can also experience a abundant forest that stimulates your five senses in a space created with various ecological exploration themes.



몸과 영혼을 감싸주는

070

창원 대장동 편백숲



주요수종 편백·굴참나무 등 면적 109ha 조립연도 1978년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양산국유림관리소 055)370-2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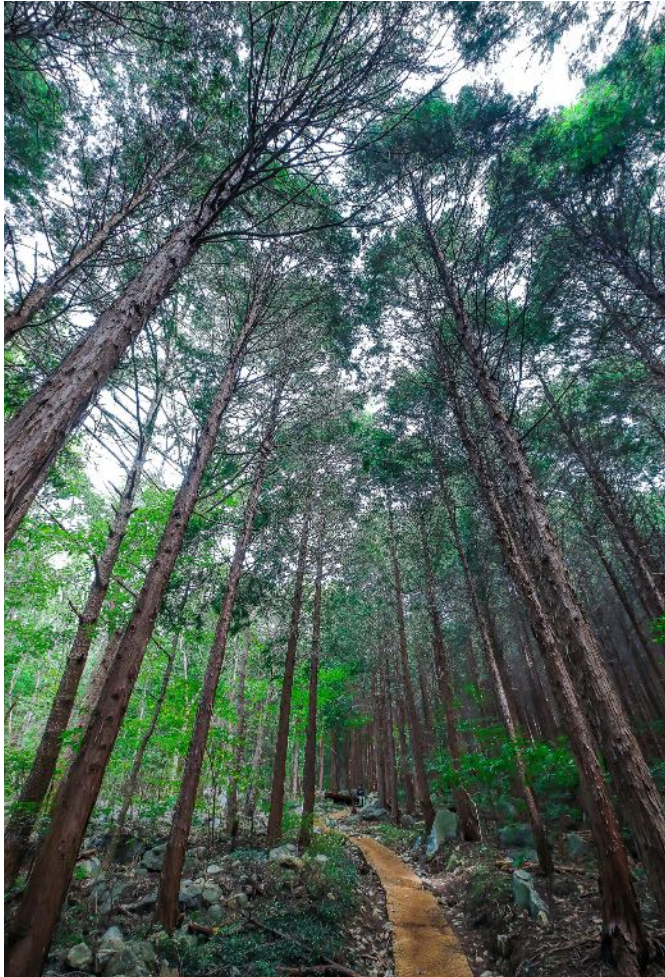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 산1-9 외 1

창원 대장동 편백숲은 굴암산(662m) 기슭에 위치한다. 굴암산에 위치한 수려한 성흥계곡은 팔판천이라고도 불리는데, ‘팔판’은 3정승 8판서 3현이 나는 명당자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흥계곡에서 약 1시간을 등산로를 따라 걸으면 쪽쪽 뻗은 편백숲에서 진한 향기가 온몸을 감싸준다. 편백은 인체 호흡기나 피부로 흡수되는 상쾌한 식물 치유 인자인 피톤치드를 다량으로 발산한다. 편백 삼림욕은 인체에 유익한 항균, 살균작용과 심리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증진에 기여한다.



창원 대장동 편백숲



대장동 편백숲은 1978년 시험림으로 조림한 100ha 면적에 이르는 숲이다. 평균 나무 두께 20cm, 높이 12m에 이르는 튼실하고 건강하게 자란 편백이 숲을 가득 채운다. 조림 초기에는 군사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었지만, 2015년 산림청에서 국유재산으로 편입하면서 개방되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장동 편백숲은 도심에서 가까워서 접근성이 편리하여 계곡 휴양이나 등산을 위해 많



NAVI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장로 273(성흥사) ★ 273 Daejang-ro, Jinhae-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굴암산 정상과 능선에 이르면 거제도, 가덕도 등 남해 다도해가 시원스레 펼쳐져 피로를 씻어준다.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in Daejang-dong

san1-9, Daejang-dong, Jinhae-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You can walk through the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in Daejang-dong, Changwon-City, along the hiking trail for about an hour, and it has a strong scent of the Japanese False Cypress, allowing you to take a refreshing bath in the forest. The scent of the Japanese False Cypress is said to have beneficial antibacterial effects on the human body and provide psychological stability. It has good accessibility from the city center. That's why many people visit Daejeon-dong Japanese False Cypress Forest and the nearby valley.



우주 만물이 고요하게 소리 내며 교감하는
합천 가야산 소리길숲

071



주요수종 소나무·졸참나무·굴참나무 면적 7,707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사유림(사찰림)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합천군청 053)930-8000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산1

가야산 소리길숲은 가야산국립공원 내 홍류동계곡을 따라 6km 정도 형성되어 있다. 단단하고 미끈한 암반과 맑은 물로 이루어진 계곡을 따라 아름다운 숲길이 조성되었다. ‘숲길 조성’이라는 용어는 인공적으로 데크와 다리를 설치해서 쓰인 표현이지만, 사실 ‘숲길’은 옛적부터 구도를 찾는 이들이나 간절한 소원을 기원하는 불자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닦여 있었다.

가야산은 곧 해인사이고,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이라는 찬란한 역사 유물이 숨 쉬고 있다. 소리길숲은 역사의 숨결과 함께하는 명품숲 길이다. 소리길숲을 걷노라면 자연 예술



합천 가야산 소리길숲



가들이 빚어놓은 ‘생각이 있는’ 작품이 수시로 전시되어 있다. 이 일대는 국립공원 구역이라서 탐방지원센터와 안내표지판이 친절하게 탐방객들을 맞아준다.

소리길숲을 걷는 이들은 저마다의 종교를 떠나 우주 만물과 자연이 교감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푸른 나무 흔들리는 소리, 솔바람 소리, 계곡 물소리, 새소리, 단풍나무가 물에 일렁거리는 소리 모두가 자유롭고 한편으로는 경건하기까지 하다.

소리길숲은 통일신라 때 창건된 해인사의 사찰림으로서 오랜 세월 보존되어왔다. 가장 눈길을 끄는 소나무숲은 가슴높이 지름 40cm, 높이 25m의 우람한 소나무들이 우뚝 솟아 있다. 오랜 세월 숲과 사찰을 지켜온 파수꾼답게 든든하고 우직하다. 또한 졸참나무·전나무·낙엽송·당단풍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계곡부에 자라고 있다.

소리길숲에 소개된 신라의 명문장가 최치원의 시 한 편을 음미해보자.



NAVI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6-1(치인주차장) ★ san16-1 Chiin-ri, Gaya-myeon, Hapcheon-gun, Gyeongsangnam-do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첩첩바위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려 겹겹 봉우리 올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是非)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Gayasan Sorigil Forest

131 Mureungdong-gil, Gaya-myeon, Hapcheon-gun, Gyeongsangnam-do

Hapcheon Gayasan Sorigil Forest is a valley forest path that leads to Haeinsa Temple, one of the most famous temples in Korea. It is a beautiful place where old magnificent Korean red pine trees and clear valley water harmonize. It has been a place where not only religious people but also wise people and poets have visited for over a thousand years. You can get a lot of information at the Sori-gil Information Center in Gayasan National Park.



사계절 아름다운 삼나무가 있는 풍경

072

서귀포 이승이오름 삼나무숲



주요수종 삼나무·왕벚나무·산딸나무 면적 31.5ha 조림연도 1970년대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서귀포시청 064)760-304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레리 산2-4

서귀포시 이승이오름(539m)은 제주 동남쪽 중산간에 위치한 오름으로 서귀포시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있다. 말발굽형 분화구를 지닌 오름으로 그 모양이 삶(살팽이)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삶은 제주말로 ‘숙(식)’이다. 정상 전망대에 오르면 성널오름과 사라오름, 한라산까지 바라볼 수 있다. 오름 양쪽으로 작은 계곡과 함께 삼나무가 있고, 대부분은 울창한 천연림으로 조성되어 있다.

서귀포 이승이오름숲에는 화산탄, 숯 가마터, 진지동굴, 해그문이스가 있다. 해그문이스는 나무가 울창하고 하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대낮에도 해를 볼 수 없다고



서귀포 이승이오름 삼나무숲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승이오름에는 1970년대에 조림된 우량 삼나무숲이 31.5ha 면적에 펼쳐져 있다. 이승이오름 삼나무 숲은 특히 접근성이 우수하다. 신례마을 공동목장 진입로 양옆으로 왕벚나무가 꽃망울을 터트리고 산딸나무·산다화 등 약 1만 그루가 봄을 더욱 화려하게 밝힌다. 또한 삼나무숲은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이 지나고 있으며, 종가시나무·참식나무·동백나무 등 상록활엽수림대가 어우러진 코스로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에는 탐방로가 잘 닦여져 있으며, 향후 우량 삼나무를 둘러볼 수 있는 순환형 탐방



NAVI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7(신례천생태탐방로종합안내소) ★ san7, Sinrye-ri, Namwon-eup, Seogwipo-si, Jeju-do

로(4.2km)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인근에는 신례천 탐방로, 한라산둘레길(시험림길) 및 한남리 머채왓 숲길이 있다.

Iseongioreum Japanese Cedar Forest

san2-4, Sinrye-ri, Namwon-eup, Seogwipo-si, Jeju-do

There is a trail in the Japanese cedar forest so anyone can observe the Japanese cedar trees up close, and from the top of the oreum, you can even see Hallasan Mountain, creating a beautiful spectacle. There is a trail in the Japanese cedar forest, so anyone can observe the Japanese cedar up close, and you can see Hallasan Mountain from the top of Oreum, creating a beautiful spectacle. The Japanese cedar forest, which was cultivated in 1970, has Hallasan Dulle-gil, which is also a place where many travellers come to see the Japanese cedar trees that extend refreshingly.



화산섬 제주의 자연과 벗하다

073

서귀포 치유의 숲



주요수종 편백·삼나무·불가시나무·조록나무·동백나무 등 면적 174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예약제)
관리기관 서귀포시청 064)760-3044, 서귀포 치유의 숲 064)760-306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산1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에 위치한 시오름(높이 758m, 둘레 2,046m, 면적 27.6ha)은 봉우리에 굴부리(분화구)가 없는 원추형 화산체이며, 기세가 웅장하고 힘이 넘쳐서 수컷을 뜻하는 수오름·숫오름이라고 불렸다. 한라산둘레길의 동백길 구간과 이어지며, 고도가 높고 가파르기는 하지만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서 정상부까지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시오름 일대의 174ha(국유림 80%, 도유림 20%) 숲에는 고도에 따라 난대림, 온대림, 상록 침엽수림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화산섬 제주의 자연환경과 산림을 축소해놓은 듯한 이곳은 2016년에 치유의 숲으로 지정되었다.

시오름 치유의 숲은 침엽수(20%)와 활엽수(80%)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이 40년, 높이 13m, 가슴높이 지름 26cm이다. 하지만 곳곳에 나이 80년이 훌쩍 넘는 편백과 삼나무



서귀포 치유의 숲



가 우람하고, 나무나이 200년가량 되는 붉가시나무와 함께 다양한 난대림이 굽은 줄기와 가지를 뻗어 하늘을 덮고 있어서 마치 원시림에 들어선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조록나무·붉가시나무·서어나무·동백나무·단풍나무 등도 숲에 풍성함과 다양성을 더해준다.

치유의 숲에는 가명(가는), 오명(오는), 엄부랑(엄청나게 큰), 가베또롱(가볍게), 벤조롱(산뜻하고 멋진)과 같은 제주어 이름의 12개 구간 숲길(15km)이 조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엄부랑숲에는 늙은 삼나무가 장엄한 군락을 이루고 있고, 1800년대 집터, 숯가마 터, 똥돼지 화장실 터 등 제주 전통 마을 유적이 남아 있다. 정상 시오름까지 다녀오려면 넉넉하게 3~4시간은 잡아야 하며, 그곳에 오르면 한라산 백록담을 오롯이 조망할 수 있다. 경이로운 제주 자연에 한껏 취할 수 있는 치유의 숲은 2017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인 아름다운 생명상을 수상했다.

치유의 숲은 하루 입장객을 600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이다.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홈페이지(www.seogwipo.go.kr)에서 치유의 숲 탐방을 예약하면 된다. 또한 치유의 숲과 연계해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 힐링 해설사 프로그램, 차롱(대바구



NAVI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록남로 2271(서귀포치유의숲 주차장) ★ 2271 Sallongnam-ro, Seogwipo-si, Jeju-do

니) 밥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Seogwipo Healing Forest

2271, Sallongnam-ro, Seogwipo-si, Jeju-do

Trees of Seogwipo Healing Forest are an average age of 40 years, an average height of 13m, and a chest height thickness of 26cm. However, here and there, Japanese False Cypress and Japanese cedar trees that are well over 80 years old are very tall. Various subtropical forests, along with red-wood evergreen oaks that are about 200 years old, extend their thick stems and branches and cover the sky, creating the illusion that you enter a primeval forest. Depending on the height, it is distributed as a subtropical forest or temperate forest. The trail to the summit is well maintained. You can experience various programs at the information center.



삼나무 우뚝 솟은 생명의 흠길

074

제주 절물자연휴양림 장생의 숲



주요수종 삼나무 면적 300ha 조림연도 1960년대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휴양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제주시청 064)728-8987, 제주절물자연휴양림 064)728-15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 78-1

절물오름(697m)은 제주시 봉개동 중산간 지역에 솟은 듅직하고 높다란 오름이다. 절물 오름 사면에는 활엽수가 우거져 숲을 이루고, 꼭대기의 말굽 모양 분화구에는 키작은나무와 가시덤불이 뒤덮고 있다. 절물오름은 두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큰 봉우리는 큰대나, 작은 봉우리는 작은대나로 불린다. 정상에 오르면 동쪽의 일출봉부터 서쪽의 무수천, 북쪽의 제주시까지 수려한 풍경이 드넓게 펼쳐진다.

절물자연휴양림은 1995년 절물오름 북쪽 기슭의 국유림에 개장했다. 인공림 200ha, 천연림 100ha 면적의 숲에는 삼나무가 주종을 이루며, 소나무·산뽕나무·울벚나무 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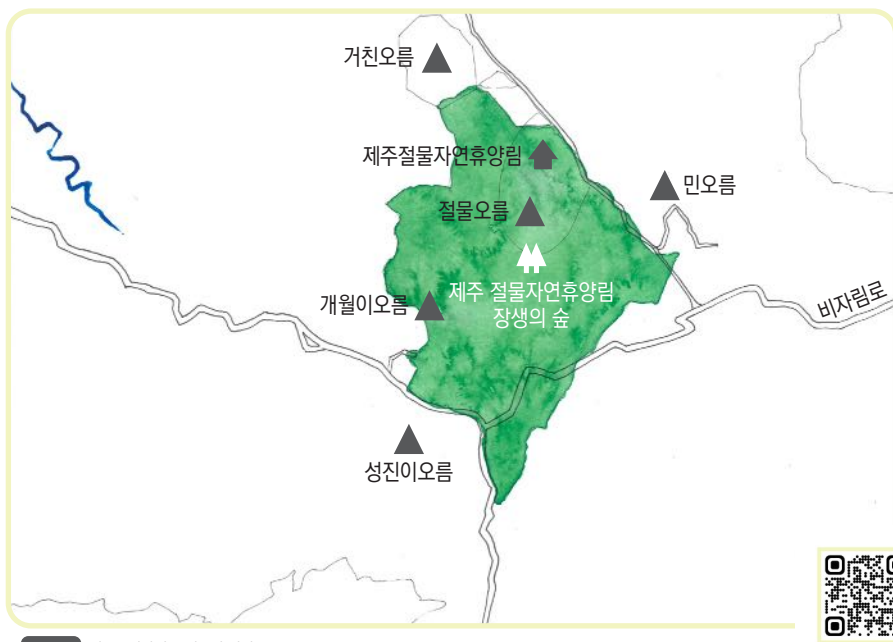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삼나무는 1960년대 중반부터 이곳에 심기 시작했으며, 나이 30~45년 상태이다. 큰오색딱다구리, 까마귀, 휘파람새가 너나없이 지저귀고, 새벽과 저녁 무렵에는 숲속에서 풀을 뜯는 노루를 발견할 행운도 누릴 수 있다. 절물자연휴양림에는 산책로, 약수터, 폭포, 연못, 잔디광장, 목공예체험장,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편안하고 다양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절물자연휴양림 장생의 숲은 삼나무숲의 특색과 정취가 한껏 묻어나는 곳이다. 절물오름의 거의 절반가량 둘레를 타원처럼 감싸고 이어진 자연 그대로의 흙길(11km)에는 양옆으로 시원시원하고 굽직하게 자란 삼나무가 뾰뾰하게 숲을 채우고 있다. 그 좁은 틈새를 비집고 군락을 이룬 세복수초, 박새, 조릿대 등 야생초는 숲을 다양성으로 물들인다. 이 숲을 다니다가면 오래 산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처럼 건강한 기운이 넘치는 숲이다.

장생의 숲에는 곳곳에 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러 갈래길에서 각각 슷모르편백숲길(8km), 너나들이길(3km), 절물오름탐방로(1.6km), 생이소리길(900m) 등과 연결되어 있



NAVI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584(절물자연휴양림 주차장) ★ 584 Myeongnim-ro, Jeju-si, Jeju-do

다. 모든 구간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쾌적하고 수월하지만 꽤 긴 구간도 있으니 왕복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Jangsaeng Forest of Jeomul Natural Recreation

584, Myeongnim-ro, Jeju-si, Jeju-do

Jangsaeng Forest of Jeomul Natural Recreation Forest is a place where the characteristics and atmosphere of a Japanese cedar forest are fully reflected. The trekking section is well-maintained, but some parts are quite long, so the round trip time should be adjusted well. Jeomul Natural Recreation Forest is equipped with a variety of convenient facilities such as walking trails, mineral springs, waterfalls, ponds, lawn plazas, woodcraft experience centers, sports facilities, children's amusement facilities, and accommodation facilities, so you can enjoy a comfortable and diverse forest healing break.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 수목원

홍릉숲

075



주요수종 낙우송·종비나무 등 총 2,035종 면적 41.2ha 조림연도 1960년대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예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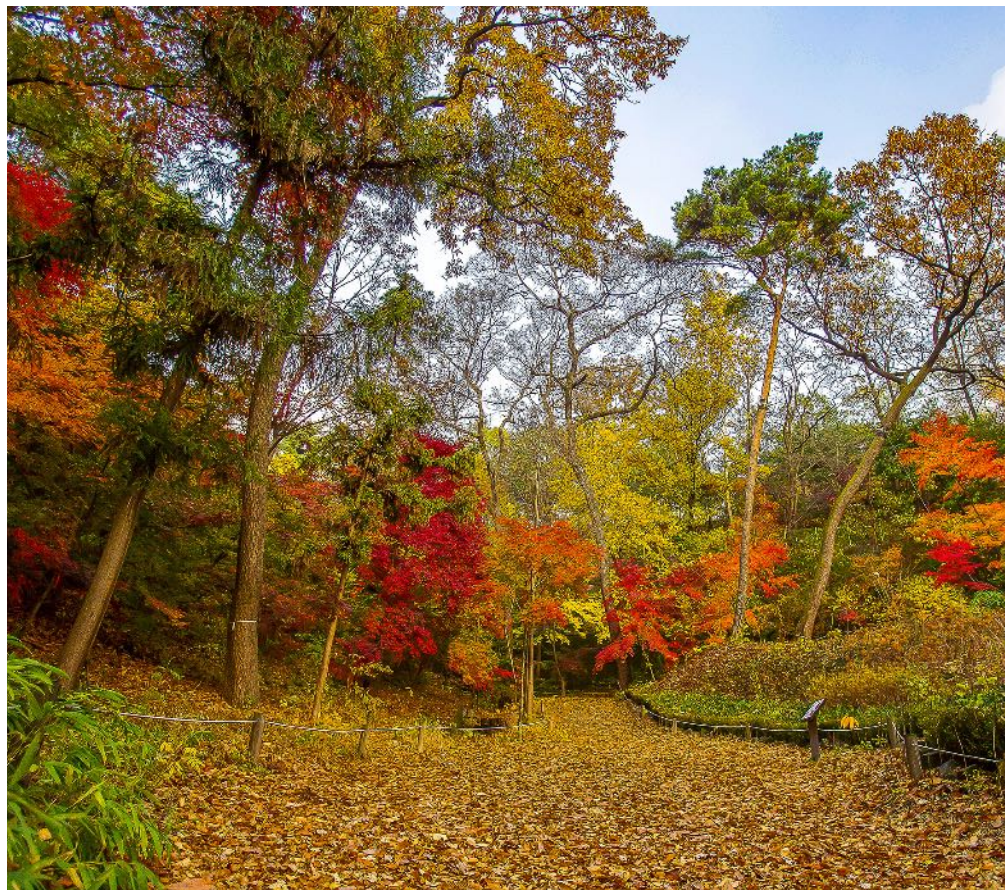
관리기관 국립산림과학원 02)961-277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 외 7필

홍릉숲은 원래 명성황후의 능이 있던 곳으로, ‘홍릉’이라는 이름도 이때부터 유래되었다. 명성황후 능은 고종 승하 이후 남양주로 이장되었고, 1922년 임업시험장(현 국립산림과학원)이 생기면서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수목원이다. 1920년대에 조성된 수목원은 한국전쟁 중에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나무 할아버지로 유명한 고 김이만 선생의 도움으로 1960년대에 다시 조성된 홍릉숲은 우리나라 임업의 발상지이자 학술적 가치가 풍부한 시험연구림으로 100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홍릉숲은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의 부속 전문 수목원으로, 12개 전문수목원, 홍림원, 밀





레니엄동산으로 구분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다. 나무 1,224종(국내 종 836종, 국외 종 388종), 풀 811종을 전시하고 있고, 서울 도심 내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서울특별시 지정 보호·야생 동식물의 서식처 기능도 하고 있다. 제1수목원(침엽수원, 약용식물원, 수생식물원), 제2수목원(침엽수원) 외에 10개의 수목원이 있으며 12개의 수목원을 통해 다양한 숲의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다.

홍릉숲은 제1호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되었고 서울 도심 생태숲의 중심축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1993년 시민들에게 개방된 이후 현재까지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명소가 되었다.



NAVI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국립산림과학원) ★ 57 Hoegi-ro, Dongdaemun-gu, Seoul

홍릉숲에는 각각의 테마가 다른 5개의 걷기 코스가 있으며 평일은 사전 예약을 통해 숲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주말은 자유 관람이 가능하다.

Hongneung Forest

57 Hoegi-ro, Dongdaemun-gu, Seoul

Hongneung Forest in Seoul is the place where the tomb of Empress Myeongseong was located before it was moved to Namyangju. It is Korea's first modern arboretum created for research when the Forestry Research Institute was established in 1922. It has continued the history of the arboretum for 100 years. As an ecological axis in downtown Seoul, it functions as a habitat for wild animals and an urban forest. Since opening to the public in 1993, it has provided various services to citizens such as forest healing, forest welfare, and forest education through forests.



우리 환경에 맞는 소나무 품종을 개발하다

076

대전 계산동 리기테다소나무숲



주요수종 리기테다소나무·낙엽송 등 면적 58ha 조림연도 1961~68년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부여국유림관리소 041)830-5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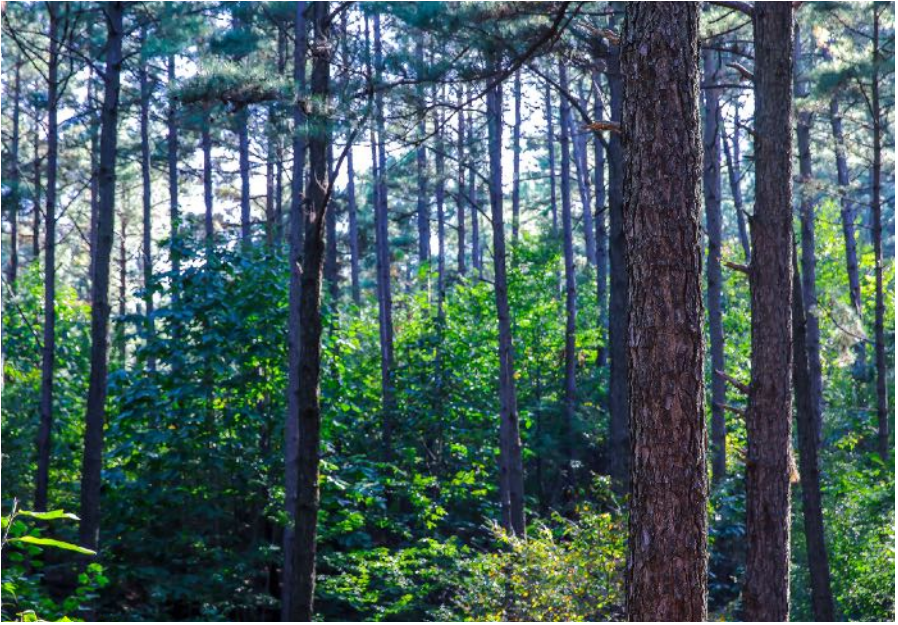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 산1-1

계룡산(845m)은 충청남도 공주시와 논산시, 계룡시 그리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걸쳐 있으며, 산자락 곳곳에 동학사, 갑사, 신원사 등 유명 사찰과 남매탑, 신도안 대궐터 같은 문화유산이 가득하다. 계룡산 일대는 1968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동학사지구, 갑사지구, 신원사·수통골지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계룡산국립공원 동쪽 자락의 대전시에 위치한 수통골은 도덕봉, 금수봉, 빈계산 사이에 형성된 계곡이다. 수통골은 길고 크게 물이 통하는 골짜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이 수통골 입구에 리기테다소나무숲이 자리 잡고 있다.



대전계산동리테다소나무숲



리기테다소나무는 1950년대 한국 최초의 임학박사인 현신규 교수가 리기다소나무와 테다소나무를 인공적으로 교잡해서 만든 품종이다. 리기테다소나무는 척박한 환경에 잘 적응하며 추위에 강한 리기다소나무의 장점과 생장이 빠르고 재질이 좋으며 곧게 자라는 테다소나무의 장점을 모두 가졌고, 높이 30m, 가슴높이 지름 1m까지 자라는 상록 침엽수이다.

수통골 리기테다소나무숲은 1961~68년에 리기테다소나무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 숲으로 조성되었다. 숙아베기 등 지속적인 관리로 나이 60~70년, 가슴높이 지름 22cm, 높이 18m, 임목축적 236m³/ha의 울창한 숲으로 자리 잡았다. 생장 우량종 나무 육성을 위한 연구 가치가 높고, 나무 형태가 우수한 우량 큰 지름나무 조림지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숲이다.

리기테다소나무숲은 현재 계룡산국립공원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2021년에 숲의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여행하기에 좋은 국유림 명품숲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리기테다소나무숲은 향후 지속적인 산림보호를 통해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보전



NAVI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 352-7 ★ 352-7, Gyesan-dong, Yuseong-gu, Daejeon

할 계획이다. 나아가 산림 연구를 위해 개설된 작업로 등을 숲길로 활용하여 산림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여행 명소로 개발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Yuseong Rigitaeda Pine Forest

62-54 Haksan-ro, Yuseong-gu, Daej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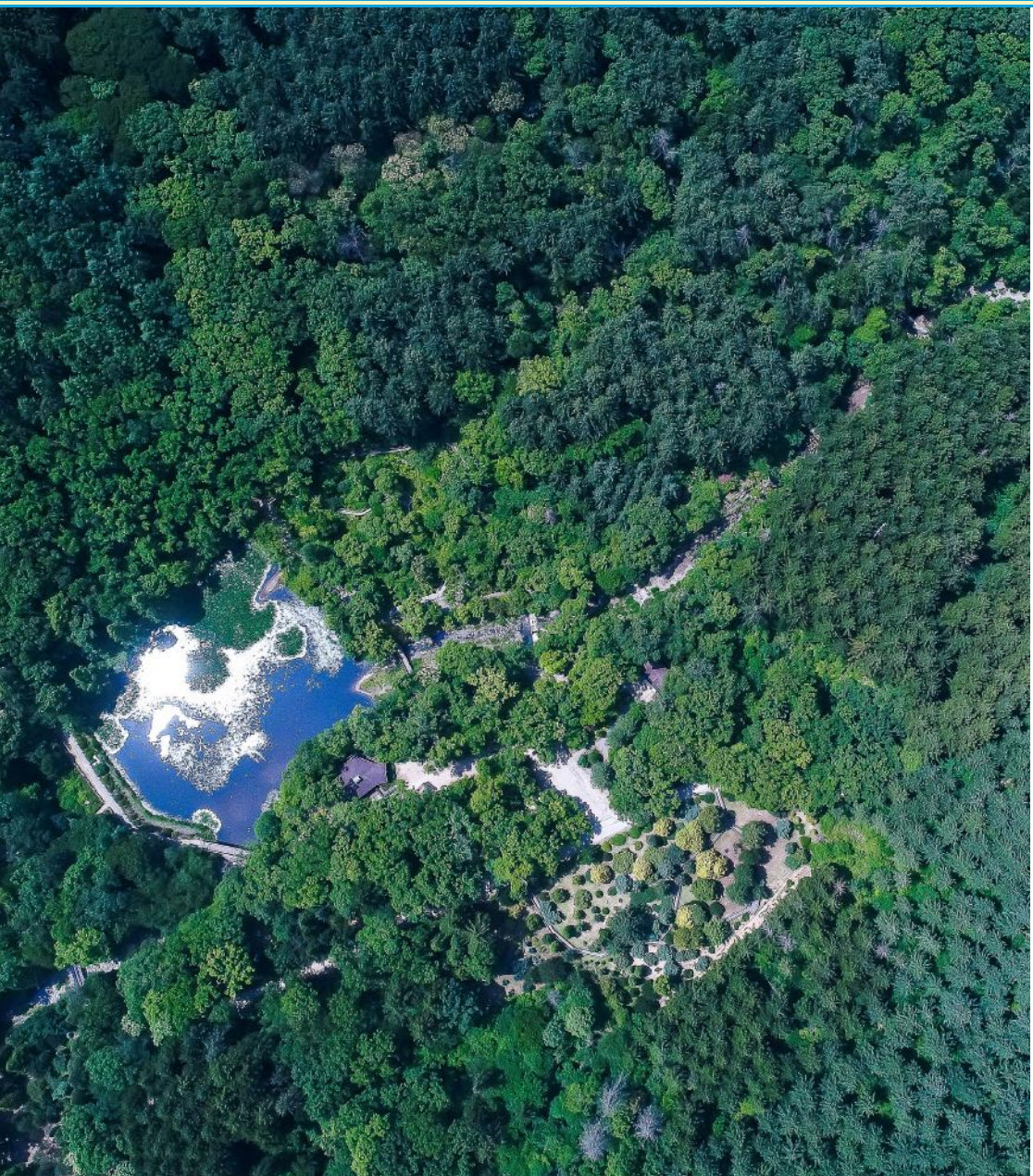
Yuseong Rigitaeda Pine Forest is located at the eastern foot of Gyeryongsan National Park in Daejeon. The Pitch Pine Forest in this area was created as a test research forest for cultivation between 1961 and 1968. Through continuous management, including thinning, it has become a dense forest with an age of about 60 to 70 years. Nearby are Donghaksa Temple, a thousand-year-old temple, and Daejeon National Forest Center.



생물다양성의 보물창고

광릉숲

077



주요수종 전나무·서어나무·갈참나무 등 3,344종 면적 1,123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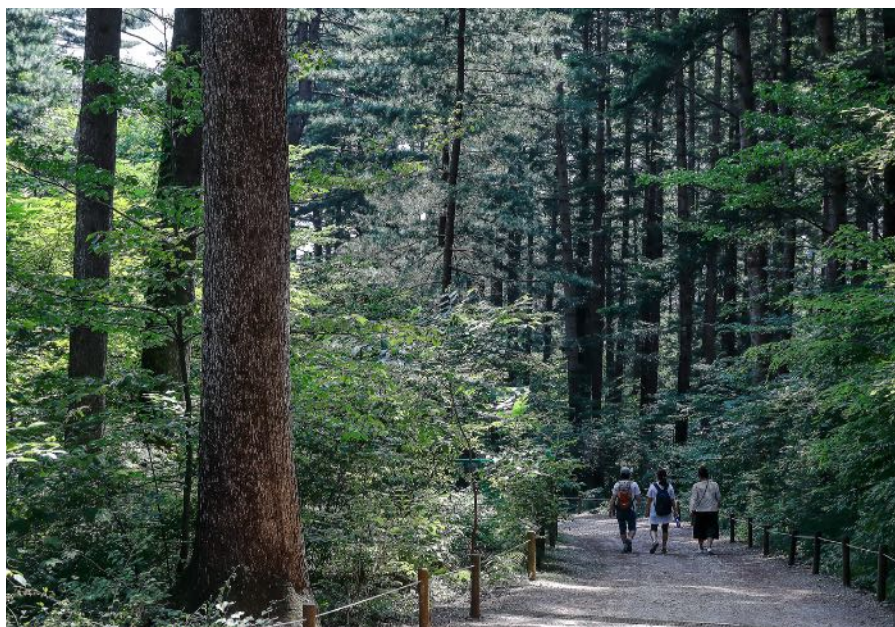
조림연도 국유림(산림청) 소유 국유림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예약제)

관리기관 국립수목원 031)540-200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산50

광릉숲은 1468년 세조의 능림으로 지정된 후 560여 년간 보전되어 왔다. 경기도 포천, 남양주, 의정부 3개 시에 걸쳐져 있으며,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및 문화재청의 국유림과 봉선사의 사유림을 합친 2,420ha 면적을 자랑한다. 광릉숲은 서쪽 수리봉과 동쪽 죽엽산 사이에 봉선사천이 흐르는 작은 분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온대 중부 식생 지역에 속하면서 온대 북부 지역과 인접하여 다양한 생물종(식물 946종, 곤충 3,932종, 조류 187종, 포유류 29종, 기타 1,202종)이 분포하는 국내 최고 생물다양성의 보물창고이다. 이에 따라 산림과학계와 생물학계에서 중요 지역으로 관리되고 임업 연구·실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구역 중 하나로 생태 기능과 생물다





양성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다.

광릉숲은 천연림(56%)과 1910년대부터 임업 연구를 위해 조성된 인공림(42%)이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림 중에는 졸참나무와 소나무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서어나무는 입지가 좁다. 인공림은 잣나무·리기다소나무·전나무 등이 조림되었으며, 특히 육림호 인근의 전나무는 1923년 조성되어 100년이 넘는 나이를 자랑한다. 호수에 비치는 전나무를 감상하며 걷는 숲길은 정취가 일품이다. 이 밖에도 광릉숲 곳곳에는 임업 연구를 위해 심어 놓은 다양한 외래종 나무를 관찰할 수 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1987년에 광릉숲 일원에 국립수목원을 조성했다. 국립수목원은 102ha 면적에 24개 전문전시원, 산림박물관, 산림생물표본관 등이 있고, 테마별 7개의 탐방코스가 마련되었으며, 해설프로그램과 함께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광릉숲의 자연환경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봉선사 입구에서 국립수목원까지 3km의 광릉숲길(테크로드)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NAVI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509 ★ 509 Gwangneungsumogwon-ro, Soheul-eup, Pocheon-si, Gyeonggi-do

광릉숲에는 세계문화유산인 광릉(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능)과 고려시대에 창건된 봉선사가 있어 역사·문화 활동을 연계할 수 있다.

Gwangneung Forest

509 Gwangneungsumogwon-ro, Soheul-eup, Pocheon-si, Gyeonggi-do

Gwangneung Forest is Korea's best biodiversity treasure that has been preserved for 560 years since it was designated as King Sejo's tomb in 1468. It is the only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deciduous broad-leaved forests with mature temperate vegetation climate are distributed. Natural forests that have been preserved for a long time, artificial forests that are over 100 years old, and biodiversity with 6,251 species was recognized for their value and registered as a UNESCO Biosphere Reserve and used as a space for forest research. Gwangneung Forest Trail is well-maintained for walking.



자연유산과 역사유산의 절묘한 조화

078

광주 남한산성 소나무숲



주요수종 소나무 면적 60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도유림(경기도)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031)8008-5155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29

경기도 광주는 북쪽의 개성, 남쪽의 수원, 서쪽의 강화와 함께 조선시대 왕궁(한양)을 지키던 4대 방어 지역 중 하나였다. 사실 남한산 일대는 그 이전부터 한반도의 요충지로, 백제의 시조 온조의 왕성 또는 통일신라시대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 터였다는 기록이 전해 내려온다. 조선 광해군은 남한산과 청량산을 양측으로 주변의 봉우리를 연결해서 남한산성을 쌓고, 그 가운데의 고지대 분지 지형에 행궁과 좌전, 수어청과 관아, 일반 가옥과 우물 등을 건축해서 조선의 임시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 인조 4년(1626년)에 완성된 남한산성은 둘레가 12.4km에 이르며, 산성 아래로는 가파른 지형으로 이루어져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규모와 위용을 갖추었다. 병자호란 이후에도 남한산성은 한양 방어를 위해 역대 왕들에 의해 중시되었으며, 현재 남한산성은



광주 남한산성 소나무숲



성곽 외에도 수어장대, 연무관, 침괘정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그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남한산성은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남한산성의 소나무는 조선시대부터 보호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전쟁 물자와 땔감으로 쓰기 위해 무분별한 벌목이 이루어져 크게 훼손되었다. 소나무숲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1927년 산성리 마을 주민 303인은 자발적으로 ‘남한산 금림조합’을 결성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숲을 보호했다.

또한 2013년부터 지역주민과 나무 심기, 우량 소나무 묘목 식재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산림훼손 감시 등 끊임없이 숲을 보호하고 가꾸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날 남한산성 소나무숲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등산 산책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 남한산성의 남문—수어장대—서문—북문—동장대에 이르는 60ha 규모의 성곽 주변에는 아름드리 소나무 1만4천여 그루가 마치 역사의 현장을 지키는 산증인처럼 듄직하고 우람하게 자라고 있다.



NAVI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731 Namhansanseong-ro, Namhansanseong-myeon, Gwangju-si, Gyeonggi-do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생태학교, 문화체험, 연희한마당 등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가을에는 산성문화제가 열린다.

Korean Red Pine Forest of Namhansanseong

731 Namhansanseong-ro, Namhansanseong-myeon, Gwangju-si, Gyeonggi-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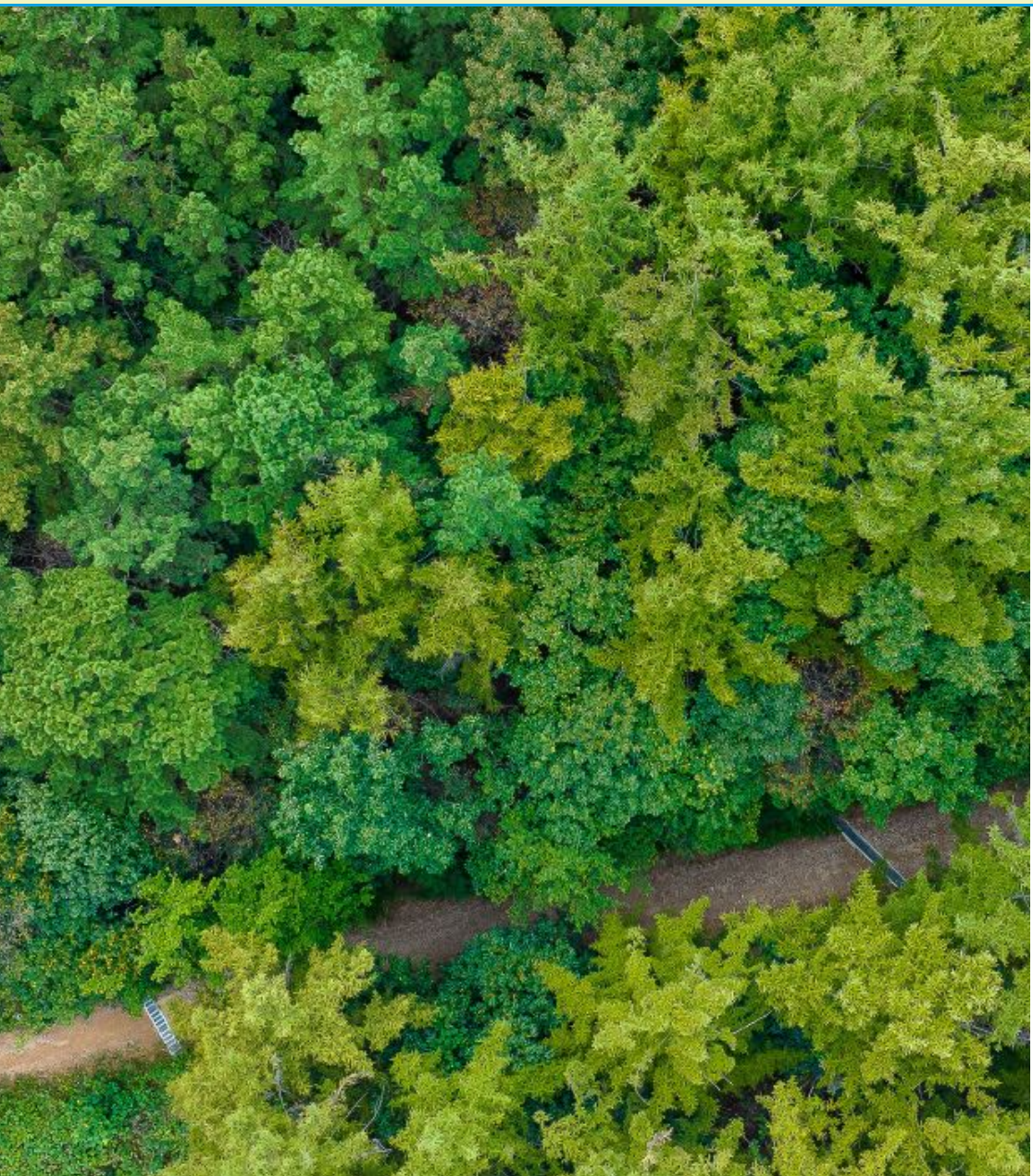
The Korean red pine forest area of Namhansanseong Fortress is register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Namhansanseong Fortress is a historic site where Korea fought an important war hundreds of years ago due to the invasion of the Qing dynasty. The Korean red pine trees in this area are characterized by their very strong appearance. This is a place where you can experience both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You cannot camp here, but you can freely trek. You can be introduced to various experiential activities at the information center here.



마을을 지켜준 오래된 숲

079

군포 덕고개 당숲



주요수종 굴참나무·갈참나무·서어나무 등 면적 6.5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도유림(경기도)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수리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 031)8008-8265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산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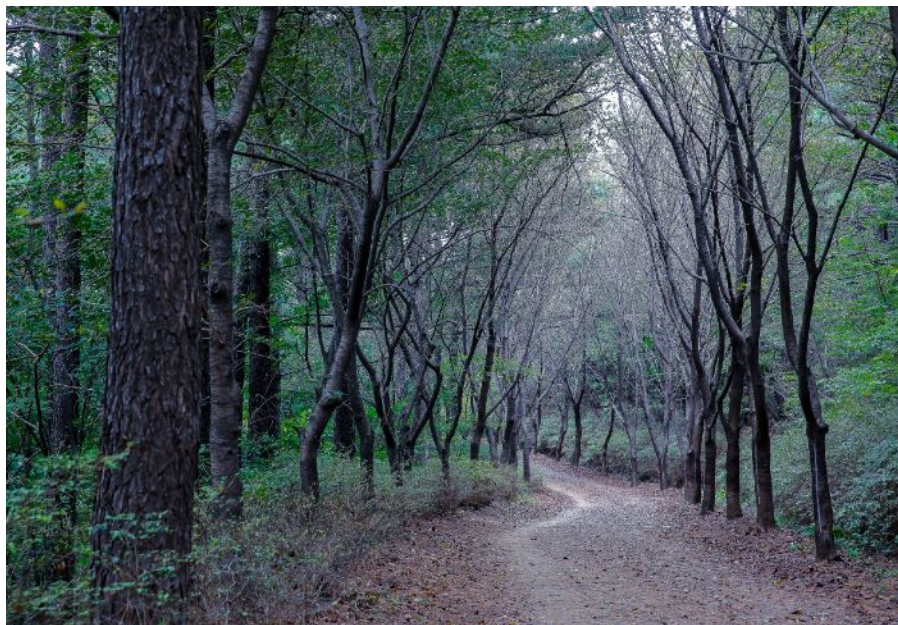
덕고개 당숲은 수리산 남쪽 기슭의 갈지호수에서 남덕골로 이어지는 덕고개마을의 조그마한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을에서 가까운 숲에 마을의 수호신을 섬기는 성황당(당집)이 있었고, 이 성황당을 둘러싼 숲을 ‘성황림’ ‘당산숲’ ‘당숲’이라고 불렀다.

당숲은 당집과 함께 근대화 이후 거의 사라졌으며, 도시 인근에서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터라 이곳 덕고개 당숲은 민속학적·생태적 가치가 매우 크다.

덕고개 당숲은 마을의 안녕을 빌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조선 왕실과도 관계된 숲이었다. 17세기 말 효종의 넷째 공주인 숙정과 부마인 동평위 정재륜의 묘가 이곳에 있다. 덕고개 당숲은 동래 정씨 문중이 소유하며 관리하다가 1930년대에 일본인에게 매각되어 훼손



군포 덕고개 당숲



손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조선 왕실의 묘역이자 마을 신앙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면서 가까스로 당숲을 지킬 수 있었다.

덕고개 당숲 입구에는 두 아름이 넘는 거대한 굴참나무 두 그루가 수문장처럼 버티고 서 있다. 당숲에는 나이 100~300년가량 되는 굴참나무·갈참나무·서어나무·너도밤나무가 저마다 세월의 더께를 겹겹이 두르고 있다. 나무들은 모두 줄기가 파이고 뒤틀리고 기울었지만 오랜 세월 그래왔듯이 무성한 잎으로 당숲을 뒤덮고 있다.

가을이면 당숲 나무들은 저마다 사연을 노래하듯 노란색, 갈색, 분홍색 잎으로 물든다. 당고개 당숲의 가을 풍경은 2004년 군포 4경으로 지정될 만큼 절경이다. 2002년에는 생명의 숲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숲에도 선정되었다.

당고개 당숲이 단풍으로 물드는 10월 초하루에 당고개마을은 군웅제를 연다. 당숲 안쪽의 서어나무 다섯 그루가 늠름하게 둘러싼 곳에 옹기 단지를 짚으로 엮어 감싸서 모셔둔 ‘터줏가리당’이 놓여 있고, 그 주변에 신성한 장소를 나타내는 금줄이 둘러쳐져 있다. 이곳 당집에서 터줏가리당에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마을을



NAVI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243 ★ 243, Sokdal-dong, Gunpo-si, Gyeonggi-do

지켜준 오랜 숲과 그 숲을 우러르는 마을 사람들이 공존하는 현장이다. 덕고개 당숲의 늙은나무가 늘어선 구역은 50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깊고 짙고 영험하다.

Deokgogae Dang Forest

228, Sokdal-ro, Gunpo-si, Gyeonggi-do

Deokgogae Dang Forest in Gunpo was a place where people prayed for the village's well-being, but it was also a forest owned and managed by the Joseon royal family. At the entrance to Deokgogae Dang Forest, two giant oriental cork oak trees more than two armfuls stand like gatekeepers. In Dang Forest, there are oriental cork oak trees, oriental white oak trees, hornbeam trees, and beech trees that are about 100 to 300 years old, each covered in layers of time. The trees all have hollow, twisted, and tilted trunks, but they cover the forest with lush leaves as they have for a long time.



백두대간 최북단, 인간의 발길이 끊긴 곳

080

고성 금강산 향로봉숲



주요수종 물푸레나무·신갈나무 등 면적 1,272ha 조림연도 천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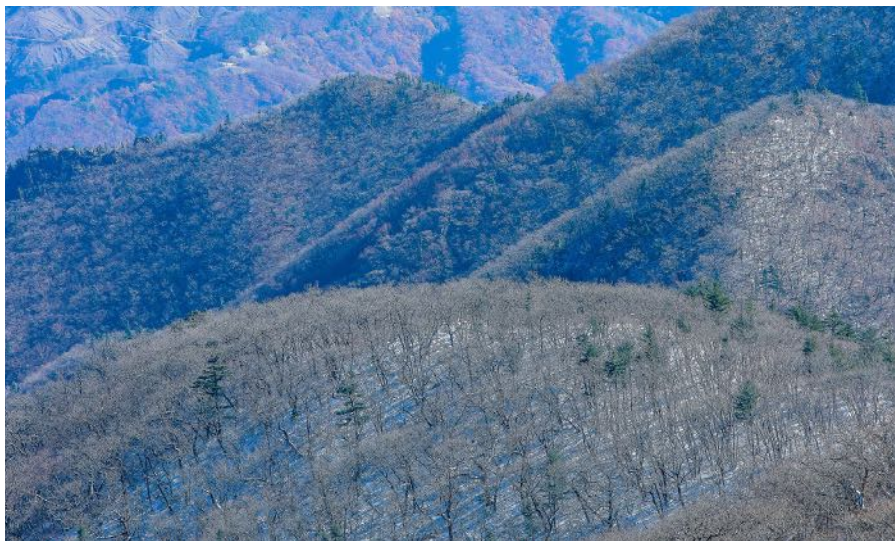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허가제)

관리기관 양양국유림관리소 033)670-304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을 장신리 산1-1

강원도 고성군과 인제군의 경계에 있는 향로봉(1,296m)은 금강산 1만 2천봉 중 하나로 고도가 높아 구름이 덮인 날이면 향로에 불을 피워놓은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여 향로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 국전쟁 때 휴전을 앞두고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155마 일 휴전선 동쪽 끝자락에 우뚝 솟아오른 큰 봉우리가 향로봉이다. 이 때문에 향로봉은 대부분 민간인 출입 통제 구간으로 묶여 있다.

향로봉 숲은 한반도 중부 산악 지역의 대표적인 천연림으로, 1973년에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2006년부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정상부에는 주로 주목·신갈나무·갈참나무·사스래나무·함박꽃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가 숲을 이루고, 멸종위기종인 날개하늘나리·금강제비꽃 등 130여 종





의 고산 초본식물이 자생한다. 또 향로봉 서쪽 계곡인 제죽골의 700~800m 고도 일대에는 사스래나무와 함박꽃나무가, 500~600m 고도 일대에는 까치박달과 서어나무가 아름드리 숲을 이루고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는 나이 70년, 가슴높이 지름 24cm, 높이 10m의 소나무, 가슴높이 지름 26cm, 높이 9~10m의 물푸레나무·신갈나무·박달나무 등이 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한 천연림을 이루고 있고, 가슴높이 지름 50cm가 넘는 늙은 신갈나무가 우람하고 도도하게 군락을 이룬 숲은 천연림이 지닌 생명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도로변에는 왜솔다리(에델바이스)가 무리로 자라는 곳도 있다.

산림청은 2015년 향로봉 인근에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1만4천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희귀·특산식물 종 보존을 위하여 난쟁이붓꽃 등 14가지 지역 자생종의 씨앗을 키워서 조림하고, 국민 생태탐방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림 생물다양성 유지·증진 사업과 산림 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NAVI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령로 663(진부령미술관) ★ 663 Jinburyeong-ro, Ganseong-eup, Goseong-gun, Gangwon-do

향로봉은 군사시설 지역이자 산림보호구역으로 입산이 금지되지만, 백두대간 둘레길 탐방 시기에 예약을 통해 향로봉 입산이 가능하다.

Geomgangsan Hyangnobong Forest

15-10 Heulli-gil, Ganseong-eup, Goseong-gun, Gangwon-do

Goseong Hyangnobong Forest is a forest genetic resource protection area and the forest age is 70 years old. It forms a primeval forest so dense that it blocks the sky, and in particular, the forest with its tall and proud collections of old Mongolian oaks clearly shows the vitality of the primeval forest. There are also places where Edelweiss grows in groups along the roadside. Currently, it is a military protection zone, so entry is generally not allowed except in special cases.



신선과 인간이 함께 노니는

081

동해 두타산 무릉계곡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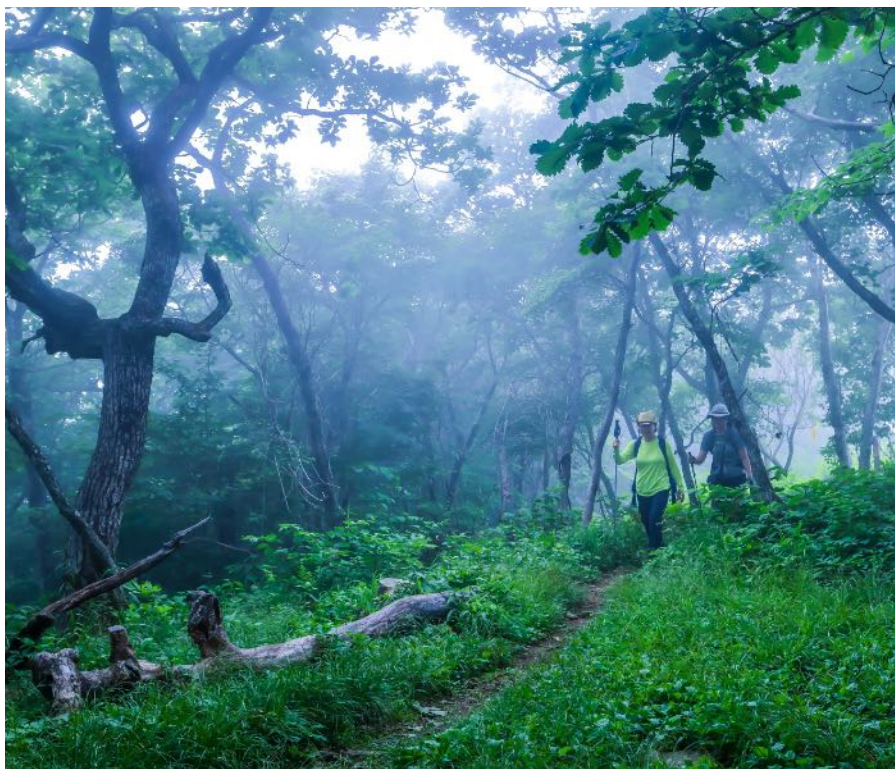
주요수종 소나무·신갈나무·굴참나무·박달나무 등 면적 2,427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삼척국유림관리소 033)570-5243, 동해시 무릉계곡 관리사무실 033)539-3700~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화동 산267

두타산(1,353m)은 예로부터 강원도 영동 남부의 어머니산으로 받들어져 왔으며,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저술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신갈나무와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이 밖에도 사시나무·거제수나무·사스래나무가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해발 1,200m부터 정상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주목과 분비나무 그리고 잣나무가 일부 자생한다. 두타산은 과거에 금강소나무의 집단 자생지였으나 일제 강점기에 수탈되어 황폐해



동해 두타산 무릉계곡숲



졌다가 자연 복원 중이다.

두타산 무릉계곡은 두타산과 청옥산, 고적대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드는 골짜기이다. 호암소부터 용추폭포까지 약 4km에 이르는 구간에는 수백 명이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무릉반석을 비롯하여 삼화사, 학소대, 옥류동, 선녀탕, 쌍폭포, 용추폭포 등 빼어난 경관이 즐비하다. 눈길을 두는 곳마다 한 폭의 산수화 같은 아름답고 신비한 경치를 자아내는 탓에 소금강으로 불리기도 한다. 1977년 국민관광지, 2008년 명승 제37호, 2010년 산림유전자원보호림(2,029ha)로 지정되었다.

두타산 무릉계곡 숲은 소나무·신갈나무·굴참나무·박달나무·느릅나무·피나무 등이 자생한다. 가슴높이 지름 22cm, 높이 13m의 소나무, 가슴높이 지름 16~18cm, 높이 10~12m의 굴참나무와 신갈나무가 가장 넓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그 사이로 왕느릅나무·꽃개회나무·금강애기나리 같은 나무와 풀도 씩씩하게 얼굴을 내밀고 있다. 두타산 무릉계곡 숲에서는 수려한 경관과 더불어 자연림이 선사하는 생물다양성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NAVI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화동 858-3 ★ 858-3, Samhwa-dong Donghae-si, Gangwon-do

새잎 돋는 봄, 짙푸른 생명 넘실대는 여름, 화려한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 눈 쌓인 겨울, 계절마다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준다.

Mureung Valley Forest

538 Samhwa-ro, Donghae-si, Gangwon-do

Mureung Valley, as its name suggests, means a valley where Taoist hermits live. It is a place where deep valleys, various waterfalls, wide yard-like rocks, strangely shaped rocks, and magnificent trees harmonize. In spring, all kinds of flowers show off, and in fall, the trees are colored with autumn leaves. It is really beautiful no matter what time of year you visit. It is also a very historic place where high monks have been practicing asceticism since the Silla Dynasty.



조선 왕실의 역사를 품은 숲

082

삼척 영경묘, 준경묘 소나무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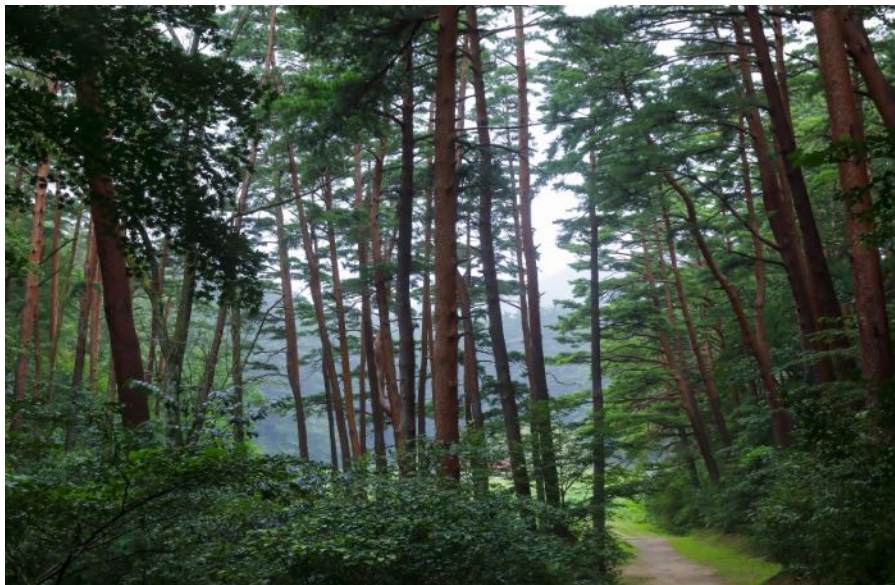


주요수종 소나무 면적 6.5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국유림(문화재청)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삼척시청 033)570-3422

(영경묘)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하사전리 산53 외
(준경묘)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149

명산으로 이름 높은 두타산(1,353m) 자락에 자리 잡은 준경묘는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인 양무 장군의 묘이다. 준경묘에서 약 4km 떨어진 영경묘는 양무 장군의 부인 평창 이씨의 묘이다. 준경묘와 영경묘는 남한 지역에서 유일한 조선 왕실 선대의 능묘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고종 3년(1899년)에 왕명으로 묘소를 정비하고, 제각·재실·비각 등을 세웠다. 더불어 영경묘와 준경묘 주변에서 화전을 금지함으로써 숲을 보호했다. 영경묘·준경묘 소나무숲은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43호로 관리되다가,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524호로 지정되었다.

준경묘역을 둘러싼 울창한 금강소나무숲에는 수령 100~120년인 14만 그루의 소나무가



삼척영경묘, 준경묘 소나무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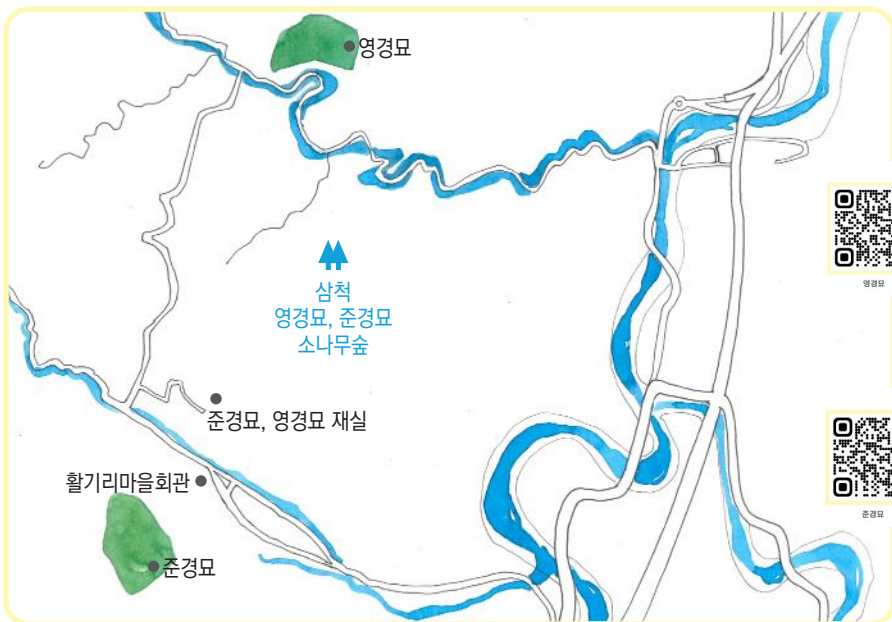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가슴높이 지름 60cm 이상인 소나무가 3,000그루 이상 이고, 높이 30m에 달하는 소나무도 있다. 준경묘 입구의 미인송은 속리산 정2품송(천연 기념물 제103호)과 혼례를 올린 소나무로, 간택 당시 95세, 키 32m, 가슴 높이 둘레 214 cm로 거북 등껍질 모양의 수피가 일품이다.

준경묘 소나무숲의 금강소나무는 중요 문화재 복원용 목재가 필요할 때 우선순위로 사용된다. 지난 2008년 2월 소실된 국보 1호 승례문을 복원하기 위해 준경묘역의 소나무 20그루가 쓰이기도 했다.

영경묘역은 준경묘역에 비해 산세가 조금 가파르다. 그에 따라 정자각도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지고, 소나무 숲 면적도 비교적 좁다. 비탈에 자리 잡은 일부 소나무는 계곡 쪽으로 기울며 자라고 있는데, 그 조화로움이 일품이다. 활기리 성황당에서 영경묘역으로 가는 길에 세워진 준경묘와 영경묘 재실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다.

삼척시는 조선왕조 건국설화를 모티브로 가을철에 미로리 일대에서 왕의 코스모스축제를 개최한다. 활기리와 준경묘를 거쳐, 황장목숲길—대간능선—황장산 댕재—햇대 등



NAVI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270(영경묘) ★ 270 Yeonggyeong-ro, Miro-myeon, Samcheok-si, Gangwon-do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준경길 333-360(준경묘) ★ 333-360 Jungyeong-gil, Miro-myeon, Samcheok-si, Gangwon-do

—땃재 옛길—424지방도로—상사전리로 이어지는 코스(16km)는 산행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Korean red pine Forest of Yeonggyeongmyo·Jungyeongmyo

(Yeonggyeongmyo) 270 Yeonggyeong-ro, Miro-myeon, Samcheok-si, Gangwon-do
 (Jungyeongmyo) 333-360, Jungyeong-gil, Miro-myeon, Samcheok-si, Gangwon-do

The Korean red pine forest of Yeonggyeongmyo and Jungyeongmyo in Samcheok has the tombs of the ancestors of the king who founded Joseon. In the past, the tombs of royal families were considered sacred, so the public was not allowed to access them, so the forest has been well-preserved for about 600 years. The dense Geomgang Korean red pine trees in this area are currently used to restore palaces and important cultural assets.



천년사찰과 함께 농익은 숲

083

영월 법흥사 소나무숲



주요수종 소나무 면적 335ha 조림연도 천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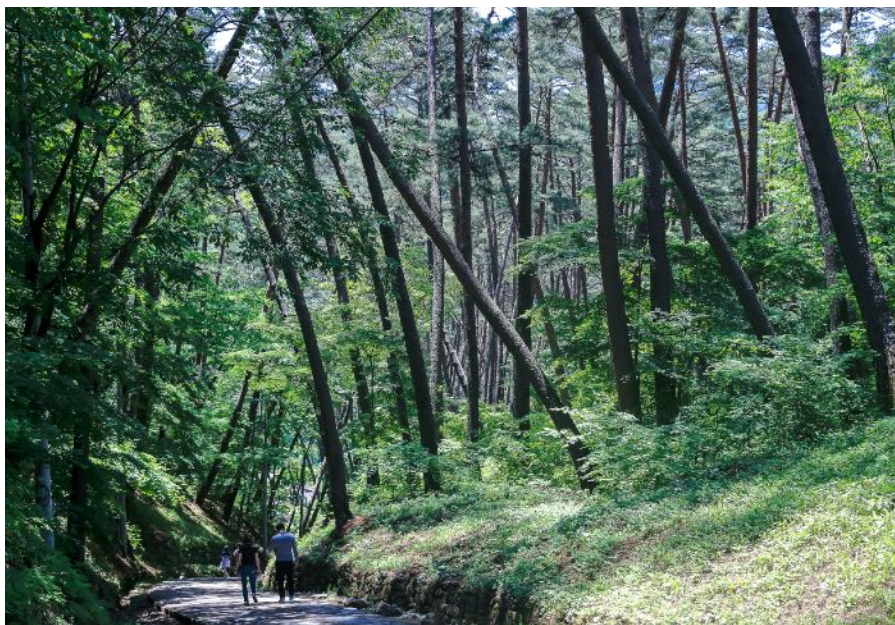
소유 사유림(사찰림)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영월군청 033)370-281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리 산5-3~4 (법흥사 필지)

신라 때 창건된 영월 법흥사는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적멸보궁이다. 법흥사의 무성한 소나무숲에는 조선시대에 세운 황장산금표가 있다. 왕실에서 속이 단단한 좋은 소나무 목재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한 것이다. 그 정도로 이 지역의 소나무는 명품의 족보가 있다.

법흥사 소나무숲은 주차장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자태를 드러낸다. 금강문, 적멸보궁 가는 길, 경내와 주변 곳곳에 우람한 거인이 붉은 가슴을 과시하듯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소나무는 평균 나이 100년 이상, 높이 20~25m 정도이다.



영월 법흥사 소나무숲



영월 법흥사 극락전 언덕에는 나이 200년쯤 되는 밤나무가 굵은 몸으로 버티고 서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밤나무 노거수 중 하나이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이겨낸 관록인지 고령임에도 꽃은 피지만 요즘은 밤알이 부실하다고 한다. 오랜 기간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조만간 세월의 뒤편길에서 굵은 몸을 누이겠지만, 존재감은 여전하다.

천년고찰 법흥사에는 신라 자장율사 수행 토굴, 징효국사 부도가 있으며, 법흥계곡에는 가장 맑은 물에 산다는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다. 청정한 소나무숲을 걸으며 현인의 지혜를 배우고 근심을 씻어내보기를 권한다.



NAVI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법흥로 1352(법흥사) ★ 1352 Mureungbeopheung-ro, Mureungdowon-myeon, Yeongwol-gun, Gangwon-do

Korean Red Pine Forest of Beopheungsa

1352, Mureungbeopheung-ro, Mureungdowon-myeon, Yeongwol-gun, Gangwon-do

The Korean red pine forest of Beopheungsa Temple in Mureungdowon-myeon, Yeongwol, has a thousand-year history. This temple contains the remains of a small cave where a monk practiced a thousand years ago. Furthermore, it is said that this Korean red pine forest was also formed at the same time. There is a monument about 200 years ago in which the Joseon Dynasty ordered the public not to cut down Korean red pine trees because Korean red pine trees in this area were excellent. So the forests in this area have been well preserved until today. At the entrance to the temple, on the way to the temple, and throughout the interior and surroundings of the temple, there are tall Korean red pine trees that are over 100 years old, as if piercing the sky.



천상의 화원에 펼쳐진 야생화의 향연

084

인제 곰배령 생태숲



주요수종 참나무류·주목·한계령풀 등 면적 2,369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예약제)

관리기관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4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71 외 1필

점봉산 정상에서 능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마주치는 곰배령(1,164m)은 인제군 귀둔리 곰배골마을에서 진동리 설피발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기도 하다.

곰배령은 곰이 배를 하늘로 향하고 누운 모습, 또는 무래(밭의 흙을 고르게 펴는 농기구)의 강원도 사투리인 ‘곰배’와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 그대로 곰배령에는 드넓은 고지대 평원이 펼쳐지고, 키 작은 나무와 들풀이 섬 없이 붙어 오는 드센 바람에 곰털처럼 훑날린다. 곰배령은 특히 다양한 야생화가 피어나는 천상의 화원으로 이름 높다. 점봉산은 한반도 자생식물의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이 맞닿는



인제 곰배령 생태숲



지역이며, 편마암 흙에 양분이 많고, 강수량이 풍부하고, 오랫동안 문명에서 비켜나 있던 원시림이기 때문이다.

봄에는 얼레지·한계령풀·홀아비바람꽃·노란제비꽃·금괭이눈·미나리아재비, 여름에는 동자꽃·노루오줌·물봉선, 가을에는 쑥부랑이·용암·투구·단풍 등이 자태를 뽐내고, 곰취·참나물·산당귀 같은 산나물과 모데미풀·구실바위취 같은 희귀식물이 흐드러진다.

곰배령으로 오르는 점봉산 기슭에서 만나는 숲도 우리나라 자연환경이 빚어놓은 식물 다양성의 보물창고이다. 신갈나무를 비롯한 낙엽활엽수와 전나무·주목·분비나무·소나무와 같은 상록침엽수 등 식물 850여 종과 조류·포유류 70여 종이 땅과 하늘을 빈틈없이 채우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신선이 내려와 놀고 간다는 강선계곡을 따라 펼쳐진 비경도 더없이 황홀하다.

점봉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곰배령 일대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점봉산 대부분 지역은 입산이 통제되지만 자연과



NAVI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곰배령길 15(점봉산산림생태관리센터) ★ 15 Gombaeryeong-gil, Girin-myeon, Inje-gun, Gangwon-do

인간의 조화로운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곰배령 구간을 부분 개방하고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강선계곡부터 곰배령까지 조성된 생태탐방구간(5km)을 탐방할 수 있다.

Gombaeryeong Forest

15 Gombaeryeong-gil, Girin-myeon, Inje-gun, Gangwon-do

Gombaeryeong Forest on Jeombongsan Mountain in Inje has been designated as a UNESCO Biosphere Reserve. It can be said to be a treasure trove of plant diversity in Korea. It is a paradise for plants such as Quercus trees, needle fir, and wild flowers. The clean valley water is lifeline of the plants. Needle fir and wildflowers. Clear valley water is the lifeline of the plants. This area is a forest genetic resource protection zone, so you must obtain permission in advance when entering.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양지바른 숲

085

춘천 방하리 굴참나무숲



주요수종 굴참나무·신갈나무 등 면적 116ha 조림연도 천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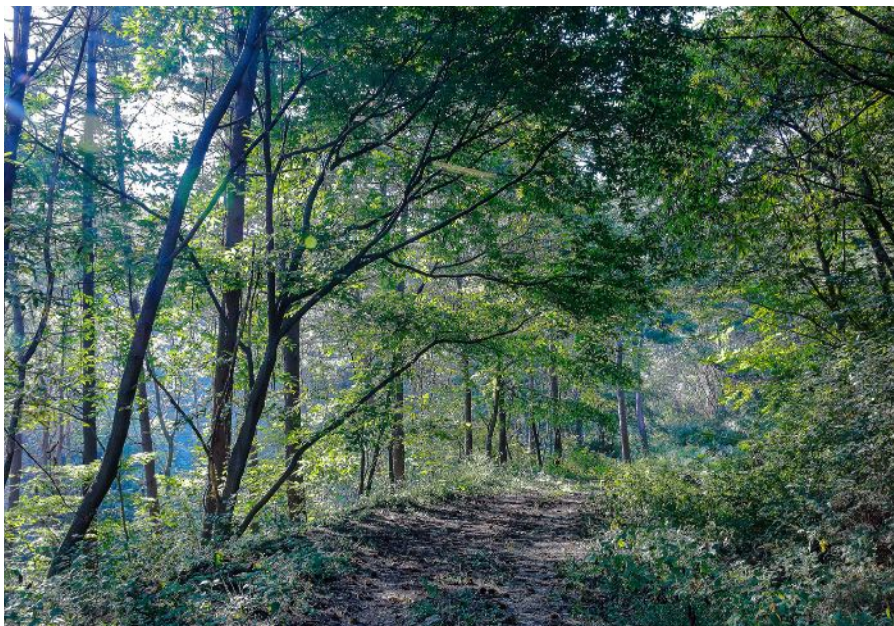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5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산 95-1

춘천 남산면 방하리는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 가평과 마주하고 있다. 넓고 평평한 들녘 한가운데 북한강이 흐르고, 그 한가운데에 자라섬과 남이섬이 모습을 드러내는 풍경은 물안개 피어오르는 아침에도 붉게 노을 지는 저녁에도 늘 정겹고 아름답다. 과거에 방하리는 남이섬과 잇닿아 있었다. 평상시에는 걸어서 오갈 만큼 물이 얕았지만, 1943년에 청평댐이 생기면서 남이섬은 완전히 섬이 되었다.

방하리 들녘을 지나 고만고만하게 솟아 있는 여러 봉우리 가운데 하나인 새덕산(462m) 기슭에는 116ha 면적의 천연 굴참나무숲이 넓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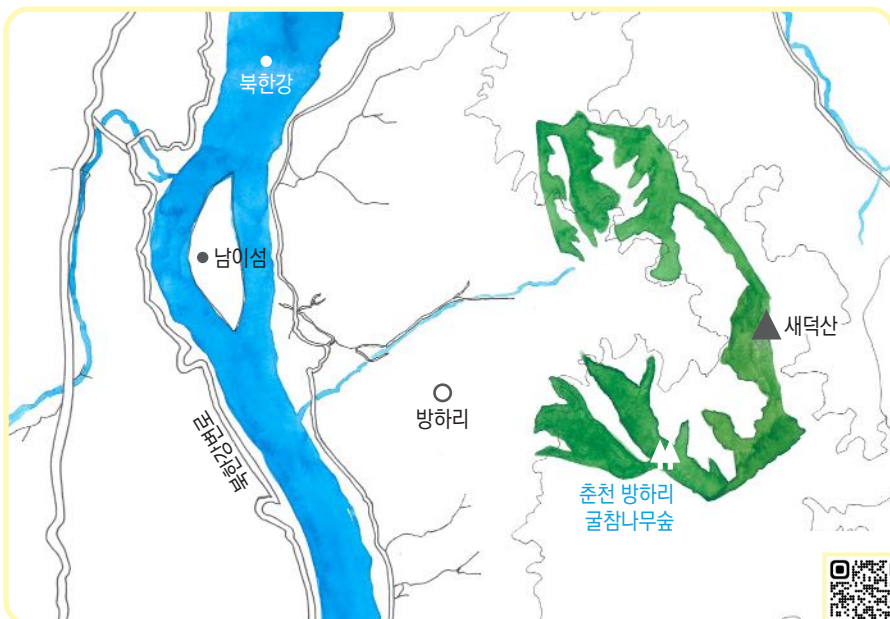
춘천 방하리 굴참나무숲



굴참나무는 참나무과 활엽수로 양지바른 산기슭이나 중턱에서 주로 뿌리 내리며 자란다. 굴참나무는 나이를 먹을수록 껍질이 두터워지면서 마치 마른 땅이 갈라지듯 골이 파인다. 두텁고 폭신한 껍질은 코르크 재료로 쓰인다. 굴참나무는 상수리나무와 여러모로 닮아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굴참나무와 상수리나무 잎은 둘 다 타원형이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뾰족하다. 다만 굴참나무 잎 뒷면에 가늘고 부드러운 흰 털이 뽁뽁하게 나 있다. 그리고 굴참나무와 상수리나무 열매는 각두(열매를 감싸는 받침)에 감싸여 있는데, 상수리나무 열매가 1/2쯤, 굴참나무 열매가 2/3쯤 감싸여 있다.

방하리 굴참나무숲은 가슴높이 지름 20cm(최대 42cm), 높이 14m(최대 20m), 나이 50년, 임목재적 149m³/ha 상태를 보인다. 또한 신갈나무·강원소나무 등이 함께 자라고 있으며 생장이 우수한 천연림으로 가치가 높다.

산림청은 굴참나무숲에서 산림생태계 보전에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구역을



NAVI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큰골길 137 ★ 137 Keungol-gil, Namsan-myeon, Chuncheon-si, Gangwon-do

2014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천연림 보육을 위한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시행하고 있다. 굴참나무숲에는 임도(8km)가 마련되어 비교적 수월하게 숲탐방을 체험할 수 있다. 새덕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멀리 내려다보이는 북한강변 풍경은 덤이다.

Oriental Cork Oak forest in Banghari

san95-1, Bangha-ri, Namsan-myeon, Chuncheon-si, Gangwon-do

The Oriental Cork Oak forest in Banghari, Chuncheon, is a forest so meaningful that the government designated it as a forest genetic resource protection area. Forest trails are provided so you can experience forest trekking relatively easily. If you climb the mountain, you can see the beautiful Bukhangang River around you.



설원이 아름다운 주목 군락지

086

평창 발왕산 생태숲



주요수종 신갈나무·주목·분비나무 등 면적 1,018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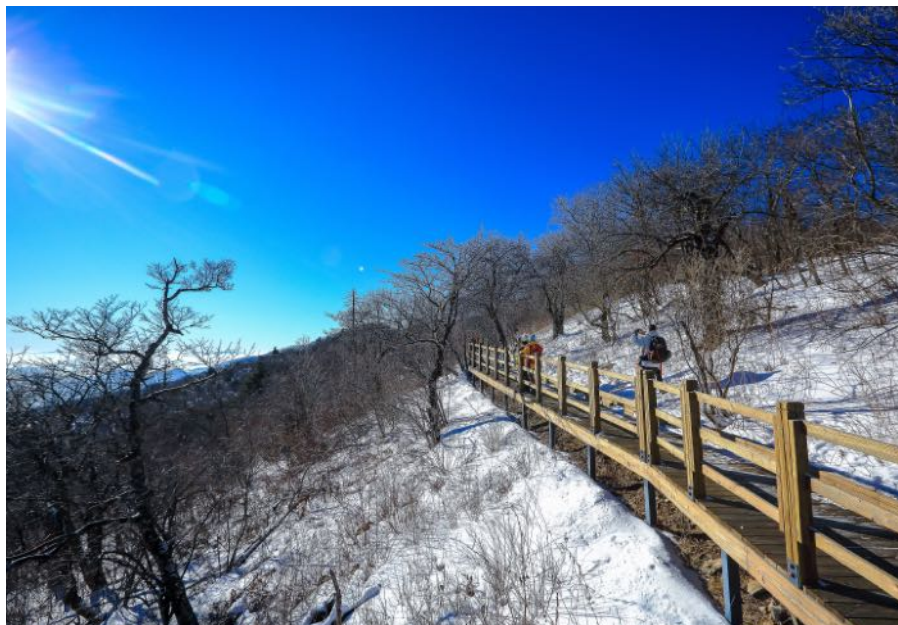
관리기관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4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142번지

발왕산(1,458m)은 강원 평창군 진부면과 대관령면 경계에 걸쳐 있는 산으로, 옛날 도승이 이 산에 여덟 왕의 못자리가 있다 하여 팔왕산으로 불리다가 발왕산으로 바뀌었다. 발왕산 북쪽 사면은 완경사를 이루어 용평스키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의 경기장으로 사용되었다. 발왕산 정상부 전망대에는 스카이워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백두대간의 장엄한 등줄기를 조망할 수 있다.

발왕산 정상부 일대에는 주목과 산철쭉이 자라고, 북동쪽 횡계리 고지대의 넓은 평원에는 고랭지채소 재배와 목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목 군락지에는 나이 1,800년의 추정





되는 주목을 비롯해 평균 숲나이 70년, 가슴높이 지름 22~26cm 높이 6~16m에 이르는 주목 260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 이 밖에도 산목련·귀룽나무·마가목·엄나무·산사나무·시달나무·고로쇠나무 등이 씩씩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모싯대꽃·박새꽃·동자꽃·지리강활·어수리·흰진범꽃이 곳곳에 피어난다. 1,458m 고지대의 매섭고 야멸찬 기후에 적응하며 스스로 숲을 이룬 것이다. 발왕산 생태숲은 1977년 산림유전자원원보호림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에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숲 100선에 선정됐다.

주목은 줄기의 껍질과 속 색깔이 모두 붉은색을 띠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목은 7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주로 자라는 상록침엽수이다.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을 사는 나무’로 불릴 정도로 아주 천천히 성장하며, 죽어서 잎을 떨군 뒤에도 오랫동안 제자리를 지키며 서 있다. 주목은 고지대의 매서운 기후환경을 몸으로 이겨내며 성장하는 탓에 수없이 뒤틀려 있으며 키를 높이 키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목 군락지는 살아 있는 주목과 죽은 주목이 어울려 신비롭고도 비범한 풍경을 자아낸다. 특히 발왕산 생태숲의 주목 군락지에 눈이 쌓이면 신화 속 세계를 보는 듯 황홀경을 선사한다.



NAVI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651-1(등산로) ★ 651-1, Yongsan-ri, Daegwallyeong-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용평리조트 드래곤프라자(군돌라) ★ 715 Olympic-ro, Daegwallyeong-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Balwangsan Ecological Forest

san142, Yongsan-ri, Daegwallyeong-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The Balwangsan Ecological Forest in Pyeongchang forms a village in groups, ranging from grandfathers of spreading yew trees that are more than 1,000 years old to descendants of spreading yew trees. It is said that the spreading yew tree does not rot immediately even if its life is over, like a regular tree, so it is said to be "dead and live for a thousand years. It is a symbol of strong vitality. It is designated as a protected forest for forest genetic resources, so entry is limited.



높은 선승처럼 느리게 걷는 숲

087

평창 월정사 전나무숲



주요수종 전나무 면적 6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사유림(사찰림)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평창군청 033)330-2430, 오대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033-330-462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번지

오대산(1,563m)은 강원도 강릉시와 평창군과 홍천군에 걸쳐진 산으로, 비로봉(1,565m)을 중심으로 동대산, 두로봉, 상왕봉, 호령봉 등 다섯 봉우리가 병풍처럼 늘어서 있어서 오대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오대산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고, 예로부터 불교문화의 중심지로도 이름 높았다. 1975년 1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오대산국립공원은 크게 오대산지구, 소금강산지구, 계방산지구로 구분된다.

오대산국립공원 내 월정사 일주문부터 금강교까지 1km 구간, 6ha 규모에 자리 잡은 1,700여 그루 전나무숲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나이 100년, 가슴높이 지름 40~70cm, 높이 20~30m에 이르는 전나무가 숲길을 따라 도열하고 있어서 보는 이를



평창 월정사 전나무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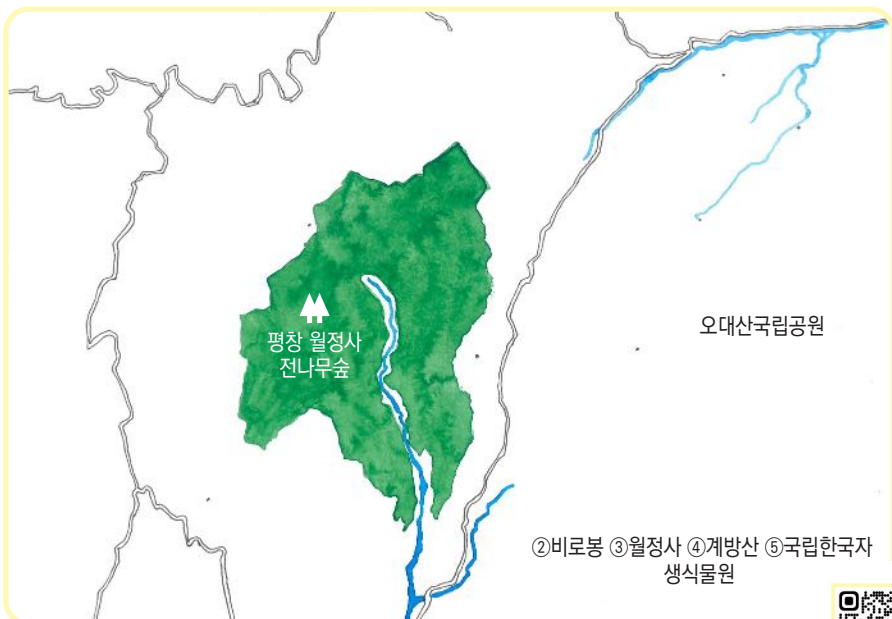


압도한다. 개중에는 나이 300년, 가슴높이 지름 1m나 되는 전나무도 눈에 띈다.

월정사 전나무숲은 고려 말 선승 나옹선사와 관련된 전설이 깃들어 있다. 나옹선사가 하루는 월정사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는데, 소나무에 쌓인 눈이 그릇에 떨어져 공양을 망쳤다. 그러자 산신령이 화가 나서 나옹선사에게 소나무 대신 전나무를 심게 했다. 나옹선사가 처음 전나무숲을 일궈냈다는 이야기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숲길에는 밀동 부분에서 부러져 나간 거대한 전나무 그루터기가 있다. 나이 600살 전나무가 2006년에 생애를 마감하고 덧없이 넘어지면서 남긴 잔재이다. 이곳의 오랜 숲나이를 어렵듯이 가늠해볼 수 있는 실마리다.

전나무 사이로 신갈나무·소나무·피나무도 적잖은 존재감을 드러내며, 오대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인 긴점박이올빼미, 노랑무늬붓꽃 등 멸종 위기 동·식물도 터전을 잡고 있다. 월정사 전나무숲에는 2008년 황톳길이 조성되었으며, 자연환경안내원의 숲 안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오대산국립공원 안에는 천년 고찰 월정사, 상원사, 중대사, 북대사 등 불교문화 시설과



NAVI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334 ★ 334, Dongsan-ri, Jinbu-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천혜의 비경을 품은 소금강,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이어지는 선재길, 내린천의 발원지인 을수계곡,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질피늪, 소황병산늪, 조개동늪 등 경탄을 자아내는 자연경관이 가득하다.

Woljeongsa Needle Fir Forest

374-8 Odaesan-ro, Jinbu-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Pyeongchang Woljeongsa Needle Fir Forest is located in Odaesan National Park, located in the center of Baekdudaegan Mountain Range. Odaesan Mountain has a very high ecological value and has been famous as a center of Buddhist culture since ancient times.

The splendid needle fir forest with over 1,700 trees located in a 1km section from Woljeongsa Temple's Iljumun Gate to Geomgang Bridge boasts one of the largest in Korea. Needle fir with an average age of 100 years are lined up along the forest path, giving those who walk through them a feeling of great spirit.



천연의 숲에 인간의 손길을 곁들이다

088

홍천 계방산 운두령숲



주요수종 주목·분비나무·피나무·물푸레나무 등 면적 4,345ha 조림연도 2017년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4-9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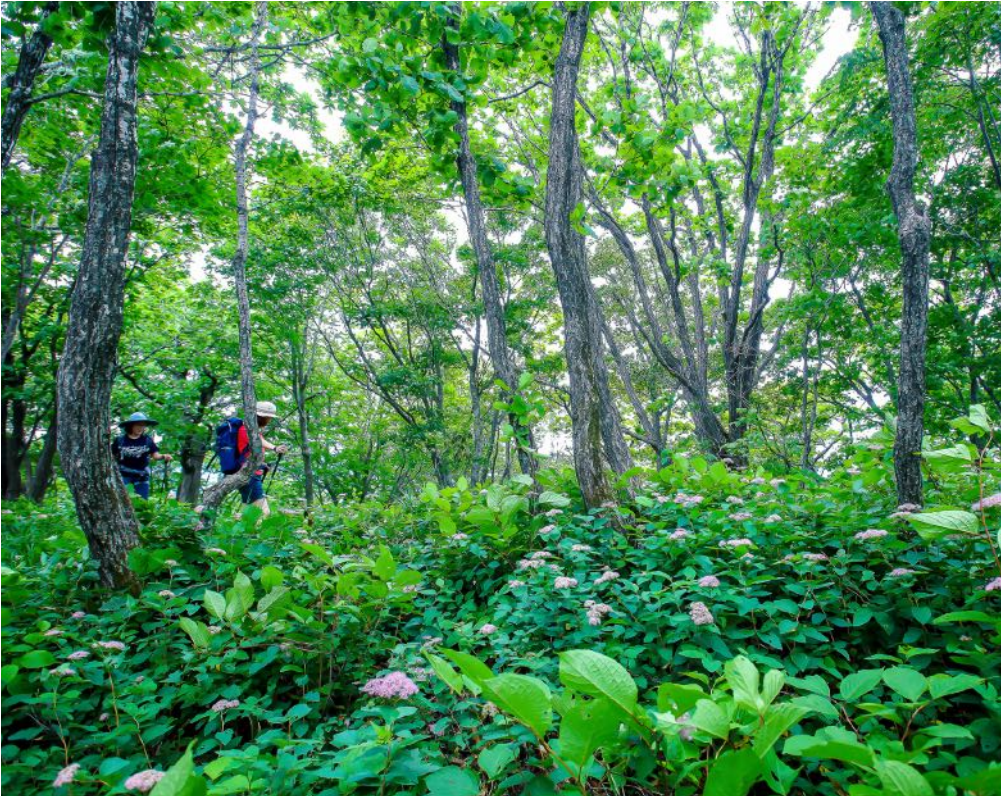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1 외 11필

강원도 홍천과 평창 사이에 자리한 계방산(1,577m)은 1985년부터 1,263ha를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계방산 일부는 오대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어 있다. 계방산에는 철쭉·신갈나무·물푸레나무·피나무·분비나무 등 식물군락이 다채롭게 어울려 숲을 이룬다. 또한 능선부에는 700여 년을 살아온 주목이 700여 그루 자생하고 있어 생태·환경적 보전 가치와 학술적 연구 가치가 높다.

운두령은 계방산과 흥정산 사이에 위치하며, 계방산 산행의 들머리로 자리 잡고 있다. 운두령은 우리나라에서 국도가 지나가는 가장 높은 고개이며, 구불구불 이어진 도로를



홍천 계방산 운두령숲



오르는 경험도 색다르다. 운두령의 완만한 능선을 따라 계방산으로 이어지는 산행 구간은 활엽수와 침엽수, 희귀식물과 보호식물이 어우러져 숲을 이루며, 눈높이에서 하늘과 맞닿은 백두대간 등줄기를 감상할 수 있다. 운두령은 적설량이 많아서 눈꽃 만발한 겨울철 산행지로 이름 높다. 물론 우리 자연환경이 스스로 키워낸 천혜의 숲과 온전히 교감할 수 있는 봄·여름·가을철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운두령 동쪽 흥정산 쪽으로는 1977~82년까지 목재로서 가치가 높은 특수활엽수 67만여 그루가 170ha에 걸쳐 조성된 우리나라 유일의 대규모 특수활엽수 조림지가 있다. 물푸레나무·가래나무·자작나무·물박달나무·피나무·들메나무·굴참나무·산벚나무 등 8가지 수종의 나이는 30~40년이며, 수종별 간벌 시험, 생장 모니터링, 식재 후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숲아베기 등 숲 가꾸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수활엽수 조



NAVI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46(운두령쉼터) ★ san254-46, Jaun-ri, Nae-myeon, Hongcheon-gun, Gangwon-do

림지에는 방문·체험을 위한 숲 탐방로(3.2km)가 갖추어져 있고, 운두령특수활엽수방문 자센터가 광원리에 운영되고 있다.

Unduryeong Forest

san254-1, Jaun-ri, Nae-myeon, Hongcheon-gun, Gangwon-do

Unduryeong in Hongcheon Gyeongbongsan Mountain is a representative natural forest habitat in Gangwon-do. It has a forest of various plants such as yew trees, Mongolian oaks, and ash trees that have lived for over 700 years. It has high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nd academic research value. In the east of Unduryeong, a special broad-leaved tree complex with high value as wood has been built and is used as a base for large-scale special wood production technology research and the production of the highest quality special wood.



깊은 계곡에 넘실대는 식물 다양성

089

단양 소백산 천동계곡숲



주요수종 졸참나무·신갈나무·소나무·낙엽송 등 면적 1,240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단양국유림관리소 043)420-0341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산9-1

1987년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소백산(1,440m)의 능선은 완만하면서 장엄하며, 끝없이 펼쳐지는 운해가 울창한 산림, 수려한 계곡과 어울려 장관을 이룬다. 소백산의 ‘백(畺)’은 ‘희다’ ‘높다’ ‘거룩하다’를 뜻하는 우리 옛말이며, 예로부터 신성시된 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백산은 온대중부식물대로 신갈나무·소나무·청시닥나무·층층나무·낙엽송·굴참나무·피나무 등이 무성한 군락을 이룬다. 소백산 천동계곡은 비로봉에서 발원한 물줄기에 의해 형성된 계곡으로,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솔티천의 상류이다. 천동계곡은 소백산



단양 소백산 천동계곡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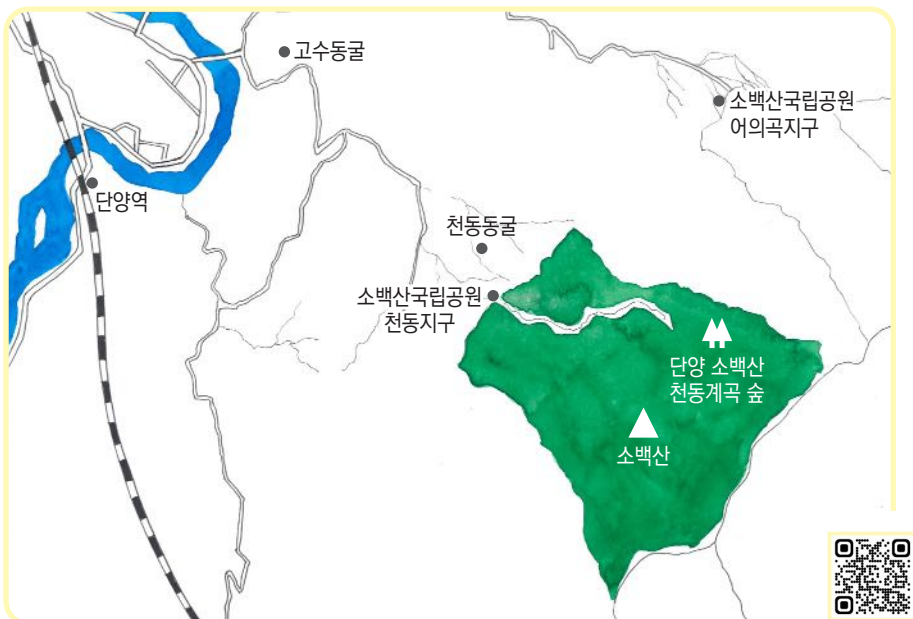


정상에 오르는 가장 짧은 코스(6.8km)이며, 길이 가파르지 않고 길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이다.

천동계곡 숲은 여러 종의 활엽수가 뒤섞여 빼곡히 들어차 있다. 가슴높이 지름 16cm, 높이 16m, 임목축적 77m³/ha의 천연림이다. 계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채롭고 울창한 숲은 생명력이 넘치고, 주변 기암괴석 등과 어울려 환상적인 경관을 뽐낸다. 숲에서 뿜어나오는 음이온·피톤치드 등 산림치유도 즐길 수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도 인기다. 산림청은 소백산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1993년부터 천동계곡 숲 56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연화봉에서 비로봉에 이르는 초원 능선에는 철쭉 군락과 왜솔다리(에델바이스)를 비롯한 수많은 야생화가 흐드러진다. 비로봉 기슭에서 국망봉 일대에는 나이 200~600년 된 주목 군락(천연기념물 244)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소백산국립공원 내에는 회방사, 부석사, 보국사, 초암사, 구인사 등 여러 사찰과 암자가 있고, 우주 관측소인 소백산국립천문대가 있다.



NAVI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소백산등산길 103(천동탐방지원센터 소백산북부사무소) ★ 103 Sobaeksandeungsan-gil, Danyang-eup, Danyang-gun, Chungcheongbuk-do

Cheondong Valley Forest

103, Sobaeksandeungsan-gil, Danyang-eup, Danyang-gun, Chungcheongbuk-do

In the Cheondong Valley Forest of Sobaeksan Mountain in Danyang, various types of broad-leaved trees show off their vitality around the valley. In Sobaeksan Mountain in this area, wild flowers, including Edelweiss, an alpine plant, are spread like watercolors. Those who visit this forest mainly trek to the ridge of Sobaeksan Mountain. There is a National Astronomical Observatory on Sobaeksan Mountain. This is because it is a clean area that is not disturbed by artificial light.



건강한 나무 씨앗을 기르고 퍼트리는

충주 적보산 씨앗숲

090



주요수종 가문비나무·낙엽송·대왕참나무·백합나무 등 면적 27ha 조림연도 1968년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허가제)

관리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98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산58-1 외 7필

적보산(699m)의 수회리 쪽 자락에는 1968년 산림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국내 최초의 채종원(씨앗숲)이 자리 잡고 있다. 씨앗숲은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나무 씨앗을 생산하는 숲이다. 씨앗숲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전국에서 우수한 형질의 수형목, 이른바 ‘엄마 나무’를 선정해서 복제한 나무들이다. 수형목은 생장이 왕성하고, 굽어지거나 비틀어지지 않고, 병충해에 걸리지 않고, 상당량의 종자가 달려야 하는 등 선발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이곳 적보산 씨앗숲에는 우리나라 채종원을 총괄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적보산 씨앗숲에는 잣나무·낙엽송·리기다소나무·리기테다소나무 등 침엽수 27종과 헛



충주 적보산 씨앗숲



개나무·음나무·이팝나무 등 활엽수 20종의 씨앗숲이 있다. 1968년 조성된 낙엽송 씨앗숲(150ha)은 가슴높이 지름 50cm, 높이 3m, ha당 100그루, 1970년 조성된 리기테다소나무 씨앗숲(7ha)은, 가슴높이 지름 60cm, 높이 3m, ha당 200그루, 1977년 조성된 잣나무 씨앗숲(20ha)은 가슴높이 지름 50cm, 높이 3m, ha당 200그루, 2000년 조성된 백합나무 씨앗숲(7ha)은 가슴높이 지름 30cm, 높이 15m, ha당 250그루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들 씨앗숲은 나무 키가 그리 크지 않으며 나무 사이 간격이 넓다. 이래야 씨앗을 채취하기도 쉽고 방재작업이나 제초를 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적보산 씨앗숲에는 복제나무 숲인 클론보존원(11ha)도 있다. 이곳에는 2,700그루의 수형목 복제나무가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수형목이 손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채종원을 만드는 데 쓰일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다. 복제나무는 수형목의 가지 등을 잘라내 만든다. 채종원에는 종자 50t을 보관할 수 있는 종자보관실도 있다. 종자보관실은 종자를 보관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온도 4도, 습도 28%)을 항상 유지한다.

적보산 씨앗숲은 그동안 출입을 통제했으나, 2015년에 산림종자생명산업의 가치를 알



NAVI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72 Suhoeri-ro, Suanbo-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리기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숲체험코스 (2km), 성인 숲체험코스(2km)를 전문 숲해설가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볼 수 있다.

Jeokbosan Seed Forest

72 Suhoeri-ro, Suanbo-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Jeokbosan Seed Forest in Chungju is a forest that produces tree seeds to create a healthy forest. The trees growing in the seed forest are cloned trees selected from trees with excellent traits, the so-called 'mother trees', from all over the country. The selection criteria for a tree are very strict, including that it must grow vigorously, not bend or twist, be free from pests and diseases, and produce a significant amount of seeds. The National Forest Variety Management Center, which supervises all Korea's seed forests, is located here in Jeokbosan Seed Forest.



왕실 숲의 위엄을 간직한

091

태안 승언리 소나무숲



주요수종 소나무 면적 115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도유림(충청남도)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041)635-7281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35번지 (안면도자연휴양림 일대)

안면도 소나무는 줄기가 굽적하고 키가 높은 우산 모양이다. 잔가지 없이 곧게 뻗는 데다 위쪽과 아래쪽 나무 둘레 차이가 거의 없어 목재로 으뜸이다. 이 독특한 안면도 소나무를 안면송이라고도 부른다. 안면도 소나무는 섬 전체 면적의 27%인 3,220ha에 분포하고 있다.

조선 정부는 궁궐 건축과 선박 제조에 쓰일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안면도 소나무숲 73곳을 봉산(나무를 베지 못하게 출입을 금지한 산)으로 지정, 관리했다. 안면도는 바닷길을 통해 서울까지 사흘이면 갈 수 있었다. 안면도는 본래 태안반도 남쪽의 태안곶이었으나, 인조 때(1638년) 전라도와 충청도 등 삼남지방의 물자를 빠르고 안전하게 서울로 운반



태안 승언리 소나무숲



하기 위해 남면 신온리와 안면읍 창기리 사이를 파내 섬이 되었다. 섬은 누군가 나무를 베어 가기 어렵고, 다른 나무의 씨앗이 유입될 가능성도 적다. 덕분에 오랫동안 순수 혈통의 안면송 숲을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일본인 회사에 안면도 소나무숲을 팔았다. 일본인 회사는 광산 갱도용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수많은 소나무를 베어냈으며, 송탄유(송진으로 끓여서 만든 기름)를 얻기 위해 안면도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송진을 채취했다. 그 탓에 소나무숲에는 나이가 수백 년 된 늙은 나무가 없고, 많은 소나무에 송진을 채취하기 위해 낸 브이(V) 자 모양 상처가 남아 있다.

안면도 소나무숲은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도 곳곳하게 살아남아 다시 숲을 이루기 시작했다. 안면도 승언리 일대와 안면도자연휴양림에는 높이 15~20m, 임목축적 200~360 m³/ha, 나이 80~120년 정도의 소나무들이 반듯하고 우람하게 연륜을 쌓아가고 있다.

안면도 소나무숲은 1965년부터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1978년에 승언리 일대(115ha)의 소나무 17만 그루가 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되었고, 1991년에 자연휴양림



NAVI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3195-6(안면도자연휴양림) ★ 3195-6 Anmyeon-daero, Anmyeon-eup, Taean-gun, Chungcheongnam-do

으로 정비되었다. 자연휴양림에는 숙박시설, 산림전시관, 무장애나눔길과 스카이워크 (383m) 등이 마련되어 있다.

Anmyeondo Korean red pine Forest

3195-6, Anmyeon-daero, Anmyeon-eup, Taean-gun, Chungcheongnam-do

Taeon Anmyeondo Korean red pine trees have thick, tall stems shaped like umbrellas. It stretches straight without any twigs and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upper and lower tree circumferences, making it the best wood. The Joseon Dynasty banned access to the Korean red pine forests of Anmyeondo Island and designated and managed them in order to produce wood for palace construction and ship manufacturing. It is difficult for anyone to cut down trees on the island, and there is little chance of seeds from other trees being introduced. Thanks to this, it was possible to protect the pure-blooded Korean red pine forest for a long time.



이국땅에 뿌리내린 백년

092

무주 덕유산 독일가문비숲



주요수종 리기다소나무·독일가문비·편백·삼나무 면적 44ha

조림연도 1931년(독일가문비), 1933년(리기다소나무)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무주국유림관리소 063)320-3646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1-7 (독일가문비)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9 외2 (리기다소나무)

큰키나무 침엽수인 독일가문비는 유럽이 원산지로 주변에서 군락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지만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에 있는 덕유산자연휴양림에는 울창한 독일가문비숲을 만날 수 있다. 독일가문비는 1931년에 외래수종의 생육에 알맞은 장소를 찾기 위해 시험 조림되었으며, 그로부터 100년 세월을 견디며 숲을 이루었다. 2000년부터 산림유전 자원보호림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2010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천년의 숲 부분 어울림상을 수상했다.

해발 약 700m에 위치한 덕유산자연휴양림의 독일가문비숲은 1.2ha 면적에 200여 그루



무주 덕유산 독일가문비숲



나무가 평균 30m 넘는 높이, 가장 굵은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 81cm, 임목축적 500m³/ha의 울창함을 자랑한다. 독일가문비는 원뿔 모양으로 곧고 높게 자라며, 군락지는 커인들의 열병식처럼 웅장하고 장쾌하다. 독일가문비숲은 낙엽송·잣나무 조림지와 이어져 있어 숲길의 향취를 다양하게 만끽할 수 있다.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국립공원 안에는 독일가문비숲과 같은 목적으로 1933년에 조성된 리기다소나무숲이 자리하고 있다. 40ha 면적에 조림된 리기다소나무는 높이 23m, 가슴높이 지름 32cm(최대 나무 지름 86cm)로 우람한 생장을 자랑한다. 또한 리기다소나무숲의 하층에는 신갈나무·산벚나무 등이 성장하여 복층 숲 구조를 이룬다.

미국이 원산지인 리기다소나무는 줄기가 굵지 않고 송진과 옹이도 많아서 목재로서 별 쓸모가 없어 환영받지 못하는 수종이다. 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척박한 환경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1960년대 황폐화된 우리나라 산림을 빠르게 되살리는 녹화사업의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 덕유산국립공원 내 리기다소나무숲은 국내에서 보기 드



NAVI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덕유산자연휴양림) ★ 530-62 Gucheondong-ro, Mupung-myeon, Muju-gun, Jeollabuk-do

문 우량 리기다소나무림으로 적당한 땅에 적절한 나무를 심은 사례로 현장 교육 및 홍보의 장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Deogyusan Norway Spruce Forest

530-62, Gucheondong-ro, Mupung-myeon, Muju-gun, Jeollabuk-do

Located at the foot of Deogyusan Mountain, the Norway Spruce Forest and Rigida Fine Forest were created in a national forest in the 1930s for the purpose of test afforestation to find a suitable site for the growth of exotic tree species and formed a dense forest through continuous forest cultivation. The Norway Spruce Forest is the only place in Korea to form a forest as a domestic colony, and the Pitch Pine Forest is a rare, high-quality Rigida Pine Forest in Korea and has high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nd field-educational and promotional value.



바람을 막아주고 평안을 가져다주는 숲

093

무주 명천마을 소나무숲



주요수종 소나무 면적 3.5ha 조림연도 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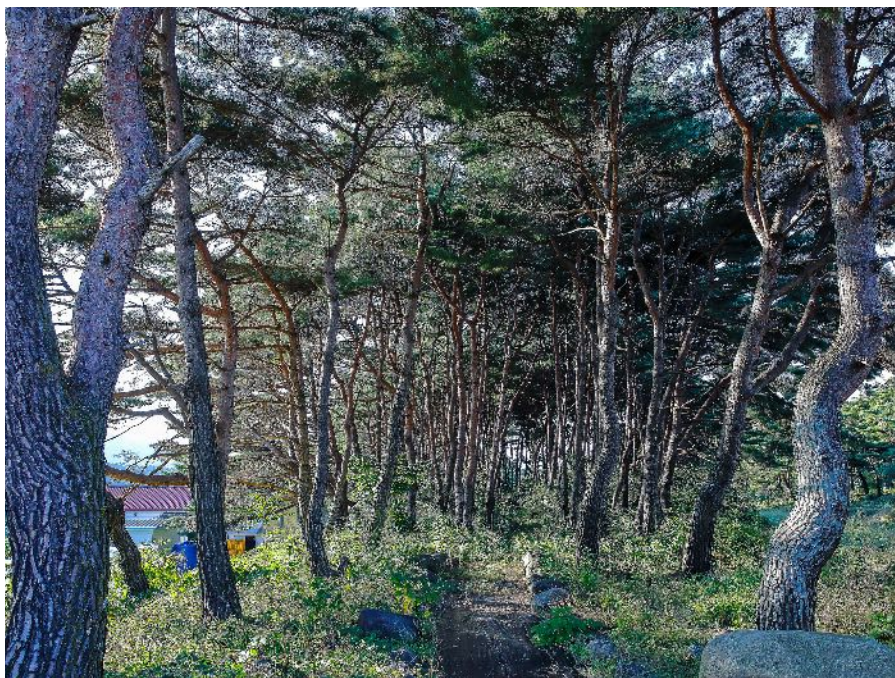
소유 사유림(법인)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무주군청 063)320-2466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377-1

무주 명천마을은 해발 500m 지대에 위치한 물 맑고 공기 깨끗한 산촌이다. ‘고요한 물 소리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임진왜란 당시 전란을 피해 심산유곡 오지로 피난 와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한다.

명천마을 입구에서 덕유산 자락까지 이어진 소나무숲은 북서풍을 막아주는 방풍림 역할을 한다. 기능적 역할을 넘어, 명천마을 소나무숲은 마을 사람들이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민속적 신앙의 대상이었다. 이 소나무숲은 6·25전쟁 당시 소실되었는데, 마을 사



무주 명천마을 소나무숲



람들이 다시 정성 들여 가꾸어 현재 3.5ha의 울창한 소나무 숲을 이루었다.

명천마을 소나무숲은 숲나이 60년이며, 넉넉하고 아늑하게 품어준다. 숲이 조밀하지 않아서 나무들끼리 경쟁하지 않고 자라며, 산책로와 캠핑 공간도 여유가 있다.

명천마을은 청정지역 소나무 마을의 특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도농 협력, 힐링휴양, 체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NAVI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원통사로 294(출발권역슬하기체험관) ★ 294 Wontongsa-ro, Anseong-myeon, Muju-gun, Jeollabuk-do

Korean Red Pine Forest in Myeongcheon Village

294 Wontongsa-ro, Anseong-myeon, Muju-gun, Jeollabuk-do

The pine forest in Muju Myeongcheon Village is located in a mountain village with very clear and clean water at an altitude of 500m. It is said that the village was formed after people took refuge in a remote area to avoid war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in 1592. The pine forest in this village served as a windbreak to block the northwest wind and was an object of folk religion to pray for peace and happiness in the village. Most of the pine trees are 60 years old. Under the theme of this pine tree, the village community operates projects such as clean area tourism, ecotourism, vacation forest therapy, camping activities, and sale of pure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produced in clean areas.



하천 제방에 나무를 심은 뜻

094

임실 방수리 하안숲



주요수종 개서어나무·느티나무·팽나무 등 면적 6ha 조림연도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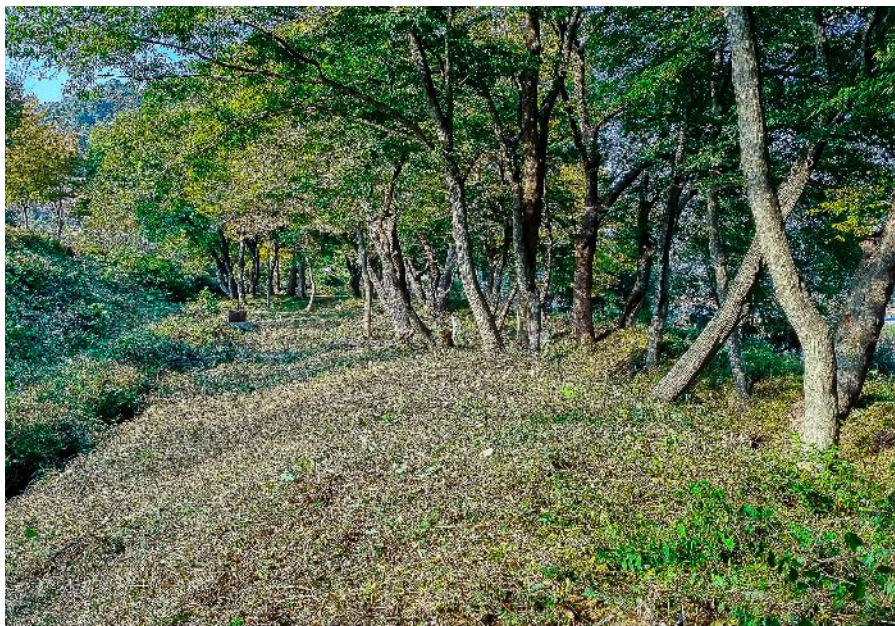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건설교통부)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임실군청 063)640-2496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908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는 진안고원의 서부, 섬진강 상류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1917년 섬진강(오원천) 서쪽의 방동마을과 동쪽의 막동마을이 합쳐져 방수리가 되었다. 조선 숙종 원년(1675년)에 만들어진 운수지(임실군지)에는 방수리 일대의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여덟 곳(방수팔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제8경이 ‘오원천 제방의 무성한 숲[長堤茂林]’, 바로 방수리 하안숲이다.

방수리 하안숲은 방수팔경이 기록된 1675년 이전부터 조성되었을 테니 역사가 아주 깊다.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하안숲은 2~3백 년 전 황씨 부부가 개천 황무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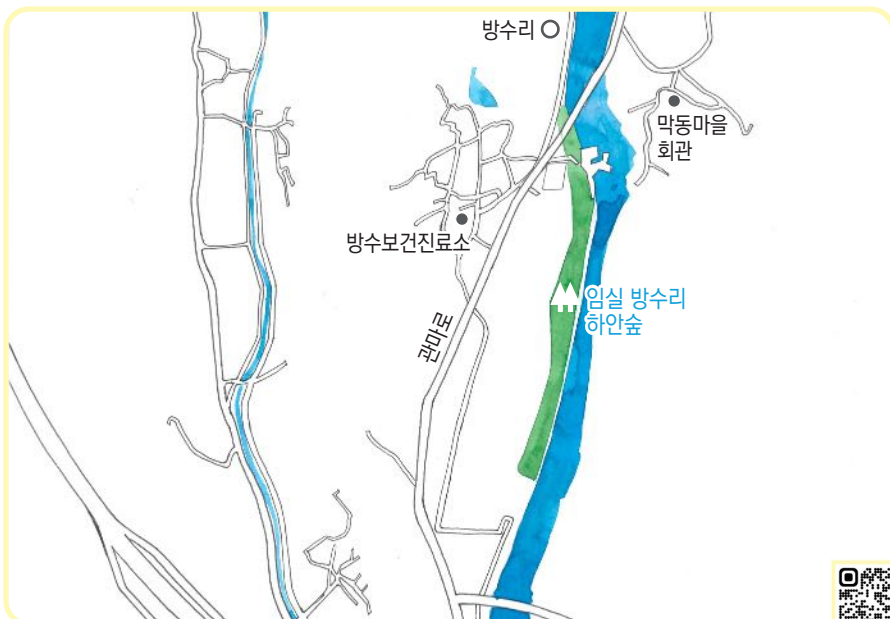
임실 방수리 하안숲



논밭으로 만들기 위해 제방과 보를 쌓았지만 실패했다가 꿈속에서 선인의 도움으로 물길을 찾아서 보에 물을 채웠다고 한다. 옛 조상들은 물줄기가 거세지는 오원천 강변을 따라 제방을 쌓았다가 몇 번의 실패를 겪은 다음, 강한 바람을 막고 하천의 물에 제방이 유실되지 못하게 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이때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방수리 하안숲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운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방수리 하안숲은 길이 1km, 폭 30~60m 규모로 하천을 따라 띠 모양으로 숲을 이룬다. 개서어나무·느티나무·팽나무 등 나이 200년이 넘는 늙은나무 470여 그루가 듬직하고 우람하게 자리를 지키고, 그 사이로 쉬나무·층층나무·화살나무·줄사철 등 다양한 나무들이 곁을 채우고 있다. 2011년에는 제방 산책로 주변에 느티나무 300여 그루와 구절초를 추가로 심어서 다채로움이 더해졌다.

참고로 방수팔경은 방미산에 떠오르는 보름달, 밤에 악바위에서 낚시하는 풍경, 성미산



NAVI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137 ★ 137, Bangsu-ri, Gwanchon-myeon, Imsil-gun, Jeollabuk-do

을 감싸는 안개, 동산 소나무에 백조가 날아와 앉는 모습, 석양 무렵에 기러기가 날아가는 정경, 마을 북동쪽의 황두폭포, 마을 서쪽 눈 쌓인 대나무숲, 그리고 방수리 하안숲이다.

Bangsuri Riverside Forest

908, Bangsu-ri, Gwanchon-myeon, Imsil-gun, Jeollabuk-do

Imsil Bangsuri Riverside Forest is in a village located widely in the upper stream of the Seomjingang River. The forest has a history of about 200 to 300 years. Trees were planted to prevent the flood from damaging the embankment. Hundreds of old trees over 200 years old, including zelkova trees and hackberry trees, reliably protect the village. Just imagining this scenery makes our heart happy.



명당 마을에 화룡점정을 찍다

095

진안 하초마을숲



주요수종 느티나무·팽나무·굴참나무·개서어나무 등 면적 1.6ha 조림연도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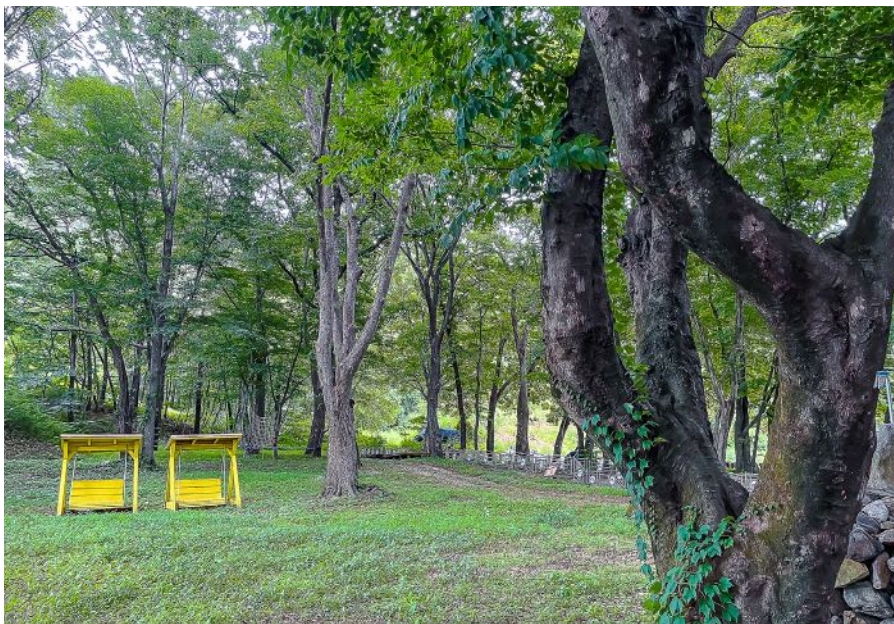
소유 사유림(기타단체)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진안군청 063)430-2427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396

진안군 정천면 하초마을은 풍수지리에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터이며, 관계자들이 손꼽는 명당 마을이다. 하초마을은 마을 뒤편과 양옆을 울창한 숲이 감싸고 있고, 마을 입구도 숲에 가려져 있어서 외부로부터 마을의 존재가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다.

하초마을 입구의 숲은 풍수지리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보림(나쁜 기운을 막거나 좋은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조성한 숲)이라고 한다. 마을의 오른쪽 산(우백호)가 칼처럼 뺏어내린 형국이 불길하다 하여 마을 앞 하천 제방을 따라 왼쪽 산(좌백호)에 이르기까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다. 제방에 아름드리나무가 지키고 있으면 마을로 들이치



진안 하초마을숲



는 바람을 막고,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유실되는 것을 막아주고, 더운 날에는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아름다운 풍경을 빚어냈을 테니 금상첨화다.

하초마을 숲은 일제강점기 때 큰 고초를 겪었다. 일제가 마을 숲의 굵직한 나무를 모두 베어서 가져가버린 것이다. 그러자 마을에 연이어 불이 났고,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다시 심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하초마을 숲은 느티나무·상수리나무·팽나무·굴참나무·개서어나무·갈참나무·떡갈나무 등 대부분 활엽수이며, 마을 사람들의 보호 아래 자란 덕분인지 우람하고 무성한 자태를 뽐낸다.

하초마을은 마을숲 외에도 오랜 역사를 지닌 자연마을의 풍경이 가득하다. 하초마을에는 본디 당산나무, 선돌, 두 개의 돌탑이 있어서 마을에서 제사를 모셨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마을 한가운데로 길을 내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마을숲 안에 다시 돌탑과 선돌을 세웠다고 한다. 또 마을에는 나이 300년, 높이 22.5m, 가슴높이 둘레 4.7m의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NAVI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하초길 60(하초마을회관) ★ 60 Hacho-gil, Jeongcheon-myeon, Jinan-gun, Jeollabuk-do

진안군에서는 2009년 하초마을 숲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전통 마을숲 복원 사업을 시행했다. 하초마을 숲은 산림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와 깊이 연계되어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Hacho Village Forest

60 Hacho-gil, Jeongcheon-myeon, Jinan-gun, Jeollabuk-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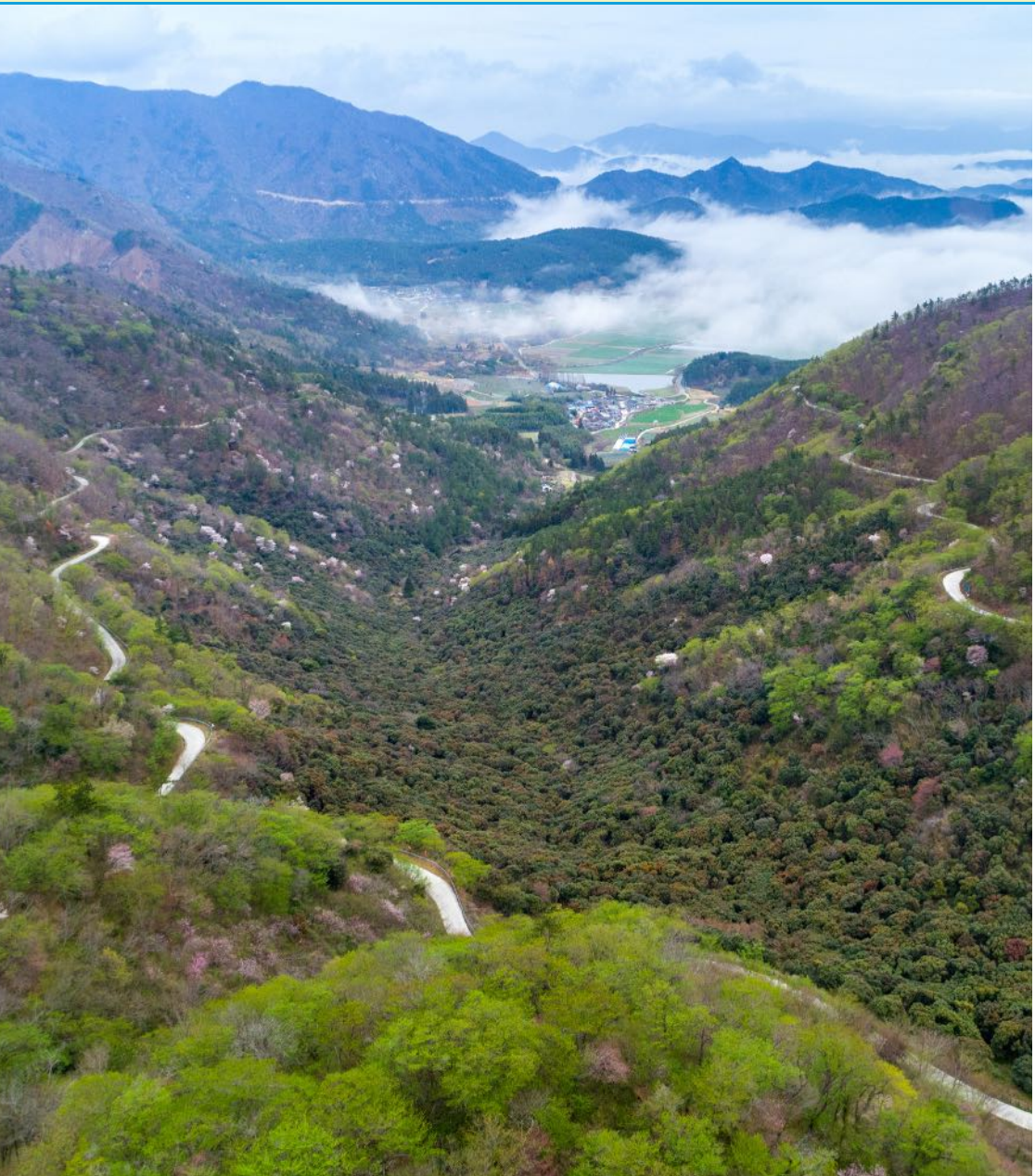
Jinan Hacho Village Forest was created to complement the village's feng shui geographical deficiencies and prevent natural disastrous wind and embankment losses. Among Korean traditional cultures, there are regular ancestral rites and festivals to plant trees at the village entrance and pray for peace in the village. Since ancient times, Koreans have had a culture of considering trees sacred and protecting them, believing they have spiritual energy.



국내 최대 동백나무 천연 숲

096

장흥 천관산 동백나무숲



주요수종 동백나무 면적 20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42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부평리 산109-1 외 1

장흥 천관산(723m)에는 소나무숲, 곰솔숲, 곰솔-상수리나무숲, 신갈-졸참나무숲, 동백나무숲, 비자나무숲, 억새군락 등이 분포하고, 그중에서 봄철 동백꽃과 가을철 연대봉에서 환희대까지 펼쳐지는 억새평원(132ha)이 장관이다. 천관산은 1998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천연 동백나무 군락지인 천관산 동백나무숲(20ha)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딸감으로 사용하거나 숯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무분별한 훼손으로 시름을 앓던 동백나무숲은 다행히 주민들이 창립한 천관산동백숲보존회와 산림청이 보호를 시작하



장흥 천관산 동백나무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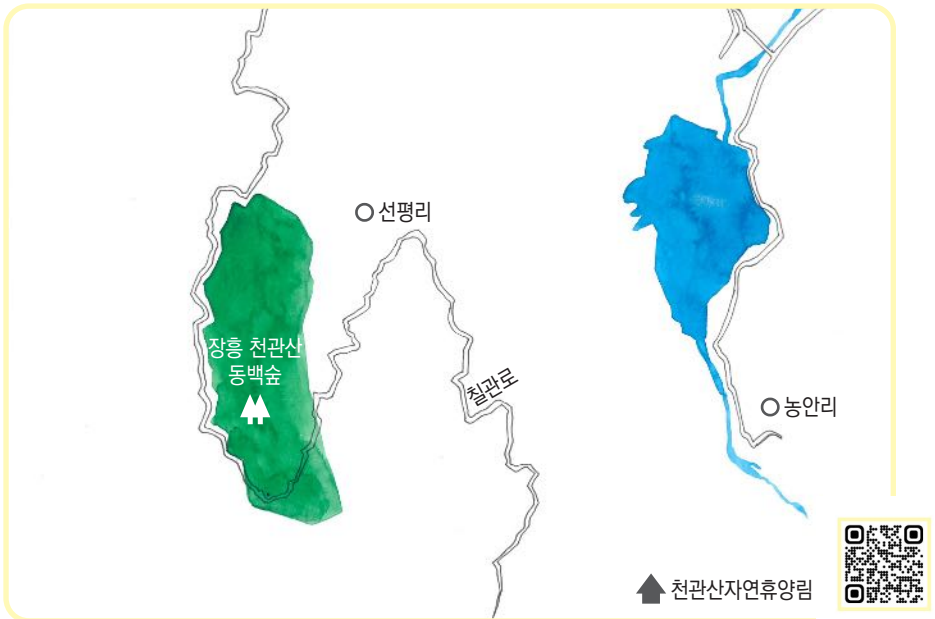


면서 다시 질푸른 잎과 붉은 꽃을 피워올리고 있다. 동백나무는 윤기 나는 진초록 잎을 무성하게 펼치며, 겨울철에 붉은 꽃이 만개하고, 송이째 꽃잎을 떨군다.

천관산 동백나무숲은 2000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에는 동백나무 단일 수종 최대 군락지로 한국 기네스 기록에 등재되었으며, 또한 동백나무숲 안에 있는 옛 숲가마터는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었다.

천관산 동백나무숲은 천관산 봉우리 중 하나인 양암봉에서 내려오는 골짜기를 따라 긴 띠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 나이 50~200년, 가슴높이 지름 10cm, 높이 5m(2~8m)의 동백나무 2만여 그루가 자생적으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동백나무숲에는 다른 나무 종도 간간이 눈에 띄지만, 동백나무만으로 이루어진 순림으로 구분된다. 동백나무가 너무 뻥뻥하게 군락을 이루면서 하늘을 가리고 있어서 하층에서 다른 식물종이 거의 자라지 못하며 토양의 유실이 심하게 진행된 곳도 있었다. 산림청은 동백나무숲의 생태 균형을 위한 숲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2008년에는 생태탐방 및 교육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산림공원을 조성했다.



NAVI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칠관로 842-1150(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 ★ 842-1150 Chilgwan-ro, Gwansan-eup, Jangheung-gun, Jeollanam-do

Common Camellia Forest of Cheongwansan

842-1150 Chilgwan-ro, Gwansan-eup, Jangheung-gun, Jeollanam-do

The Common Camellia Forest of Cheongwansan Mountain in Jangheung forms a natural common camellia forest collection influenced by the South Sea. Until a few decades ago, residents produced firewood or charcoal from the common camellia forest. Fortunately, the Common Camellia Forest, which had suffered from indiscriminate damage, is now blooming with deep green leaves and red flowers again after the Cheongwansan Common Camellia Forest Preservation Society, founded by local residents, and the Korea Forest Service began protecting it. It was registered in the Korean Guinness Book of Records as the 'largest collection of a single tree species,' and the old charcoal kiln site within the common camellia forest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forest cultural asset.



마을과 들녘을 풍성하게 복돋우는

097

함평 상곡리 모평마을숲



주요수종 보전 면적 1.1ha 조림연도 미상

소유 사유림(중증)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함평군청 061)320-2932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635

함평 모평마을 주변에는 너른 들이 펼쳐져 있고, 그 한가운데로 수량이 풍부한 하천이 흐른다. 농사를 지을 너른 평야와 강이 흐르는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뿌리내리고 살았다. 기록에는 고려시대 함평 모(牟)씨가 처음 마을을 만들었고, 조선 중기 문신 윤길이가 제주도로 귀양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곳 풍경에 취해 정착하면서 파평 윤(尹)씨 집성촌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마을 주변 해보천을 따라 늘어선 모평마을 숲은 풍수지리상 마을의 부족한 기운을 보완해주는 수호림 성격이다. 500여 년 전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되었다. 과거에는 이웃 성대마을까지 숲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약 1ha 면적으로 줄



함평 상곡리 모평마을숲



어들었다.

모평마을 숲에는 높이 13m, 가슴 높이 둘레 5.5m에 이르는 500년 느티나무를 비롯한 느티나무 30그루, 뿌리를 깊이 내리며 염분과 병충해에 강해서 방풍림으로 많이 쓰이던 팽나무 12그루, 그리고 왕버들, 푸조나무 등 40여 그루가 남아 과거의 영화롭던 시절을 추억하고 있다.

모평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숲을 가꾸고 보전하고 있으며, 가끔 이곳에 모여 종중의 일을 의논하고 매년 농사의 수고를 위로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백중 행사와 시낭송회,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마을 숲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모평마을 숲의 노거수들은 역사적·문화적·생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산림유전자원보호림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었다.

모평마을은 100여 년 역사를 가진 한옥 5채를 비롯한 57채의 한옥, 누각, 정자, 원두막, 물레방아 등이 고풍스러운 전통 마을의 정취를 물씬 풍긴다. 바닷물에 7년 동안 담그고



NAVI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635 ★ 635, Sanggok-ri, Haebo-myeon, Hampyeong-gun, Jeollanam-do



15년 동안 말린 소나무로 지었다고 전해지는 모평헌, 파평 윤씨 종가 등 한옥에서 묵으며 고택 체험을 할 수 있다.

Mopyeong Village Forest

635, Sanggok-ri, Haebo-myeon, Hampyeong-gun, Jeollanam-do

Hampyeong Mopyeong Village Forest has windbreak forests such as large 500-year-old zelkova trees and hackberry trees, which are 13m high and 5.5m high around the chest. This village forest regularly holds the Daedong Festival to pray for the well-being and prosperity of the village. The trees in this village forest have been designated as a forest genetic resource protection forest and a national forest cultural asset in recognition of their historical, cultural, and ecological importance.



거친 환경 속 사람과 공존하는

098

울릉 성인봉 원시숲



주요수종 우산고로쇠·마가목·너도밤나무 등 면적 706ha 조림연도 천연림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울릉국유림사업소 054)791-1252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산44-1 외 5필지

울릉도 최고봉인 성인봉(983.6m) 북쪽에는 동서 너비 1.5km, 남북 너비 2km의 세모꼴 칼데라가 있다. 울릉도가 화산 폭발로 생성된 섬이라는 증거이다. 성인봉 주변에는 형제봉, 미륵봉, 나리봉 등 크고 작은 봉우리가 늘어서 있는데, 그중 나리봉은 성인봉 북동방면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자리한다. 나리봉은 울릉도에서 유일한 평지인 나리분지를 둘러싸고 있다. 나리분지(동서 너비 1.5km, 남북 너비 2km, 해발 500m)에는 과거 울릉도 주민들의 고단한 생활상이 깃들어 있다. 과거 울릉도 주민들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렸고, 이곳 분지에서 군락을 이루며 자라는 섬말나리 뿌리를 캐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분지 이름도 ‘나리’이다.

나리분지에는 섬말나리 외에도 너도밤나무·섬단풍나무·마가목 등 활엽수 천연림이 곳



울릉 성인봉 원시숲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나리분지의 숲길을 따라 걸으면 화사하게 꽃을 피운 울릉국화·섬백리향(천연기념물 제52호) 군락지, 지하수가 솟아오른 용출소 샘, 돌에서 흘러나오는 신령수 약수 등과 만날 수 있다. 또 울릉도 개척민들의 생활 터전인 투막집(국가지정 민속자료 제256호)을 둘러보는 재미도 남다르다.

울릉도는 상대적으로 사람의 발길이 뜸해서 원시 상태의 숲과 생태계를 유지하는 곳이 많다. 성인봉 정상부 울릉성인봉원시숲(천연기념물 189호)에는 너도밤나무·우산고로쇠·회솔·섬피나무·솔송·섬잣나무 등이 서로 뒤섞여 독특한 생명력을 내뿜고 있다. 너도밤나무·우산고로쇠숲(가슴높이 지름 37cm, 높이 13m)과 우산고로쇠·너도밤나무숲(가슴높이 지름 48cm, 높이 14m)이 가장 너른 분포를 보인다. 또한 너도밤나무숲은 가슴높이 지름 33cm, 높이 14m, 섬피나무숲은 가슴높이 지름 47cm, 높이 16m, 우산고로쇠숲은 가슴높이 지름 30cm, 높이 16m의 웅장함으로 보는 이를 압도한다. 개중에는 가슴높이 지름 80cm~130cm의 거목이 숲을 영험함으로 물들인다.

이 밖에도 울릉성인봉원시림은 섬말나리·섬노루귀·섬바디 등 희귀식물의 보물창고로,



NAVI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80-1(등산로 입구) ★ 80-1, Na-ri, Buk-myeon, Ulleung-gun, Gyeongsangbuk-do

2002년에 유전자원보호림(1,475ha)으로 지정되었다. 울릉도 유전자원보호림은 원시림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숲가꾸기 등의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Seonginbong Primitive Forest

san44-1, Na-ri, Buk-myeon, Ulleung-gun, Gyeongsangbuk-do

Ulleungdo Seonginbong is an island created by a volcanic eruption about 5,000 years ago. Because it is an island area far from mainland, there are many places that maintain primitive forests and ecosystems due to the lack of people visiting. The Seonginbong Primeval Forest at the top of Seonginbong Peak is a natural monument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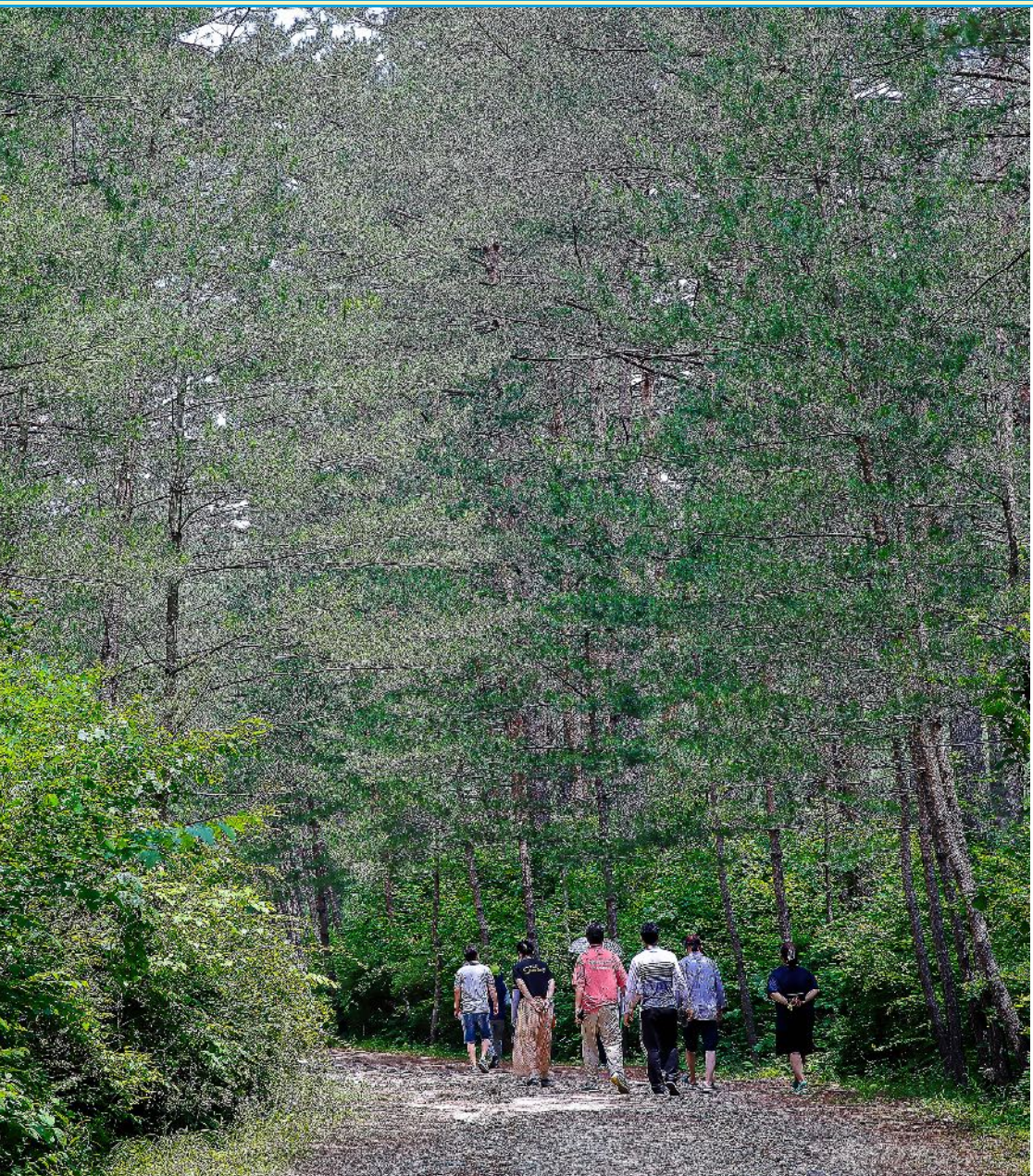
Ulleungdo Island is a treasure trove of rare plants and was designated as a genetic resource protection forest (1,475 ha) in 2002. The Ulleungdo Genetic Resources Protection Forest does not engage in artificial intervention such as forestry in order to preserve the virgin forest as is.



황장목의 위엄과 기품을 간직하다

099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



주요수종 소나무 면적 3,705ha 조림연도 천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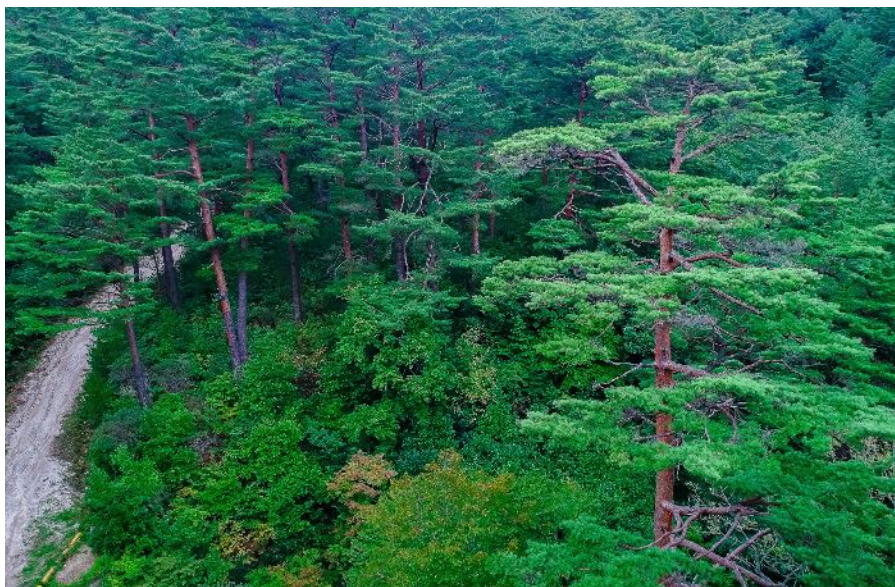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예약제)

관리기관 울진국유림관리소 054)780-3952, 울진금강소나무숲길 안내센터 054)781-7118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29, 산1, 산11

울진 금강송면 소광리는 높다란 산지에 둘러싸여 과거에는 사람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없었고, 화전민 몇몇이 골짜기에 터를 잡고 지냈다. 그러던 1968년 울진·삼척지구에 북한군이 침투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소광리 끝자락에 마을을 만들어서 화전민들이 모여 살게 했다. 하지만 그 후 화전민 마을은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고 지원이 끊기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은 빈터만 남아 있다. 정부에서 이곳에 도로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바로 금강소나무 때문이었다.

금강소나무는 높이 30m 정도로 곧게 자라며 나무껍질은 적갈색 또는 흑갈색을 띤다. 금강소나무는 속살이 노랗고 윤기가 나며 결이 곱고 부드럽다. 또 목재가 굽거나 트지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



않아서 최상의 건축재로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심 가까운 부분의 속이 노란 (붉은) 나무’란 뜻의 ‘황장목’으로 지칭하고, 주로 왕실의 관을 짤 때 사용했다.

소광리 일대는 조선시대 때부터 왕실에 쓰일 금강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백성들의 출입을 금지했던 곳이다. 이곳에는 ‘황장봉산’ 경계를 알리는 표석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

산 능선을 따라 나이 150년이 넘는 금강소나무가 가슴높이 지름 38cm, 높이 23m, 임목축적 450m²/ha 상태를 이루며 우아하고 도도하게 자태를 드러낸다. 스스로 씨앗을 퍼트리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와 잎을 펼치면서 형성된 숲에는 이제 막 태어난 어린 나무부터 나이 500년이 넘는 나무까지 다양하게 자라고 있다.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은 1959년 육종보호림으로, 2001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받고 있다. 산림청은 금강소나무와 관련된 여러 정보와 역사, 자연환경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생태관리센터(울진국유림관리소)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에 7개 탐방로(79.4km)를 조성했는데, 숲길 가운데 일부



NAVI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십이령로 527(금강소나무숲길안내센터) ★ 527 Sibiryeong-ro, Geumgangsng-myeon, Uljin-gun, Gyeongsangbuk-do

는 과거 보부상들이 울진 앞바다에서 난 해산물과 소금을 내륙으로 나르던 옛길이다. 길의 역사성을 음미할 수 있고, 나아가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았으니 일석이조다. 소광리 숲은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Uljin Geomgang Korea red Pine Forest

81, Daegwangcheon-gil, Geumgangsng-myeon, Uljin-gun, Gyeongsangbuk-do

Uljin Geomgang Korea red Pine Forest is Korea's most representative traditional pine forest. Its ecological, academic, and historical value is highly valued. The excellent pine trees here are used for the restoration of palaces and cultural assets. It is also specially managed by the government as a forest genetic resource protection zone.

There are several forest trails here that were first created by the government. You can visit through a reservation in advance.



산림 육종 기술이 키워낸 금빛 소나무

100

함양 삼봉산 금강소나무숲



주요수종 금강소나무·낙엽송·주목 등 면적 20ha 조림연도 1963년

소유 국유림(산림청) 유형 보전 개방여부 개방

관리기관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35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64

산림청은 우량목재를 안정적으로 키우고 공급하기 위해 2005년부터 함양읍 죽림리의 삼봉산 1,500ha 숲을 삼봉산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나이 30년이 넘는 나무가 숲의 80%를 차지하며, 소나무·전나무·잣나무·낙엽송 등의 천연림(788ha)과 인공림(726ha)이 더불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삼봉산경제림육성단지는 경제림 육성과 더불어 산림 복지 서비스와 산촌 소득 증대 등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산림복합경영 모델 숲으로 개발 중이다. 산림청과 함양군은 도로변 국유림에 단풍나무 숲을 조성했으며, 경제수종 36종의 나무 전시 숲, 지리산유아



함양 삼봉산 금강소나무숲



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양삼·당귀·감초·곰취 등의 산약초 재배 단지(22ha)와 산양삼 종자 채집 단지(6ha)를 조성하고, 마을 주민에게 국유임산물(고로쇠)을 채취해서 상품으로 파는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삼봉산경제림육성단지 안에는 금강소나무숲이 고즈넉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 금강소나무숲은 우리나라 산림 육종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숲이다. 1963년에 임목육종연구소(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유전적 형질이 다른 금강소나무와 곰솔을 접목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곳에서 우람하게 성장하고 있는 금강소나무들이 바로 그 성과물이다. 금강소나무숲 면적은 2ha, 가슴높이 지름 24cm(최대 30cm 이상), 높



NAVI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삼봉로 216-263 ★ 216-263, Sambong-ro, Hamyang-eup, Hamyang-gun, Gyeongsangnam-do

이 16m, 임목재적 354m³/ha, 나이 50년으로 생장이 아주 우수하고 줄기가 굵고 곧다. 삼봉산 금강소나무숲으로 가는 지안재 고갯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될 만큼 수려하고 평온하다.

Sambongsan Geomgang Korea red Pine Forest

62, Sambong-ro, Hamyang-eup, Hamyang-gun, Gyeongsangnam-do

Hamyang Sambongsan Geomgang Korea red Pine Forest is a collection of Geomgang Korea red Pine trees fostered by the government policy. Jianjae Hill Road, which leads to Geomgang Korea red Pine Forest on Sambongsan Mountain, is so beautiful and peaceful that it was selected as one of Korea's 100 most beautiful roads. There are abundant tourist resources around the Geomgang Korea red Pine Forest on Sambongsan Mountain, and Jirisan Mountain is adjacent so climbing and trail trekking can be combined.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 www.forest.go.kr

비매품 / 무료